

서희와 21세기 협상의 리더쉽



- 일시 : 2009년 10월 9일(금) 오후 2시
- 장소 : 외교안보연구원 대강당
- 주최 : 이천시
- 주관 : 이천시서희선생선양사업추진위원회
- 후원 : 외교통상부

전국 대학(원)생 학술공모 우수작 발표대회

“서희와 21세기 협상의 리더쉽”



- 일시 : 2009년 10월 9일(금) 오후 2시
- 장소 : 외교안보연구원 대강당
- 주최 : 이천시
- 주관 : 이천시서희선생선양사업추진위원회
- 후원 : 외교통상부

전국 대학(원)생 학술공모 우수작 발표대회 대회 일정

■ 개회 및 축사(14 : 00 ~ 14 : 30)

사회 : 이상욱(이천시서희선생선양사업추진위원회 실무위원장)

대회시작

국민의례

내빈소개 및 경과보고 : 사회자(참석 내빈 소개)

기념사 : 조병돈(이천시장·이천시서희선생선양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격려사 : 이순천(외교안보연구원장)

축 사 : 이범관(국회의원)

축 사 : 이현호(이천시의회회장)

축 사 : 이재혁(경기도의회부의장)

■ 논문공모전 수상식

■ 논문 발표 및 질의 답변

사회 : 김인호(광운대학교 교수)

- 제1발표 테마파크 '熙 STORY' 기획안 (남보람 : 동덕여자대학교)

*토론 이호재 : 숭실대학교 대학원, 김재범 : 건국대학교 대학원

- 제2발표 서희(徐熙) 외교성과의 국제정치이론적 분석과 현대적 함의 고찰 :

Middle Power의 유연한 실리외교 (신동민 : 서울대학교 대학원)

*토론 조정원 : 고려대학교 대학원

■ 휴식시간(15분)

- 제3발표 서희 협상전략의 게임이론적 분석 : 두 가지 국면 (왕영민 : 고려대학교 대학원)

*토론 옥창준 :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제4발표 제1차 여요전쟁에 대한 게임이론적 고찰 (양재영 : 한국해양대학교)

*토론 서경수 : 서울대학교 대학원

■ 방청객 질의

■ 폐회사

기념사

“서희와 21세기 협상의 리더쉽”

반갑습니다.

먼저 거래의 위대한 스승이신 서희선생님에 대하여 남다른 존경심을 가지고 지난 6월부터 3개월간에 걸친 학술논문공모전에 함께 참여해주신 대학(원)생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우수작으로 선정되어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은 「서희와 21세기 협상의 리더쉽」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전국대학(원)생 학술공모전」 우수작 발표대회를 우리나라의 외교를 책임질 인재들을 양성하는 외교안보연구원에서 개최하게 되어 더욱더 뜻 깊고 외교통상부가 “우리외교를 빛낸 인물”로 서희선생님이 최초로 선정된 것을 기념이라도 하듯 때맞추어 동상을 제작설치하고 제막식을 갖게 되어 커다란 자부심도 느낍니다.

이모두가 역사에 길이 빛나는 훌륭한 지략가이자 우리나라 외교의 선구자로서, 나라의 인물임과 동시에 利川의 자랑스런 인물이신 선생님의 업적을 확산·보급하여 국가의 정신으로 계승·발전시키고자하는 이천시민들의 의지와 염원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천시는 매년 서희주간(10월 둘째 주)에 추모제, 전국 규모의 학술논문공모전, 전국 초, 중, 고등학생 백일장, 전국회화대회 등 대규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기회를 계기로 여러분들께서는 서희선생님에 대한 연구를 멈추지 마시고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0월 9일

이천시서희선생선양사업추진위원장
이 천 시 장

조 병 돈

격려사



안녕하십니까?

우선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이천시에서 실시한 「전국대학생 학술논문 공모전」과 「전국 초·중·고교생 백일장 공모전」에서 입선한 우수작에 대한 시상과 「서희와 21세기 협상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전국대학학술공모우수작 발표대회」가 외교통상부의 후원으로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성황리에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를 통하여 알고 있고, 특히 최근 「천추태후」라는 방송드라마에서 소개되어 더욱 많은 국민들이 친근감을 가지고 존경하고 있는 서희 선생은 우리 역사상 최고의 외교관이셨습니다. 마침 외교통상부에서도 서희 선생을 금년도 「우리 외교를 빛낸 인물」로 선정한 바 있어 오늘 서희 동상 제막식에 이은 학술발표대회는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공모전 우수작들은 이천시에서 외교안보연구원에 기증하여 주신 서희 동상과 함께 대한민국 외교관과 연구원 교육생들에게 역사를 뛰어 넘는 많은 가르침과 교훈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 기회를 빌려 이천시에서 서희선생의 역사적 가치를 재평가하기 위하여 10월 둘째 주를 「서희 주간」으로 설정하고, 학술 공모전 등 각종 선양사업을 전개해 오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그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한편 「전국 대학생 학술논문 공모전」과 「전국 초·중·고교생 백일장 공모전」입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천시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께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10. 9

외교안보연구원장 이 순 천

축 사



서희주간을 맞이하여, ‘전국 대학(원)생 학술논문공모대회’에서 선정된 우수작에 대한 총서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 깊고 귀한 총서 발간을 위해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애를 써주신 조병돈 이천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인고의 시간을 거쳐 좋은 결실을 맺으신 대학생과 대학원생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국가 간 크고 작은 영토 분쟁이 있으나, 협상을 통해 영토 문제가 해결된 예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전쟁이 아닌, 세치의 혀로 상대를 설득하여 영토를 수복한 서희 선생의 뛰어난 외교 전략은 수세기를 걸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명분과 실리’모두를 아우르는 외교의 ‘표본’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서희 선생의 활약이 간단한 역사의 편린으로만 알려져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할 문제이며, 그렇기에 그의 숭고한 정신과 자주실리 외교사상을 재조명하는 서희주간을 설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치루는 것은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수한 학술논문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엮는 일은 서희 선생을 단순히 추모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우리 외교를 빛낸 인물’을 기념하고 깊숙이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다시 한 번 총서 발간을 축하드리며, 한 해 한 해 거듭할수록 더욱 학문연구에 매진하시어 풍성하고 알찬 내용을 담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0월 9일

국회의원 이 범 관

축 사



조금 전 우리나라 외교정책연구의 산실인 이곳 외교안보연구원 앞마당에서 복천 서희선생의 흉상 제막식을 끝내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서희학술대회에서 뛰어난 연구실적으로 수상의 영예의 차지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외교연구의 상징 이곳 외교안보연구원에 우리 서희선생의 흉상이 제막될 수 있도록 소중한 공간을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 께도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복천 서희선생은 8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한 거란의 소손녕과 외교담판으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뛰어난 외교가이자 전쟁 영웅 이였습니다.

또한, 그는“임금에게 옳은 말 하는데 관직의 높낮이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의(義)에 강직했고 올곧은 품성을 간직한 그 시대 진정한 애국자였습니다.

단군 이래 지금까지 크고 작은 국난의 위기에서 우리 민족을 굳건히 지켜온 수많은 선열들이 있었지만, 천년전 복천 서희선생의 뛰어난 외교담판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중국의 하나의 자치구로 남아 있지는 않을까 하는 조금은 비약된 역사의 가정(假定)을 해봅니다.

이처럼 선생의 뛰어난 역사적 업적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선생의 발자취를 너무나 오래 동안 묻어놓고 있지 않았나 생각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천시에서는 이미 1965년에 서희동상을 시내 중심부에 세운바 있으며, 특히 몇 해 전부터는 선생의 선양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대학생 및 대학원생 여러분들처럼 우리나라 역사에서 선생이 차지하는 비중을 조명하고 현재와 미래에 선생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위안을 받습니다.

친애하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최근 중국은 만리장성의 경계가 압록강까지라고 선언하는 등 우리나라와 역사분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코자 총력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금언을 가슴깊이 새기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우리나라의 역사 외교가라는 큰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 참가에 멈추지 마시고 앞으로 더욱 더 우리 복천 서희선생 선양사업에 큰 관심과 열정을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영예의 수상자분들께 거듭 축하의 꽃을 건네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9. 10. 9

이천시의회 의장 이 현 호

축 사



고려 최고의 문신이자 외교관이신 서희 선생 추모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한경쟁의 국제질서 속에서 많은 도전과 시련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무대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국가간, 도시간 상호 상생을 모색하는 방안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국가의 외교력은 그 국가의 장래를 짐작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고려는 서희 선생의 외교력과 희생정신으로 국가 기강을 확립하고 거란과의 전쟁에서 평화적으로 적장을 물러가게 하였으며, 협상과정에서 뛰어난 역량으로 여진족을 몰아내고 강동6주를 회복하여 영토를 확장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선생의 업적이 길이 후대에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서희 선생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외교관이며 훌륭한 문화자원이기 때문에 이런 분께서 이천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은 후손들에게 영광스러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학술대회는 단순한 학술대회의 성격을 뛰어넘어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데는 훌륭한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이 학술대회가 날로 번성하여 대한민국의 제일 품격 있고 가치 있는 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희선생 학술대회는 그런 기반을 다지고 초석이 되는 대회로서 단순히 서희 선생의 업적을 추모하는 자리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올해만 해도 중요한 외교문제가 대두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미국과의 FTA 협상은 아직 결론이 없으며 앞으로도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핵 문제는 전혀 앞뒤를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만큼 외교력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희 선생 생존 시대보다 더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고 이 같은 사실은 앞으로도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희 선생 선양사업은 이천시의 지역적인 사업을 탈피해서 국가적은 사업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0월 9일

경기도의회 부의장 이 재 혁

“서희와 21세기 협상의 리더쉽”

- 제1발표 테마파크 ‘熙 STORY’ 기획안 (남보람 : 동덕여자대학교)
- 제2발표 서희(徐熙) 외교성과의 국제정치이론적 분석과 현대적 함의 고찰 :
Middle Power의 유연한 실리외교 (신동민 :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제3발표 서희 협상전략의 게임이론적 분석 : 두 가지 국면 (왕영민 : 고려대학교 대학원)
- 제4발표 제1차 여요전쟁에 대한 게임이론적 고찰 (양재영 : 한국해양대학교)

테마파크 '熙 STORY' 기획안

동덕여자대학교 남보람

<목 차>

- I. 테마파크 소개
 - 1. '熙 STORY'의 의미
 - 2. 서희 재조명의 필요성
 - 3. 서희 연표
- II. 테마파크 기획 의도 및 향후 효과
 - 1. 기획 의도
 - 2. 향후 효과
 - 3. 앞으로의 과제
- III. 프로그램 소개
 - 1. 서희관련 프로그램
 - 2.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 3. 연구 및 문화센터
- IV. '熙 STROY' 홍보방법
- V. '熙 STROY' 구획도

I. 테마파크 소개

1. '熙 STORY' 의 의미

'熙 STORY' 는 고려시대의 외교가인 서희(徐熙) 선생을 중심인물로 하여 고려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설정·재현하는 역사체험학습공원(테마파크)이다. 관람객들은 '熙 STORY' 의 각종 시설·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서희 선생에 대한 정보를 얻고 고려시대에 대한 직·간접적인 가상체험을 할 수 있다.

'熙 STORY' 의 명칭은 이름 그대로 '빛나는 이야기' 이다. 한자 '熙' 의 뜻에는 '빛나다' 는 보편적인 뜻 외에 '기쁘다, 즐기다' 라는 뜻이 있다. '熙 STORY' 는

테마파크를 찾는 관람객이 빛나는 우리의 역사를 기쁘게 즐기고 갈 수 있다는 뜻이 있다.

그리고 '熙 STORY'에는 서희 선생의 이야기를 보여 주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서희 선생의 생가를 비롯해 테마파크 곳곳에 서희 선생에 관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꾸며 관람객에게 보다 쉽고 재밌게 서희 선생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熙 STORY'는 발음상 영어의 'History'와 동음이다. 테마파크 '熙 STORY'는 단순히 서희 선생에 관한 곳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고려시대의 문화와 생활을 보여 주어 역사의 참교육을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고려의 찬란한 문화와 흥미로운 생활상을 관람객이 직접 체험하여 느낄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고려와 서희 선생에 관한 연구와 연구 인력의 양성 등의 역사 학술 사업에도 중점을 둘 것이다.

2. 서희 재조명의 필요성

서희 선생의 가문인 이천서씨(利川徐氏)는 이천을 대표하는 토성(土姓)이다. 고려시대 이천서씨 가문은 주로 관료적 행정기능과 국방·외교적인 면에서 활약이 두드러졌다. 그 중에서 고려 초기의 문신이자 뛰어난 외교관인 서희선생이 가장 유명한 인물이다.¹⁾

서희 선생의 가문은 이천을 대표하는 토성이 된 배경은 태조가 후백제를 정벌하기 위해 북하천(福河川)에 이르렀을 때 서희의 당숙인 서목(徐穆)으로 인해 무사히 건널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태조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주역(周易)』의 '이섭대천(利涉大川)'이라는 글귀에서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인 '이'와 '천'을 따와 이천이라는 명칭을 하사하였으며, 이 명칭은 아직까지도 사용되고 있다.²⁾

서희 선생이 태어난 시기는 고려 왕권이 아직 자리 잡히기 전으로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지 불과 6년 뒤인 942년 이었다. 당시는 태조의 훈요십조(訓要十條)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 북방정책과 거란의 종속에 대해 경계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중요시 하는 시기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서희의 무의식속에 자리 잡았으며, 이후 서희와 소손녕(蕭遜寧)과의 협상과정에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서희 선생이 과거에 급제했을 때는 고려가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확립해나

1) 이천시지편찬위원회, 《利川市誌 1 - 자연과 역사》, 2001, p. 45, 139

이천시지편찬위원회, 《利川市誌 2 - 인물과 문화유산》, 2001, p.491

2) 《高麗史》제56권 지 제10 지리 1 광주목 ... 이천군(利川郡)은 원래 고구려의 남천현(南川縣) [남매(南賈)라고도 한다.]인데 신라가 이를 병합하였으며 진흥왕은 주(州)로 승격시켜 군주(軍主)를 두었고 경덕왕은 황무(黃武)라고 고쳐서 한주(漢州)의 관할 하에 현으로 만들었다. 고려 태조가 남쪽을 정벌할 때 이 군 사람인 서목(徐穆)이 태조의 부대를 인도하여 장을 건너기에 편리하게 하였으므로 이천군이라는 명칭을 주고 그대로 본 목에 소속시켰다. ...

가는 개혁적이고 자주적인 모습을 띠고 있었다. 특히 이 시기는 대외적으로도 상당한 격변기여서 동북아시아 정세에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었다. 이런 국외정세 또한 서희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³⁾

이처럼 서희 선생은 북진정책과 자주정책의 정치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대내적 개혁정책과 더불어 동북아의 복잡한 국제정세의 움직임을 알고 있는 인물로서 거란의 침입 때 소손녕과의 협상에서 무력이 아닌, 그의 뛰어난 화술과 지략으로 거란의 대군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북진정책에 중요한 교두보인 강동6주를 회복할 수 있었다.⁴⁾

고려의 영토 확장은 북진정책의 부분적 성공임과 동시에 고려 발전에 기반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덕종·문종부터 시작된 고려의 태평성대의 기반에는 어느 왕조보다 외침이 잦았던 고려가 군사적 손실 없이 영토를 넓힌 것이 포함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안정 속에서 고려의 문화도 찬란하게 빛날 수 있었던 것이다. 테마파크 '흑 STORY'의 배경은 바로 이 시기의 문화적 모습이다. 무신정권과 몽골과의 전쟁, 원(元)의 간섭으로 인해 변화된 고려가 아닌, 고려 초기 고려 고유의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모습이 주가 된다.

아름다운 문화를 가졌지만 대중들에게 소외받는 고려의 문화를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는 남너노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였다. 그리고 강동6주를 회복한 과정과 그 의미는 잘 알려지지 않은 채 '뛰어난 외교관' 이라고만 수식되는 서희 선생이 고려의 문화가 성립되는데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고자 테마파크의 중심인물로 삼았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인한 도발로 우리의 북방지역인 고구려·발해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에 따라 고구려 계승의식을 밝히고 발해 유민(流民)을 통합한 국가인 고려를 조명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동북공정에 반대하여 고토(古土)회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때에 고려가 추진했던 북진정책과, 그것을 반영하여 강동6주(江東六州)를 획득한 서희 선생을 재조명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3) 김기홍, 《서희, 협상을 말하다.》, 새로운 제안, 2004, p.97-98

4) 김기홍, 위의 책, 새로운 제안, 2004, p.103

3. 서희 연표

나 이	시 기	내 용
1세	942년(태조 25)	서희(徐熙) 출생. 본래 이름은 엄윤(廉允).
18세	959년(광종 10)	두 번째 시행된 과거시험에서 갑과(甲科) 급제.
19세	960년(광종 11)	송(宋) 건국.
32세	972년(광종 23)	내의시랑(內議侍郎)으로 송나라 사신. 송 태조로부터 검교병부상서 직을 받음.
39세	981년(경종 6)	송나라, 반거란동맹 체결 요청.
42세	983년(성종 2)	좌승(佐丞)에서 병관어사(兵官御事)로 승진. 성종 서경 행차 때 인근 영명사(永明寺)로 놀러 가려는 것을 글을 올려 막음.
44세	985년(성종 4)	5월 송이 사신을 보내 거란 협공 제의. 7월 거란이 고려 공격위해 준비준비.
45세	986년(성종 5)	1월 거란이 화친을 제의.
52세	993년(성종 12)	10월 거란의 1차 내침. 서희를 중군사(中軍使)로 임명, 시중 박양유(朴良柔)를 상군사(上軍使), 문하시랑 최량(崔亮)을 하군사로 각각 임명. 소손녕과 담판, 거란군 회군.
53세	994년(성종 13)	평장사(平章事)에 오름. 서희 여진 축출. 장흥진(長興鎭)·귀화진(歸化鎭)·곽주(郭州)·구주(龜州) 축성 감독.
54세	995년(성종 14)	안의진(安義鎭)·흥화진(興化鎭) 축성 감독.
55세	996년(성종 15)	선주(宣州)·맹주(孟州) 축성 감독. 병으로 개국사에서 요양함. 이때 성종이 직접 찾아와 문병하고 어의 한 벌과 말 세 필을 주고 개국사에는 1천 석의 곡식을 시주함.
56세	997년(성종 16)	치사할 나이가 되지 않은 서희이지만 치사록(致仕錄)을 주라고 명함.
57세	998년(목종 1)	태보내사령(太保內史令) 서희 죽음. 목종이 애도하면서 배 1천 필과 보리 3백석, 쌀 5백석, 뇌원차 2백자, 대차 10근, 전향 3백냥을 부의로 주고 예를 갖추 장례를 지내게 함. 장위(章威)의 시호를 내림.
	1027년(현종 18)	성종 묘정(廟廷) 배향.
	1033년(덕종 2)	태사(太師) 추증(追贈).
	1564년(명종 19)	서희를 이천 설봉서원에 제향.
	2007년	설봉서원 중창, 서희를 서원의 상현사에 제향

II. 테마파크 기획 의도 및 향후 효과

1. 기획 의도

고려시대 역사체험학습공원 '熙 STORY' 는 우리 역사 중 일반적으로 타 시대에 비하여 관심의 비중이 적은 '고려시대에 대한 올바른 교육' 을 위하여 기획되었다.

테마파크는 대도시와의 접근이 용이하여 관람객 유치에 가능하면서도 고려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는 하기 때문에 고려와 관련이 깊은 곳을 택하였다. 따라서 청자의 생산지이자, 고려의 뛰어난 외교관이었던 서희 선생의 고향인 이천시로 정하였다. 이천시에 세워질 테마파크 '熙 STORY' 는 국내에 체험하기 어려웠던 고려시대를 체험함과 동시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지만 아직까지 연구가 미미한 서희 선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의 역사 접근방식의 형식인 전시 및 관찰에서 나아가, 현대적이고 창의적으로 새롭게 재구성 하여 그 속에서 관람객이 서희 선생과 고려라는 역사적 소재를 스스로 찾아 쉽고 깊이 있게 체험 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고려시대를 재현해놓은 종합위락시설인 테마파크 형식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위락시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려시대와 서희 선생의 연구를 위한 기관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서희 선생 및 고려에 대한 연구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테마파크내의 공연시설 등을 통해 외부 관람객뿐만 아니라 이천 시민들에게도 폭넓은 문화시설과 주민밀착형 프로그램을 통해 이천시의 새로운 문화의 요람이 될 것이다.

2. 향후 효과

'熙 STORY' 를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문화적·환경적 향후 효과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경제적 효과	• 테마파크 내의 인력 필요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 활성화 • 테마파크와의 접근성으로 인한 교통의 발달로 인한 해당 지역의 활성화 • 테마파크 내의 관광기념 상품 창출로 인한 산업의 활성화
문화적 효과	• 인근 지역민들의 문화행사 참여도 증가 • 테마파크의 문화 파급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민들의 문화 수준 향상 • 글로만 배우는 역사가 아닌 체험을 하는 역사로써 대중들에게 친근함을 줄 수 있음

	역사 대중화와 역사 체험의 장으로써 다른 체험관의 선례가 될 수 있음
환경적 효과	- 다양한 시설물을 건축하게 됨으로써 주변 환경과 주변 경관의 개선 - 테마파크 건립을 위해 수행하는 지질조사와 환경조사로 인한 지역 하부구조 개선

3. 앞으로의 과제

- 가. 이천시 일대에 테마파크를 조성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지질·환경조사를 한다.
- 나. 선정한 장소에 살고 있거나 생활터전으로 삼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여 보상금과 생활 대책을 정한다.
- 다. 오랜 기간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조성하여야 하는 테마파크를 지원할 민자 사업체를 유지한다.
- 라. 관련 학술 연구자,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이천시, 민자 사업체, 지역 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熙 STORY 준비 위원회' 발족 한다.

III. 프로그램 세부계획

1. 서희 관련 프로그램

가. 상설 프로그램

	내 용
생가 재현	- 서희 선생 생가를 복원하여 관람객들에게 고려시대 일반적인 귀족의 집을 제공하여 자유롭게 관람 할 수 있도록 하고, 서희 선생에 관련된 지식을 제공. - 테마파크 곳곳에 음성 녹음이 된 마네킹을 설치하여 서희 선생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관람객에게 제공. 관람객은 입장권 뒤의 서희 선생 관련 문제의 답을 적어 서희 생가에 도착하여 제시하고, 답을 모두 적은 관람객에게 기념품을 증.
스토리 텔링	서희 선생 생가는 서희 선생의 삶을 테마로 하여 에듀테인먼트(Eduainment) 요소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어린이 및 청소년을 중심으로 서희 선생의 일생의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유도, 서희 선생의 위인(偉人)적 요소와 고려의 역사적 요소를 흥미로우면서 쉽게 배울 수 있는 콘텐츠 공간으로 설정.

- 도입부분 공간(마루 및 앞마당 조성) = 서희 선생의 탄생 및 죽음의 일생을 동작형 디오라마로 재구성하여 전체적 조감도 설명 및 체험

서희의 탄생	서신일과 이천 효양산, 사슴이야기
관료 시절	과거급제 장면, 왕과의 일화, 송나라 사행장면
여요 전쟁 및 죽음	소손녕의 여요전쟁 준비 장면→소손녕과 담판 회담 장면→강동 육주의 획득 장면→서희 선생의 죽음→이천 실패서원 배향장면.

서
회
의
삶

표 5 <디오라마 세부내용>

그림 1 <서희 선생 생애 및 사건 동작형 디오라마 모형도>

① 서희 선생의 탄생→	② 관료 시절→	③ 여요전쟁 및 담판→	④ 죽음
--------------	----------	--------------	------

탄
생
관

그림 2 <탄생관 터치스크린 모형도>

서희 선생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줌.

- 서희 선생과 관련된 탄생 배경을 스스로 만들으로써 서희 선생과 관람객 사이의 연관성을 제시할 수 있음.
- 서신일 관련 효양산과 사슴이야기를 스스로 만들어 나감으로써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형식. 관람객의 동선에 소형 터치스크린을 설치하여 그 속에서 사슴, 서신일, 효양산, 사냥꾼 등을 배열하여 이야기를 완성시킨 후 완성된 이야기를 대형스크린을 통해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이후 유년시절의 서희 선생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줌.

관
료
관

그림 3 <과거급제 장면 체험 모형도>

- 총 3가지의 문제를 제시하여 아둥이었던 서희 선생을 성인으로 성장시킴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서희 선생이라는 인물의 성장 배경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함. 성장의 변화는 서희 선생 캐릭터 및 서희 선생의 신체적 성장 및 의복의 변화를 통해 시각화 하여 체험자들에게 성취감을 갖게 할 수 있음. (체험 유형=과거급제, 왕과의 일화, 송나라 사행)
- ① 서희 선생의 과거급제 장면을 문제형식으로 재현하여 관람객이 체험함으로써 고려시대의 과거제도를 접할 수 있음. 문제의 내용은 탄생관에서 학습한 내용을 기억 및 정리하는 형식과 서희 선생과 관련된 쉬운 역사관련 문제를 통해 어린이가 서희 선생관련 지식을 스스로 습득할 수 있게 함.
- ② 서희 선생과 관련된 왕의 일화를 서희 선생캐릭터의 도움 아래 이야기를 완성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짐. 체험자들은 서희 선생과 왕의 일화를 짧은 애니메이션 영상을 본 뒤 화면 및 음성 지시문을 선택하여 역사적 사실을 완성시켜 나감.

	③ 송나라 사행 일정을 체험자가 스스로 정함으로써 앞에서의 체험 형식과 동일하게 화면상의 선택지와 음성을 통해 참여자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게임 내에서 고려 시대의 송과의 외교관계 및 서희 선생의 대외의식을 경험할 수 있음.
여.요전쟁관	• 복원공간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직접적 경험을 통해 서희 선생이 이루어 냈던 협상의 정신을 배울 수 있으며, 이전 체험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결고리를 형성하여 체험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서희 선생의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답판화장을 복원하여 그 안에서의 활동으로 소손녕의 마네킹과 총 6개의 문제를 제시한 선택지 화면을 통해 이전 체험관에서의 복습, 역사관련 문제를 통하여 체험자 스스로 강릉6주를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이후 획득한 강릉6주의 지도의 촬영, 메모입력, 일부 도색 등을 통해 자신이 획득한 강릉6주를 소유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형식으로 구성됨. 이후 강릉6주 지도는 출력(부분 유료화 컬러/흑백) 및 메일전송 등을 통해 체험관 이후에서 서희 선생 및 체험관을 기억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음.
기억관	• 서희 생가의 마지막 체험관으로써 서희 선생의 죽음 및 배향장소인 설봉서원을 복원함으로써 그 곳에서의 체험을 통해 체험자 스스로 서희 선생에 대한 긍정적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① 서희 선생에 죽음에 대한 짧은 영상을 본 뒤 이동하여 설봉서원에서 참배활동을 하게 된다. 체험자는 이를 통해 서희 선생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으며, 유교식 제례를 경험하며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다. 설봉서원을 고려 후기의 서원 양식으로 복원하며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경건하게 진행함. ② 이전의 동적인 활동을 마무리 하고 설 수 있는 휴식공간을 소규모 영상실 만들어 활용. 휴식 시 애니메이션 영상물(8-10분 소요)시청을 통해 지금까지의 정보를 압축, 정리, 기억하는 장소로 설정 하여 체험자들의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만들.

나. 기획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내 용
서희 제향행사	• 일 년에 한번 서희 제향행사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전통적인 제례를 보여줌. • 일 년에 한번 서희 선생을 기림으로써 서희 선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제사음식을 거의 구매하여 제사지내거나, 제사를 지내지 않아 제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이나 현대인들에게 제사음식을 만들어 보고, 제사의 절차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향행사에 쓰이는 제사음식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프로그램을 제공.
서희 문화제	• 이천시 내의 초·중·고등학교와 연계하여 문화제를 시행한다. 서희 선생과 관련한 백일장이나 사생대회, 시예대회, 국악 연주 대회 등을 열어 이천시민의 관심과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 • 문화제를 개최함으로써 테마파크의 홍보 효과가 누릴 수도 있음 • 서희 문화제가 발전하고 이천시를 대표하는 축제가 되어 많은 문화 공연과, 수준 높은 작품이 출품될 경우 또 다른 관광자원으로의 개발이 가능.
모의 협상대회	• 서희 선생의 협상의 정신을 본받아 모의 협상대회를 개최하여 국내의 뛰어난 인재를 발굴하고 전문 협상가로 나아갈 수 있는 장을 마련. • 협상대회를 통해 대학생 및 일반인의 참여를 유도하여 서희 선생이 추구한 협상의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하계 방학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 • 모의 협상의 내용으로는 국제적, 국내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과 이천시 시정 정책을 다룸, 학생들에게 교육적 효과를 주고, 학생들의 참신하고 실용적인 생각을 이천시 시정에 반영 할 수 있음.

2.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서희 선생이 살았던 고려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마을을 만들어 관람객들이 우리의 전통문화를 체험 할 수 있도록 한다.

프로그램명	내용
읍내 장터	마을의 외곽에 고려시대 장터를 설치하여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주점(酒店) : 상인이 주로 마셨던 전통주부터, 서희 선생의 생몰 간에는 없었으나 고려 후기에 유입된 소주를 관광 상품으로 판매. • 다점(茶店) : 고려 때 발달했던 차 문화를 반영하여 다점을 설치하고, 그에 어울리는 고려 과자와 떡을 판매한다. 다점에서는 청자다기를 사용하여 관람객들이 고려의 향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함. • 옷장신구 판매 : 고려시대의 복식을 평소 생활 복으로 입을 수 있도록 개량하여 판매한다. 전통문양을 이용한 장신구와 고려를 상징하는 청자를 이용

	한 장신구를 개발하여 판매. - 음식점 : 고려시대 주막을 재현하여 관람객이 식사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함. - 기념품점 : 테마파크와 관련된 다양한 팬시용품과 기념품을 판매하고, 나아가서 이천시의 특산품을 판매. 그 외에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한 편의점, 약국 등을 설치.
불교문화	테마파크 내에 불교 사찰을 지어 관람객들에게 체험을 통하여 불교를 알 수 있도록 함. - 불교 갤러리 : 불교를 더욱 잘 이해 할 수 있는 불화불상 등을 전시하고 관람객들에게 상식적인 불교 지식을 강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 불상 조립·수인 맞추기 게임 : 어린이들이 친근하게 불교문화에 다가갈 수 있도록 불상의 광배·불산·대좌 등을 직접 조립 할 수 있는 체험장을 마련하고, 터치패드를 설치하여 불상과 불상의 수인에 대해 게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
목판·금속 활자 인쇄 체험	- 고려의 인쇄기술이 발달했다는 것을 관람객에게 알려주기 위해 인쇄기술에 관련된 작은 전시관을 만들고, 인쇄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 - 금속 활자는 관람객이 직접 활자를 선택하여 조판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글씨를 찍어 낼 수 있음. 또한 외국인들을 위해 활자에 알파벳을 추가하여 영문도 조판이 가능하게 조성.
청자체험	- 테마파크 내의 소규모의 도요지를 마련하고 자신이 원하는 도자기를 디자인 하여 만들 수 있도록 함. - 관람객이 만든 도자기는 전문가들이 직접 구워서 시일 내로 배송.
향교	고려의 지방 교육 기관인 향교를 설치하여 평소에도 일반인들의 한자한문 교실을 열고 학생들의 방학 기간에는 예절교실을 겸하도록 하여 실제 교육 공간으로 활용.
고려시대 복장 체험	테마파크의 초입에 고려시대의 복장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을 두어 관람객이 다양한 계급의 옷을 입어 볼 수 있도록 함. - 지정된 장소에서 옷을 입고 기념 촬영. - 테마파크 내에서 장기 대여 하여 관람객이 선택한 옷을 입고 테마파크를 관람.
고려시대 민가 재현	- 고려시대 민가를 재현하여 고려시대 상민의 생활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함. - 민가의 앞마당이나 공터에 널뛰기, 그네, 자치기 등의 민속놀이를 체험 할 수 있도록 마련하여 관람객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우리의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함.
이천 쌀 재배지	- 이천을 대표하는 이천 쌀을 재배하는 곳을 마련하고,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 관람객들에게 전통적인 농사방법과, 농사기구 등을 보여 줌. -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경작지를 따로 두어 농번기에 방문한 관람객들이 직접 농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임. 그리고 농사기구, 농사방법 등의 교육이외에도 농사를 지으며 부르는 농요와, 농사를 짓기 위한 마을단체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음. - 생산된 농작물은 테마파크 내의 식당이나 주점, 제향행사에 이용.

3. 연구 및 문화센터

프로그램명	내 용
극장	- 고려시대와 서희 선생에 관련한 영상물, 연극, 뮤지컬 등을 공연하여 관련 정보를 관람객에게 제공. - 기간을 정하여 고려시대나 서희 선생에 관한 공연이 아닌 문화 공연을 기획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줌. - 테마파크의 홍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
서희 연구센터, 시립도서관 건립	- 서희 선생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센터를 테마파크 인근에 설립하여 지원. - 이천 시립도서관을 건립하여 주민들이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서관 내에 정치외교 특화 도서관을 두어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계속해서 외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

IV. '熙 STORY' 홍보방법

블로거 초대 체험	인터넷 블로거를 테마파크 개장 초반에 초대하여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체험 후 자신의 블로그에 체험 수기를 포스팅 하도록 한다. 포털 사이트와 연계하여 블로거들의 포스팅 중 기발한 것을 포털 사이트의 메인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 홍보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홍보도우미 선발	테마파크 내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홍보 도우미를 선발하고 활동하게 한다. - 한 달에 한 번 정도 테마파크를 직접 방문하여 개선방안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모니터 요원 - 외국어 특기자를 선발하여 외국인 관람객을 위한 안내 역할을 하는 외국 관람객 도우미
방송 촬영 장소 제공	고려시대 드라마, 영화에 촬영 장소를 제공하여 테마파크를 알릴과 동시에 촬영지로서 또 다른 관광 장소로 개발 될 가능성이 있다. (예: MBC 무한도전의 정주특집·궁 특집)
공연 팀과 연계	연극단이나 공연단과 계약을 맺어 일정 기간 동안 공연을 하도록 한다. 특히 점차 입지가 좁아지는 전통소리나, 동춘 서커스단 등과 계약을 맺어 그들로 하여금 공연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해 준다. 연극 관람객의 경우 무료로 테마파크를 입장 할 수 있게 하여 연극관람과 동시에 고려가를 체험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신문과 방송, 인터넷 홍보	홍보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으로 신문과 방송 홍보를 이용한다. 특히 신문을 통한 지면광고나 인터넷 광고에는 할인 쿠폰이나 은 함께 첨부하여 개장 초반 홍보에 이용한다.

V. '熙 STORY' 기획도

① 입구 및 매표소	⑩ 공원·휴식공간
② 극장	⑪ 향교
③ 고려시대 복장 체험관	⑫ 사찰
④ 이천 쌀 재배지	⑬ 서화 생가
⑤ 청자 만들기 체험관	⑭ 시장
⑥ 영상실	⑮ 연구단지·서립도서관
⑦ 고려시대 민가 재현·민속놀이 체험	⑯ 주차장
⑧ 복판·금속활자 체험	



서희(徐熙) 외교성과의 국제정치이론적 분석과 현대적 함의 고찰 : Middle Power의 유연한 실리외교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대학원 신동민⁵⁾

<목 차>

I. 서론

II. 서희 외교성과의 평가 및 이론적 검토 : A. Wendt의 구성주의논의

1. 서희 외교성과의 평가
2. 서희 외교성과의 이론적 분석틀 : 웬트(A. Wendt)의 논의를 중심으로
3. 서희 외교성과의 이론적 분석
 - 가. 물질주의적 측면
 - 1) 구조 변수 : 10세기 동북아시아의 힘의 배분
 - 2) 행위자 변수 : 중견국가(middle power)로서의 고려
 - 나. 관념적 측면
 - 1) 고려외교의 유연성 : 송과 거란
 - 2) 고려외교의 자주성 : 고구려 계승의식

III. 서희 외교성과의 현대적 함의

1. 21세기 한국외교의 목표
2. 서희 외교성과의 재현 : 중국의 부상과 중견국가 한국
3. 서희 외교성과의 함의 : 관념적 요소의 전략적 활용

I. 서론

고려전기 문신 장위공(章威公) 서희(942-998)는 우리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외교관 중 한 명으로, 더 나아가 그의 대거란 외교는 우리 역사에서 성공적 외교사례의 대명사로 평가받고 있다. 거란이라는 당시 동북아시아의 강대한 적의 침공을 적장

5)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석사과정.

소손녕과의 담판을 통해 싸우지 않고도 물리치고, 더 나아가 협상만으로 강동 6주라는 북방 영토 획득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런 서희의 활약은 상대적 약소국이 상대적 강대국의 공세를 외교 전략과 협상 기술로 꺾었다는 점에서 당면한 북핵 문제를 안고 있으며 미, 중, 일, 러 등 주변 강대국에 비해 국력측면에서 상대적 열세에 놓인 오늘날 중진국가(middle power) 한국에게도 상당한 외교적 영감을 제공한다. 현명한 외교를 펼친다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동북아에서의 현상변경 등 한국의 국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서희의 거란 1차침공 당시 대 소손녕 외교를 그의 '세치허'로 대표되는 언술이나 위인전류의 개인 능력만을 부각하여 평가하는 것은 오히려 서희의 외교전략을 평가절하하는 것이 된다. 서희의 외교적 성과는 냉철한 당시의 국제정세 인식과 중진국가로서의 고려 능력의 전략적 활용, 그리고 동아시아에서의 고려의 명성 등을 그의 뛰어난 협상술로 잘 버무리 도출된 서희 외교전략의 승리였기 때문이다. 또한 서희의 외교성과 성취의 원인을 마치 중국의 소설 삼국지연의 중 적벽대전기 손권의 오나라를 격동시킨 제갈량의 활약과 같이, 서희의 개인 능력만을 부각하고 신화화하여 분석하는 것은, 서희와 같이 역사적으로 평가받는 특출한 인물이 배출되지 않는 이상, 21세기 한국의 국제정치적 과제를 달성할 수 없다는 패배주의로 연결될 수 있다는 한계를 안는다. 또한 변동성이 많은 소위 "개인" 변수로만 한 국제정치, 외교의 사례를 검토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비과학적일 수 밖에 없다는 분석 차원의 문제를 내포한다.⁶⁾

한편 서희 외교성과 사례 연구와 관련한 기존연구로서 사학계에서는 1984년 1월 『국난 극복의 슬기, 서희』라는 최초의 서희 전기집을 시작으로, 1999년 "서희 서거 1000주기 추모학술대회"에서 서희의 가계연구, 서희와 고려의 고구려 계승의식, 서희의 북방정책, 서희 담판 당시 여-요 양국의 전황과 군사력 비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서희의 외교성과를 검토한 9편의 논문과 토론문을 모은 『서희와 고려의 고구려 계승의식』이라는 논문집이 발표되기도 하였다.⁷⁾ 또한 대중서로서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김기홍 교수가 『서희, 협상을 말하다』를, 장철균 현 주 스위스 대사가 『서희의 외교담판 : 고구려 영토수복 어떻게 가능했나』를 각각 2004년 출간하였다. 한편 2008년 11월에는 여주군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세종국가경영연구소 주최, "서희의 재발견과 21세기 한국외교"라는 주제로 서희관련 학술대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는데, 동 학술회의에서는 "고려전기 호족과 서희의 가계", "고려-거란 전쟁 기 고려의 영

6) 국제정치학에서 비록 신현실주의(neo-realism)의 방법론인 체제 수준에서의 국제정치해석도 그 분석의 적절성에 있어 구성주의, 고전적 현실주의자들의 논리에 의거할 때 많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지만, 국제정치학을 사회과학의 반열에 올리놓았다고 평가받는 대표적 신현실주의자인 K. Waltz는 소위 개인, 국가 차원에만 국한하여 개체로서 전체를 파악하는 방식을 환원주의(reductionism)로 규정하며 이와같은 방식의 국제정치현상 분석의 비과학적 속성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관련 내용은,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Random House, 1979), 참조.

7) 이하 서희 협상사례와 관련된 기존 연구 검토는 이인수, "서희 업적 선양의 역사와 미래", 『명분과 실리 서희 외교론』, (서울: 이천시 서희선생선양사업추진위원회, 2008) 참조.

토의식”, “서희 외교의 국내외적 영향”, “서희의 협상 리더십” 등의 주제발표를 통해 서희 외교 사례에 대한 보다 폭넓은 접근이 시도되었다.

이와 같이 서희의 대거란 협상에 대한 연구결과는 인문과학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축적되고는 있으나, 이를 사회과학, 특히 국제정치학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 서희 사례에 대해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거나 그 내용을 변수화하여 인과관계 규명을 시도하는 등,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해 동 사례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⁸⁾ 바로 이 지점에서 서희의 외교적 성과를 보다 이론적 차원에서 고찰해볼 필요성이 짝튼다. 당시 거란의 강화, 송나라의 중국 남부 통일이라는 급박한 국제정세 속에서의 서희의 적절한 대응은, 오늘날 세계 15대 경제대국이며 10대 군사강국인, 중진 한국에 단순히 강대국 외교에 수동적으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닌, 조용하면서도 적극적인 외교 실현을 위해 동 사례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을 제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II. 서희 외교성과의 평가 및 이론적 검토 : 웬트(A. Wendt)의 구성주의논의

1. 서희 외교성과의 평가

서기 993년 8월, 거란의 성종(聖宗)은 대 고려 정벌을 개시한다. 동경(요양) 유수 소손녕이 이끄는 80만이라고 알려진 대군⁹⁾은, 10월 압록강을 도강, 한 두 차례고려와의 교전에서 승리해 서경 인근 봉산군까지 진출한다. 이후 이몽전 등이 소손녕과의 협상에 나섰으나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고려 조정에서는 서경 이북의 땅을 떼어 거란에게 주고 황주로부터 파령에 이르는 선을 고려와 거란의 국경선으로 하자는 “할지론”과 왕이 개경에 돌아가서 모든 중신들과 군사를 거느리고 거란 군영에 가서 항복하자는 “투항론”이 고개를 들게 된다.

이 때 서희는 적장 소손녕이 봉산, 청천강 이남으로 패속 진격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 전투를 벌이지 않고 항복하라고 거듭 독촉하고 있는 점은, 거란이 전면전을 통해 고려를 점령하기 보다는 다른 제한적인 전쟁의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8) 서울대 외교학과 1996-2006년 석사학위 논문 중 한국 외교사를 다룬 논문의 주제는 “이승만과 1950년대 후반기의 한일회담”, “1920년대 지식인의 국제정치인식에 관한 연구”, “식민지적 자본가의 형성 : 1930년대 조선총독부와 조선인 자본가집단”, “단체 신체호의 아나키즘의 정치 사상사적 의미: 식민지 조선의 민족주의와 민중 개념의 형성”, “19세기말 한국 화폐제도개혁의 국제정치”, “한국의 영웅론 수용과 전개”, “단발령 연구” 등으로, 주로 구한말과 일제시대에 집중되어 있다. 즉 서희를 포함, 고려시대의 사례를 국제정치이론의 시각에서 분석한 논문은 한편도 배출되지 않은 것이다.

9) 임용한은 거란 성종이 직접 친정했던 제 2차 여-요전쟁에서의 거란군의 규모도 40만정도였으며, 『요사』 등의 문헌을 참고할 때, 당시 제 1차 여-요전쟁에 참가한 나선 거란 병력이 80만이었다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임용한, “서희의 현실외교론과 1차 여-요전쟁”, 『명분과 실리 서희 외교론』, (서울: 이천시 서희선생선양사업추진위원회, 2008), pp. 129-130.

판단하여 고려 국왕 성종에게 “선향전, 후협상” 개혁을 제시한다.¹⁰⁾ 그리고 고려 중신 장영과 거란 소손녕의 제 2차 협상을 거쳐, 서희가 제 3차 여-요 협상의 대표로 참석, 답판을 통해 소위 “서-소 협정”을 이끌어 낸다.¹¹⁾ 협정의 내용은 크게 고려가 거란에 조근(朝貢)과 정삭(正朔)을 한다는, 사실상 고려의 거란에 대한 사대 및 송과의 외교단절 의무와 거란은 압록강 서편에 5성을 쌓고, 고려는 압록강 동편에 있는 여진의 옛 땅 280리에 성을 쌓아 이 지역을 고려가 영유한다는, 소위 강동 6주에의 고려 귀속을 담고 있다.¹²⁾

상기 서희의 외교적 활약과 “서-소 협정”의 국내외 정치적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아시아 차원에서 동 협정은 거란, 송, 고려, 여진 부족 등 동 지역내 국가들의 공존 논리에의 한 축을 제공하였다. 장철균은 1004년 거란-송간의 체결된 “천연의 맹(盟)”과 함께 “서-소” 협정이 1125년까지 거란이 급에 의해 멸망하는 120여년 동안 동아시아 지역 질서 유지의 양대 축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하고 있다.¹³⁾ 이는 서희와 소손녕의 답판이 기존 송과 고려의 관계를 대체하여 거란과 고려와의 사대 관계 형성을 통해 거란-송-고려의 새로운 병존 방식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서-소 협정”은 거란과 고려의 양자관계에 있어서도 926년 발해 멸망 후 사실상 힘의 공백지대로 남아 거란의 남하와 고려의 북진정책의 실질적, 압록적 충돌 지점이 되었던 압록강 하구에서의 고려와 거란의 접경 방식을 규정¹⁴⁾했다는 점에서, 소위 팽창하는 주체간 모호한 세력권 설정에 따른 충돌 가능성을 줄였다는 의의를 지닌다.¹⁵⁾ 장철균은 특히 10세기 중-후반 압록강 하구지역의 국제정치적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이는 압록강 수로가 발해유민이 건설한 정안국과 서여진이 송과 통교하는 주요거점이었기 때문이다. 즉 거란은 송-정안국-여진-고려간 통행을 통해 있을 수 있는 반거란 연합전선의 형성¹⁶⁾을 막기 위해서도 압록강 하구 지역을 획득하고 이 지역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서희는 거란과 고려 사이에 흩어진 부족 형태로 위치해 때로는 송을 끌어들이는 등, 양국간 분쟁의 씨앗¹⁷⁾이 될 수 있는 여진족에 대한 통치 방식에 대한 양

10) 김기홍, 『서희, 협상을 말하다』, (서울: 새로운 제안, 2004), pp. 31-33.

11) 직업 외교관인 장철균은 『고려사』를 참고할 때, 서희와 소손녕의 합의 내용이 별도의 문서나 협정으로 작성되어 문헌으로 내려오는 것은 없지만, 소손녕이 철군 후, 회담 결과를 정리해 서희에게 보낸 서한이 거란 성종의 제가를 받아 거란의 국서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고려측의 반대나 이의 제기가 없었으므로 양국간에 합의된 협정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장철균은 서희와 소손녕의 협상 결과를 정리한 소손녕의 대 고려 서한 및 그 내용을 “서-소 협정”이라고 부르고 있다. 장철균, 『서희의 외교담판: 고구려 영토수복 어떻게 가능했나』, (서울: 현암사, 2004), pp. 147-149.

12) 김기홍, 2004, p. 52-54.

13) 장철균, 2004, p. 154.

14) 장철균은 소손녕의 서한 서두에 “양국이 국경을 접하게 되었다”라는 구절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장철균, 2004, p. 153.

15) Van Evera는 냉전해체 후 동부유럽에서의 불확실한 미국과 러시아간의 세력권 설정에 따라 이 지역이 미-러간의 “flash point”가 된다면, 양국 긴장의 발화지점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다. S. Van Evera, “Primed for peace: Europe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15 No. 3 (1990/1991).

16) 실제 송은 981년 정안국에 사신을 보내 거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비밀리에 제의한 바가 있다.

17) 임용환의 분석에 따르면, 985년 고려에 대한 송나라의 대거관 연합공격 제의 전후, 여진은 거란의 여진공격

국의 합의를 거란과의 외교담판에서 담아냈다. 서희는 여진족 처리 문제와 관련한 강대국 거란의 이해관계를 기민하게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고려와 거란의 이해관계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의 협상 조건을 고안하여 제시했던 것이다. 이런 모든 조치는 거란과 고려, 나아가 송과 여진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갈등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10세기 말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에서 건국이 100년이 되지 않는 사실상 신생국 고려의 안전을 담보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고려 국가적 차원에서, 서희의 협상을 통해 고려는 홍화진, 용주, 안의진 등 서북방 영토 280리를 수복, 복진하였다. 또한 수복한 강동 6주 지역은 향후 고려 방어의 요충지로 작동한다. 서희는 소손녕과 회담 직후, 강동 6주 역내의 장흥, 귀화, 좌주, 구주, 안의, 홍화, 선주, 맹주 등에 성을 쌓아 고려의 방어 요새를 구축, 외적의 침입에 대비¹⁸⁾하였는데, 이 지역은 향후 1010년 11월 성종이 친정한 거란의 제 2차 침입시 양규의 승전과 1014년 소작렬의 제 3차 침입시 강감찬 귀주대첩의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임용한 역시도 강동 6주에 서희가 건설한 고려의 방어망이 향후 6차까지 이어진 여-요 전쟁기 거란의 보급로와 퇴로를 압박하는 전술적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¹⁹⁾ 서희의 협상을 통해 고려는 국가방어 능력을 제고, 냉엄한 10세기말 11세기 동북아 국제정치 상황에서 생존여건을 향상시켰던 것이다.

가치적 차원에서도 서희와 소손녕의 담판은,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임을 거란을 비롯한 동북아 지역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소손녕과의 담판 과정에서 서희는 고려가 고구려의 후계자이며, 이에 따라 압록강 안팎도 원래 고구려의 후예인 고려 땅인데 여진이 그 중간을 점거하여 거란과 통교하기 어렵기에 이들을 함께 구축하자는 논리를 소손녕에게 제시, 납득시켜 궁극적으로 강동 6주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서희의 거란 1차침입당시 외교는 10세기 말, 11세기 초 동아시아 전반의 국제질서 형성에 기여하고, 향후 실질적, 가치적 측면에서 고려 국력 증대에 기여하는 상당한 외교성과를 가져왔기에, 그 탄생 배경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단지 서희의 “세치 허”를 넘는, 서희 외교성과 배경에의 이론적 고찰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에 고려가 협력하는 것을 두려워 송나라에 탄원하기도하고, 거란에 대한 연합전선을 건의하기도 하는 반면, 고려를 공격하기도 하는 모순된 행동을 취하였다. 또한 임용한은 거란의 993년 대고려 원정의 한 목적이 중원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후방의 고려와 여진간의 연합을 방지하는 것에 있었음을 제시하고 있다.

임용한, 2008, pp. 121-145.

18) 『고려사』 권 94 열전 서희전.

19) 임용한, 2008, pp. 148-150.

2. 서희 외교성과의 이론적 분석틀 : 웬트(A. Wendt)의 논의를 중심으로

서희의 외교성과를 보다 이론적, 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국제정치학의 구성주의(constructivism) 계열 학자로 분류되는 웬트(A. Wendt)의 논의를 검토해보도록 한다.²⁰⁾ 구성주의는 왈츠(K. Waltz)의 저서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1979) 발표 이후 사실상 국제정치학계의 주류이론으로 자리잡은 신현실주의가 냉전의 해체라는 국제정치의 격변을 예측해내지 못하고 그 이론이 주장하는 양극체제(bipolarity)의 안정성이 한계를 보이자 기존 국제정치학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1980년대말을 거쳐 1990년 초반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한 국제정치의 조류이다. 탈냉전기 초반 신현실주의와 구성주의간 논쟁과 관련된 탈실증주의(post-positivism) 논의는 1920-30년대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논쟁, 1980년대 신현실주의와 자유주의간의 논쟁에 이어 국제정치이론 제 3의 논쟁으로 평가받기도 하였다.²¹⁾

구성주의의 논의는 1999년 발표된 웬트의 저서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를 통해 더욱 정밀화 되었는데, 이론의 분석틀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²²⁾ 구성주의는 크게 인식론(epistemology)과 존재론(ontology)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서 국제정치현상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인식론적 측면에 있어 구성주의는 기존 신현실주의의 물질주의(materialism)를 극복, 정체성(identity)과 가치(value) 등을 국제정치의 주요 변수로 상정하였다. 즉 전통의 현실주의, 신현실주의가 국가의 힘, 권력(power)과 같은 물질적인 요소만을 그 이론정립의 변수로 삼는데 반하여, 웬트의 논의는 국가들이 상호 어떠한 정체성과 믿음,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국가간의 관계나 국제정치 현상이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예컨대 현실주의 계열에서는 국가는 무정부상태 하에서 자력구제(self-help)를 위해 힘을 추구한다는, 물질주의적인 요소만으로 그 행동 논리를 설정하지만, 구성주의는 국가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을 공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힘의 논리를 넘어서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또한 웬트 이론 중, 전체(holism)와 개체(individualism) 논의와 관련된, 주체(agent)와 구조(structure)의 관계라는 존재론적 논의와도 연결된다. 신현실주의의 논의에 의하면, 국제정치의 기본단위인 국가들은 국제정치 구조차원의 양극, 다극 체제와 같은 체제수준에서의 힘의 배분에 따라 그 움직임의 양태와 방향이 정해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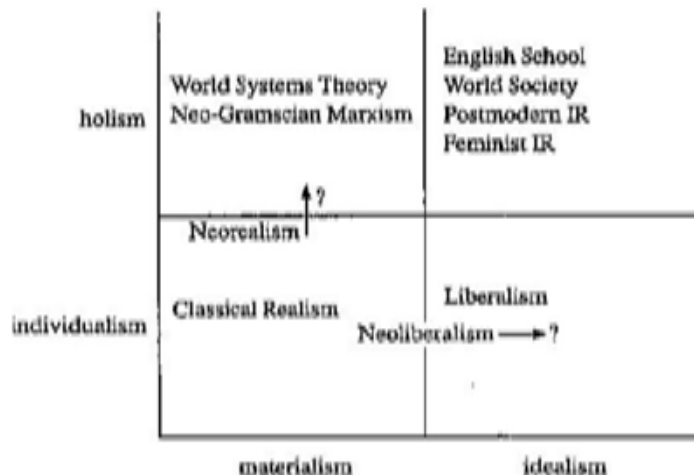
20) 이하 논의는 Alexander Wendt,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1999) Chapter 5-7 참조.

21) 신옥희,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의미와 한계", *한국국제정치학회보*, 32권 제2호, pp. 1-4.

22) 웬트의 논의는 그 이론 분석에 대해서만도 상당한 분량의 범위의 페이지가 제시되고 있는 등, 그 이론의 깊이와 내용이 풍부하다. 다만 본 논문의 목적은 Wendt의 구성주의 자체 분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Wendt의 논의에서 서희의 외교성과를 보다 복합적으로 분석해 내기 위한 이론틀을 차용해 내는 것에 있으므로 그의 이론을 간략하게 검토하도록 한다.

이하 웬트 논의 분석은, 양준희, "왈츠의 신현실주의에 대한 웬트의 구성주의의 도전", *국제정치논총*, 제41집 3호(2001); 전재성, "현실주의적 구성주의와 구성주의적 현실주의", *2006년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6년 6월). 참조.

무차별한, 동일한 당구공과 같은 존재이다. 이는 마치 미시경제학이론의 시장이론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다.²³⁾ 즉 경제학에서 이윤 극대화라는 합리성을 추구하는 시장주체들은 그들이 속한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나, 독점시장이나, 과점시장이나에 따라 수요와 공급, 때로는 가격을 설정한다. 즉 시장주체의 의지에 관계없이, 시장 상황이라는 구조의 제약 하에 그들의 움직임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다. 왈츠의 논의대로라면 안보 및 힘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인 존재인 국가들은 경제학의 시장주체를 처럼, 현 국제체제의 제약의 따라 현재, 그리고 향후 행태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 이에 양준희는 왈츠의 국제정치이론 하에서 국가는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제 구조와 체제에 직면해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웬트는 이런 기존 신현실주의의 개체론(individualism)을 극복, 구조와 행위자간의 상호구성성을 강조하는 특성을 지닌다. 즉 국가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정체성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왈츠의 관점하 체제수준의 객체, 종속변수로 작용하던 국가들이 역으로 체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간주관적인 작용이 국제정치에서 작동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웬트의 논의에서는 물질적인 요소만을 국제정치전개 논리로 가정, 국가들에게 일방향적으로 투영되는 국가들의 자력구제 논리를 내포하는 무정부상태가, 국가들이 상호 어떠한 정체성과 믿음,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상대방을 적으로 간주하는 홉스적 무정부 상태와, 경쟁자, 친구로 보는 각각 로크적, 칸트적 무정부 상태 등으로 다양하게 주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국가들 사이의 지식의 분포에 따라, 국제정치의 기본단위인 국가들이 지닌 정체성에 따라 제약조건인 무정부상태의 변수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래 <표 II-1>는 웬트의 분석틀을 간단한 표로 정리, 제시한 것이다.



<표 II-1> 웬트이론의 분석틀

23) 양준희 역시도 왈츠의 이론이 근본적으로 경제학 시장이론을 이용해 창조해 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양준희, 2001, pp. 35-37. 이하 경제학의 시장이론과 관련한 논의는 이준구, 『미시경제학』, (서울: 법문사, 2004) 참조.

이하에서는 993년 서희의 대 거란 외교 성과를 상기 웬트 이론의 주요 구성 변수인 구조, 행위자, 힘, 가치 측면에서 검토해볼 것이다. 서희의 외교 성과 분석에 있어 웬트의 분석틀이 적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10세기 말 동북아시아의 상황은, 크게 강대국인 거란과 송간, 거란 우위의 제한적 양극체제 속에, 중진 고려가 이에 대해 영향을 받고 역으로 제한된 범위내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형국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서희의 협상과정 전후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히 거란, 송, 고려, 그리고 여진 등과의 관계가 단순히 현대 국제정치학 현실주의 계열의 힘의 논리만이 적용되기 보다는, 당시 고려에 대한 송과 거란에 대한 인식이나 이들간의 역사적 관계 등, 물질주의를 넘어선 기타 변수가 명시적, 묵시적으로 작동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3. 서희 외교성과의 이론적 분석

가. 물질적 측면

1) 구조변수 : 10세기 동북아시아의 힘의 배분

웬트 논의의 주요 변수에 따라 우선 인식론적 측면에서 물질주의적 요소, 즉 10세기 전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힘의 배분과 주요 국가들의 권력 등을, 존재론적 측면에서 구조와 개체, 두 측면에서 분석해보도록 한다. 우선 구조적 측면에서 당시 서희가 활약했던 10세기 중·후반 및 11세기 전반 동북아시아에서의 국가간 힘의 배분을 검토해보면, 김순자는 당시 국제질서를 중원에서는 거란이 군사적 우위를 지닌 가운데 남북에 송과 거란이라는 두 개의 강대국이 분립하여 경쟁하고 중진국으로서 고려와 서하가 좌우에서 세력의 한 축을 차지하는 형세로 분석하고 있다.²⁴⁾ 오늘날 국제정치학의 개념으로 따지면, 10세기말 동북아시아는 <표 II-2>에서 볼 수 있듯이, 크게 20세기 중·후반 냉전기의 미-소간 양극체제보다는 강대국에 힘의 집중이 덜 하지만²⁵⁾,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 세계 1차대전기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이 분립하여 형성된 사실상 다극체제²⁶⁾보다는 두 개의 강대국에 힘이 집중

24) 김순자, "고려-송-거란의 대륙질서 정립과정과 고려외교", 『명분과 실리 서희 외교론』, (서울: 이현서 서희 선생선양사업추진위원회, 2008) 2008, pp. 101-103.

25)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이유는, 993년 이후 거란이 고려에 대해 수차례 침입을 강행하여 고려의 항복과 강화를 받아내기는 하였지만, 제 2차 침입시에는 양규에, 제 3차 침입시에는 강감찬 등에 의해 상당한 군사적 손실을 입은 것에서 볼 때, 냉전시대 미-소만을 주변국을 압도할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송 역시도 군사, 물리적으로 서편에서 서하에 상당 압박을 당하는 등, 양극국가 수준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했다고 말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26) 1차대전 전후시기, 유럽대륙에서는 영국-프랑스-러시아간의 삼국협상(triple entente)과 독일-오스트리아-이탈리아간의 삼국동맹(triple alliance)가 힘의 대립을 이루고 있었다. 폴 케네디(Paul Kennedy) 등의 논에 의하면, 당시 독일의 국력이 가장 뛰어났으나, 독일, 영국, 러시아 등 국가간 국력차이가 서희 활약시기

된, 다시 말하면, 거란이 상대적 우위를 지니지만, 송을 압도하지는 못하는 “느슨한 형태”의 강대국간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의 양극체제(bipolarity)가 형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당시 동아시아 국제정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우선 960년 송의 조광윤은 안록산의 난으로 인한 당의 멸망(907)이후 약 50여년간 지속되었던 소위 “5대 10국” 시대를 통합, 중국을 통일한다. 그러나 송의 통일은 기존 가깝게는 당나라, 멀리는 한나라의 그것보다는 제한적이었는데, 이는 북방에서 이미 제국으로 성장한 거란 때문이었다. 거란의 야욕야보기는 907년 산재했던 부족을 통합, 대거란국을 세우고, 916년 황제를 칭했으며, 926년 발해를 정복하며 그 세력권을 넓혔다. 특히 936년 5대국가 중 하나인 후진(936-947)의 석경당으로부터 건국을 위한 군사적 지원의 댓가로 연운 16주를 할양받아 만리장성 안쪽으로 진출함으로써 향후 동북아시아 패권경쟁에서의 우위를 차지한다.



<표 II-2> 10세기 전후 고려-송-거란 관계

이후 양국은 몇 차례 대결을 감행한다. 979년 송 태종이 거란의 연운 16주를 공략하기도 하였고, 981년 고려와 거란사이 위치한 정안국에 사신을 보내 거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비밀리에 제의하기도 하였으며 986년에는 고려에 사신 한국화(韓國華)를 특사로 파견, 송의 대고려전 참전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송은 986-989년 연운 16주 탈환 등을 위해 거란과 열전을 벌였으나 끝내 실패, 거란에 패하고 말았다. 한편 거란은 990년 서하를 복속시키고, 993년 고려와 강화를 이끌어낸 후, 1004년 성종이 대군을 이끌고 송에 친정, 수도인 개봉 인근의 보주, 덕청까지 진격해 송으로부터 “전연의 맹약”을 이끌어낸다. 동 맹약에서 송과 거란은 형식적으로는 숙적관계를 맺지만 실질적으로는 송이 매년 거란에 은과 비단을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규정되는 등, 사실상 송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인정받았던 것이다. 거란 역시도 경제, 문화적으로 우월한 송과의 계속된 전쟁은 부담이 되었으므로 “전연의 맹”을 통해 연

송, 거란과 고려의 관계보다는 상당 작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10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리가 20세기 초 유럽의 그것과는 서, 공간적으로 매우 상이하여 양자의 직접적인 비교는 쉽지 않지만 일단 고려가 993년 소손녕의 침입시, 거란에 사대를 조건으로 강화를 체결했던 사실은 서희 활약시기 동아시아질서를 세계 1차 대전 전후 형성된 사실상 다극체제와 유사하다고 평가하기는 무리가 큰 것으로 보인다. 이하 1차대전기 유럽정세 관련 논의는, 폴 케네디, 『강대국의 흥망』,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2000); 김용구 『세계 외교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참조.

운 16주의 거란 보유 등 현 거란과 송의 경계를 유지하고 거란의 송에 대한 상대적 우위를 재확인 하는 선에서의 세력균형을 시도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런 거란과 송과의 힘의 균형이, 993년 서희가 소손녕과의 회담에서 거란의 침입을 외교로서 물리치는 구조적 기반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어느 한 국가의 힘이 일방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송과의 대결 국면에서 국력을 보존하고 국제정치에서의 자국편을 확보하기 위해 거란은 송과 고려의 절교와 압록강 유역의 국경을 획정하는 국제정치적,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는 대가로 고려와 강화하고 강동 6주의 고려 복속을 인정하자는 서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던 것이다.

2) 행위자 변수 : 중진국가(middle power)로서의 고려

한편 이러한 느슨한 송과 거란의 강대국간 세력균형아래, 고려, 서하 등이 거란과 송 사이의 정치세력들은 제한적이지만 국제정치 관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과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임용한 등은 서희와 협상에 임한 소손녕의 본래 목적은, 고려와 송과의 절교 및 고려와 거란간의 통교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닌, 송과의 결전을 앞두고 거란의 배후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또 여진과도 연합 가능성이 있는 고려의 반거란 행동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에 있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²⁷⁾ 즉 고려는 단독적으로 당시 국제정세 향방 자체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않았지만, 그 구조를 이루는 강대국의 행동에 상당 제약을 제고할 수 있고, 또 송과 거란 그리고 주변국과 형성하는 연합의 방향에 따라 대결하는 강대국의 권력관계에 힘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른바 중진국가, "middle power"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10세기말 동북아 국제정치가 곧 송과 거란의 느슨한 양극체제라는 국제정치 구조적 요소에 행위자 고려가 제한된 범위내에서 능동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웬트의 이론틀에서 구조와 객체간 상호 영향 가능성이 열려있었던 시기와 공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고려의 중진국가적 요소는 다양한 측면에서 발견되고 논의될 수 있다. 우선 서희의 협상과정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서도, 거란의 압록강 도하 후 할지론과 항복론이 고려 조정에서 횡횡하는 가운데, 고려는 안용진(안주) 전투에서 대도수의 활약을 앞세워 거란을 격파하였다. 이는 고려의 당시 군사력이 장기전 등에 나설 경우, 거란에 상당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안용진은 안북 서북쪽 26km 청천강변에 위치한 작은 토성으로, 이 전투에서 승리는 고려가 할지론에서의 할지 대상이었던 청천강 방어선을 수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또 이를 거란에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²⁸⁾ 실제 이 전투에서의 승리가 서희가 거란과의 회담에서 소손녕의 거듭된 항복 요구를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27) 임용한, 2008, p. 143.

28) 임용한, 2008, p. 142.

고려의 이해관계를 설파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분석이 많다.²⁹⁾ 또한 실제 고려가 광종대에 편성한 광군(光軍)의 규모가 30만으로 추산되는데, 거란 성종이 천정한 1010년 2차 침공 때의 병력이 40만, 마지막 1016년 6차 침공 때가 10만으로 밝혀진 점³⁰⁾은 군사력적인 측면에서 고려가 최소 동북아에서 중진국가의 지위는 영유하고 있었음을 추론하게 한다.

또한 고려는 송과 거란이 자국을 중심으로 고려와 서하 등을 번(番)으로 거느린 천자(天子)를 칭했던 것처럼, 고려는 주변 여진과 탐라를 그 번방으로 생각하는, 해동천자(海東天子)를 자처했다.³¹⁾ 단순히 고려가 10세기 동북아 국제정치의 약소국이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와 같은 국제정치적 지위를 바탕으로, 임용한은 고려가 993년 거란의 1차 침입에 따른 “서-소 협정” 체결 전 985년 송의 대거란 청병을 사실상 거절하고, 거란의 대 여진 공격 시점에 있어서도 거란의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등, 10세기 말 동북아에서 불개입주의를 시도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³²⁾ 서희의 협상과 관련하여, 서희가 이런 고려의 중진국가적 능력과 거란의 대송관계에서의 고려가 차지하는 전략적 지위를 인식했던 것이, 결국 그가 강대국 침입이라는 위기 속에서 진행된 협상에 있어 강동 6주의 획득이라는 고려 국익 증진 조건을 주장, 관철시키고 협상과정에서도 보다 대등하게 소손녕과의 교섭에 임하는 기반을 제시했던 것이다.

나. 관념적 측면 : 고려의 유연성과 자주성

1) 고려외교의 유연성 : 송과 거란

이하에서는 웬트의 국제정치분석틀 중, 존재론적 측면에서 관념적 요소인 가치, 정체성 변수 시각에서 10세기 전후 고려의 외교정책을 검토해보도록 한다. 고려는 건국(918년) 때부터 적극적으로 주변국과 외교활동을 벌였고, 특히 중국 왕조와 거란이라는, 10세기 동북아시아 국제정치 양 축과 모두 교류했다. 922년에는 거란에서 고려에 낙타와 모피를 보내왔고, 923년에는 중국 5대 왕조인 후량에 사절을 파견해 통교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고려 태조 왕건이 평소 형제국가로 생각했던 발해가 거란에 의해 멸망되자 고려의 대거란 경계심은 고조되었고 이는 942년 거란과의 국교 단절뿐만 아니라 선전포고에 준하는 의미를 지닌 “만부교(萬夫橋)” 사건으로 연결,

29) 안정복의 『동사강목』에서는 대도시의 승리가 없었더라면, 거란과의 접촉에서 화친이 이루어지기는 커녕 적의 끝없는 요구를 채워주느라 고려가 갖은 고난을 겪었을 것이라 언급하고 있다.

김기홍, 2004, p. 34.

30) 『요사』 권34 병위지상, 병제.

31) 김순자, 2008, p. 103.

32) 임용한, 2008, p. 127.

고려의 반거란 입장은 더욱 분명해진다.³³⁾ 반면 중국 왕조와는 우호 관계를 지속하였는데, 933년 후당으로부터 고려국왕 책봉을 받았고, 이후 오대의 각 왕조와 조공-책봉 관계를 유지하였다. 송 건설이후에도 이러한 친중 외교정책은 계속되었는데, 962년 고려는 송에 방물사(方物使)를 파견하고, 963년에는 광종이 송으로부터 고려 국왕으로 책봉받기도 하였다.³⁴⁾

그러나 고려는 일방적으로 송과 같은 중국왕조에 경도된, “친중전란(親中牽丹)”의 외교노선을 고수하지는 않았다. 상기 언급했듯이 985년 송의 특사 한국화는 고려를 방문, 송의 대거란 전쟁에서 고려가 참전할 것을 요청, 위협했으나, 고려는 송 낙을 하고도 송과 거란사이에서 교전당사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기에 끝내 참전하지 않았다.³⁵⁾ 즉 강대국과의 사대관계, 동맹을 유지하되, 무조건적인 관계 유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고려의 이해관계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탄력적으로 활용했던 것이다.

이런 고려의 주변국에 대한 유연성은 서희가 협상 성과를 거두는 데 큰 자산으로 작용한다. 서희와 소손녕의 담판 과정 중, 소손녕은 거란의 고려 침입 이유로 고려가 거란과 연결하고 있으면서도 바다를 건너 송나라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서희는 송과의 통교에 집착하지 않고, 고려가 거란과 국교를 트지 않는 이유는 <표 II-3>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양국을 가로막고 있는 여진 때문이며, 만약 거란이 여진을 구축하고 옛 고구려의 땅을 돌려주어 길을 통하게 한다면, 거란과 수교하겠다는 논리를 제시한다.³⁶⁾ 만약 당시 고려 사회가 송과 교류 자체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고려 국왕의 위임을 받아 움직일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 협상 대표인 서희가 송과의 단교 및 거란과의 통교라는, 고려 외교정책의 큰 줄기를 바꾸는 협상 조건을 제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국익에 따라 송과 거란 사이에서 유연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분위가 당시 고려에 형성되어 있던 것이 서희가 강동 6주를 회복하는 외교적 성과를 거두는데 큰 요인으로 작동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33) 고려 태조 왕건은 사망 시 후손들에게 남긴 훈요 10조를 통해 거란은 금수(禽獸)와 같은 나라이니 서로 통교하지 말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34) 김순자, 2008, p. 106.

35) “황이 조서를 받고 시일을 끌면서 출병하지 않으니 한국화가 한편 위협하고 또 한편 이해관계를 따지면서 편유했다. 황이 부득이 군사를 출동하여 서방에서 서로 만날 것을 허락하니 그제야 한국화가 돌아갔다.” 『고려사』 성종 4년, 5월.

36) 서희와 소손녕과의 회담과 관련한 내용은, 해당 부분 『고려사』의 내용을 기술한, 김기홍, 2004, pp. 40-42, 참조.



<표 II-3>, 제 1차 여-요 전쟁기 고려, 거란, 여진 관계

주변 강대국의 정책 변화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닌, 당시 동아시아의 송과 거란 사이의 힘의 균형 상황을 이용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중견국가의 적극적 외교를 보여주었던 고려의 진면목은 서희와 소손녕과의 회담 이후에도 또한번 입증된다. 즉 993년 “서-소협정” 이후, 고려는 994년 6월 고려의 박양유가 거란을 방문에 거란의 연호 사용 결정을 알리고 있을 즈음, 중국에 밀사 원옥(元郁)을 파견해 거란과의 강화의 불가피성을 송에 설파하고 지금이라도 고려는 송과 연합해 거란을 협공할 것임을 제안한다.³⁷⁾ 거란과의 공식적인 통교 이후에도, 또 다른 동북아시아 강대국 송과 보이지 않는 선에서의 교류 및 교감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후 고려는 비록 수차례 군사대결은 있었지만 거란과는 정치적 관계를, 송과는 문화, 경제 교류 관계를 유지하며 양 강대국의 힘의 균형 사이에서 절제된 적극적 외교를 펼쳐 국력을 증강시킨다. 당시 동북아시아 강대국간 힘의 균형 상황에서 고려의 양자를 오가고 때로는 양자를 아우르는 유연한 외교를 펼치며, 중견국가로서 국익 증진을 도모했던 것이다.

2) 고려외교의 자주성 : 고구려 계승의식

고려는 또한 건국 초기부터 고구려 계승의식을 바탕으로 고려의 강한 자주성을 대내외에 보여주었다. 예컨대 김순자는 송, 거란 그리고 후의 몽골의 원나라 등이 모두 “고구려는 수와 당이 대규모 군대를 동원하여서도 이기지 못했던 강대국” 인데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 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언급한다.³⁸⁾ 918년 즉위한 왕건은 국호를 고려로 제정함으로써 고구려 계승의 뜻을 대내외에 천명하였으며, 고구려의 옛 도읍 평양 재건에 공을 들이며, 장차 삼한을 평정하면 서경으로 천도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³⁹⁾ 고려는 이러한 고구려 계승의식을 바탕으로 한 자

37) 장철권, 2004, pp. 150-152.

38) 김순자, 2008, p. 110.

주적인 외교노선을 견지하며 태조, 광종 등을 거치며 지속적으로 고구려 영토 회복이라는 북방정책을 추진했던 것이다.

서희의 대 소손녕 협상과정에서도 이런 고려의 주체성과 자주성은 강하게 표출되며, 이는 서희가 소손녕과의 협상에서 성과를 거두는 데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예비회담이라고 할 수 있는 상견례 과정에서 소손녕은 서희에게 본인은 대국의 귀인이니 소국의 서희는 소손녕에게 뜰아래서 절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서희는 거란과 고려는 모두 같은 나라라며 이를 거부, 소손녕과의 후차 회담에서의 기선을 제압한다.⁴⁰⁾ 본 회담에서 소손녕은 “당신의 나라는 옛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의 옛 땅은 우리나라 소속인데 당신들이 침식하였다”고 서희를 압박한다. 그러나 서희는 우리나라가 곧 고구려의 구지이다. 그러므로 국호를 고려라 하고 평양을 국도로 정하였으니, 만일 땅의 경계를 말한다면 거란의 수도 동경(요양)도 우리 영토안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겠냐고 맞받아친다. 그리고 강동 6주 수복을 위한 고려의 논리를 제시한다. 즉 거란과의 통교를 막고 있는 여진이 있는 압록강 안팎도 원래 고구려의 영토였으니 곧 고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는 것이다. 장철균은 이 부분이 강대국 거란과의 협상에서 서희가 강동 6주를 획득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다. 당시 거란은 이미 고려 침공 전 서여진을 정벌한 바가 있고 이미 압록강 지역에 3개의 성을 쌓아 사실상 이 지역을 거란의 보호령으로 만든 상태였다. 그러나 당시 북진정책을 펴고 있던 고려가 고구려 계승의식을 보이며 고토 회복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이를 인정해야만 고려가 거란과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하자, 문제가 더 커질 것으로 간주, 압록강 동편 280리에 고려가 축성하여 강동 6주를 귀속하는 화의 조건을 수락했던 것이다.⁴¹⁾

결국 고구려 계승의식을 바탕으로 중견국가 고려가 강대국을 상대로 국익을 개선하는 자주적 태도를 견지했던 것이 국제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송과 거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고려의 유연한 외교에 더해져 서희가 그 외교성과를 거두는데 상당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III. 서희 외교성과의 현대적 함의

1. 21세기 한국외교의 목표

상기 서희의 대거란 협상 성공 사례가 오늘날 한국에 주는 현대적 함의를 검토하기 전에 우선 21세기 한국 외교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하는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

39) 『고려사』 태조 15년 5월.

40) 이하 서희와 소손녕의 회담에 관한 내용은 김기홍, 2004. pp. 39-50. 참조.

41) 장철균, 2004. pp. 153-154.

다. 서희 사례가 주는 외교전략적 함의를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현재 한국의 국제정치적 단기적, 중기적 당면 과제가 무엇인지 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제정치적 전략 목표 설정은 그것을 논하는 논자만큼이나 다양한 내용이 제시될 수 있겠지만, 우리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참고하면 “성숙한 세계국가(global Korea)”를 지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반도에 평화구조를 만들며, 미, 중, 일, 러 주변 강대국과 신탁체제를 구축, 강화하고 굳건한 선진안보체제를 형성하는 것을 통해 세계적으로 품격있는 국가를 지향해나가는 것이 된다.⁴²⁾ 국제정치이론에서 명시적, 암묵적으로 가정하는 국가의 목표를 고려한다면, 결국 한국 외교의 목표는 있을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여 우리의 자력 구제(self-help)능력을 제고하고 미국, 중국 등 주변국과의 동맹을 강화해 세계 및 동북아에서 한국의 생존(survival)여건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⁴³⁾ 이를 넘어 좀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간다면, 21세기 한국의 외교의 단기·중기적 목표는 주변 강대국과의 유동적인 관계를 적절히 고려, 관리하여 세계적, 지역적 차원에서는 안정(stability)이라는 현상유지 지속에 기여하는 가운데 동시에 대북관계 등에 있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현상변경 여건을 구축해나가는 것이 된다. 서희의 외교성과의 현대적 의의는 이러한 한국의 외교 목표를 실행해나가기 위한 전략 수립에 상당한 함의를 준다는 것에 있다.

2. 서희 외교성과의 재현 : 중국의 부상과 중견국가 한국

서희의 대거란 협상 성공 사례의 현대적 함의를 웬트 논의를 분석틀에 비추어 도출해보면, 우선 물질적 차원에서 현재 동북아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힘이 수렴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세계적 차원에서 현 시점 미국의 국력이 중국의 그것보다 일정수준 우위에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⁴⁴⁾ 또한 미국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태평양 연안에 스스로 다양한 단위의 군사력을 투사하고 있으며, 역내국가인 한국과 일본과도 명시적인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하는 등, 동북아에서도 상당 수준 개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고도성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상대적으로 미국의 경제성장이 정체를 맞고 있는 현 시점, 최소한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총체적 국력이 수렴되고 있음은 당면한 현실로 보인다.⁴⁵⁾ 이런 상

42)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대한민국정부(2008).

43) 이하 신정부의 외교전략 과제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신정부의 한미 전략동맹 발전을 위한 과제” (최강, 2008.2.26), “한-중 관계 평가와 신정부의 대중정책” (김홍균, 2008.3.4), “신정부의 대러정책 과제” (고재남, 2008.3.25), “신정부의 대일외교 과제와 전망” (조양현, 2008.3.27), 이하 모두 외교안보연구원 국제문제분석세미나 참조.

44) 예컨대 Wohlforth는 국가들의 능력을 통계적으로 분석해볼 때 미국은 역사상 존재했던 그 어떤 강대국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강력하며,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탈냉전기 국제정치는 일극주의라고 주장한다. William Wohlforth, “The Stability of a Unipolar World”, *International Security*, vol. 24, issue 2 (Summer 1999)

황을 반영하듯 2009년 7월 27-28일 양일간 개최된 “제1차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미-중 관계가 21세기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 중 하나이며, 미-중이 21세기를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런 동북아의 상황은 서희가 활약했던 10세기 후반의 송과 거란과 관계와 일견 유사점을 지닌다. 당시 동아시아 국제정치 구조는 거란의 상대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송과 거란과의 느슨한 양극체제의 힘의 균형상태에 가까웠으며, 이 제약하에서 고려는 중견국가의 지위를 활용, 때로는 송과 거란 사이를 오가고 또한 송과 거란 모두와 공식적, 비공식적 관계를 유지하며 국익확대를 도모했었다. 강동 6주 획득도 송이라는 거란과 대립하는 강대국의 존재를 활용해 서희가 소년령에 적극적 협상조건을 제시했기에 얻을 수 있던 외교적 성과였다. 결국 한 국가만이 체제, 지역 차원에서 강대국으로 존재하는 일극주의(unilateralism)에 가까운 구조가 아닌, 두 개의 강대국이 힘의 균형을 이루고 선택적인 협력, 대립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타국의 존재 때문에 강대국이 주변 중진, 약소국에 자신의 권력을 일방적으로 투사하는데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즉 웬트식의 분석틀에 입각할 때, 구조를 구성할 능력을 지닌 강대국이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경우, 중견국가의 입장에서 구조가 일방향적으로 객체의 행동을 제약하는 것이 아닌, 양자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 조건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오히려 강대국 양국이 협력하여 행동하여 주변 중견국가의 이해관계 개진을 함께 제약할 수도 있다.⁴⁵⁾ 그러나 지역 차원에서는 주일미군 및 대만 문제 등을 두고, 한반도 차원에서는 주한미군의 개편 방향, 북핵 문제의 해법과 소위 급변사태 발생시 북한 지위 문제 등의 문제가 실질적잠재적으로 상존하는 상황에서 통 이슈들이 미중 양국에 차지하는 전략적 의미를 고려할 때 미-중간 이해관계가 향후 지속적으로 일치되기보다는 상충될 여지도 크다. 이 과정에서 중견국가 한국의 대응에 따라 그 행동반경이 열리고 넓어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한국은 자국의 외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0세기말 서희의 고려가 그러했듯 그간의 관계 경향에 집착하거나 환경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만 하기보다는 동시 다발적으로 송과 거란과 같은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를 양자, 삼자, 또는 다자 등 그 형태나 층위에 관계없이 탄력적으로 운용 및 활용, 때로는 강대국간의 협력을 유도하거나 때로는 일방 강대국에 힘을 실어주고 한편으로는 양 강대국 또는 일방 강대국이 한국의 이해관계를 지지하도록 조치,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유연한 실리외교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45) 김홍균는 최근 미국 발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국제정치경제 분야에서 중국의 부상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G-2”, “차이메리카(Chimerica)”, “신 양극” 등의 개념들이 널리 회자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다만 김홍균는 미중 전략경제대화 내용과 그 논의 범위 그리고 그 영향력 등을 미루어볼 때 G-2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김홍균, “미중 전략경제대화 분석 : 한반도 현안에 대한 함의와 더불어”,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09. 8.21)

46) 김홍균는 미중 전략적 협력관계가 안정화 될수록 한국의 상대적 전략 가치는 저하될 개연성이 크다고 본다. 김홍균, 2009, p. 18.

3. 서희 외교성과의 함의 : 관념적 요소의 전략적 활용

기 서희의 협상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고리가 주변국에 고구려의 계승국가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주었던 것이 고리의 강동 6주 수복에의 한 중요 요건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상당 우위에 있던 거란의 국력과 이미 여진을 정벌을 완수했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거란은 곧이 고리와 협상과정에서 강동 6주의 고려 귀속을 인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서희가 거란 대표 소손녕과의 협상과정에서 고리가 고구려 계승국가임을 강하게 주장했고 이에 따라 협상결렬시 거란이 지게 되는 부담이 더 크게될 것을 우려, 고리에 더 유리한 협상조건을 안겨주었던 것이다. 결국 이는 웬트의 분석틀에 따라 현명한 외교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국가의 물리적인 힘 이외에도 가치, 관념측면에서의 전략적 국력활용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주변 강대국에 비해 물리적 힘의 한계를 안고 있는 중견국가의 경우, 이러한 국가 이미지나 관념 영역의 적극적 활용에의 중요성은 배가된다.

점에서 우리정부가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한-중, 한-일, 한-러간 신협력체제 등 주변 강대국과 양자관계 의제 및 논의 방향 등을 새로이 설정하고 한-미-일, 한-중-일 3자 신협력체제와 더 나아가 신아시아 외교구상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시도⁴⁷⁾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주변강대국과 혹은 지역 단위에서 다양한 대화채널을 유지하는 것은, 곧 한국이 지향하는 가치를 상대국에게 전달하고 궁극적으로 대화 대상 국가들과 정체성의 합일을 추구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변국가와의 긴밀한 접촉과 대화는 거란과의 협상과정에서 서희가 소손녕의 무조건 대고려 항복 요구 이면에서 거란이 압록강 지역과 여진족 처리 문제에 대한 거란의 이해관계를 파악, 이를 해결해줄 수 있는 고려의 대거란 협상조건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거란 격퇴와 강동 6주 수복이라는 외교적 성과를 이끌어 냈듯이, 주변 강대국의 유동적인 이해관계가 무엇이며 그들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우리의 그것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한편 PKO등 국제평화유지활동과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ids)에도 적극 참여하는 것은 한국이 국제사회 평화를 추구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라는 인식을 주변국에 심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물리적 국력(hard power)의 한계를 딛고, 주변 강대국에 한국의 이해관계를 언급하고 또 제고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질 수 있다. 긍정적인 국가 브랜드를 지닌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해당 강대국에의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은 19세기 초 유럽협조체제(the Concert of Europe) 형성 시기, 영국,

47)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대한민국 정부 2008.

프랑스, 프로시아,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보다 국력은 상대적으로 열세였지만 유럽국가들이 공유하는 정통주의와 보수주의의 공감을 이끌어내 신성동맹(holy alliance)을 형성, 궁극적으로 나폴레옹전쟁 전후 유럽대륙의 평화유지를 주도했던 당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사례를 반추할 필요가 있다.⁴⁸⁾ 즉 당시 주변국에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펼쳐 나폴레옹 전쟁 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국제적 지위 유지 및 제고를 기도했던 오-헝 제국의 외상 메테르니히(Metternich)처럼, 웬트 분석틀에 있어 관념적 요인에 해당하는 무형적 국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서희의 대 소손녕 외교협상 사례에서도 이 가치적 요소의 적극적 활용 중요성은 다시한번 입증되고 있다.

48) 이하 유럽협조체제 관련 논의는,

H. Kissinger, "The Congress of Vienna: A Reappraisal", *World Politics*, Vol. 8, No.2 (Jan. 1956), *Diplomacy*, (New York: Touchstone, 1994) 참조.

참 고 문 헌

<영문 : 번역서 포함>

Kissinger, Henry, "The Congress of Vienna: A Reappraisal", *World Politics*, Vol. 8, No.2 (Jan. 1956)

----- *Diplomacy* (New York: Touchstone, 1994)

Waltz, Kenneth,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Random House, 1979)

Wendt, Alexander,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1999)

Wohlforth, William, "The Stability of a Unipolar World", *International Security*, vol. 24, Issue 2 (Summer 1999)

Van Evera, S. "Primed for peace: Europe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15 No. 3 (1990/1991)

폴 케네디, 『강대국의 흥망』,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2000)

<국문>

고재남, "신정부의 대러정책 과제",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2008.3.25)

김기홍, 『서희, 협상을 말하다』, (서울: 새로운 제안, 2004)

김순자, "고려-송-거란의 대륙질서 정립과정과 고려외교", 『명분과 실리 서희 외교론』, (서울: 이천시 서희선생선양사업추진위원회, 2008)

김용구, 『세계 외교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참조

김용선, "서희(徐熙) : 역사의식과 현실감각을 갖춘 외교전의 승리자", *한국사시민강좌*, 제30집 (2002. 2)

김홍규, "미-중 전략경제대화 분석 : 한반도 현안에 대한 함의와 더불어",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2009.8.21)

----- "한-중 관계 평가와 신정부의 대중정책"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2009.3.4)

박한남, "한국 대외관계사의 흐름과 서희의 위상", 『명분과 실리 서희 외교론』, (서울: 이천시 서희선생선양사업추진위원회, 2008)

신안식, "고려 초기의 영토 의식과 서희의 국경론", 『명분과 실리 서희 외교론』, (서울: 이천시 서희선생선양사업추진위원회, 2008)

신옥희,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의미와 한계", *한국국제정치학회보*, 32권 제2호

양준희, "월츠의 신현실주의에 대한 월츠의 구성주의의 도전", *국제정치논총*, 제41집 3호(2001)

이인수, "서희 업적 선양의 역사와 미래", 『명분과 실리 서희 외교론』, (서울: 이천시 서희선생선양사업추진위원회, 2008)

이준구, 『미시경제학』 (서울: 법문사, 2004)

임용환, "서희의 현실외교론과 1차 어-요전쟁", 『명분과 실리 서희 외교론』,

(서울 : 이천시 서희선생선향사업추진위원회, 2008)

장철균, 『서희의 외교담판: 고구려 영토수복 어떻게 가능했나』, (서울: 현음사, 2004)

전재성, "현실주의적 구성주의와 구성주의적 현실주의", *2006년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2006.6)

조양현, "신정부의 대일외교 과제와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08.3.27)

최강, "신정부의 한미 전략동맹 발전을 위한 과제",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2008.2.26)

<기타>

『고려사』

『동사강목』

『삼국사기』

『요사』

대한민국정부,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2008)

서희 협상전략의 게임이론적 분석 : 두 가지 국면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 왕 영 민

<목 차>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분석방법

II. 서희협상의 분석을 위한 이론적 배경

1. 게임이론의 기본 개념
2. 협상을 위한 전략 및 전술

III. 게임이론을 통한 서희의 협상전략 분석

1. 첫 번째 국면: 제1차 여요전쟁의 시작과 고려의 내부 협상
2. 두 번째 국면: 서희와 소손녕의 강화 교섭

IV. 서희 협상게임 전반의 해석 및 평가

1. 서희 협상게임의 재구조화
2. 서희의 전략과 전술
3. 서희 협상게임의 공(功)과 실(失)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 연구결과의 요약
2. 정책적 함의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부록 제1차 여요전쟁사 요약

국문요약

본 연구는 1016년 전 서희는 어떠한 국제정세적 조건 하에서, 어떠한 외교적 전략과 전술을 동원하여 거란의 침략을 물리칠 수 있었는가라는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답을 도출한다.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대 전략분석 이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게임이론의 논리구조를 활용했으며 협상의 범주 및 차원과 관련해서는 푸트남(Putnam)의 양면 게임이론 논리를 차용했다. 즉, 1차 여요전쟁에서 서희가 벌였던 일련의 외교협상과정을 서희 협상게임으로 정의하여, 첫 번째 국면(국내정치)과 두 번째 국면(국제정치)로 나누어 이들 각각을 게임이론을 통해 해석하였다. 또한 서희 협상게임에서 사용된 전략과 전술이 서희 협상게임의 양상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 협상이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전략 평가모델과 전술요약을 바탕으로 서희의 전략과 전술을 해석했다. 연구를 통해 도출한 연구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1, 2차 서희 협상 게임의 분석결과이다. 1차 서희협상게임은 기본적으로 치킨게임의 구조를 갖는 게임으로서 이 게임의 참여자는 서희를 포함한 국종과와 화종과였으며 게임의 결과를 결정하는 결정자는 고려 성종이었다. 서희는 미니맥스 전략, 문제해결 전략 및 경쟁전략을 사용했고, '사안의 제정의' 전술을 사용했다. 이 게임의 결과로 서희는 화종과의 '항복론' 및 '할지론'을 물리치고 자신의 대안인 '선항전 후협상론'을 관철시킬 수 있었다. 2차 협상게임은 기본적으로 치킨게임에서 상대결게임으로의 변환구조를 갖는 게임으로서 이 게임의 참여자는 고려를 대표한 서희와 거란을 대표한 소손녕이었으며 게임의 결과는 이들 두 행위자의 전략적 균형에 의해 결정지어졌다. 여기서 서희는 일등전략의 배제전략, 경쟁전략(소손녕과 회동전) 및 문제해결 전략(소손녕과 회동 후)을 사용하였고, '지연전술'·'거부권 행사전술' 및 '알려주기 전술'·'교차사안에 대한 공감전술'을 골고루 활용하였다. 이 게임의 결과로 서희는 압록강 동쪽 지역에 위치한 강동 6주를 할양받았으며, 이 지역을 확보함으로써 이후 이어지는 거란의 2차, 3차 침공에 대비할 수 있는 훌륭한 기반을 갖게 된다.

둘째, 서희 협상게임 전반의 전환점 확인 및 서희 협상결과의 평가다. 일련의 서희 협상게임에서 전환점은 총 세 번 발견된다. 고려의 내부협상 과정, 서희와 소손녕이 회담 전에 벌인 알력다툼 과정, 그리고 서희가 소손녕을 만나 협상을 벌이는 과정이 그것인데, 서희는 이 세 번의 분기점에서 앞서 논의한 전략과 전술을 활용하여 협상 게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이는 서희의 능력, 국가적 목표, 국제 환경, 그리고 외부 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서희의 능력과 외부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서희의 능력이란 서희의 천부적인 외교관으로서의 자질을 의미하며, 외부적 사건이란 안용진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말한다. 결국 서희는 능력과 운을 모두 갖춘 난세의 영웅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이다.

주제어: 서희, 성종, 소손녕, 협상, 게임이론, 전략, 전술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93년부터 1019년 까지 16년 동안 세 차례에 걸친 고려와 거란의 쟁투사(爭鬪史)와 거란의 침략으로부터 고려를 지켜낸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연구자료, 도서, 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반에 익히 알려져 왔다.⁴⁹⁾ 일련의 ‘여요전쟁’ 과정에서 훌륭하게 거란군을 물리쳐 역사적 영웅으로 칭송받는 인물은 각각 1차의 서희(徐熙), 2차의 양규(楊規)⁵⁰⁾, 3차의 강감찬(姜邯贊), 이렇게 3인으로 평가된다. 서희는 외교력으로 승부하여 승리했고, 양규는 근성과 기백으로 승부하다 장렬히 전사했으며, 강감찬은 지략과 군사력으로 승부하였다. 이렇게 3인의 여요전쟁사 영웅들 중에서도 제1차 여요전쟁을 승리로 이끈 서희의 답판이 의의가 있는 것은 고려가 전쟁에 따른 고통 없이 거란의 침략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낸 것이기 때문이다. 즉, 손자병법(孫子兵法)에서도 언급하는 바와 같이, 국가 간의 분쟁에서 가장 훌륭한 승리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서희의 외교답판은 한민족 전쟁사에 길이 남을 업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⁵¹⁾

서희가 활약한지 1000여년이 지난 오늘날, 동-서 이념갈등구조의 해체⁵²⁾와 전 지구적인 평화추구의 기조에서 ‘전쟁이라는 최후의 외교적 수단⁵³⁾’은 더 이상 무의미한 자기 파괴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렸다. 국가 간의 갈등은 외교적 수단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현대 국제사회의 정론이 된 것이다.

그러나, 만약 부당한 방법에 의해 주권의 영역을 침범당한 국가는 여전히 평화적 수단인 외교적 방법에 의해 갈등을 해결해야만 하는가? 아이러니 하게도 이에 대한

49) 거란은 993년, 1010년, 그리고 1018년 이렇게 세 차례 고려를 침략한 바 있다.

50) 거란의 1차 침략에서의 영웅이 서희, 3차 침략에서의 영웅이 강감찬이었다면, 2차 침략에서의 영웅은 단연 양규이다. 양규(楊規, ?-1011)는 세 차례에 걸친 거란의 침략과정에서 서희나 강감찬 못지않은 엄청난 전공을 올렸음에도 그들보다 세상에 덜 알려진 비운의 영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거란의 2차 침략에서 양규와 구주별장 김숙흥이 구해낸 고려 백성은 무려 3만명에 달했고, 적군 수만을 빼었는데 이 모두가 그들과 결사대 2000명이 이룩한 성과였다. 역사에는 그저 양규가 기마술에 뛰어나다고 했을 뿐 어떠한 전술로 적군을 물리쳤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만약 양규의 활약이 없었다면 고려가 마을 놓고 훔칠 거란의 3차 침입을 대비하지 못했을 것이며, 강감찬의 귀주 대첩도 힘들었을 것이다. 양규는 애전(艾田)에서 거란의 성종이 이끄는 본대를 맞아 최후의 일전을 벌이게 된다. 무려 10만이 넘는 거란군을 맞아 양규와 김숙흥의 결사대 2000명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부를 벌였고, 양규와 김숙흥은 적군 수천명을 빼었지만 대군의 공격을 버티지 못하고 전사한다. 이상의 내용은 이상각, 『고려왕조실록』(서울: 흥진P&M, 2006); 이이화, 『한국사 이야기-05: 최초의 민족통일국가 고려』(서울: 한길사, 2007)를 참조하였음.

51) 손자 著, 김광수 譯, 『손자병법(밀리터리 클래식-1)』(서울: 책세상, 2000),에서 참조함.

52) 지금까지 모두 33개 ‘사회주의국가’ 가운데 29개 국가가 사회주의와 결별하고 있다. 이들 중 동유럽 국가들과 소련을 비롯하여 26개 국가가 1989-1994년 기간 중에 붕괴되었거나 사회주의를 포기했으며, 이에 앞서 3개 국가-기니-비소(Guinea-Bissau), 그레나다(Grenada), 소말리아(Somalia)-가 사회주의권을 떠났다. Frederic L. Pryor, "The Rise and Fall of Marxist Regimes: An Economic Overview," *Orbis*, Vol. 49, No. 1. (Winter, 2005), p.134.에서 참조함.

53) Clausewitz, Karl von, *On War* (New York: Kessinger Publishing Company, 2004), p.20.에서 참조.

해답은 “여전히 외교적 방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일 것이다. 외교적 수단
에 의한 평화적인 갈등 해결이 단순히 순진한(naive) 양보적 행태를 피어야 할 필요
는 없기 때문이다. 즉, 외교의 전략적(strategic) 접근으로 충분히 국가적 이해를 관
철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과거 고려시대 서희가 보여줬던 협상
전략은 현대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외교의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교관들이나 정
책결정자들이 참고할 만한 훌륭한 교범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1016년 전 서희는 자신의 생명 뿐 만 아니라 고려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국가적위기를 ‘어떻게’ 아무런 군사적 희생 없이 해결하였는가라는 문제,
구체적으로, 서희는 어떠한 국제정세적 조건 하에서, 어떠한 외교적 전략과 전술을
동원하여 거란의 침략을 물리칠 수 있었는가라는 의문점⁵⁴⁾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서희는 소손녕과의 담판에서 뛰어난 언변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인가?
둘째, 서희는 제1차 여요전쟁이 발발함과 동시에 고려 내에서 발생한 의견 대립에서
어떠한 효용구조와 전략(strategies)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으며, 실제 협상과정에서
서희가 활용한 전술(tactics)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또한 소손녕과의 담판에 임
한 서희는 어떠한 효용구조와 전략을 가지고 담판에 임했으며, 실제 담판과정에서
서희가 사용한 전술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이 두 번의 게임에서 서희가 사용한
전략과 전술이 게임의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켜 게임을 승리로 이끌었는가? 셋째, 그
렇다면, 전쟁이라는 수단에 의한 외교방법이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는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서 1016년 전에 벌어진 서희의 담판이 갖는 의의와 함의점들
은 무엇인가?

2. 분석방법

서희의 협상전략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현대 전략분석 이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게임이론(Game Theory)의 논리구조를 활용할 것이며 협상의
범주 및 차원과 관련해서는 푸트남(Putnam)의 양면 게임이론(Two-Level Game
Theory)의 논리를 차용하도록 할 것이다. 서희 협상 전략 연구에 있어 게임이론의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게임이론이 협상전략의 수립과 분석 측면에 있어 축적된 이론
적 검증 정도, 그리고 전략 실행의 측면에 있어 실무적 유용성이 크기 때문이다.⁵⁵⁾
또한 협상의 범주 및 차원을 구분하는 데 있어 푸트남의 양면 게임이론의 논리를 원

54) 지금까지 서희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서희 장군의 ‘세치 허’에 주목하여, 서희의 협상을 성공적으
로 이끌 수 있었던 국내·국제정치적 메커니즘에 대한 탐구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재범, “인물사로서 서희에 대한 재평가,” 『명분과 실리, 서희 외교론』, 서희선생 서거 1010주년 추모 학
술대회 자료집(2008), pp.76-77.에서 참조함.

55) Joel Watson, *Strategy: An Introduction to Game Theory* (New York: Norton & Company, 2004),
pp.22-24.에서 참조함.

용하는 것은, 제1차 여요전쟁 상황에서 서희장군이 협상에 입하였던 당시의 상황이, 먼저 국내정치적인 측면에서 고려의 왕과 충신들을 설득하여야 했고, 다음으로 거란을 대표하는 소손녕과의 담판을 맞이했어야 하였기 때문이다.⁵⁶⁾ 본 연구에서는 이를 두 가지 국면(phase)으로 나누어 각각 게임이론의 논리구조를 사용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이하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서희의 협상전략을 분석하게 된다. 먼저, 제2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틀인 게임이론과 양면 게임이론의 기본적인 논리구조를 살펴보고, 게임이론에서 협력의 도출을 위해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전략, 전술 및 대안들에 대해 정리해 본다. 이 단계에서 분석에 필요한 여러 가지 변수들의 개념적 정의(conceptual definition) 및 개념적으로 정의된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과정 또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양면 게임이론의 논리를 활용하여 고려의 수도 개경(開京)에서 벌어진 서희와 조정 간의 협상, 그리고 안용진(安戎鎭)에서 벌어진 서희와 소손녕의 담판이라는 두 국면에서의 협상과정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첫 번째 국면인 제1차 여요전쟁의 시작과 고려의 내부 협상 분석과정에서는, 먼저 사건의 발단 및 배경을 들여다봄으로써 당시 고려 내부의 권력관계 구도, 조정과 대신들의 입장, 그리고 서희와 성종의 입장을 정리해 본다. 다음으로, 사건의 전개과정을 다음과 같이 초기단계, 전환국면, 정점, 그리고 협상결과의 네 단계로 세분하여 정리한다. 마지막 첫 번째 국면의 게임이론적 분석에서는 앞의 초기단계 - 전환국면 - 정점 - 그리고 협상결과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각각의 대표적 협상 당사자들이 보이는 행태를 게임이론의 틀 안에서 분석한다. 한편, 두 번째 국면인 서희와 소손녕의 강화 교섭에서는, 먼저 국제적인 맥락에서 사건의 발단배경을 살펴본다. 여기서는 당시 동북아의 국제관계 구도를 먼저 살펴보고, 거란과 소손녕의 입장 및 고려와 서희의 입장을 정리해 본다. 다음으로, 서희와 소손녕의 강화 교섭이라는 사건의 전개과정을 초기단계, 전환국면, 정점, 그리고 협상결과의 네 단계로 세분하여 정리한다. 마지막 게임이론적 분석 부분에서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국면에서의 행위자들이 나타내는 행태를 게임이론의 논리구조 하에서 분석하도록 한다.

제4장에서는 앞의 제3장에서 분석한 결과물들을 활용하여 993년에 서희가 벌인 협상게임을 재해석해 본다. 여기서는 서희 협상게임의 전반적 구조의 재구조화를 실시하게 된다. 먼저 서희협상의 두 국면을 다시 일련의 한 과정으로 통합하여 단일한 사건으로 보고, 사건 전반의 흐름을 바꾸어놓은 여러 전환점들을 찾아본다. 다음으로, 각 전환점들에서 서희가 활용한 전략 및 전술을 정리하여 게임이론에서 제시하는 일반적 대안들과 비교·평가해 본다. 마지막으로, 서희 협상게임의 전반에서 공과 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오늘날에 있어 과거 서희의 협상이 갖는 의의를 생각해 보도록 한다.

56)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및 함의를 정리한다. 여기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요약하고, 세계화 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업·조직·개인이 세계적 흐름의 민감한 변화에 대하여 어떠한 정책·전략적 대응자세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안한다. 끝으로 본 연구가 갖는 몇 가지 이론적, 방법론적 한계를 열거한 후, 향후 이 분야에서 어떠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하면서 글을 맺도록 한다.

II. 서희협상의 분석을 위한 이론적 배경

새 차레에 걸쳐 발생한 거란의 고려 침략은 한반도와 한반도 주변에 위치한 국제 행위자들이 동북아 지역에서의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개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즉, 당시 거란의 동북아 지역 침략행위는 거란의 군사력 증강에 따른 지리적 영토 확장 및 세력권 확대욕구의 표출로 볼 수 있고, 고려와 송이 연대하여 거란의 세력범위 확대를 저지하려는 시도는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고려와 거란이라는 양 행위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했고 제1차 여요전쟁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⁵⁷⁾ 제1차 여요전쟁에서 행위자는 거란과 거란의 도발에 대응한 고려였다. 거란과 고려는 각각 스스로에 대한 정보와 상대방에 대한 정보에 기초하여 선호체계를 구성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이 행위자들은 다시 자신의 선호체계에 기초하여 자신의 효용 극대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한다. 제1차 여요전쟁 당시 거란의 동북아 정세에 대한 전략적 선호체계의 중심에는 ‘현상 변경’이 있었지만, 송과 고려의 동북아 지역에 대한 전략적 구도는 역내 세력들 간의 ‘현상유지 및 균형’에 있었다. 이렇게 고려와 송, 그리고 거란을 중심으로 당시 동북아 지역질서의 변동은 시작되었고 고려의 안보상황은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제1차 여요전쟁의 역사적 배경 하에서 서희를 중심으로 한 국내적·국제적 협상 전개 양상은 이하에서 설명할 게임이론의 전제와 상당부분 일치한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의 행위자들의 행동이 합리적이라 가정했을 때, 개별 행위자의 선호체계 설정과정과 전략 수립과정은 게임이론에서 개별 행위자의 효용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개발된 기대효용의 모델의 전제와 매우 닮아있다. 이하에서는 서희협상의 전략적 측면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인 게임이론과, 서희협상의 전술적 측면을 분석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여러 전술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 보도록 한다. 또한 협상 참여자의 전략 및 전술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도 함께 정리해보도록 한다.

57) 이재훈, “여요전쟁시 고려와 요의 군사력 비교,” 고구려 발해학회, 『고구려연구회 학술총서』 제2집 (1999. 12), pp.186-187.과 John King Fairbank and Merle Goldman, *China: A New History(Second Enlarged Edition)* (Cambridg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September 15, 1998)에서 참조함.

1. 게임이론의 기본 개념

가. 게임이론의 의의

게임이론(Game Theory)은 형식적으로는 사회과학에서 이익 갈등의 상황을 다루기 위하여 개발된 수학의 한 분야⁵⁸⁾로서 발전해 왔으며, 일반적으로 '전략적인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의 최적행태(optimal behavior)를 엄격하게 분석하고 관계자들의 게임에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균형상태(equilibria)를 규정하는 의사결정이론'이라고 정의된다.⁵⁹⁾ 수학적 이론으로서 게임이론은 처음에는 이해관계의 대립상황에 대한 분석모델로서 출발⁶⁰⁾하여, 1940년대 경제학자 오스카 모겐스텐(Oskar Morgenstern)의 책, 『게임이론과 경제행동』(Theory of Games and Economic Behavior, 1944)의 출간 이후 이론으로서 확립되었다.⁶¹⁾ 그 이후 게임이론의 범위는 협동적인 상호작용을 포함하기 위하여 확대되었고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등 사회과학의 많은 이론적인 부분에서 이용되어 왔다.

게임이론에서 말하는 '게임'이란 두 사람 이상의 행위자들을 포함하면서 경기자들의 이익이 상호 연결되어 있거나 상호 의존되어 있는 모든 사회적 상황을 말한다.⁶²⁾ 이러한 상황 속에서의 행위자들은 각각 자신의 효용(utility)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종의 전략을 선택하는데 그러한 선택과 관련하여 게임이론에서 제시하는 답이 경제학, 정치학, 심리학 등의 엄밀하고 연역적인 인간행동을 연구하는 다양한 세부 학문에 영향을 주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게임이론에 대하여 셀링(Thomas C. Schelling)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게임이론은—기술의 게임 또는 운수에 맡기는 게임하고는 달리— ‘전략’의 게임으로서 참여자 각각의 최선의 행위 과정이 다른 참여자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자신의 예측에 좌우되는 여러 상황에 관계되어있다.”⁶³⁾

따라서 우리는 합리적 의사결정이론으로서 게임이론을 '게임 참여자(player)가 그들의 목적달성을 위해 어떻게 협동해야 하는지를 밝혀주는 규범적 이론'⁶⁴⁾으로 볼

58) Frank C. Zagare, *Game theory : Concepts and Applications* (New York: Sage Publications, 1986), p.7.에서 참조함.

59) 김태현, 유석진, 정진영 공편, 『외교와 정치: 세계화시대의 국제협상논리와 전략』(서울: 오름, 1995), 제13장 게임이론과 협상분석, p.305.에서 인용함.

60) Saul Stahl, *A Gentle Introduction to Game Theory* (the American Mathematical Society(AMS), 1999), p.11.에서 참조함.

61) Frank C. Zagare(1986), p.7.에서 참조함.

62) Frank C. Zagare(1986), pp.7-8.에서 참조함.

63) Thomas C. Schelling 저, 최동철 역 『갈등의 전략』(서울: 도서출판 나남, 1992), p.29.에서 참조함.

수 있다. 하지만 게임이론은 그것이 가지는 규범적 측면을 훨씬 뛰어넘는다. 일단 이 이론의 주요가정들에 약간의 조작이 가해지고 경험적의미가 부여되면, 게임이론은 설명과 예측을 할 수 있는 기술적(descriptive)이고 실증적(positive)인 이론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⁶⁵⁾ 게임이론의 이와 같은 점은 특히 외교 및 군사 분야—특히 군축협정이나 협상분야—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되었고 본 연구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거란의 고려 침략에 따른 서회의 국내정치적 협상 및 소손녕과의 담판 문제를 설명하고 해석하기 위한 대안으로 유용하리라 판단된다.

게임이론의 가장 밑바탕에는 게임에 참여하는 경기자(Player)는 합리적(rational) 혹은 효용 극대화자(utility maximizer)라는 가정이 깔려있다. 즉, 게임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은 자신의 전략적 선택에 있어 합리성(rationality)⁶⁶⁾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상대방 역시 마찬가지로의 기준을 통하여 게임을 진행 할 것이라는 가정을 한다는 것이다. 게임이론의 이와 같은 가정은 게임 상황이 구성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요소를 필요로 한다.

- ① 게임 참가자(player)가 있어야 한다.
- ② 게임의 규칙(rule)이 필요하다. 게임이 진행되는 순서도 여기에 해당한다.
- ③ 각 게임 참가자들이 갖고 있는 정보량(information)이 어느 정도인지도 게임이론분석에 필수적이다.
- ④ 게임 참가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strategy)의 종류가 있어야 한다.
- ⑤ 각 전략을 선택한 결과에 따라 참가자들이 누리게 되는 보수(pay-off)가 있어야 한다.

위의 다섯 가지 요소, 즉 참가자(player), 규칙(rule), 정보량(information), 전략(strategy), 보수(pay-off)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게임에는 게임이론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이론은 가설설정과 그 적용과정에서, 현실에서는 충분히 발견되고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만한 개입변인(intervene variable)을 상당부분 차단함으로써, 또한 인간 행동의 비합리적(irrational)측면⁶⁷⁾을 간과함으로써 현실세계를 지나치게

64) 원동진, 『알고 싶은 게임이론』 (서울: 형설출판사, 2004), p.11.에서 참조함.

65) Frank C. Zagare(1986), p.8.에서 참조함.

66) 합리성(또는 합목적성, rationality)의 구성요건은 크게 선호도의 합리성과 전략선택의 합목적성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대표적인 개념은 전이성(轉移性, transitivity)일 것이다. 예를 들어 세 개의 대안 x, y, z가 있다고 하다, 행위자가 z보다 y를, 그리고 y보다 x를 선호한다고 하면 전이성의 조건 하에서는 반드시 z보다 x를 선호해야 한다. 김재한, 『게임이론과 남북한관계: 갈등과 협상 및 예측』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5), p.11.에서 참조함.

67) 저비스(Robert Jervis)는 인간행동의 비합리적 측면—즉 오인(misconception)의 문제—까지도 합리성의 범주로 편입시킴으로서 이론의 비현실성이라는 비판에 대한 극복을 시도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Robert Jervis, "War and Misconception," in Robert I. Rotberg and Theodore K. Rabb(eds.), *The Origins and Prevention of Major Wa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ch.6.참조.

단순화 시킨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게임이론이 가진 실용적인 측면과 충분히 엄밀하고 연역적인 인간행동의 이론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은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보다 경험적으로 현실을 잘 설명함⁶⁸⁾에 따라 게임이론이 그동안 비판 받아왔던 모델의 비현실성에 대한 한계를 상쇄해가고 있으며 기존의 다른 이론들이 가졌던 추상성의 문제를 보완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게임의 성격에 따른 구분

특정한 게임의 성격은 참여자(Player), 효용(Utility), 방식(Sequence), 정보(Information), 반복성(Repetition)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 할 수 있다.

첫째, 게임 참여자의 수를 기준으로 한사람이 참여하는 게임을 1인 게임(1-person game), 두 사람이 참여하는 게임을 2인 게임(2-person game), 그리고 3인 이상이 참여하는 게임을 N인 게임(N-person game)으로 게임의 성격을 구분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 가장 간단한 형태인 1인 게임은 때로는 자연에 대한 게임(game against nature)이라고도 불리는데, 여기서는 단일 경기자가 무차별적이거나 중립적이라고 가정되는 환경에 대면하여 결정을 내린다.⁶⁹⁾ 이러한 1인 게임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게임들이 주로 2인 이상의 행위자를 포함하고 있기에 사회과학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던 반면 가장 기본적인 상호작용으로서의 2인 게임과, 현실과 가장 많이 닮아있는 N인 게임은 게임이론이 확립된 이후 게임 이론가들의 주요 연구 기준이었다.

둘째, 게임 참여자들이 게임의 결과로서 각각의 선택에 대해 얻게 되는 보상(pay-off)의 합이 어떠한가를 기준으로 제로섬 게임(zero-sum game)과 논-제로섬 게임(non-zero-sum game)으로 게임의 성격을 구분할 수 있다. 제로섬 게임에서는 가치가 창조되지도, 파괴되지도 않는데, 이는 한 경기자가 잃는 것은 다른 경기자가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역도 성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로섬 게임은 한 극단에서의, 즉 정면으로 대립되는 이익들의 극단에서의 상호의존적 선택을 나타낸다.⁷⁰⁾ 한편 논-제로섬 게임은 게임을 통해 각각의 행위자가 잃거나 얻게 되는 보상의 합이 영이 아닌 게임을 말한다. 대부분의 사회적, 정치적, 혹은 경제적 상호작용들에서는 경기자들의 이익은 일반적으로 경쟁적이면서 보완적이다.⁷¹⁾

68) 형식이론에서 나온 가설들을 경험적이고 체계적으로 검증한 것은 부에노 드 메스퀴타(Bueno de Mesquita) 교수의 연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B. Bueno de Mesquita, *War Trap*(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1); B. Bueno de Mesquita, "The Contribution of Expect-Utility Theory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Conflict," M. Midlarsky(ed.), *Handbook Of War Studies*(Boston: Unwin Hyman, 1989), pp.143-169.에서 참조함.

69) Frank C. Zagare(1986), p.17.에서 참조함.

70) 다음의 내용을 직접 번역하였다. "Zero-sum games represent interdependence choice at one extreme, the extreme of diametrically opposed interests." Frank C. Zagare(1986), p.33.

셋째, 게임의 진행이 순차적이냐 아니면 동시적이냐를 기준으로 게임의 성격을 동시적 전략게임(simultaneous move game)과 순차적 전략 게임(sequential move game)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동시적 전략 게임에서 게임의 참여자는 동시에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되는 반면 순차적 전략게임에서의 참여자는 각각 번갈아 가며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특히 순차적 전략 게임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썼는지 관찰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전략을 정하고, 상대방은 다시 그에 따른 다음 전략을 구사하는 방식을 되풀이 하게 된다. 동시적 전략게임이 행렬 모양(matrix diagram)⁷²⁾으로 표시된다면, 순차적 전략게임은 통상적으로 나무 모양(tree diagram)⁷³⁾으로 표시된다.⁷⁴⁾

넷째, 정보량을 기준으로 완전 정보 게임(complete information game)과 불완전 정보 게임(incomplete information game)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게임의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는 두 행위자가 각자 상대방의 선호와 그에 따른 전략을 완전히 알고 있어 상대방의 전략적 선택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게임의 성격을 말한다. 반면, 후자는 상대방의 선호와 전략에 대한 정보를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지 못해 상대방의 전략적 선택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완벽하게 파악 할 수 없는 성격의 게임을 말한다.

다섯째, 게임의 반복성을 기준으로 일회성 게임(one-time game)과 반복 게임(repeated game)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게임 참여자의 전략적 선택이 서로 단 한 번씩만 이루어지는 게임을 말하며 후자는 게임 참여자의 전략적 선택이 서로 여러 번 이루어 질 수 있는 게임을 말한다. 한편, 반복게임은 다시 '유한반복 게임'과 '무한반복 게임'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유한반복 게임은 게임이 반복되는 횟수가 미리 정해진 게임을 말하는 반면 무한반복 게임은 게임이 반복되는 횟수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무한히 반복 될 수 있는 게임을 말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유한반복 게임에서는 아무리 많은 횟수의 게임이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게임은 1회 시행 게임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과거의 경험의 현재의 보수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협력의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이다.⁷⁵⁾ 반면, 무한히 반복되는 게임에서는 유한반복 게임과는 다소 변형된 논리구조를 적용할 수 있다. 즉 무한반복 게임에서는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보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71) 다음의 내용을 직접 번역하였다. "Conflict need not be total; indeed, it rarely is. In most social, political or economic interactions, players generally have both competitive and complementary interests. Games of this sort are termed Non-zero-sum games, not strictly competitive games, or mixed-motive games." Frank C. Zagare(1986), p.59.

72) Zagare는 이를 정규형(normal form)이라고 칭한다. Frank C. Zagare(1986), p.19,에서 참조함.

73) Zagare는 이를 전개형(extensive form)이라고 칭한다. Frank C. Zagare(1986), p.19,에서 참조함.

74) 원동진(2004), p.65,에서 참조함.

75)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현실에 적용되었을 때 아무래도 수긍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논리가 옳다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협조를 통하여 상호이익을 증진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하기 때문이다. 원동진(2004), p.87,에서 참조함.

또한 미래의 보수를 현재적 가치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정도 협력의 가능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⁷⁶⁾

다. 게임의 유형

대표적인 게임의 유형으로는 치킨 게임(Chicken Game), 죄수의 딜레마 게임(Prisoner's Dilemma Game), 사슴사냥 게임(Stag-Hunt Game), 성대결 게임(Battle of the Sexes Game)의 네 가지가 있다. 이들 각각의 게임형태에서는 게임 행위자들이 각자의 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에 대한 선호구조에 차이가 있다. 즉, 만약 게임에 참여하는 두 명의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교차되어있는 게임 상황에서 한 참여자가 협조하는 전략을 택하는 것을 'C(Cooperation, 이하 C라고 한다)'라고 하고, 반대로 배반하는 전략을 택하는 것을 'D(Deceit, 이하 D라고 한다)'라고 하였을 때, 이 두 참여자들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의 조합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경우의 수를 갖는다.

[그림 8] 2인 게임에서의 선택의 행마

A \ B	협조	배반
협조	CC, CC	CD, DC
배반	DC, CD	DD, DD

여기서 CC와 DD는 각각 쌍방이 다 협조하는 것과 배반하는 것을 말하며, CD와 DC는 각각 상대방만 배신하는 것과 자신만 배신하는 것을 지칭한다. 이 간단한 2인 게임에서도 참여자 각각의 선호도에 따라서 게임의 결과는 다르다. 만약 배반당하는 것보다 배반 하는 것을 선호하고 ($DC > CD$), 배반당하는 것보다 상호 협조를 선호하고($CC > CD$), 상호 배반하는 것보다 자신만 배반하기를 선호한다면($DC > DD$), 대칭게임(symmetric game)은 다음 네 가지의 경우만 가능하다⁷⁷⁾

㉠ $DC > CC > CD > DD$ 치킨 게임(Chicken Game)

㉡ $DC > CC > DD > CD$ 죄수의 딜레마 게임(Prisoner's Dilemma Game)

76) 무한반복 게임에서는 후진귀납법(backward induction)을 적용하여 내쉬균형을 구할 수 있으며 또한 무한히 반복되므로 통상할인율을 적용하여 미래의 보수(pay-off)를 현재가치화 하여 비교할 수 있다. 원동진(2004), p.91.에서 참조함.

77) 김재환(1995), p.65.에서 참조함.

③ CC > DC > DD > CD 사슴사냥 게임(Stag-Hunting Game)

④ CC > DC > CD > DD 성대결 게임(Battle of the Sexes Game)

첫째, 치킨 게임이다. 미국에서는 집쟁이를 ‘치킨(Chicken)’ 이라고 부르곤 하는데 치킨게임은 미국의 불량청소년들이 했던 게임의 형태로 쌍방이 서로 마주보고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타고 전속력으로 달리가서 먼저 피하는 사람이 패하게 되는 일종의 배짱싸움이다. 쌍방이 끝까지 돌진하게 되면 둘 다 죽게 될 것이고(DD), 쌍방이 동시에 피하게 되면 그들의 체면은 조금 손상될 것이다(CC), 또한 한 쪽이 피하고 다른 한 쪽이 돌진하게 된다면 피한 쪽은 집쟁이가 되는 반면(CD), 돌진한 쪽은 영웅이 된다(DC). 이 게임에서는 상대방을 배반할 욕구가 쌍방의 과밀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전제된다.

둘째,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은 중대한 범죄의 혐의가 있는 두 죄수가 경범죄에 대한 증거만 갖고 있는 검사를 두고 벌이는 게임의 상황을 가정한다. 이 게임에서 만약 두 죄수 모두 중범죄에 대한 자백을 거부하면 둘 다 가벼운 형을 받게 되고(CC), 반면에 둘 다 자백하면 둘 다 중형을 받게 되며(DD), 만약 한 사람은 자백하고 다른 한 사람은 자백을 거부하게 되면 자백을 한 사람은 석방되고(DC), 자백하지 않은 사람은 극형을 받게 된다는(CD) 게임이다. 이러한 게임이 1회 시행된다고 가정할 때에는 상대방의 전략에 관계없이 자신은 배반하는 것이 유리하다. 즉, 이 게임은 상대방이 협조하든 배반하든 그것에 관계없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배반하는 것이 유리한 게임인 것이다.

셋째, 사슴사냥 게임⁷⁸⁾이다. 사슴사냥 게임은 두 명의 사냥꾼이 한 마리의 사슴을 사냥하고 있고 각각에게는 눈앞에 보이는 토끼라는 협력 상황에서의 이탈유인이 있는 상황을 가정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게임의 참여자들이 잘 협조하면 모두가 포식한다(CC), 하지만 어느 한 참여자가 눈앞에 보이는 토끼의 유인에 의해 협력의 과정에서 이탈하게 된다면—즉, 사슴사냥을 위한 포위망을 풀다면— 그 사람은 포식은 할 수 없지만 토끼는 잡을 수 있으나(DC), 나머지 행위자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CD), 한편 게임 참여자 모두 다 사슴사냥을 포기하고 각각 토끼를 잡기 위해 흩어진다면 모두 다 각자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DD). 이 게임에서 배반의 동기는 행위들이 사슴 한 마리를 잡게 됨으로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이 행위자 각각이 토끼를 잡게 됨으로 인해 얻게 되는 효용의 총합보다 크다는 사실에 의해 전제된다. 그러나 이 게임과 같은 보증(assurance)게임의 유형에서도 쌍방에게 최선인 상호협조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넷째, 성대결 게임이다. 상호협조의 확실한 보장은 상대방의 전략에 관계없이 자신이 협조를 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즉 C를 선택하는 것이 우위전략(dominant

78) 사슴사냥 게임은 본래 무소개 초기 사회계약으로서 원시사회에서의 협력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해 언급한 것이다. 김제환(1995), p.65,에서 참조함.

strategy)이 될 때 가능하다. 성대결 게임 또는 교환게임의 유형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게임에서는 부부인 두 참여자가 각각 남편은 영화를 보러가고 싶어 하고 부인은 음악회를 보러가고 싶어 하는 상황에서 동시에 두 참여자 모두의 선호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과 둘이 서로 떨어져 각각 자신의 선호를 충족하는 것의 효용이 둘이 함께 있는 것의 효용보다 큰 상황을 가정한다. 이러한 상황을 남편의 선호에 대한 충족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부인이 양보해서 남편이 선호하는 영화를 보러 간다면 남편은 자신이 선호하는 것에 대한 효용과 부인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한 효용 모두를 누릴 수 있다(CC), 반대로 남편이 양보하여 부인이 선호하는 음악회를 보러 간다고 하였을 때에도 남편은 비록 영화라는 자신의 선호를 충족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용은 없을지라도 부인과 함께 있음으로서 얻게 되는 효용이 있음으로서 일정 정도이상의 효용을 얻을 수 있다(CD), 또한 남편이나 부인 각각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보기위해 남편은 혼자 영화를 보러가고, 부인은 혼자 음악회를 보러갔을 때 예도 각자는 자신의 선호에 대한 충족으로 인한 일정정도 이상의 효용을 볼 수 있다(DC), 그러나 만약 남편이 혼자 음악회에 가고, 부인이 혼자 영화를 보러가는 경우에는 각각 아무런 효용도 얻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되게 된다(DD), 결국 성대결의 게임에서는 협조를 하는 것이 언제나 우위전략이 되고 배반하는 것이 언제나 열등한 전략이 되는 것이다.

라. 기대효용 모델

합리적 의사결정이론의 한 분석 틀로서의 기대효용 모델은 개인들의 집합적 효용 구조를 결정과정을 예측하는 모델로서 그 핵심 공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개의 정책결정자들은 각자의 선호도에 따라 대안을 배열한다. 둘째, 선호도의 순서는, A를 B보다 선호하고 B를 C보다 선호하면 A를 C보다 선호한다. 셋째, 개인들은 자신의 선호 정도를 알고 있다. 넷째, 개인들은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는 대안을 그 결과에 대한 효용과 확률로 생각한다. 다섯째, 정책결정자들은 항상 최고의 기대효용을 가져올 전략을 택한다.⁷⁹⁾

기대효용모델에서 합리적 행위자의 선호에 기초한 전략 수립 과정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세 가지의 결과 A, A', A" 가 있다고 가정할 때, A를 A'보다 선호하고 A'를 A"보다 선호한다고 가정한다. 이때 U가 효용을 표시한다고 할 때 결과들의 선호도는 $U(A) > U(A') > U(A'')$ 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U(A)는 최선의 결과, U(A')는 차선의 결과, 그리고 U(A'')는 최악의 결과이다. U(A)를 성취할 확률을 P, U(A'')를 성취할 확률을 $1-P$ 라고 하면, 다음 세 가지 선택항목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최선의 전략을 택하는 것, 둘째, 차선을 택하는 것, 셋째, 최악을 택하는 것이

79) Bueno de Mesquita, 김재한 譯, "국제 갈등의 연구에 대한 기대효용이론의 기여," 김우상 外 편, 『국제관계론 강의 1』 (서울: 한울, 2004), pp.165-166.에서 참조함.

다. 기대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개인은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효용이 차선을 선택함으로써 기대하는 효용보다 클 경우, 위험을 무릅쓰고 A의 전략을 택할 것이다. 이를 기호로 표시하면 다음의 <식1>과 같다. 즉,

$$PU(A) + (1 - P)U(A'') > U(A') \dots \dots \dots <식1>$$

이러한 경우 행위자는 모험적인 전략을 택하는 것이다. 반면 개인의 효용구조가 다음의 <식2-2>와 같이,

$$PU(A) + (1 - P)U(A'') < U(A') \dots \dots \dots <식2>$$

인 경우 행위자는 차선이면서 안전한 U(A')를 택한다. 본 연구에서 게임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각 선택들에 대한 효용구조 분석은 이상과 같은 기대효용모델의 논리하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마. 게임의 해와 내쉬균형(Nash Equilibrium)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은 게임의 해(解: solution)와 내쉬균형(Nash equilibrium)의 개념이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본 연구의 주제인 서희가 벌인 두 번의 게임에서 각 게임의 귀결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⁸⁰⁾ 이 두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게임의 해 개념이다. 게임 상황의 특징은 게임에 참여한 경기자들 간에 상호작용이 존재한다는 데 있다. 한 참여자가 얻는 보수는 자신의 행동뿐만 아니라 다른 참여자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게임이론은 이러한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이론이다. 장기나 바둑과 같은 게임과 같이 순차진행형 게임(games of sequential move)⁸¹⁾에서의 참여자는 상대방이 장차 어떠한 행동을 선택할지를 지켜보고 나서 이에 기초하여 자신의 최적선택을 결정한다. 또한—장기나 바둑과 같이—선택의 수가 한정된 게임에서는 이론적으로는 게임의 끝에서부터 거꾸로 최적의 수를 추적해 올라옴으로써 최선의 전략이 결정될 수 있다. 그러나 게임 참여자들이 동시에 행동을 선택하는 동시진행형 게임(games of simultaneous move)에서 참여자들은 상대가 어떠한 수를 선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동시에 선택을 하게 된다. 이때 경기자들은 서로 상대방이 어떠한 행동을 취할지에 대해 예상하려고 하며, 참가자들 서로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선택에

80) 서희는 자신이 벌여야 할 게임의 현재상태의 귀결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지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게임의 결과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였다.

81) 동태적 게임(dynamic game)이라고도 불린다.

대해 어떤 예상할지를 예측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적대적 게임(zero-sum game)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전략에 대한 예측이 일의적으로 결정되며, 이 경우 게임의 해는 여러 개가 존재할 수도, 또는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 내쉬균형은 비적대적 게임(non-zero-sum game)의 경우 존재할 수 있는 게임의 귀결점이다. 적대적 게임의 경우에서와는 달리 비적대적 게임에서는 상대방의 전략에 대한 예측이 일의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예측의 예측—즉, 상대방의 예상에 대한 예상—의 예상 국면 들어서게 되고 이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무한히 반복되며, 결국 한 게임에서 어떠한 결과가 도출될지 예측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내쉬(1949)의 균형개념은 이러한 논리적 추론의 무한한 연쇄 고리로부터 탈출하려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즉, 한 참여자는 상대방이 자기의 여러 수(move) 중에서 특정한 최적전략 하나를 선택할 것이라고 예상 하는 것을 예상한다.⁸²⁾ 그리고 참여자들의 최적전략은 첫 번째 단계의 예상에 의해서만 결정되며, 이후의 연쇄 고리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전략조합을 내쉬균형이라 한다.

종합해 보면, '게임의 해'라는 개념은 한 게임에서 상대방의 수를 고려한 참여자들의 집합적인 선택들로 인해 귀결되는 게임의 결과를 의미한다. 또한 '내쉬균형'은 '게임 상황과 상대방의 전략이 주어졌을 때 자신 혼자만 전략을 변경하여 자신의 이익을 증진 시킬 수 없는 상태'로 정의된다.⁸³⁾ 모든 합리적인 게임의 참여자들 모두가 상대방이 내린 선택 하에서는 자신의 선택이 최선이라고 여기는 결과에 이르면 이를 '내쉬균형'에 도달했다고 지칭할 수 있는 것이다. 각 행위자들은 내쉬균형점에서 자신의 사전적 기대효용을 극대화 시킨다.

2. 협상을 위한 전략 및 전술

가. 게임이론에서의 전략

게임이론에서 언급하는 전략은 각 당사자를 위한 최선의 행동노선이 다른 당사자의 행동 대안에 의존하는 상황과 관련된다. 즉, 게임 상황의 한 행위자가 특정한 가치기준을 가지고 다른 행위자의 게임결과에 대한 선호와 보상구조를 파악하여, 상대의 선택에 대항한 자신의 선택을 조율하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이다.⁸⁴⁾ 이때 행위자의 행동은 합리적인 것으로 가정되며, 이에 따라 각 행위자들은 자신의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전략은 모든 가능한 선택조건, 즉 상호의존적인 행위자의 선택으로

82) 이렇게 보면 모든 예측의 연쇄 고리는 매우 단순하게 표현될 수 있다.

83) Nash, John F. Jr., "Nash Equilibrium Points in N-Person Games," Proc. Nat. Acad. Sci. U.S.A. 36(1950), pp.48-49.에서 참조함.

84) Thomas C. Schelling(1980), p.3.와 Joel Watson(2004), pp.23-28.에서 참조함.

부터 초래되는 모든 상황조건을 고려한 행동계획(plan of action)을 포함하며, 상대방의 선택에 수반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합의 상황조건 하에서 특정 당사자가 내리는 일련의 선택들(a specification of choices)을 의미한다.⁸⁵⁾

게임이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전략은 다음의 네 가지, 즉 순수 전략(pure strategy)과 혼합 전략(mixed strategy), 맥시민 전략(maximin strategy)과 미니맥스 전략(minimax strategy), 우월 전략(dominant strategy)과 열등 전략(dominated strategy), 합리화가능 전략(rationalizable strategy), 그리고 위험 우월 전략(risk dominant strategy) 등으로 범주화된다. 이를 간단히 정리해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순수 전략과 혼합 전략이다. 순수 전략은 여러 가지 게임 운영방안 중에서 단 한 가지 방안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며, 혼합 전략은 가능한 이질적인 방안을 혼합하여 전략의 조합을 만들어 게임을 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게임의 유형들 중, 순수전략이 적용되는 게임은 유한게임일 것이다.⁸⁶⁾ 그리고 단 한번 시행되는 게임에서도 혼합전략은 개념적으로는 의미를 갖지만 실제로는 반복게임에서 유용하다.⁸⁷⁾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게임의 경우에 다양한 전략의 조합을 통하여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

둘째, 미니맥스 전략과 맥시민 전략이다. 미니맥스 전략은 적대적 게임 상황에서 각 전략을 선택했을 때 최악의 결과를 비교하여 이들 중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전략을 선택하는 전략을 의미한다.⁸⁸⁾ 미니맥스 전략에서는 전략적 수(手: move)가 보수적으로 운용되므로 신중전략(prudential strategy)이라고도 한다. 또한, 맥시민 전략은 두 적대자가 참여하는 적대적 게임에서 혼합전략이 도입되는 경우, 한 경기자가 자신의 맥시민 전략으로부터 최소한 확보할 수 있는 기대보수가 그의 최대 보수와 일치하도록 하는 전략이다. 여기서는 참가자의 전략적 선택이 다소 개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모험전략(risky strategy)이라고도 한다. 이 전략을 행렬에서 표현하는 경우를 예로 들자면, 참여자 A는 각 행에서 최소값을 구하여 이들 중에서 최대값을 정하고(minimax), 참여자 B는 각 열에서 최대값을 구하여 이들 중에서 최소값을 정하는(maximin)식의 전략을 구성하는 방법을 말한다.⁸⁹⁾ 그러나 비적대적 게임에서는 이 두 전략의 적용이 제한적이다. 즉, 혼합전략을 도입하더라도 한 경기자가 확보할 수 있는 최소보수와 최대보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더

85) Schellenberg, James A. *The Science of Conflic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pp.169-173.에서 참조함.

86) 예를 들어, 단 한편으로 승부를 결정짓는 '가위-바위-보' 게임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87) 앞의 예와 비슷한 예를 들자면, 여러 번 실시해서 더 승수가 많은 참여자가 승리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결정짓는 '가위-바위-보' 게임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88) 즉, 게임 행렬에서 보수의 최대 손실의 최소화(minimization of maximum loss)을 의미한다. Morton D. Davis, *Game Theory* (New York: Basic Books Inc., 1970), pp.38-39.에서 참조함.

89) 권오현, 윤태환, 『게임이론과 전략』 (서울: 법한서적 주식회사, 2000), p.10.에서 참조함.

이상 경기자들이 맥시민 전략 또는 미니맥스 전략을 쓸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⁹⁰⁾

셋째, 우월 전략과 열등 전략이다. 비적대적 게임에서의 전략은 각 전략의 활용 결과가 갖는 보수에 대한 우월성과 열등성을 기준으로 구성된다. 먼저 우월전략은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운용하든 그 전략에 대항한 자신의 전략이 최대의 효용을 가져오는 전략을 의미한다. 또한 열등전략은 어떤 한 참여자의 전략 A에 대해 다른 참여자들의 전략에 상관없이 항상 더 나은 보수를 주는 다른 전략 B가 존재하는 경우의 전략 A를 열등전략이라고 한다. 전략적으로는 이 열등 전략을 전략의 수에서 배제함으로써 게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이 우월 전략과 열등 전략은 다음과 같이, 명백 우월 전략(strictly dominant strategy), 명백 열등 전략(strictly dominated strategy), 그리고 약 열등 전략(weakly dominated strategy)의 세 가지로 세분하여 표현할 수 있다.

넷째, 합리화가능 전략이다. 치킨게임과 같은 경우의 상황에는 우월전략이나 열등 전략이 존재할 수 없다. 어느 한 전략도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고 순환적으로 효용 구조가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어떠한 행동도 합리화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합리화 과정도 무수히 반복될 수 있다. 이렇게 상대방의 전략에 대한 예상에 기초하여 합리화가 가능한 전략을 합리화 가능 전략 이라고 한다.

다섯째, 위험 우월 전략이다. 위험 우월 전략은 앞의 맥시민 전략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예를 들어 선택 수 A가 그것을 채택함으로써 100의 보수를 얻을 수 있는 한편 -100의 손실도 입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채택하지 않는 경우 50의 보수를 얻을 수 있는 경우, 행위자가 선택 수 A를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안전한 전략을 채택하는 것을 말한다.

나. 일반적인 전략과 전술

앞의 게임이론에서와 비슷한 맥락에서, 협상전략(negotiation strategy)이란 일반적으로 '협상과정에 있어서 특정 당사자가 상호의존 관계에 있는 다른 당사자의 선택과 행동을 고려하여 내리는 일련의 거시적 행동계획' 이라고 정의된다.⁹¹⁾ 이러한 협상전략은 첫째, 상호의존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포함한다. 둘째, 상대방의 선택과 대응에 따른 결과와 그것이 자신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측한다. 셋째, 상대의 예상되는 선택과 행동에 근거한 행동계획을 수립한다. 넷째, 이러한 협상전략은 구체적인 실천수단인 전술에 대한 선택을 수반한다.

여기서 구체적인 실천수단인 전술과 거시적인 행동계획의 구분을 면밀히 살펴볼 필

90) 신성희, 『게임이론』 (서울: 박영사, 2006), p.48.에서 참조함.

91) 하혜수, "우리나라 역사인물의 협상전략에 대한 비교연구: 을지문덕 장군과 서희장군을 중심으로, 『협상연구』 (제11권 제1호, 2005년 6월), pp.7-8.에서 참조함.

요가 있다. 흔히 협상의 전략과 전술은 비슷한 의미로 혼용되어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용어상의 유사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종의 오류이다. '전략'은 갈등의 상황에서 최고책임자가 지력을 최대한 짜내어 아군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것으로서 상황 전반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구상을 의미하는 반면, '전술'은 전략을 짜낸 뒤에 실제로 갈등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직면했을 때 현장에 투입된 책임자가 짜내는 방책으로써, 일종의 기술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전술은 대체로 전략의 하위 개념으로 여겨지지만, 그 중요성은 결코 전략에 뒤지지 않는다. 성공적인 전략을 세워 순조롭게 갈등상황을 대비하였다 하더라도, 정작 실제 대치상황에서 전략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한다면 훌륭한 전략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 두 개념은 서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상호 보완적이고 의존적인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먼저 협상의 전략에 관한 정리를 하고난 다음 전략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술들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먼저 협상전략(negotiation strategies)에 관한 논의이다. 앞에서 몇 가지 협상개입의 유형을 언급한 바 있는데, 그러한 유형이 바로 전략의 유형이 될 수 있으며 전략은 협상의 유형보다 더욱 세분화 하여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⁹²⁾ 협상전략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협상당사자들은 그들의 목표, 능력, 인지 및 평가, 기대 및 상대방에 따라 선호하는 협상전략을 택할 수 있다. 또한 이의 분류는 그 내용은 비슷하지만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다.⁹³⁾

본 연구에서는 협상 전략의 정리를 위해 Dean G. Pruitt이 제시한 "이중 관심모델(The Dual Concern Model)"의 논리준거를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⁹⁴⁾ 그는 협상전략을 분류함에 있어서 "협상성과에 대한 중시(concern about own outcomes)"와 "상호관계에 대한 중시(concern about other party's outcomes)"의 요소를 기준으로 이들 요소의 상호관계와 중요도에 따라 다음의 4가지 전략적 선택이 가능함을 언급하였다. 첫째, 문제해결 전략(problem-solving strategy)이다. 문제해결전략은 협상성과와 상호관계의 양쪽을 모두 원하는 경우에 선택하게 된다. 즉, 협상 당사자가 상대와 협조하여 협상성과를 얻어 상호관계를 유지·발전시키고자 하는 협상전략이다. 이는 합의도출 가능성이 높거나 협상의제 해결의 필요성이 높은 경우에

92) 이달곤, 『협상론: 협상의 과정, 구조, 그리고 협상전략(제3판)』 (서울: 법문사, 2005), p.330-333.에서 참조함.

93) 구체적으로, Dean G. Pruitt는 "경쟁전략(contending strategy), 문제해결 전략(problem-solving strategy), 양보전략(yield strategy)"으로, Roy J. Lewick와 J. A. Litterer 등은 "경쟁전략(competition strategy), 협조전략(collaboration strategy), 순응전략(accommodative strategy)"으로, Roger Fisher, William Ury와 Bruce Patton은 "연성 협상전략(soft negotiation strategy)과 경성 협상전략(hard negotiation strategy)"으로, R. E. Walton과 R. B. McKersie는 "분배적 협상전략(distributive bargaining strategy)과 집중적 협상전략(integrative bargaining strategy)"로 구분한다. Dean G. Pruitt, "Strategy in Negotiation," Kremenjuk, eds., *International Negotiation: Analysis, Approaches, Issues* (California: Jossey-Bass, 1991), p.78.에서 참조함.

94) 이하의 내용은 Dean G. Pruitt, "Strategic Choice in Negotiation,"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27, No. 2 (Nov. 1983), p.173.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해당하며, 여기서 협상 당사자는 타협과 공모의 자세를 취하게 된다. 이때 협상은 상호이익을 기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둘째, 경쟁전략(contending strategy)이다. 경쟁전략은 협상성과의 중요성이 상호관계보다도 우선되는 경우, 협상자의 상호관계를 희생하더라도 선택된다. 즉, 협상자의 한쪽이 상대에 대한 불신감이 있어 서로의 신뢰관계가 부족한 경우의 전략이다. 또한 이는 협상의 목적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일방의 입장을 상대방에게 설득시키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경쟁전략에서는 협상 당사자가 대결과 제압 자세를 주로 선택함으로써 합의도출이 어렵게 되는 약점을 갖는다.

셋째, 양보전략(yield strategy)이다. 양보전략은 상호관계가 협상성과 그 자체보다도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협상당사자들이 양보와 유화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하는 전략을 말한다. 여기서는 양보의 정도가 클수록 협상의 성공가능성이 높아지며, 양보는 필요에 의해 단 일회 혹은 수회에 걸쳐 나누어질 수도 있다.

넷째, 무행동전략(non-behavior strategy)이다. 무행동전략은 협상성과와 상호관계 모두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전략적 선택이다. 이는 협상 당사자가 잠정적으로 협상을 중단시키는 전략으로 시간의 낭비가 많으나 불리한 입장에 있는 협상 당사자 측면에서 국면전환을 위해 채택할 수 있는 전략이다. 이때 협상 당사자의 자세는 회피와 무시의 성향을 보이는 특징을 갖는다.

다음으로 협상전술(negotiation tactics)을 살펴보도록 한다.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협상전술이란 협상전략의 구체적인 실천수단으로서 타결규칙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이는 여러 다른 협상전략 및 전술과 혼용해서 응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협상에서 협상 당사자가 활용할 수 있는 협상전술은 무수히 많을 수 있다. 협상전략에 수반되는 협상전술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대표적인 사항들이 있다. 첫째, 이슈나 양보의 전략적 교환(strategic trade-offs)이다. 이슈나 양보의 전략적 교환이란, 협상 상황에서의 협상 당사자들이 서로 용인될 수 있는 한계가 침에하게 대립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때 상호 간에 만족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공동의 이익을 증대시키고, 협상의제에 부여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이슈를 전략적으로 교환(trade-offs)하는 방식이 필요하다.⁹⁵⁾

둘째, 의제의 분리(salami tactics or cherry picking)나 패키지 화(christmas trees and packages)이다. 단일의 협상의제를 몇 개의 의제로 분리하여 타결하거나 다수의 의제를 단일 의제화 하여 타결하는 것을 말하며 '이슈의 연계(issue linkage)'라고도 표현한다.⁹⁶⁾

셋째, 이면보상(side-payments)이다. 이면보상이란 협상상황에서 정책결정자가 특정한 사안에 있어 상대방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하여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95) Pruitt D. G. and Carnevale P. J., *Negotiation in Social Conflict*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1995), pp.36-37.에서 참조함.

96) 이달곤(2005), p.117.에서 참조함.

여기서의 보상이란 직접적인 금전적 지불이나 다른 사안에서의 물질적 양보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⁹⁷⁾

넷째, 사안의 재정의(redefining issues)이다. 사안을 재정의 하는 것은 협상 당사자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안을 자신의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다시 정의하는 것이다. 즉, 특정한 협상사안에 관한 해석이 자신의 이해와 합치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 협상 당사자는 협상을 잠시 멈추고 현안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여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전략 활용을 위한 협상전술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기술(craft)적인 측면에서의 다섯 가지 전술들을 더 언급할 필요가 있다.⁹⁸⁾ 첫째, 알려주기(inform)이다. 알려주기란, 협상테이블에서 상대방의 기대를 바꾸거나 사람들의 결과에 대한 보수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상대방에게 스스로가 협상사안에 대한 논의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졌다고 확신하게끔 하는 방법을 말한다. 둘째, 위협(browbeat) 또는 속임수(deceit) 전술이다. 협상테이블에서 상대방에게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실제 가지고 있거나 고려하고 있지 않는 선택항목이 존재하는 것처럼 꾸며 상대방이 믿도록 만들어 양보를 유도해내는 것을 말한다. 셋째, 지연전술(wear-down) 또는 의사전행방해(filibuster)이다. 전형적인 시간 끌기 전술의 일환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협상당사자의 양보를 이끌어내는데 활용이 가능하다. 넷째, 흥집잡기(haggling), 예외조항 달기(qualification), 또는 교차사안에 대한 공갈(cross-issue blackmail) 전술이다. 협상테이블에서 거론되고 있는 사안의 특정 부분을 평가절하 한다든가 아니면 특정한 단서를 붙여서 협조를 얻어내는 전술이다. 다섯째, 벼랑끝전술(brinkmanship), 또는 거부권행사(veto/walk-out) 전술이다. 협상이 교착상태에 머물러있을 때 협상 당사자가 협상의 파기를 각오하고 사용하는 전술로서 성공하는 경우의 효용이 큰 반면, 실패했을 경우의 위험부담도 크다. 이 방법은 협상의 타결이 보다 '덜' 절실한 측에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다. 협상전략 및 전술의 선택과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협상을 위한 전략 및 전술의 종류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국가 간의 협상은 물이상의 국가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 공동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당사자간에 이해를 조정하는 교섭과정으로서 외교의 주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 및 전술을 누구의 손에 의해, 어떠한 요인을 고려하고 집행되어나가는

97) Richard Friman, "Side-Payments versus Security Cards: Domestic Bargaining Tactics in International Economic Negoti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47, No.3, (Summer, 1993), pp.387-410.에서 참조함.

98) 이하의 내용은 Ronald A. Walker, "Negotiation," in Ronald A. Walker, *Multilateral Conferences: Purposeful International Negotiation* (New York: Palgrave, 2004), pp.173-194.에서 참조함.

지에 대한 분석은 전략과 전술의 선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참조요소가 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협상전략 및 전술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소 네 가지, 즉 인적 요소, 국가적 목표, 환경, 그리고 우연한 사건의 발생 여부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해보도록 한다.

첫째, 인적 요소이다. 외교정책과 전략, 그리고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 사용되는 전술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정책결정자의 개인적 성격은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한다. 정책 결정자가 가지고 있는 성격상의 호전성, 독특성, 그리고 현실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 등도 그가 내리는 정책적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 성취욕, 명예욕, 승리욕 등에 '사로잡힌' 협상 참여자는 침략적인 대외협상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반면 애국심,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 등이 큰 협상 참여자는 협상과정에서 자신의 국가나 국가 지도자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또한 협상 당사자의 성격이 유약하거나 사대적이라면 협상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양보를 남발할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도, 현실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은 훌륭한 협상가의 가장 큰 덕목인 바, 실제 협상에서 이것에 의해 협상결과가 크게 좌우될 수 있다.

둘째, 국가적 목표이다.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를 국가이익이라고 하며, 외교정책은 국가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제적인 도구이다. 또한 협상은 국가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외교적 방법이다. 국가이익의 주요 요소를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 경제성장(economic development), 국가위신(national status)으로 나누어진다.⁹⁹⁾ 이들 세 가지 국가이익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이루며 존재하고 있다. 또한 특정 외교정책이 추구하는 국가이익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국가들은 대외정책의 관철을 위하여 구체적인 전략수립과정을 통해 국가안보, 경제발전, 국가위신 등을 증진하고 있으나, 개별적인 중요도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는 형편이다. 대외정책들은 이들 중 한두 가지 또는 세 가지 모두를 추구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한 가지 목표에 집중되어 나머지 목표들을 희생시킬 수도 있다.

셋째, 환경적 요인이다. 환경적 요인들은 국제정치적 요인과 국내정치적 요인들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국제정치적 요소로 대표적인 것은 국제체제의 성격이다. '국제사회가 냉전적 양극체제를 형성하고 있는가, 경쟁적 다극체제를 구성하고 있는가, 또는 단일국가 중심의 일원적 지배체제를 형성하고 있는가'의 문제는 여러 국가들이 속해있는 국제 시스템 속에서 개별 국가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밝혀주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국가 간의 협상도 이러한 힘의 배분구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99) 국가안보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의 추구에 관한 것이다. 안보는 국가와 사회가 그 독립적인 정체성과 기능적인 일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것이다. 경제발전은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도구로서 필수적이다. 국가위신은 특정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누리는 명예와 정신적인 위상을 의미한다. 박준영, 『국제정치학』 (서울: 박영사, 1994), p.19.에서 참조함.

협상 당사자들도 이러한 요인을 염두에 두고 협상 전략과 전술을 구상하게 된다.¹⁰⁰⁾ 마찬가지로, 협상에 참가하는 두 국가의 국내정치적인 요인도 환경의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정치적인 환경요인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권력집단 간에 힘의 배분구조를 살펴보고, 어느 집단의 목소리가 실제 의사결정에 반영되어지는지를 파악한다.

넷째, 우연한 사건의 발생여부이다. 협상 전략과 전술의 선택이라는 문제에서 협상 결과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정작 협상 준비 기간에는 우연 또는 외부변수로 평가절하 시키게 되는 요인이 바로 우연한 사건의 발생여부이다. 협상 당사자들이 협상에 임하기 직전이나 실제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의 요인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선택되는 협상 전략과 전술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것이다.

III. 게임이론을 통한 서희의 협상전략 분석

태조 왕건(王建)의 집권기 이후 잠시 흔들렸던 고려 초기의 안정구도는 이후 정종, 광종, 경종, 그리고 성종의 치세를 거치며 다시 내실 있는 국가체제를 갖추기 시작했다. 고려는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당시 세력을 확장해가고 있던 거란의 무력침공을 의식해 송나라와의 외교관계 수립에도 주력했다.¹⁰¹⁾ 그러나 대(對)거란 동맹의 강화를 꾀하던 송에 비해 고려의 태도는 미온적이었고, 거란은 이러한 국제정세적 조건을 활용하여 주변국들에 대한 침략전쟁을 시작하게 된다.¹⁰²⁾

고려 성종 12년(993년)에 발생한 거란의 침략은 이와 같은 국내적·국제적 배경하에 일어났다. 거란의 성종(聖宗)은 일찍이 985년 고려 정벌을 결정하였으나, 고려 정벌을 미루고 여진과 정안국을 먼저 공격하였다. 거란은 989년 송나라를 제압하고 이후 991년 여진을 공략한지 2년 만에 고려를 침략한다.¹⁰³⁾

고려와 거란 사이에 벌어진 '여요전쟁'은 제1차 거란의 침입이 시작되는 993년부터, 1019년 강감찬 장군의 유명한 '귀주대첩'에 의해 막을 내리게 되는 제3차 거란침입까지, 16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지게 된다.¹⁰⁴⁾ 세 차례에 걸친 일

100) 이와 관련한 매우 중요한 변수로서 가부장적 사대질서와 주권자등의 시대라는 당시 동북아 국제사회의 특이한 상황을 들 수 있다. 이는 제3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101) 박선식, 『한민족 대외 정벌기』 (서울: 청년정신, 2000), pp.262-263,에서 참조함.

102) 고려와 이웃하고 있던 송은 거란의 무력압박에 대항하여 고려와 연대하는 정책을 취하고자 하였으나, 고려의 외교적 태도는 송만큼 적극적이지 못하였다. 당시 고려의 외교적 태도는 그리 막강하지 않은 자치 군사력을 의식한 현실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던 것이다. 이렇게 고려와 송의 대(對)거란 동맹구조가 완강하지 않자 거란은 본격적으로 주변국들에 대한 침략전쟁을 시작하게 된다.

103) 장철균, 『서희의 외교담판: 고구려 영토수복 어떻게 가능했나?』 (서울: 현음사, 2004)에서 참조함.

104) 노계현, 『고려 외교사』 (서울: 갑인출판사, 1994)에서 참조함.

련의 침략과정에서 거란은 993년 80만 대군을 이끈 소손녕의 원정(遠征), 1010년 40만 군대를 이끈 성종의 친정(親征), 그리고 1018년 10만 대군을 이끈 소배압의 원정(遠征)에서 고려의 저항에 의해 각각 패퇴 당하게 되고, 이후 국가적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¹⁰⁵⁾

본 연구의 중심 주제인 거란의 제1차 고려 침략과 그 과정에서 서희의 활약은 이 전쟁이 거란의 제2차·제3차 침략 비해 고려에게 큰 군사적·경제적 피해 없이 비교적 평화적인 분위기에서 마무리 되었다는 점에 있어 주목해볼만 하다. 더욱이, 이 전쟁의 결과로 고려는 압록강 동쪽 280리를 개척하는 데 동의를 얻어 강동 6주¹⁰⁶⁾를 획득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거란의 제2차·제3차 침략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서희가 제1차 여요전쟁이 발발함과 동시에 고려 내에서 발생한 의견 대립과정, 그리고 실제 소손녕과의 담판이라는 두 국면에서 어떠한 효용구조와 전략(strategies)을 가지고 협상에 입했으며, 실제 협상과정에서 서희가 활용한 전술(tactics)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 두 번의 게임에서 서희가 사용한 전략과 전술이 게임의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켜 게임을 승리로 이끌었는지를 현대 협상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해보도록 한다.

1. 첫 번째 국면: 제1차 여요전쟁의 시작과 고려의 내부 협상

가. 사건의 발단배경

1) 당시 고려 내부의 권력관계 구도¹⁰⁷⁾

1차 여요전쟁이 발생할 무렵 고려는 크게 전통문화를 고수하는 국종파와 중국문화를 숭배하는 화종파로 나뉘어져 있었다. 이러한 내부 갈등의 기원은 광종(949~975)대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광종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과거제도를 도입했을 뿐 아니라 이 제도를 건의한 쌍기(雙冀)등의 중국세력을 대거 중용하여 귀화 중국인들에게 요직을 맡기고 우대하였다. 귀화 중국인 우대정책은 경종과 성종대를 거치면서 중국문화를 숭상하는 정책을 통해 더욱 심화되어 갔다. 특히 성종은 최승로가 건의한 시무28조를 받아들여 유교문화를 정치이념으로 채택하고 유교중심의 정치제도를 모델로 삼았으며 유학의 장려와 육성을 위해 수도 개경과 전국에 유학 교육기관인 국자감과 향교를 세우고 유교 의례와 풍습의 도입에 많은 노력을 기

105) 전사편찬위원회, 『민족전난사 7 - 여요전쟁사』 (서울: 국방부, 1990)에서 참조함.

106) 흥화진(興化鎭)·통주(通州)·귀주(龜州)·곽주(郭州)·용주(龍州)·철주(鐵州)가 이에 해당한다.

107) 김당백, "서희와 성종대의 정치적 지배세력," 고구려발해학회, 『고구려연구회 학술총서』 제2집 (1999, 12), pp.87-103.에서 참조.

을었다. 이에 반해 성종은 태조 이후 가장 중요한 행사로 여겨지던 연등회와 팔관회를 폐지하고 ‘조’를 ‘교’로 격하하는 등, 전통문화와 풍습을 홀대하였다.

2) 조정과 대신들의 입장

이러한 배경에서 국종과 화종의 갈등은 점점 더 심해져 갔는데, 거란의 침공으로 인해 이러한 내부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다. 소손녕이 이끄는 거란군이 압록강을 건너고 봉산군¹⁰⁸⁾에서 고려군의 선봉을 격파하자 당시 조정의 지배세력이던 화종과는 두 가지 의견을 내세웠다. 첫째는 전면 투항을 주장하는 항복론으로서 소손녕의 항복요구를 받아들여자는 것이다. 거란의 속국이 되어 공물을 바치고 내정간섭을 받아들이는 대신 전면전쟁으로 인한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서경 이북의 땅을 떼어주자는 할지론이다. 이는 항복 대신에 거란에 서경 북쪽의 땅을 주고 황주에서 절명 까지를 경계로 삼자는 것이다. 전면 항복이 너무 부담스러우니 서북방의 신 개척지를 포기하는 대신 전쟁을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할지론은 한때 국왕 성종까지 채택을 고려할 정도로 한때 대세를 이루었던 주장으로 과거 당나라가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대동강 이남을 신라의 영토로 공인하였으니, 할지론자들은 소손녕의 주장이 대동강 이북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는 것이라 여겨 서경 이북의 지역을 거란에 할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¹⁰⁹⁾

3) 서희와 성종의 입장

이러한 항복론·할지론 등의 화종과 일색의 주장은 즉시 국종과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다. 특히 이지백과 서희는 국종과의 리더 격이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먼저 이지백은 항복론과 할지론의 등장에 개탄하면서 유교문화의 도입 이전 선왕들이 중시했던 전통의례를 복원하고 고려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서희 역시 할지론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한 번도 싸워보지 않고 할지하는 것은 상책이 아니라고 역설했다. 서희가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근거는 거란군의 사령관 소손녕이 보내온 독촉장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거란이 전면전을 원하지 않으며 오히려 고려에 유리한 조건으로 강화를 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첫째, 거란은 대동강 이북이 아닌 청천강 이북지역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고려는 청천강 이남 지역에 대한 개척에는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았고 고려와 거란은 서로 외교사절을 보내는 등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청천강 이북지역에 대한 개척은 광종이 거란과 단교한 상태에서 이 지역의 여진세력을 몰아내면서 이루어진 것이라 거란이 이를 침탈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서희는 거란이 과거 고려 광종이 청천강 이북을 원정하여 가주·송성 등의 성을 짓고 이

108) 오늘날의 평안북도 구성시 기룡리 일대를 말함.

109) 안주섭, 『고려 거란 전쟁』(서울: 정인문화사, 2003), pp.100-107에서 참조함.

지역을 영유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일 뿐이며 소손녕이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으려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단순한 공갈협박이라 주장하였다.

둘째, 서희는 할지론의 위험성을 간파했다. 서희는 삼각산 이북지역 또한 고구려의 옛 땅인데 할지론을 택하여 거란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결국 거란은 가까운 시일 내에 삼각산 이북의 땅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예컨대 한 번 영토를 내주면 이후 연쇄적인 요구에 시달리게 되어 국력을 소모하고 국가의 존망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이다. 서희는 이어서 할지론에 쫓겨나기 바쁘다며, “땅을 떼어서 적에게 주는 것은 만세의 치욕”이며, 거란과 일전을 벌여보기도 전에 할지하거나 항복을 논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성종은 이러한 서희와 이지백 등의 국종과의 강력한 의지에 마음이 움직여 할지론을 포기하고 거란과의 담판을 모색했다. 이에 서희는 자신이 직접 교섭에 임해보겠다고 나섰고 거란 진영으로 향하게 되었다.¹¹⁰⁾

나. 게임의 구성요건 확인과 게임의 성격 및 유형 정의

1) 게임의 구성요건 확인

1차 여요전쟁의 발발과 동시에 고려 내에서 서희가 벌였던 협상을 게임이론을 통해서 분석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실행해야 할 작업은 이 협상이 게임의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앞의 제2장에서 밝힌바와 같이, 게임을 구성하는 기본요소는 다음의 다섯 가지, 즉 참가자(player), 규칙(rule), 정보량(information), 전략(strategy), 보수(pay-off) 구조이다. 첫째, 게임의 참가자이다. 1차 여요전쟁에 대한 대응방법을 둘러싸고 고려 조정은 둘로 나뉘어져 있었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고려 내에서 벌어진 게임의 행위자는 ‘국종파’와 ‘화종파’였다.

둘째, 게임의 진행순서를 비롯한 게임의 규칙이다. ‘국종파’와 ‘화종파’는 사건 해결에 대한 각각의 대안을 가지고 서로 격렬한 의견다툼을 벌였고 성종의 선택을 기다리는 일종의 결과가 있었으므로 게임의 규칙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각 게임 참가자들이 갖고 있는 정보량이다. ‘국종파’와 ‘화종파’의 대립의 역사는 광종 대 까지 거슬러 올라가므로 이들이 서로의 전략에 대한 인지정도는 꽤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게임 참가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의 종류이다. ‘국종파’는 항복론과 할지론에 반대하여 끝까지 저항하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화종파’는 항복론과 할지론만이 고려를 위기에서 구해낼 방법이라 믿고 있었으므로 이 두 가지가 화종파의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각 전략을 선택한 결과에 따른 보수구조이다. ‘국종파’와 ‘화종파’ 모두

110) 박현모, “서희의 협상 리더십 연구,” 『국제정치논총』 제49집 2호(2009), pp.84-90. 김창현, “서희, 세계사 속에서 고려를 찾은 외교의 귀재,” 『내일을 여는 역사』 13호, 가을(2003), pp.182-190,에서 참조함.

상대의 전략과 자신의 전략이 갖는 효용이 서로 극명하게 엇갈리는 보수구조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전부터 이어져온 두 집단의 반복구조는 이를 더욱 심화시켰을 것은 자명하다.

이상과 같이 1차 여요전쟁의 발발과 동시에 고려 내에서 서희가 벌였던 협상이 게임의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서희 협상의 첫 번째 국면은 게임이론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하다.

2) 게임의 성격 정의

특정한 게임의 성격은 참여자(Player), 효용(Utility), 방식(Sequence), 정보(Information), 반복성(Repetition)을 기준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서희 협상게임의 첫 번째 국면 역시 이와 같은 기준을 중심으로 그 게임의 성격을 정의해보도록 한다. 첫째, 게임 참여자의 수를 기준으로 한사람이 참여하는 게임을 1인 게임(1-person game), 두 사람이 참여하는 게임을 2인 게임(2-person game), 그리고 3인 이상이 참여하는 게임을 N인 게임(N-person game)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서희 협상게임의 첫 번째 국면은 국종파와 화종파의 두 행위자가 참여한 게임이었으므로 2인 게임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게임 참여자들이 게임의 결과로서 각각의 선택에 대해 얻게 되는 보상(pay-off)의 합이 어떠한가를 기준으로 제로섬 게임(zero-sum game)과 논-제로섬 게임(non-zero-sum game)으로 게임의 성격을 구분할 수 있다. 국종파와 화종파의 효용구조는 극명하게 대립된다는 점에 의해 이 게임을 제로섬 게임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1차 여요전쟁 당시의 상황은 국종파의 주장이건 화종파의 주장이건 성종의 재가를 받아야만 실행시킬 수 있고, 특히 진짜 적은 서로가 아닌 거란이었으므로, 공통의 이익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게임은 논-제로섬 게임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게임의 진행이 순차적이나 아니면 동시적이나를 기준으로 게임의 성격을 동시적 전략게임(simultaneous move game)과 순차적 전략 게임(sequential move game)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서희 협상게임의 첫 번째 국면에서는, 특정한 게임 참여자가 먼저 수를 움직이고 다음에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대응하는 식의 순차 전략형 게임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서로 동시에 난상 토론을 벌이는 식의 동시 전략형 게임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정보량을 기준으로 완전 정보 게임(complete information game)과 불완전 정보 게임(incomplete information game)으로 나눌 수 있다. 앞서 이 게임의 두 참여자들 서로에게 쌓인 갈등의 골이 깊었던 만큼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게임은 완전정보 게임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게임의 반복성을 기준으로 일회성 게임(one-time game)과 반복 게임(repeated game)으로 나눌 수 있다. 비록 국종파와 화종파의 대립이 오랜 기간 반

북해서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거란의 침입이라는 사건에 관한 대립은 이때가 처음이었을 것이므로 이 게임은 일회성 게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게임의 유형 정의

앞의 제2장에서 대표적인 게임의 유형 네 가지, 즉 치킨 게임(Chicken Game), 죄수의 딜레마 게임(Prisoner's Dilemma Game), 사슴사냥 게임(Stag-Hunt Game), 성대결 게임(Battle of the Sexes Game)이 있음을 살펴본 바 있다. 앞서 서희 협상의 첫 번째 국면은 두 행위자가 참여하는 2인 논-제로섬 게임이고, 각 참여자가 서로의 전략을 잘 인지하고 있는 게임이었다. 동시에 이 게임에서 각자의 전략은 동시에 실행되며, 거란의 1차 침입이라는 사건에 대한 대립은 단 한 번 진행되었으므로 일회성 게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합해 보면 이와 같은 서희 게임의 첫 번째 국면의 유형은 일종의 치킨게임의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국풍파'와 '화풍파'는 사건 해결에 대한 각각의 대안을 가지고 서로 격렬한 의견다툼을 벌였고, 이전까지 두 집단의 대립구조로 비추어 볼 때, 이들 각각은 자신의 대안인 항복론 또는 할지론, 그리고 저항론이 배타적으로 성종에 의해 채택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다시 말해, 이 게임에서는 성종에 의해 자신의 대안이 채택되지 않는 이상 우월전략 균형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어느 한 대안의 채택이라는 두 가지의 내쉬균형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집단은 외부에 거란이라는 공동의 적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보수의 합이 영이 되지는 않는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 게임이론적 분석

1) 행위자들의 대안 정리

첫 번째 국면인 '서희와 이지백을 중심으로 한 국풍파와 최승로를 중심으로 한 화풍파가 벌였던 협상'을 게임이론적인 틀 안에서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당시 국풍파와 화풍파가 가지고 있던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고려 내에서 국풍파와 화풍파가 가지고 있던 입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풍파의 입장이다. 국풍파는 다음의 세 가지, 즉 거란에 굴복하는 것, 거란과 강화를 맺는 것, 그리고 거란에 저항하는 것의 대안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거란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대안이다. 이 대안은 전쟁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을 수 있었다. 그러나 국내 및 국제 사회에서의 위신이 크게 추락할 수 있고, 거란 및 북방민족의 침략사태를 재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위협과 회유를 바탕으로 사건해결을 위한 최적조건을 탐색하여 거란과 강화를 맺는 대안이다.

이 대안은 거란을 퇴거시킬 수 있는 있는 확률은 '굴복' 전략과 '공격' 전략의 중간 정도이면서도 강화 및 사대의 약속이라는 행위가 당시 동북아 사회에서 용인되는 행위이므로 국가위신은 크게 저하되지는 않는다는 이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 방법 역시도 거란 및 북방민족의 침략사태를 재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셋째, 거점 지역의 성과를 수비하거나 대규모 군사행동으로 거란의 침략에 군사적으로 저항하는 대안이다. 이 대안은 당시 고려와 거란의 국력의 차이로 보아, 거란과의 군사적 대립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비교적 낮았다고 볼 수 있는 다소 모험적인 대안이었다. 그러나 만약 성공적으로 실행한다면, 당시 동북아의 또 다른 지배세력인 송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므로 송과의 연대정도 및 고려의 국가위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또한 성공하는 경우 거란 및 북방민족의 침략사태를 재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 결국 국종과는 저항하거나 강화하는 대안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선 저항, 후 강화론'을 성종에 건의한다.

다음으로 화종과의 대안들이다. 첫째, 항복이다. 거란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항복)하자는 논의인 항복론은, 전쟁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국내 사회에서의 위신이 크게 추락할 수 있고 거란 및 북방민족의 침략사태를 재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할지론이다. 서경 이복을 때어 거란에게 넘겨주어 거란을 회유하자는 대안인 할지론은 거란을 퇴거시킬 수 있는 있는 확률이 '항복' 전략과 '공격' 전략의 중간 정도이며, 당시 동북아 사회에서 일종의 약소국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용인되는 행위였으므로 국가위신은 크게 저하되지는 않는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거란의 침략사태를 재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 또한 함께 가지고 있었다. 셋째, 저항론이다. 이 대안은 대규모 군사행동으로 거란의 침략에 저항하는 것으로서, 당시 화종과의 입장과는 거리가 먼 대안이었다. 이는 당시 고려와 거란의 국력의 차이로 비교해 보아, 거란과의 군사적 대립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낮고, 실패하는 경우 거란에게 고려의 주권을 완전히 넘겨주는 방향으로 이어지게 될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결국 화종과는 항복하거나 할지하는 대안을 성종에 건의한다.

2) 정규형 게임의 분석

위에서 살펴본 서희 게임의 첫 번째 국면에서의 각 게임 참여자의 대안들을 바탕으로 국종과와 화종과의 각 대안에 대한 효용구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각 참여자마다 세 가지의 대안, 즉 국종과는 '굴복, 강화, 저항', 그리고 화종과는 '항복, 할지, 저항'의 대안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국종과는 저항(최선) > 강화 > 굴복(최악)의 순으로 선호하며, 화종과는 할지(최선) > 항복 > 저항(최악)의 순으로 선호한다. 여기서 양 행위자들 각자 생각하는 최선의 대안이 성종에 의해 채택될 확률을

P, 최악의 대안이 채택될 확률을 $1-P$ 라고 정의한다면 다음, 국풍파와 화풍파 각각 세 가지 선택항목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최선의 전략을 택하는 것, 둘째, 차선을 택하는 것, 셋째, 최악을 택하는 것이다. 기대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게임 참여자는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효용이 차선을 선택함으로써 기대하는 효용보다 클 경우,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의 전략을 택할 것이다. 반면 개인의 효용구조가 안정적인 전략을 선호하는 경우 행위자는 차선이면서 안전한 전략을 택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게임 참여자의 선호를 기준으로 효용을 입력한다. 먼저 국풍파는 자신의 대안에 대하여, '저항' > '강화' > '굴복'의 순으로 선호하므로 '저항'은 3, '강화'는 2, '굴복'은 1의 효용을 각각 가지게 된다. 또한 국풍파가 화풍파의 대안에 대해 갖는 선호는 '저항' > '할지' > '항복'이므로 국풍파의 입장에서 화풍파의 '저항'은 3, '할지'는 2, '항복'은 1의 효용을 각각 가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논리를 적용하여 화풍파의 효용을 입력해보자. 화풍파는 자신의 대안에 대하여, '할지' > '항복' > '저항'의 순으로 선호하므로 '할지'는 3, '항복'은 2, '저항'은 1의 효용을 각각 가지게 된다. 또한 화풍파가 국풍파의 대안에 대해 갖는 선호는 '굴복' > '강화' > '저항'이므로 화풍파의 입장에서 국풍파의 '굴복'은 3, '강화'는 2, '저항'은 1의 효용을 각각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국풍파와 화풍파의 효용구조를 행렬구조로 파악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4] 서회 게임의 첫 번째 국면에서 화풍파와 국풍파의 효용구조 행렬

		국풍파 (강화 또는 저항론)		
		항복 1,3	강화 2,2	저항 3,1
화풍파 (항복 또는 할지론)	항복 2,1	(5, 2)	(4, 3)	(3, 4)
	할지 3,2	(6, 3)	(5, 4 [★])	(4, 5 [★])
	저항 1,3	(4, 4)	(3, 5)	(4, 6)

- * 괄호 '('' 안의 효용은 편의상 화풍파와 국풍파의 순서로 정의하였음.
- * 괄호 안의 효용 각각은 화풍파와 국풍파 각각의 효용의 합으로 구성되어있음.
- * 숫자가 클수록 대안에 대한 선호도도 클.
- * [★] 표시는 내쉬균형점을 의미함.

위의 [표 1]을 기준으로 '서회 게임의 첫 번째 국면'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국종파와 화종파는 993년의 거란의 침략에 대하여 각자의 대안을 구성하는 한편, 서로의 대안을 탐색한다. 이때 양 행위자 모두는 격렬한 대립을 통해 서로의 대안이 각각 굴복론·강화론·저항론(이상 국종파의 입장), 그리고 항복론·할지론·저항론(이상 화종파의 입장)임을 알게 된다.

둘째, 전환국면이다. 이 단계에서 화종파의 저항론과 국종파의 항복론은 자신의 효용구도에 있어 열등전략이므로 고려에서 배제되게 된다. 이제 국종파와 화종파의 게임은, 이전의 3x3 행렬에서 국종파의 두 가지 대안(강화론과 저항론)과 화종파의 두 가지 대안(항복론과 할지론)으로 구성되는 2x2 행렬로 수렴하게 된다.

셋째, 정점 국면이다. 내쉬균형점은 두 가지, 즉 [표 1]의 행렬에서 화종파의 할지론과 국종파의 강화론이 교차하는 지점, 그리고 화종파의 할지론과 국종파의 저항론이 교차하는 지점이었다. 이 두 내쉬균형점의 상태에서 국종파와 화종파는 성종의 최종 결정을 기다린다. 이때 서희는 소손녕의 군사력은 부풀려진 측면이 많고 할지의 대상이었던 서경을 거란에 내어주면 당장의 위기는 극복할 수 있어도 다음을 기약할 수 없으므로 일단은 항전한 후, 나중에 항복이나 대응책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¹¹¹⁾을 성종과 대신들에게 피력한다.

넷째, 협상결과의 도출 국면이다. 성종이 서희의 적극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제1차 여요전쟁에서 고려의 입장은 '선헌전 후강화론'을 채택하게 된다.

3) 게임의 전환점 확인

이미 언급하였듯이 고려의 고려 선봉군이 봉산군 전투에서 패하자 고려의 성종과 대신들은 서둘러 거란에 항복하여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없애고자 하였다. 화종파의 입장에서 볼 때, 전쟁 초기에는 항복론이 할지론보다 더 선호되었던 것이다. 사실 고려는 전쟁준비가 되어있지 않았고, 이때만 해도 강화나 항전 보다는 항복이 차라리 더 나은 대안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안용진 전투에서의 승리로 인해 화종파의 항복론과 할지론의 효용구조가 뒤바뀌게 되었다. 거란은 더 이상 남하하지 않았고 거란은 2달 동안이나 내원성에서 머무르고 있었다.

국종파의 입장에서는 봉산군 전투에서 패함으로서 강화론이 저항론보다 더 선호되는 대안이었다. 그러나 안용진 전투에서의 승리로 인해 국종파의 '선저항 후협상론'이 고려 조정에서 급격히 힘을 얻기 시작하였다. 성종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과 서희의 강력한 주장이었다. 소위 '치킨게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인 균형 선택의 문제(equilibrium selection problem)¹¹²⁾를 해결 할

111) 임용환(2004), p.93.에서 참조함.

112) 치킨게임에서는 우월전략균형은 존재할 수 없고, 두 개의 내쉬균형, 즉 (물진, 이탈)의 조합과 (이탈, 물진)의 조합만이 존재한다. 이 두 개의 균형 중 어떤 것이 실현될 확률이 높을지는 알 수 없기에 이 문제를 균형 선택의 문제(equilibrium selection problem)라 한다. James D. Morrow, *Game Theory for Political Scientist*(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pp.86-102.에서 참조함.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성종이라는 것을 서희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¹¹³⁾

이렇게 서희는 왕을 설득하여 협상의 첫 번째 국면에서 결국 자신과 국종과의 대안인 '선지함 후강화론'을 관철시켰고, 몸소 거란과의 강화교섭에 임하게 된다. 그러나 소손녕과의 담판에 임하기 전 까지 서희는 상대 전략의 구체적인 사항 및 자신의 전략의 우월성에 대해서 확신할 수는 없었으므로,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2. 두 번째 국면: 서희와 소손녕의 강화 교섭

가. 사건의 발단배경

1) 당시 동북아의 국제관계 구도¹¹⁴⁾

여요전쟁이 발발할 당시의 국제관계 질서는 가부장적 사대주의(事大主義)와 주권차등주의(主權差等主義)를 중심으로 유지되었다. 이는 동아시아를 다른 문화권으로 구분 짓는 다음의 세 가지 정치·문화적 특징, 즉 한자 공영, 유교적 사회이념, 가부장 질서의 세 가지를 공유함으로써 구성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동아시아적 규범과 질서는 중국—당시에는 송나라였음—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이것이 대소국(大小國)이 공존하던 동아시아 구성원 상호간에 필요로 하는 평화와 안정유지의 근간이 되었던 것이다. 이때 고려는 이러한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의 규범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었으나, 당시의 국제질서는 송의세력이 점점 약해지는 반면 거란의 세력이 점차 강성해지는 일종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고려는 이러한 국제 패권의 전환기적 질서에서 어떠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¹¹⁵⁾ 거란이 첫 번째로 고려를 침략하던 당시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6년간 여요전쟁을 통해 고려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거란은 본래 유목민족에서 출발한 국가였다. 거란은 요하지방에서 거주하던 종족으로 중국 남북조시대에 처음으로 역사에 등장하게 되었다. 거란은 689년 당나라의 지배권에 반발하여 이진충이 반란을 일으킴으로서 본격적으로 중국의 한족 왕조에 도전하기 시작하였고, 당나라가 말기에 접어들어 '안사의 난'으로 혼란에 빠지자 이를 틈타 거란의 지도자인 야

113) 물론 당시에는 치킨게임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다만 서희가 뛰어났던 점은 협상의 '판국'을 꿰뚫어보는 능력이었다. 이는 이어지는 소손녕과의 교섭에서도 빛을 발하게 된다.

114) 이하의 내용은 안주섭(2003), pp.24-47., 이재식, "고려 전기 국제관계의 특징,"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한국 정치외교사 논총』 제2집, (2008, 2.), pp.103-128,에서 참조함.

115) 당시 동북아의 역사에서 사대주의가 문제시 되어왔다. 이는 어떤 이는 사대주의를 심정적으로 큰 나라에 의존하는 무조건적 굴욕주의로 인식하는 반면 어떤 이는 사대주의를 일종의 '제도'로서 국가의 전략적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대주의'와 '사대제도'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부장적 이념에 기초하여 형성된 당시 동북아시아의 사대제도는 지역 내 국가 간의 질서를 유지하는 일종의 규범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옳고 그름 또는 자주와 굴욕이라는 이원적 대립구도에서 평가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장철균(2004), pp.53-54,에서 참조함.

을아보기가 황제를 칭하기에 이른다(916). 뒤이어 거란은 중원의 북부지방을 공략하기 시작했고, 926년 동쪽의 강력한 경쟁국이었던 발해를 멸망시켜 중원과 요동의 여진, 한반도의 고려를 위협하기 시작한다.

한편, 당시 중원은 당나라가 멸망한 뒤로 후진, 후한, 후주 등이 번갈아 건국되는 난세의 시대였다. 960년 후주의 장군이었던 조광윤이 후주의 황제를 폐하고 송(宋)을 건국하였다. 송은 건국 직후 북진정책을 적극 추진하였고 이후 980년대 소강상태에 접어들 때까지 송과 거란은 하북지방에서 서로 치열한 전쟁을 벌였다. 이러한 일촉즉발의 팽팽한 긴장감이 두 강대국 사이를 감돌던 시기에 고려는 송나라와 화친하여 서로 외교사절을 주고받았으며, 송이 거란을 공격할 때 고려에 군사원조를 요청하는 등, 송과 고려가 거란을 압박하는 구도가 형성되었다. 특히 986년 거란이 여진을 정벌하느라 남쪽 국경에 대한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타 송은 대대적인 침공을 감행하였고 이를 계기로 거란은 요동과 만주지역의 배후에 대한 방비를 확고히 해 두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2) 거란과 소손녕의 입장

991년 거란은 이에 요동 동쪽으로 진출, 여진족을 제압하고 압록강 연안에 위구·진화·내원 3성을 구축하였다. 당시 고려는 거란과 50여 년 동안 외교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후주·후진·송 등 중국과의 사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거란의 입장에서는 이 3성의 구축으로 말미암아 고려의 북방영토 확장 지지, 중원에서의 경쟁국인 송과 고려의 교역로 차단, 요동지방에 대한 지배권 확립과 여진에 대한 경계대책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이다. 특히 거란은 중원의 패권을 놓고 다투고 있는 송나라와 돈독한 관계를 맺은 고려를 눈엣가시로 보고 있었다. 특히 고려는 거란이 화친의 의사로 보낸 낙타 50필을 굶겨 죽인 만부교 사건(946년)이나, 태조시절 이래 중원에서 거란의 경쟁국이었던 후진, 후주, 송 등 한족왕조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점 등 거란의 입장에서는 심기에 거슬리는 입장만을 취해온 터였다. 압록강 연안 3성의 구축으로 이 지역에 거란과 고려의 긴장이 고조되었고 이는 결국 무력충돌로 가시화되기 이른다. 993년 기회를 엿보던 거란의 성종은 동경유수 소손녕에게 고려 원정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였고 마침내 고려를 침공하기에 이른다.

여기서 잠시 거란의 군사력이 어떠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¹¹⁶⁾ 당시 거란의 소손녕이 고려를 침략하기 위해 80만 군사를 이끌고 왔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고려사』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기실 이러한 주장은 소손녕의 허풍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일단 거란의 군사가 2달 동안이나 내원성에서 머무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80만의 군사가 2달 동안 한 지역에 머물러 있으면 엄청난 양의 군

116) 이재범, “여요전쟁시 고려와 요의 군사력 비교,” 『고려연구회 학술총서』 제2집(1999년 12월), pp. 179-199.; 임용환, 『전쟁과 역사-2: 거란·여진과의 전쟁』 (서울: 도서출판 현음, 2004), pp.87-109.에서 참조함.

수물자를 필요로 한다. 물론 당시 거란이 고려 현지에서 군량을 징발했을 수도 있고 대규모 수송부대를 동원하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80만의 절반인 40만의 군사가 동원되었을지라도 2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 지역에 머무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았다. 또한 거란군이 원정할 때는 최고사령관으로 도통을 두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때는 도통이 없었는데, 도통이 없는 원정군은 대개 기병 6만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의 거란군이 6만 정도였다고 보는 역사가들도 있다. 그러나 기병 이외에 보병과 사역병까지 합하면 그 이상일 수도 있을 것이다. 어찌되었건 당시 거란의 군사는 대략 10만에서 많아야 14만 정도 되었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란이 고려에 대해 주장한 항복요구의 명분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고려가 자신들이 수복한 고구려의 땅을 침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리적으로 인접한 자국과 교류하지 않고 바다 건너 송을 섬기고 있으니 거란과도 국교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란의 실제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뱉는 말과는 달리 소손녕은 빨리 상황을 종결시켜야 하는 상황이었다. 당시 거란이 여진과 고려의 땅에 뛰어들어 물을 동시에 자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속하게 상황을 종결시키려면 즉각 고려군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히거나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하여야 했으나, 당시 거란의 전력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더군다나 안용진에서의 불의의 일격으로 갖게 된 고려의 군사력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고, 당시 거란의 군대는 산악지형에서 보병중심의 전투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다.¹¹⁷⁾ 결국 소손녕은 허세와 협박으로 고려의 항복을 얻어낸 심산이었던 것이다. 둘째, 여진과 고려의 단절이다. 당시 거란의 당면과제는 여진족의 평정이었는데, 거란이 여진을 압박하면서 남하하면 고려와 여진이 동맹을 형성하여 거란에 대한 협공을 할 우려가 있었다. 더욱이 고려는 예로부터 거란을 적대시해 온 국가였기에 거란으로서는 고려를 위협하여 고려가 여진을 돕거나 동맹을 맺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결국 거란은 처음부터 고려를 점령할 의도는 없었던 것이다.

3) 고려와 서희의 입장

993년 10월에 벌어진 안용진 전투는 매우 극적이고 중요한 전투였다. 고려는 완전히 허를 찔렸는데, 안용진 수비대가 거란군을 훌륭히 격퇴했다.¹¹⁸⁾ 거란군 별동대는 타격을 받아 퇴각하였고, 이 작전이 실패하자 소손녕은 더 이상의 군사행동을 하지 못하였다. 거란이 압록강을 도하하고, 안용진을 기습하기까지 고려의 사정은

117) 거란의 군대는 전통적으로 평야지형에서 기병위주의 전투에는 익숙하였던 반면, 산악지형에서 보병위주의 전투에서는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전투를 꺼려하고 있었다. 이달곤(2005), p.537.에서 참조함.

118) 이 전투에서는 당시의 유능한 청년 장교였던 유방(庾方)이었다. 유방의 출신이나 성장과정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가들은 유방이 태조 왕건 휘하의 최고장수였던 유금필의 후예일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훗날 유방은 승진을 거듭하여 북종 때는 전종장군이 되고, 현종 때는 서북면의 최고 사령관을 거쳐 관료로서는 최고의 지위인 시중에까지 오르게 된다. 임용한(2004), p.100.에서 참조함.

최악이었다. 침공의 징후, 적의 기동 및 전술 등, 적의 동향을 예측한 적이 없고, 내놓은 대응은 실패하기 일쑤였다. 그러나 안용진 전투에서의 승리로 고려와 서희는 거란의 전쟁 목적을 간파하게 된다. 즉, 거란의 안용진 공격작전은 당시 거란이 매우 빈번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한 전형적인 약탈 전술이었다. 이는 거란이 송을 공략할 때 주로 사용하던 전술로서 소국이 대국을 상대할 때, 먼저 약탈하고 다음에 강화를 맺는 전술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소손녕은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게 되고 서희는 이를 놓치지 않았다. 이로써 10만 정도의 군대를 가지고 80만 대군이라고 허풍을 치는 소손녕의 속셈과 실제 거란의 입장을 서희는 알고 있었다. 상대의 수를 읽고 있는 서희에게 소손녕의 허세는 만용에 불과한 것이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당시 고려의 군사력과 대비책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잠시 살펴해보도록 한다.¹¹⁹⁾ 여진을 통해 거란의 침공준비 소식을 접한 고려는 993년 8월에 서야 서둘러 전쟁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당시 고려는 전국에 30만 명의 광군을 두고 있었는데, 거란의 침략과 종시에 주현군을 제외하고 출정한 병력의 규모는 대략 3만에서 6만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거란의 침공소식을 접하자 조정은 황급히 이들을 동원하였으나, 이들 중 제대로 훈련된 상태의 병사들은 많지 않았다. 이는 특히 거란과 고려의 첫 격전지가 봉산군이었다는 사실을 특기 할만하다. 고려군은 지형적으로 수비하기에 불리한 봉산군에서 거란군을 맞이하였으며, 이는 고려군이 서둘러 전쟁을 치러야 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즉, 고려군의 본대가 전쟁을 치를만한 수준이 못되었다는 것이다. 고려는 분명 전쟁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거란의 항복 요구에 대한 고려의 명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하였으므로 영토적 정통성은 고려에게 있다는 것이다. 둘째, 거란으로의 조빙의 길이 통하지 않는 것은 여진 때문이므로, 만약 여진을 축출하고 고려의 옛 땅을 돌려주면 거란과 수교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려의 실제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희의 입장도 소손녕의 경우에서처럼 그리 여유롭지만은 않았다. 앞서 봉산군 전투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려는 분명 전쟁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전쟁은 만약의 경우를 항상 대비해야 하므로 서희가 아무리 소손녕의 계획을 간파하였다 한들, 혹시 발생할 지도 모르는 확전의 부담은 피해야 했다. 전면전이 시작되고 거란의 본대가 침략해 올 경우 고려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둘째, 고려의 입장에서는 거란군이 더 이상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물러나 주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였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당시 고려 내에서는 거란에 대한 항복론 또는 할지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는데, 안용진 전투를 계기로 서희는 '선항전 후협상(先抗戰 後協商)' 론을 강력하게 주장하게 된다. 고려 성종이 이를 받아들여 고려의 입장은 '일단은 거란에 맞서보는 것'으로 수렴된다.

119) 앞의 이재범(1999), pp.179-199.; 임용한(2004), pp.87-109.에서 참조함.

나. 게임의 구성요건 확인과 게임의 성격 및 유형 정의

1) 게임의 구성요건 확인

1차 여요전쟁의 마무리 단계에서 서희가 소손녕과 벌였던 담판을 게임이론을 통해서 분석하기 위해 이 협상이 게임의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앞서서와 마찬가지로 게임을 구성하는 기본요소 다섯 가지, 즉 참가자(player), 규칙(rule), 정보량(information), 전략(strategy), 보수(pay-off) 구조를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게임의 참가자 이다. 서희 협상게임의 두 번째 국면에서 행위자는 서희가 대표하는 고려와, 거란을 대표하는 소손녕이었다. 여기서는 서희와 소손녕만을 행위자로 인식한다.

둘째, 게임의 규칙이다. 서희와 소손녕은 각각 자신이 속한 국가의 대의를 가지고 협상에 임했으며, 협상의 마무리로서 강화라고 하는 일종의 결과가 있었으므로 게임의 규칙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각 게임 참가자들의 정보량이다. 당시 고려는 거란과 50여 년 동안 외교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있었고 송에 사대하였기 때문에 거란이라는 나라는 고려의 관심 밖에 있었다. 거란입장에 있어서도 고려는 변방에 위치한 일종의 송의 동맹국쯤으로 인식되고 있었다.¹²⁰⁾ 따라서 고려와 거란은 서로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협상에 임하게 된다.

넷째, 각 게임 참가자들의 전략의 종류이다. 앞서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고려 내부의 협상에서 도출된 고려의 입장은 '선항전 후강화'론이었다. 서희의 전략이 이에 해당하며, 거란은 고려와 여진, 그리고 송이 서로 연대하지 못하게 하는 데 고려 침략의 목적이 있었다.

다섯째, 각 전략에 따른 보수구조이다. 당시의 게임에서 서희와 소손녕은 서로 대립하는 효용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서희의 입장에서는 어쨌건 전쟁만은 피하고 싶었을 것이며, 소손녕도 고려를 견제만 하는 것이 침략의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1차 여요전쟁의 마무리 과정에서 서희와 소손녕이 벌였던 담판이 게임의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서희 협상의 두 번째 국면은 게임이론을 적용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게임의 성격 정의

앞의 '서희 협상게임의 첫 번째 국면'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국면에서도 참여자(Player), 효용(Utility), 방식(Sequence), 정보(Information), 반복성(Repetition)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이 게임의 성격을 분류해본다.

첫째, 게임 참여자의 수를 기준으로, 서희협상게임의 두 번째 국면에서 행위자는

120) 실제로 1차 여요전쟁 시에 거란은 고려의 지형이나 군사력을 정확하게 알고 침략을 시도한 것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당시 거란의 입장은 고려정벌이 아닌 여-송 관계 단절 및 고려와 여진 동맹 형성 저지에 있었다.

서희와 소손녕 두 명이 참여했으므로, 이 게임을 2인 게임(2-person game)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게임 참여자들이 게임의 결과로서 각각의 선택에 대해 얻게 되는 보상(pay-off)의 합이 어떠한가를 기준으로 보면, 서희와 소손녕은 서로 대립하는 효용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으므로 이 게임은 논-제로섬 게임(non-zero-sum game)이다.

셋째, 게임의 진행이 순차적이냐 아니면 동시적이냐를 기준으로 보면, 서희와 소손녕이 담판장소에서 서로 난상 토론을 벌였으므로, 이 게임의 성격을 동시적 전략게임(simultaneous move game)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정보량을 기준으로 보면, 고려의 서희와 거란의 소손녕은 서로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협상에 임하게 되었으므로, 불완전 정보 게임(incomplete information game)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게임의 반복성을 기준으로 보면, 이 게임을 일회성 게임(one-time game)으로 볼 수 있다. 사실, 고려와 거란이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이때가 거란의 1차 침입이고 향후 두 차례의 거란의 고려 침략이 더 있었지만, 서희와 소손녕이 있던 시기는 이때뿐이다. 앞서 이 게임의 행위자를 서희와 소손녕으로 정의하였고 이후 두 행위자가 다시 만난 경우는 없었으므로, 이 게임의 반복성은 없다고 할 수 있다.

3) 게임의 유형 정의

앞서 살펴보았듯이 서희 협상게임의 두 번째 국면은 그 성격이 2인 논-제로섬 게임이었고, 각 참여자가 서로의 전략을 잘 알지 못하는 불완전 정보 게임이었다. 또한 이 게임에서 각 행위자의 전략은 동시에 실행되며, 서희와 소손녕은 안용진에서 한번 만났으므로 일회성 게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국면에 접어든 서희 협상게임의 유형을 살펴보면, 이 게임이 일종의 진화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서희와 소손녕의 담판게임에서 양 참여자 모두 초기에는 이 게임을 치킨게임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게임인 것 '처럼' 보이고자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상대방의 의도를 어느 정도 인식하자 성-대결 게임(Battle of the Sexes Game)의 양상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앞의 제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게임에 참여하는 두 명의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교차되어있는 게임 상황에서 둘 다 배반하는 것 보다 나만이라도 협조하는 것이 더 선호되고, 나만 협조하는 것보다 둘 다 협조하는 것이 더 선호되며, 둘 다 협조하는 것보다 상대방만 협조하는 것이 더 선호되는 것이 치킨게임의 선호구조라고 하였다.¹²¹⁾ 또한 마찬가지로의 상황에서 둘 다 배반하는 것 보다 한 사람 만이라도 협조하는 것이 선호되고, 한 사람 만이라도 협조하는 것 보다 둘 다 협조하는 것이 더

121) 즉, 치킨 게임(Chicken Game)은 $DC > CC > CD > DD$ 의 선호구조를 갖는다.

선호되는 것이 성대결 게임의 선호구도라고 하였다.¹²²⁾ 서희와 소손녕의 게임에서 처음에는 각각 항복과 저항을 내세우며 서로 협박하는 형식의 게임을 진행한 것은 치킨게임의 논리구조와 일치한다. 또한 봉산군 전투와 안용진전투의 결과로 서희와 소손녕이 각각 상대방의 전략적 상황을 추측한 정황을 근거로 하여,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실제 의도를 파악하고 강화를 맺게 되는 형식의 게임을 진행한 것은 성대결 게임의 논리구조와 일치한다. 결국 서희와 소손녕의 협상게임의 유형은, 처음에는 치킨게임으로 시작하여 나중에는 성대결 게임으로 진화해가는 양상을 보였다. 이 협상의 결과로 서희와 소손녕 모두는 만족하는 결과를 얻어 본국으로 돌아왔다.

다. 게임이론적 분석

1) 행위자들의 효용구조 정리

첫 번째 국면의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국면인 '서희를 중심으로 한 고려와 소손녕을 중심으로 거란이 벌였던 협상' 이 벌여졌던 당시 서희와 소손녕이 가지고 있던 대안과 그에 따른 효용구조를 살펴보도록 한다. 당시 안용진에서 고려를 대표한 서희와 거란을 대표한 소손녕이 가지고 있던 대안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희의 입장이다. 서희는 다음의 세 가지, 즉 소손녕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것, 소손녕과 동등한 입장에서 강화를 맺는 것, 그리고 거란과의 협상을 파기하는 것 등의 대안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거란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대안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대안은 안용진 전투에서의 승리와 고려 내부 협상과정에서의 합의로 인해 고려의 대안에서 제외되었다. 서희는 고려와 성종의 대사 자격으로 협상자리에 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 대안을 활용할 수도 없었다. 둘째, 위협과 회유를 바탕으로 사건해결을 위한 최적조건을 탐색하여 거란과 강화를 맺는 대안이다. 이 대안은 당시 고려가 바라고 있던 상황인 '거란군이 더 이상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물러나 주는 것' 이라는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었다. 당시 강화 및 사대의 약속이라는 행위가 당시 통복야 사회에서 용인되는 행위임을 이미 언급한 바 있으므로 효과적인 대안이었다. 그러나 이 방법 역시도 거란의 침략사태를 재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셋째, 소손녕과의 협상을 파기하는 대안이다. 이는 협상을 거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당시 고려의 상황이 거란과의 전쟁준비가 거의 되어있지 않았던 상황이었으므로 매우 모험적인 대안이었다. 서희입장에서는 이 대안이 고려와 성종의 입장과도 맞지 않고, 고려의 위신만을 추구하다가 다시 고려를 위기에 빠트릴 수도 있는 비실용적인 대안이었으므로 고려에서 제외시켰을 것이다. 결국 서희는 위협과 회유를 바탕으로 사건해결을 위한

122) 즉, 성대결 게임(Battle of the Sexes Game)은 $CC > DC > CD > DD$ 의 선호구도를 갖는다.

최적조건을 탐색하여 거란과 강화를 맺는 대안을 가지고 소손녕과의 협상에 임하게 된다. 서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위협하고 회유하여 성공적인 강화협상을 맺을지에 대한 고민이었다.

다음으로, 소손녕 및 거란의 대안이다. 소손녕은 다음의 세 가지, 즉 서희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것, 고려와 강화를 맺어 큰 피해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고려와의 협상을 파기하고 물리적 행동을 계속하는 것 등의 대안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서희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고 퇴거하는 대안이다. 서희와 마찬가지로 소손녕 역시 거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었고, 이미 군사를 이끌고 고려 진영에 까지 내려왔으므로 소손녕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대안은 소손녕의 고려에서 가장 먼저 제외되었을 것이다. 둘째, 고려와 강화를 맺어 큰 피해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거란이 고려를 침략한 목적은 여송관계 차단과 고려와 여진의 연합 형성 방지에 있었다. 소손녕은 이것만 달성하면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게 되는 것으로 이 대안이 소손녕의 입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대안이었을 것이다. 셋째, 고려와의 협상을 파기하고 물리적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다. 앞서 1차 여요전쟁 당시 소손녕이 이끌고 왔다고 주장하는 80만의 군사는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것의 진실 여부는 소손녕이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논외로 한다 해도, 안용진에서의 패배로 소손녕은 고려의 군사력에 대한 재평가를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소손녕 입장에서 이 대안은 불안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에서 제외시켰을 것이다. 결국 소손녕도 강화 쪽으로 전략을 세우게 된다. 서희와 마찬가지로 소손녕에게 중요했던 것은 '어떻게' 서희를 위협하고 회유하여 성공적인 강화협상을 맺을지에 대한 고민이었다.

2) 정규형 게임의 분석

위에서 살펴본 서희 게임의 두 번째 국면에서의 각 게임 참여자의 대안들을 바탕으로 서희와 소손녕의 각 대안에 대한 효용구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각 참여자마다 세 가지의 대안, 즉 서희는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것(이하 '굴복'이라 한다), 소손녕과 동등한 입장에서 강화를 맺는 것(이하 '강화'라 한다), 거란과의 협상을 파기(이하 '파기'라 한다)의 세 가지 대안이 있고, 소손녕은 서희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것(이하 '퇴거'라 한다), 고려와 강화를 맺어 큰 피해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하 '강화'라 한다), 고려와의 협상을 파기하고 물리적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하 '확전'이라 한다)의 세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다. 협상 초기에 서희는 파기(최선) > 강화 > 굴복(최악)의 순으로 선호(최소한 상대에게 그렇게 보이려고 했다)하였다가, 본격적인 담화가 오고가자 강화(최선) > 파기 > (최악)의 순으로 선호를 고정하게 된다. 소손녕 역시 초기에는 확전(최선) > 강화 > 퇴거(최악)의 순으로 선호하였다가(최소한 이렇게 보이려고 했다가), 이후 강화(최선) > 확전 > 퇴거(최악)의 순으로 선호를 바꾸게 된다. 여기서 양 행위자들 각자 생각하는 최선의 대안

이 강화에 의해 채택될 확률을 P , 최악의 대안이 채택될 확률을 $1-P$ 라고 정의한다면 다음, 서회와 소손녕 각각 세 가지 선택항목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최선의 전략을 택하는 것, 둘째, 차선을 택하는 것, 셋째, 최악을 택하는 것이다. 기대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게임 참여자는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효용이 차선을 선택함으로써 기대하는 효용보다 클 경우,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의 전략을 택할 것이다. 반면 개인의 효용구조가 안정적인 전략을 선호하는 경우 행위자는 차선이면서 안전한 전략을 택한다.

서회 협상게임의 첫 번째 국면을 분석한 방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각 게임 참여자의 선호를 기준으로 효용을 입력한다. 먼저 서회는 자신의 대안에 대하여, '강화' > '파기' > '굴복'의 순으로 선호하므로 '강화'는 3, '파기'는 2, '굴복'은 1의 효용을 각각 가지게 된다. 또한 서회가 소손녕의 대안에 대해 갖는 선호는 '퇴거' > '강화' > '확전'이므로 서회의 입장에서 소손녕의 '퇴거'는 3, '강화'는 2, '확전'은 1의 효용을 각각 가지게 된다. 반대로 소손녕은 자신의 대안에 대하여, '강화' > '확전' > '퇴거'의 순으로 선호하므로 '강화'는 3, '확전'은 2, '퇴거'는 1의 효용을 각각 가지게 된다. 또한 소손녕이 서회의 대안에 대해 갖는 선호는 '굴복' > '강화' > '파기'이므로 화종파의 입장에서 국종파의 '굴복'은 3, '강화'는 2, '저항'은 1의 효용을 각각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서회와 소손녕의 효용구조를 행렬구조로 파악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15] 서회 게임의 두 번째 국면에서 소손녕과 서회의 효용구조 행렬

		서회 (명예 & 실리)		
		굴복 1,3	강화 3,2	파기 2,1
소손녕 (명예 & 여송관계 차단)	퇴거 1,3	(4, 4)	(3, 6)	(2, 5)
	강화 3,2	(6, 3)	(5, 5 [★])	(4, 4)
	확전 2,1	(5, 2)	(4, 4)	(3, 3)

- * 괄호 '('' 안의 효용은 편의상 소손녕과 서회의 순서로 정의하였음.
- * 괄호 안의 효용 각각은 소손녕과 서회 각각의 효용의 합으로 구성되어있음.
- * 숫자가 클수록 대안에 대한 선호도도 클.
- * [★] 표시는 우월전략균형점을 의미함.

위의 [표 2]를 기준으로 '서회 게임의 두 번째 국면'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서회와 소손녕은 회담에서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각자의 대안을 구성하는 한편, 서로의 대안을 탐색한다. 이때 양 행위자 모두는 위협을 통하여 상대방보다 우월한 위치에 서기위한 노력을 시

작한다. 회담의 첫 화두는 고려가 어느 나라를 계승했으며, 만주의 원소유주가 누구냐는 것이었다.

둘째, 전환국면이다. 회담의 두 번째 대화에서 서희는 “만일 여진을 축출하고 우리의 옛 땅을 회복하여 거기에 성들과 보들을 쌓고 길을 통하게 된다면 어찌 거란과 국교를 통하지 않겠는가? 장군이 내 말을 황제에게 전해준다면 어찌 애납(哀納)하지 않겠는가?”라는 획기적인 제안을 한다. 이 발언을 전후한 대화를 통해 서희와 소손녕의 실제 선호구조가 드러나게 된다.

이 단계에서 소손녕의 ‘퇴거’와 서희의 ‘굴복’은 자신의 효용구도에 있어 열등전략이므로 고려에서 배제되게 된다. 이제 서희와 소손녕의 게임은, 이전의 3x3 행렬에서 서희의 두 가지 대안(‘강화’와 ‘과기’)과 소손녕의 두 가지 대안(‘강화’와 ‘확전’)으로 구성되는 2x2 행렬로 수렴하게 된다.

셋째, 정점 국면이다. 우월전략균형점은 한 가지, 즉 [표 2]의 행렬에서 소손녕의 ‘강화’와 서희의 ‘강화’가 교차하는 지점이었다. 이 우월전략균형점의 상태에서 서희와 소손녕은 서로 이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가 장기적으로 유리한 협상을 하였는가이다.

넷째, 협상결과의 도출 국면이다. 소손녕은 서희의 협상조건을 수용하여 고려는 거란에 사대하고 거란은 압록강 이동 지역을 고려에게 주어 양국 사이의 통교를 방해하는 여진을 축출하고 성을 쌓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양국은 이후 압록강을 경계로 양 편에 성보를 구축하여 통교하는 교통로를 확보하기로 했다.¹²³⁾

3) 게임의 전환점 확인

회담의 두 번째 화두에서 서희가 던진 “만일 여진을 축출하고 우리의 옛 땅을 회복하여 거기에 성들과 보들을 쌓고 길을 통하게 된다면 어찌 거란과 국교를 통하지 않겠는가? 장군이 내 말을 황제에게 전해준다면 어찌 애납(哀納)하지 않겠는가?”라는 발언이 서희와 소손녕의 협상에서 핵심적인 전환점의 기능을 한다. 소손녕은 이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이다. 소손녕은 처음부터 고려를 점령할 의도도 없었을 뿐더러, 기실 거란이 고려를 침략한 목적은 여진족의 평정을 위해 고려와 여진의 연대를 막고자함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려가 알아서 거란과 동맹을 맺고 여진을 함께 협공하자는 제의까지 해오는데, 소손녕의 입장에서 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 이상으로 완벽하게 완수하는 셈이었기 때문이다. 서희의 입장에서든 마찬가지로, 당시 고려는 거란의 침략을 막아낼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서희의 임무는 더 이상의 무력대립 없이 거란을 돌려보내는 것이었고, 서희의 제의를 거란이 받아들인다면 서희와 고려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최선의 결과가 없었을 것이다.

123) 이달곤(2005), p.539,에서 참조함.

IV. 서희 협상게임 전반의 해석 및 평가

본 장에서는 앞의 제3장에서 두 국면으로 나누어 분석한 서희 협상게임을 다시 하나의 게임으로 재구조화하여 협상의 전반적인 흐름의 동태를 분석하며, 이를 통해 서희 협상게임 전반의 해석 및 평가를 시도한다. 이하에서는 먼저, 1차 여진전쟁이라는 사건을 연대기적 진행과정에 따라 간단히 요약하고 이를 다시 게임의 흐름도로 표현한다. 다음으로, 이 게임에서 서희가 활약한 내용을 중심으로 화종과의 협상에서 사건의 전환점과 소손녕과의 담판에서 사건의 전환점을 추적해본다. 이어서, 1차 여진전쟁과정에서 서희가 간파한 화종과 및 소손녕의 게임 인식구조와 전략들을 살펴보고, 서희가 상대와의 협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어떠한 전략적·전술적 대응을 취하였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협상게임의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도 알아본다. 또한 협상전략 및 전술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대표적인 요소인 인적 요소, 국가적 목표, 환경, 그리고 우연한 사건의 발생 여부가 서희 협상게임에서 행위자의 전략 및 전술을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이에 따라 협상의 결과는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서희 협상게임의 공과 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 장기적인 맥락에서 이 게임의 승자는 누구였는지 평가해본다.

1. 서희 협상게임의 재구조화

먼저, 서희 협상의 두 국면을 하나로 재구조화하여, 사건의 연대기적 흐름의 동태를 살펴본다. 제1차 여요전쟁의 발발 이전의 동북아 국제사회에 대한 배경 설명은 앞서 구체적으로 논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993년 봉산군 전투가 시작된 상황부터 간단히 재검토하도록 한다.¹²⁴⁾

첫째, 993년 10월에 벌어진 봉산성 전투의 패배이다. 전쟁준비가 덜 된 고려의 첫 전투에서, 이 전투의 대패로 인해 급사중 윤서안이 사로잡히게 되고 서희가 이 지역에 투입된다.

둘째, 소손녕의 항복요구이다. 소손녕은 봉산군일대에서 더 이상 남진하지 않고 서희군과 대치하면서, 자신이 80만 군사를 이끌고 왔다고 하며 고려에 항복을 요구했다.

셋째, 고려의 내부협상과정이다. 앞의 봉산군 전투에서 고려군이 패하자 서경에서는 고려의 성종과 중신들의 대책회의가 벌어졌다. 당시 고려의 조정에서 거론된 대안은 ‘항복론’과 ‘할지론’이었는데, 성종은 ‘할지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어 쌀을 대동강에 버리도록 지시한다.

넷째, 서희의 고언과 ‘선항전 후협상론’의 대두이다. 서희는 식량이 풍부하면 성은 지킬 수 있고, 전쟁은 군사력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124) 서희 협상게임 전반에 대한 자세한 연대기적 흐름은 ‘<부록 1> 제1차 여요전쟁사 요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있다는 논조로 성종을 설득했다. 또한 거란의 무력시위는 위협이며, 거란과 한 번 싸워본 뒤에 다시 '할지'를 논의할 것을 진언했다. 결국 성종은 서희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다섯째, 안용진 전투의 승리이다. 소손녕은 조기에 화친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려군 총사령부가 있는 안북부를 압박하고자 별동대를 편성하여 993년 10월 청천강 이남의 작은 요새인 안용진을 공격했다. 그러나 안용진의 수비대가 거란의 기습공격을 훌륭히 저지하였고, 소손녕은 봉산군에서 발이 묶이게 된다. 소손녕은 다시 고려에게 항복을 재촉한다.

여섯째, 서희의 회담장소 이동이다. 성종은 함문사인 장영(閤門舍人 張營)을 거란 군영에 파견하여 화친을 도모하였으나 소손녕은 이를 거부하고 대신을 보내라고 주장한다. 이에 서희가 홀로 나서 적진으로 향하게 된다.

일곱째, 회담 전 서희와 소손녕의 알력다툼이다. 서희를 만난 자리에서 소손녕은 일단 강하고 위압적인 자세를 취했으나 서희는 이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소손녕의 요구에 반발했다. 결국 서희와 소손녕은 대등한 위치에서 회담에 임하게 된다.

여덟째, 회담의 진행과정이다. 회담은 고려가 어느 나라를 계승했으며, 현 만주지역의 원 소유주가 누구냐는 내용의 대화로 시작한다. 그러나 회담 후반 서희는 소손녕에게 압록강을 경계로 하여 거란과 고려가 동시에 여진족을 공격하여 축출하고 이 지역을 고려와 거란이 나누어 점령하자는 대담한 제안을 한다.

아홉째, 회담의 결과 도출이다. 소손녕은 서희의 협상조건을 수용하여 고려는 거란에 사대하고 거란은 압록강 이동지역을 고려에게 주어 양국 사이의 통교를 방해하는 여진을 축출하고 성을 쌓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열째, 회담 이후 고려와 거란의 후속조치이다. 강화회담에 의해 서희는 압록강 주변의 여진족을 축출하고 이 지역에 강동 6주를 설치했다. 한편 거란은 압록강 요충지인 보주 지역을 확보하였으며, 거란의 연호 사용 및 사절 파견 등 고려로부터의 사대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제1차 여요전쟁이라는 사건에서 서희가 벌인 협상을 게임의 흐름도로 구조화해서 표현해보면 다음의 [그림 2]과 [그림 3]와 같다.

[그림 9] 거란의 침략부터 고려의 내부협상까지의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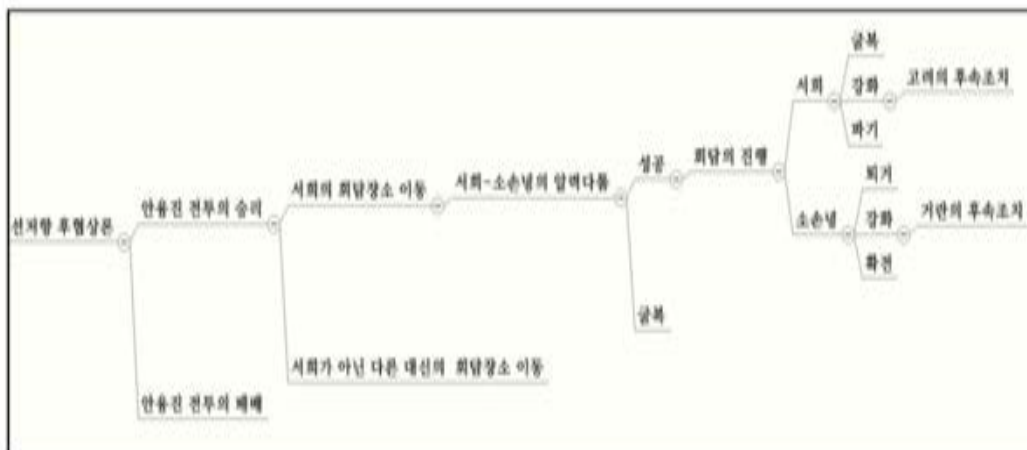


[그림 2]는 거란의 침략이 시작된 시점부터 고려가 내부협상을 통해 '선저항 후협상론'을 채택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서희의 활약상을 표현한 흐름도이다. 이 과정에서 서희는 고려의 내부협상에 참여하였고 국종과의 일원으로서 '선저항 후협상론'을 제시한 바 있다. 서희가 고려의 내부협상에서 승리함에 따라 고려는 일단 거란에 저항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된다.

서희 협상게임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결정적 포인트인 고려의 내부협상 과정에서 서희가 간파한 화종과의 게임 인식구조와 전략들은 다음과 같다. 당시 고려의 조정에서는 '항복론'과 '할지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는데, 서희는 이 게임의 내쉬균형점이 국종과의 입장이 관철되거나 아니면 화종과의 입장이 관철되는 지점에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이러한 치킨게임과 같은 구조의 게임에서는 이른바 '균형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서희는 인지하고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 성종을 집중 공략하였다. 이와 같은 서희의 노력으로 인해 고려의 입장은 '항복론'에서 '할지론'으로, 그리고 종국에는 '선저항 후협상론'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 게임에서 서희가 승리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결정적 계기는 안용진 전투의 승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용진 전투에서 승리한 시점은 '선저항 후협상론'이 채택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이 승리로 인해 거란의 확전전략 채택 가능성이 줄어든 반면, 고려가 자신의 전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다음의 [그림 3]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 '선지향 후협상론'의 채택부터 고려·거란의 후속조치까지의 흐름도



[그림 3]는 '선지향 후협상론'이 채택된 시점부터 서희와 소손녕의 강화회담 결과로 고려와 거란이 각각 후속조치를 취하는 기간 동안 서희의 활약상을 표현한 흐름도이다. 서희 협상의 두 번째 결정적 포인트는 서희와 소손녕이 회담 전에 벌인 알력다툼이다. 만약 서희가 소손녕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소손녕의 요구대로 '군신의 예'를 갖추었다면, 고려는 불평등한 입장에서 일방적인 회담을 치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역시 이는 서희가 이 게임을 치킨게임으로 몰고 가려하고 있었으며, 여기서 밀리면 자신의 입장이 더욱 불리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사실 소손녕과의 담판을 하기 전까지는 서희도 상대방의 실제 의도를 완벽히 간파할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서희의 상황판단능력과 대답함이 엿보이는 지점이라 할 수 있겠다.

서희 협상의 세 번째 결정적 포인트로서, 서희가 소손녕을 만나 협상을 실시하는 대목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소손녕과의 몇 마디의 대화를 통해 서희는 이 게임이 더 이상 치킨게임의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서희는 이 게임을 서로 만족할만한 합의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성대결게임으로 인식했고, 거란입장에서는 솔깃한 제안이라 할 수 있는 '합동 여진 축출'의 카드를 제안한다. 서희와 소손녕은 서로 매우 만족할만한 협상결과를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갔으니, 이 게임은 협상 당사자 모두 윈-윈(win-win)하는 결과를 도출해 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결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협상을 통해 고려가 얻게 된 강동 6주의 전략적 가치가 소손녕이 가져간 협상결과 가치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이 점은 후술하도록 한다) 서희와 소손녕의 협상에서 승자는 바로 서희였던 것이다.

2. 서희의 전략과 전술

다음으로 앞서 살펴본 제1차 여요전쟁이라는 사건의 여러 전환점들에서 서희가 활용한 협상 전략 및 전술이 전체적인 협상게임의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살펴 보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 제시한 일반적인 협상의 전략과 전술들을 기준으로 서희가 어떠한 전략 및 전술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서희가 활용한 협상전략을 확인해본다. 앞의 제2장에서 언급한 '이중 관심모델(The Dual Concern Model)'은 협상전략을 분류함에 있어서 "협상성과에 대한 중시(concern about own outcomes)"와 "상호관계에 대한 중시(concern about other party's outcomes)"의 두 요소를 기준으로, 이들 요소의 상호관계와 중요도에 따라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즉 문제해결 전략(problem-solving strategy), 경쟁전략(contending strategy), 양보전략(yield strategy), 그리고 무행동전략(non-behavior strategy)으로 구분된다 하였다. 협상전략의 차원에서 서희 협상게임의 전반적인 사료를 훑어보면, 제1차 여요전쟁 과정에서 서희는 주로 '문제해결 전략'과 '경쟁전략'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서희 협상게임에서 등장하는 세 가지 결정적 포인트에서 서희가 활용한 전략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자.

첫째, 고려의 내부협상 과정이다. 이 상황에서 서희는 협상 성과와 상호관계 모두 중요한 입장에 있었을 것이다. 먼저 협상성과의 차원에서 서희는 자신이 생각하는 고려의 이상적인 거란에 대한 대응방안이 "일단은 싸워보고 실패하면 강화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는 당시 고려 조정의 대세와는 정반대인 생각이었고 어찌됐건 서희는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킬 필요가 있었으므로 협상성과를 중요시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희는 신라시대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온 명문가의 후손¹²⁵⁾이었기 때문에 협상 상대방인 다른 대신들과의 관계도 깊었을 것이므로 이들과의 상호관계에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고려의 내부 협상과정에서 서희의 전략은 경쟁전략에 중심을 둔 문제해결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서희와 소손녕이 회담 전에 벌인 알력다툼 과정이다. 서희가 협상에 나서겠다고 성종에게 고할 당시 다른 대신들은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을 만큼 당시 거란 진영에 들어서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희는 소손녕을 만나기 전에 소손녕과 기싸움을 벌여야 했을 정도로 서희와 고려에게 있어 이 협상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서희는 이 알력다툼에서 무조건 이겨야 최소한 대등한 입장에서 소손녕과 협상을 벌일 수 있었으므로 서희에게는 소손녕과의 상호관계보다는 협상결과가 훨씬 더 중요했을 것이다. 따라서 서희와 소손녕이 회담 전에 벌인 알력

125) 기록에 따르면 신라 말 효공왕 때 서희의 조부 서선일이 지금의 경기도 이천(利川) 땅에 정착하여, 서희의 아버지인 서필과 서희 본인, 그리고 서눌이 대를 이어 제사를 하였다. 서길수, "서희의 가계 연구," 고구려 발해학회, 『고구려연구회 학술총서』 제2집 (1999, 12), pp.9-67,에서 참조함.

다툼 과정에서 서희의 전략은 경쟁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서희가 소손녕을 만나 협상을 벌이는 대목이다. 서희는 이미 소손녕의 군사력이 부풀려 졌다는 점과 거란의 실제 의도는 고려 정벌이 아니라 여송관계 차단 및 고려와 여진의 동맹 저지에 있었음을 간파하고 있었다. 소손녕과의 몇 마디의 대화를 통해 거란의 실제 의도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는 확신이 들자 서희는 이 게임이 더 이상 적대적 게임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소손녕이 솔깃해 할 만한 제안을 내놓게 된다. 이 게임에서 서희는 협상성과도 중요했지만, 고려와 거란의 상호관계, 즉 거란이 더 이상의 군사적 행동 없이 물러나 주는 것도 중요했을 것이다. 따라서 서희가 소손녕을 만나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서희의 전략은 문제해결 전략에 무게를 둔 경쟁전략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서희가 사용한 협상전술(negotiation tactics)을 살펴보도록 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언급한 서희 협상게임의 세 가지 전환점들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앞의 제2장에서 밝힌 바 있듯이, 협상전술에는 대표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 즉 이슈나 양보의 전략적 교환(strategic trade-offs), 의제의 분리(salami tactics or cherry picking)나 패키지화(christmas trees and packages), 이면보상(side-payments), 그리고 사안의 재정의(redefining issues)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서희가 사용한 협상전술은 '사안의 재정의' 전술과 '이슈나 양보의 전략적 교환'이 대표적이다.

첫째, 고려의 내부협상 과정에서 서희가 사용한 전술이다. 성종이 화종과의 '할지론'을 받아들여 대동강 물에 쌀을 버리라 하자 서희는 "식량이 족하면 성은 가히 지킬 수 있는 것이며 싸움은 가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싸움의 승부는 병력의 강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적의 틈을 엿보아 행동하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곡식을 버리라 하시나이까."라는 진언을 성종에게 올렸다. 이처럼 서희는 성종을 설득하기 위해 사안을 재정의 하는 전술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서희가 소손녕을 만나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사용한 전술이다. 서희는 소손녕을 만난 자리에서 소손녕의 고려가 거란과 인접해있는데 왜 송을 섬기느냐는 발언에 "압록강 연안도 다 우리 땅이었는데 여진이 강점하여 거란과의 교통을 차단했다. 만일 여진을 구축하고 우리의 옛 땅을 회복하여 거기에 성들과 보들을 쌓고 길을 통하게 된다면 어찌 국교를 통하지 않겠는가?"라는 답변을 한다. 이는 전형적인 '이슈나 양보의 전략적 교환' 전술로서, 서희가 제시한 '여진문제'는 고려와 거란 양측의 이해관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전략 활용을 위한 협상전술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기술(craft)적인 측면에서의 다섯 가지 전술들 중 서희가 어떠한 전술을 활용한 것이 대표적인지에 대해 더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알려주기(inform), 위협(browbeat) 또는 속임수(deceit), 지연전술(wear-down) 또는 의사진행방해(filibuster), 흥집잡기(haggling) 및 예외조항 달기(qualification) 또는 교차사안에 대한 공갈(cross-issue blackmail), 벼랑끝전술(brinkmanship) 또는 거부권행사(veto/walk-out) 전술 등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의 전술로 분류된다. 서희 협상게임에서 서희가 사용했던 기술적 측면의 전술만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희가 소손녕을 만나러 가는 상황이다. 소손녕은 서희에게 신하의 예를 갖추라고 요구했으나 서희는 양국 사신이 만나는 자리이니 동등한 예를 취해야 한다며 소손녕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다. 소손녕은 계속 고압적으로 나가보았지만 서희는 미동도 하지 않고 숙소로 철수해버렸다. 이 대목에서 서희가 '지연전술'과 '거부권 행사'의 전술을 활용한 것을 엿볼 수 있다. 즉, 서희는 최소한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이 이루어질 때 까지 협상 개시를 지연시켰고, 이에 소손녕이 계속 고압적으로 나오자 서희는 숙소로 철수해버리는 '거부권'을 행사하여 협상을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어갔던 것이다.

둘째, 서희와 소손녕이 만나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활용한 전술이다. 앞서 전략적 측면에서의 협상전술은 서희와 소손녕 대화의 후반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여기서는 협상 초반부에 서희와 소손녕의 대화에 주목한다. 소손녕은 "고려는 신라를 계승하였으므로 고구려의 옛 땅은 우리 것이다. 어찌서 침범하는가?"라는 화두를 던지며 고려를 협박한다. 이에 서희는 "고려는 고구려의 후손이다. 그래서 이름도 고려고 서경에 도읍했다. 그러므로 원래대로 하면 거란의 동경도 우리 땅이다."라는 말로 받아친다. 서희에 대해 기술한 많은 자료에서 이 부분은 단순히 서로에 대한 탐색전이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전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에도 서희와 소손녕 사이에 치열한 전술 싸움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서희는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하였다는 '알려주기' 전술을 사용하였고, 원래대로 하면 거란의 동경도 우리 땅이라는 발언으로 '교차사안에 대한 공감' 전술을 사용했다.¹²⁶⁾

마지막으로 협상전략 및 전술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대표적인 요소인 인적 요소, 국가적 목표, 환경적 요인, 그리고 우연한 사건의 발생 여부가 서희 협상게임의 전략 및 전술을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이에 따라 협상의 결과는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인적 요소이다. 일련의 서희 협상과정에서 서희가 취한 행동이나 언행을 보면 서희는 호방하고, 대범하면서도, 애국심과 충정심이 높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서희의 성격은 성취욕이나 명예욕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침략적인 외교성격과 협상의 전략적 측면에서의 경직성을 무마시키면서도 국가나 국가 지도자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할 수 있고, 협상 테이블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현실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은 훌륭한 협상가로서의 서희가 가진 가장 큰 덕목이었으며, 실제 협상에서도 이것에 의해 협상결과가 크게 좌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국가적 목표이다.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를 국가이익 또는 국가 목표라고 하

126) 소손녕이 사용한 전술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소손녕은 서희와 만나기 전 '위협 또는 속임수' 전술과 서희를 만나고 나서 '흠집잡기' 전술을 각각 사용했다. 즉, 소손녕은 서희를 만나기 전에 군신의 예를 갖추라는 말로 서희를 협박하는 '위협 또는 속임수' 전술을 사용하였고, 고려는 신라를 계승하였다는 발언을 통해 고려의 정통성을 깎아내리는 전술인 '흠집잡기' 전술을 사용한 바 있다.

는데, 서희가 활동하던 당시 고려의 국가이익은 거란의 침략을 극복하고 생존하는 것이었다. 현대적 의미에서 국가이익의 주요 요소는 국가 안보, 경제성장, 그리고 국가위신으로 나누어진다. 이는 과거 고려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데, 제1차 여요전쟁에 있어 고려의 국가적 목표는 고려의 안보를 굳건히 하는 것,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리고 당시 동북아지역의 질서 구조 하에서의 체면과 위신이 있었다. 서희는 이러한 국가적 목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고, 서희가 수립한 정책대안이나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취한 외교협상 노선도 고려의 국가적 목표와 맥락을 같이 하였다. 이는 고려 내부의 협상과정에서 서희가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들 중에 하나로 꼽힌다.

셋째, 환경적 요인이다. 환경적 요인은 국제정치적 요인과 국내정치적 요인들로 나눌 수 있는데, 국제정치적 요소로 대표적인 것은 국제체제의 성격이다. 앞의 제3장에서 언급하였듯이 고려시대 동북아 국제관계 질서는 가부장적 사대주의(事大主義)와 주권차등주의(主權差等主義)를 중심으로 유지되었다. 서희는 이러한 당시의 국제정치질서에 매우 밝은 인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서희의 협상전략 및 전술의 선택과정에서도 충실히 반영될 수 있다 하겠다. 서희가 소손녕을 만난 자리에서 '여진 문제'라는 획기적인 제안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당시 동북아 질서의 흐름과 맥락을 제대로 짚고 있던 서희 재능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다.

넷째, 우연한 사건의 발생여부이다. 협상 전략과 전술의 선택이라는 문제에서 협상 결과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정작 협상 준비 기간에는 우연 또는 외부변수로 평가절하 시키게 되는 요인이 바로 우연한 사건의 발생여부이다. 본문에서도 많이 강조하였지만, 안용진 전투의 승리는 진정 예상외의 성과였으며, 이것이 서희의 '선행전 후협상론'의 추진에 크나큰 밑바탕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 승리로 인해 소손녕은 봉산군에서 2달 동안 발이 묶여 협상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었고, 이는 이후 서희와 소손녕의 담판과정에서도 서희의 입지를 강화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3. 서희 협상게임의 공(功)과 실(失)

서희와 소손녕의 협상게임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누가 자국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협상결과를 얻어갔느냐는 것이다. 고려와 거란의 강화가 성사된 후의 일이지만, 역사에는 소손녕은 이 강화결과에 매우 흡족해 하여 7일 동안 서희를 극진히 대접하고 동맹 기념으로 낙타 10두, 말 100필, 양 1천 마리와 비단 500 필이란 엄청난 예물을 남겼다.¹²⁷⁾ 고려의 성종 역시도 서희의 협상결과에 크게 기뻐하여 궁 밖의 강가에 까지 나와 서희를 맞이하였다고 한다.¹²⁸⁾ 이렇게 양 쪽

127) 이재석, "근대 외교사적 입장에서 본 서희," 고구려발해학회, 『고구려연구회 학술총서』 제2집, (1999, 12), pp.229-258.에서 참조함.

모두가 만족하는 협상 결과를 도출했다면, 이 협상의 승자는 결국 누구인가? 여기서는 서희가 이끌어낸 협상결과에서 서희가 잃은 것과 얻은 것을 비판적으로 검토·비교해 보도록 한다.

먼저, 서희 협상결과에서 고려가 잃은 것이다. 서희와 소손녕의 강화회담 결과 거란과 수교를 맺고 994년(성종 13년)부터 거란의 통화(統和) 연호를 사용했으며 995년(성종 14년)부터 거란에 사절을 파견했다. 고려는 태조 이래 야만시 하던 거란에 사대교린의 예를 갖추어야만 했던 것이다. 거란과의 사대관계 수립을 통해 이후 거란이 고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고려는 압록강 이동 지역에 대한 지배를 인정받았지만 고려의 영향력은 압록강 동쪽에 국한되었다. 이로써, 태조 왕건 이후 추진해오던 고려의 북방정책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되었고 송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게 되었다.

다음으로, 서희 협상결과에서 고려가 얻은 것이다. 고려는 무엇보다도 무력충돌을 통한 백성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압록강 이동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함으로써 이 지역 까지 영토를 확대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원래 서희는 거란의 양해를 얻은 만큼 압록강 안쪽뿐만이 아니라 바깥쪽 일대까지 수복한 후 거란과 국교를 맺으려 했다고 알려져 있다.¹²⁹⁾ 고려가 서희의 주장대로 영토수복을 추진하여 압록강 너머 지역 까지 진출했다면 고려의 역사는 많이 달라지 있을 것이다.

서희가 수복한 강동 6주는 압록강을 넘지는 못했지만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고려의 영토가 압록강에 도달함으로써 국방상의 안정을 이룰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농경지의 확대에 의한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고려가 전략적 요충지를 장악하고 국력의 신장을 이룸으로써 동아시아에서 요-송-고려 또는 금(여진)-송-고려의 세력균형을 달성하도록 기여했다는 점이 의의가 있다. 그 결과 고려는 우리 역사에서 어느 왕조보다도 국제적으로 자율성과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특히 거란이 고려 제8대 현종 때 강동 6주의 반환을 요구하며 2차와 3차에 걸쳐 침략하였을 때, 고려는 이 강동 6주를 주요 거점으로 하여 거란군을 몰아낸다.¹³⁰⁾ 이후에도 강동 6주는 고려 서북부의 최전방으로서 거란족 이외에도 몽골족 등 외적의 침략을 막아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¹³¹⁾

128) 임용한(2004), p.105., 김창현, “인물 바로보기 1: 서희, 세계화 속에서 고려를 찾은 외교의 귀재,” 『내일을 여는 역사』 제13호 (2003. 9), p.191.에서 참조함.

129) 그러나 성종이 수교를 빨리 하지 않으면 후환이 두렵다고 하는 바람에 고려는 압록강 안쪽만 수복한 상태에서 거란과 수교를 맺게 된다. 이처럼 고려가 미처거리는 사이, 거란은 고려에 압록강 유역을 내준 것을 후회해 고려가 압록강을 넘지 못하도록 막았을 뿐 아니라, 강동 6주 까지 다시 내어달라는 요구를 한 바 있다. 장위공 서희선생 사료집 간행 위원회, 『章威公 徐熙先生 史料集: 안용진 구국담판 1000주년 기념』 (서울: 뿌리출판사, 1993), p.121.에서 참조함.

130) 제3차 거란의 침략에서 강감찬장군이 거란의 군대를 몰살시킨 것으로 유명한 ‘귀주대첩’ 이 전개된 지리적 무대도 강동 6주의 하나인 귀주였다.

131) 이상의 내용은 김창현, “서희, 세계화 속에서 고려를 찾은 외교의 귀재,” 『내일을 여는 역사』 제13호 (2003. 9.), pp.182-194.에서 주로 참조하였으며, 강동 6주의 지정학적(地戰略的) 함의는 다음의 임덕순,

결국 고려가 얻은 것은 실리요, 잃은 것은 명분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당시 동북아 질서의 구조를 고려해 보면 딱히 고려가 잃을 것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당시의 상황은 약국이 강국에 사대하고 안보적 보호를 받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종의 '제도' 와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과거에 송에게로 향했던 사대제도가 거란으로 잠시 향하게 되었던 것이었을 뿐이다.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 연구결과의 요약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제1차 여요전쟁에서 서희의 활약에 관해 연구한 자료의 대부분은 서희와 소손녕과의 담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 연구들에서는 보통 '서희의 세치 혀가 협상의 결과를 좌지우지 했다' 는 것처럼 논의가 전개되곤 하는데, 이는 서희가 소손녕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사용한 '전술(tactics)' 중에서도 극히 부분적인 측면을 부각시킨 것일 뿐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기존의 서희 협상연구 틀에서 벗어나, 서희의 외교협상과정에서 서희가 활용한 전략과 전술을 대상으로 이를 게임이론적 맥락에서 풀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대 전략분석 이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게임이론의 논리구조를 활용했으며 협상의 범주 및 차원과 관련해서는 푸트남(Putnam)의 양면 게임이론 논리를 차용했다. 즉, 1차 여요전쟁에서 서희가 벌였던 일련의 외교협상과정을 서희 협상게임으로 정의하여, 첫 번째 국면(국내정치)과 두 번째 국면(국제정치)로 나누어 이를 각각을 게임이론을 통해 해석하였다. 또한 서희 협상게임에서 사용된 전략과 전술이 서희 협상게임의 양상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 협상이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전략 평가모델과 전술요약을 바탕으로 서희의 전략과 전술을 해석했다. 즉, 앞서 분류한 서희 협상의 두 국면을 다시 서희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연대기적 게임으로 재구성하고, 여기서 서희 협상의 전환점이 되는 지점들을 확인한 다음, 이 전환점들을 중심으로 서희가 사용한 전략과 전술을 분석하여 서희 협상게임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시도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도출한 연구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1, 2차 서희 협상 게임의 분석결과이다. 1차 서희협상게임은 기본적으로 치킨게임의 구조를 갖는 게임으로서 이 게임의 참여자는 서희를 포함한 국종과와 화종과였으며 게임의 결과를 결정하는 결정자는 고려 성종이었다. 서희는 미니맥스 전략, 문제해결 전략 및 경쟁전략을 사용했고, '사안의 재정의' 전술을 사용했다. 이

『地政學: 理論과 實際』(서울: 법문사, 1999.), pp.63-130.을 참조하여 얻을 수 있다.

게임의 결과로 서희는 화평파의 '항복론' 및 '할지론'을 물리치고 자신의 대안인 '선항전 후협상론'을 관철시킬 수 있었다. 2차 협상게임은 기본적으로 치킨게임에서 성대결게임으로의 변환구조를 갖는 게임으로서 이 게임의 참여자는 고려를 대표한 서희와 거란을 대표한 소손녕이었으며 게임의 결과는 이들 두 행위자의 전략적 균형에 의해 결정지어졌다. 여기서 서희는 열등전략의 배제전략, 경쟁전략(소손녕과 회동 전) 및 문제해결 전략(소손녕과 회동 후)을 사용하였고, '지연전술'·'거부권 행사 전술' 및 '알려주기 전술'·'교차사안에 대한 공갈전술'을 골고루 활용하였다. 이 게임의 결과로 서희는 압록강 동쪽 지역에 위치한 강동 6주를 할양받았으며, 이 지역을 확보함으로써 이후 이어지는 거란의 2차, 3차 침공에 대비할 수 있는 훌륭한 기반을 갖게 된다.

둘째, 서희 협상게임 전반의 전환점 확인 및 서희 협상결과의 평가다. 일련의 서희 협상게임에서 전환점은 총 세 번 발견된다. 고려의 내부협상 과정, 서희와 소손녕이 회담 전에 벌인 알력다툼 과정, 그리고 서희가 소손녕을 만나 협상을 벌이는 과정이 그것인데, 서희는 이 세 번의 분기점에서 앞서 논의한 전략과 전술을 활용하여 협상 게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이는 서희의 능력, 국가적 목표, 국제 환경, 그리고 외부 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서희의 능력과 외부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서희의 능력이란 서희의 천부적인 외교관으로서의 자질을 의미하며, 외부적 사건이란 안용진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말한다. 결국 서희는 능력과 운을 모두 갖춘 난세의 영웅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이다.

2. 정책적 함의

제1차 여요전쟁에서 서희의 활약상을 통해 드러나는 한 가지는 적절한 시대 인식 능력과 통찰이 어떻게 외교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가에 관한 함의일 것이다. 외교는 기백과 의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고려시대 서희의 예처럼 적절한 근성과 담대함이라는 심적 자질과 전략 및 전술의 적절한 활용이라는 기술, 세계의 판도를 읽어낼 줄 아는 식견,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운도 따라주어야 하는 것이다.

1000여 년 전 '고려'가 동북아 지역 내 국제질서에서 처했던 상황과 오늘날 '코리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국제질서에서 처한 상황은 매우 유사하다. 즉 과거에 고려는 이전까지 동북아 최고의 강대국인 송나라와 동맹을 맺고 친교·사대하고 있었으나, 당시 급격하게 강대국으로 성장하여 지역 내 패권국으로의 도약을 도모하던 거란의 팽창으로 어쩔 수 없이 이들 사이에서 자국의 생존을 도모하여야만 했던 강국이지만 소국이었던 고려의 상황과, 오늘날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자 단일 패권국이면서도 대한민국 전국 이래로 현재까지 긴밀한 군사·외교적 동맹관계를

가지고 있고 활발한 문화적·정신적 교류를 하고 있는 미국으로부터, 탈냉전기 이후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급속한 경제개혁의 추진으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 현재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으로의 세계 질서의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과 같은 상황은 매우 유사성이 깊다 하겠다. 따라서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강소국으로 분류되는 대한민국이 추진해야 할 외교의 전략적 방향성에 관한 함의는 과거 서희가 보여주었던 외교법의 분석을 통해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부딪혔던 몇 가지 난점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제언을 던지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최대 난점은, 비록 게임이론이 기존 연구들이 갖는 정태성이라는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동학을 완벽하게 구현해 낼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게임 상황에 처한 행위자가 갖게 되는 효용을 더 구체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통계적 방법이 필요하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게임행위자의 효용을 정확하게 구현해 낼 수만 있다면 보다 정확하고 엄밀한 분석이 가능해졌을 것이다.

또한 고려시대에서 서희가 활약하던 시기에 관한 역사적 자료가 의외로 적었다.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사가들의 고려시대 역사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하여, 서희에 대한 연구가 의외로 적었다는 것을 꼽을 수 있겠다.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기는 하지만 서희에 관한 연구 자체도 활성화가 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고 이후의 연구 방향을 제시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게임이론을 적용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법을 활용해서 서희 협상게임의 동태적 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서희 협상방법과 협상의 전략 및 전술 연구를 깊게 진행하여 다른 역사적 인물 또는 현재 실존인물이 활용한 방법과의 비교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서희 협상법의 강점은 지키고 약점은 보완하여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가 및 민간 외교관들에게 제공할 구체적인 외교협상 매뉴얼을 개발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서희 협상게임의 미시적인 부분에 대한 매우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도서>

- 국방군사연구소, 『한민족전쟁통사-2: 고려시대편』 (서울: 국방연구소, 1993)
- 김태현, 유석진, 정진영 공편, 『외교와 정치: 세계화시대의 국제협상논리와 전략』 (서울: 오름, 1995)
- 김재한, 『게임이론과 남북한관계: 갈등과 협상 및 예측』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5)
- 권오현, 윤태환, 『게임이론과 전략』 (서울: 법한서적 주식회사, 2000)
- 노계현, 『고려 외교사』 (서울: 갑인출판사, 1994)
- 박선식, 『한민족 대외 정벌기』 (서울: 청년정신, 2000)
- 박준영, 『국제정치학』 (서울: 박영사, 1994)
- 손자 著, 김광수 譯, 『손자병법(밀리터리 클래식-1)』 (서울: 책세상, 2000)
- 신성휘, 『게임이론』 (서울: 박영사, 2006)
- 안주섭, 『고려 거란 전쟁』 (서울: 경인문화사, 2003)
- 원동진, 『알고 싶은 게임이론』 (서울: 형설출판사, 2004)
- 이달곤, 『협상론: 협상의 과정, 구조, 그리고 협상전략(제3판)』 (서울: 법문사, 2005)
- 이상각, 『고려왕조실록』 (서울: 흥진P&M, 2006)
- 이이화, 『한국사 이야기-05: 최초의 민족통일국가 고려』 (서울: 한길사, 2007)
- 임덕순, 『地政學: 理論과 實際』 (서울: 법문사, 1999.)
- 임용한, 『전쟁과 역사-2: 거란·여진과의 전쟁』 (서울: 도서출판 현음, 2004)
- 장위공 서희선생 사료집 간행 위원회, 『章威公 徐熙先生 史料集: 안용진 구국담판 1000주년 기념』 (서울: 뿌리출판사, 1993)
- 장철균, 『서희의 외교담판: 고구려 영토수복 어떻게 가능했나?』 (서울: 현음사, 2004)
- 전사편찬위원회, 『민족전난사 7 - 여요전쟁사』 (서울: 국방부, 1990)

<국외도서>

- B. Bueno de Mesquita, *War Trap*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1)
- B. Bueno de Mesquita, "The Contribution of Expect-Utility Theory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Conflict," M. Midlarsky(ed.), *Handbook Of War Studies* (Boston: Unwin Hyman, 1989)
- Clausewitz, Karl von, *On War* (New York: Kessinger Publishing Company, 2004)
- Dean G., Pruitt, "Strategy in Negotiation," Kremenjuk, eds., *International Negotiation: Analysis, Approaches, Issues* (California: Jossey-Bass, 1991)
- Frank C. Zagare, *Game Theory: Concepts and Applications* (New York: Sage Publications, 1986)
- James D. Morrow, *Game Theory for Political Scientist*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 Joel Watson, *Strategy: An Introduction to Game Theory* (New York: Norton & Company, 2004)
- John King Fairbank and Merle Goldman, *China: A New History* (Second Enlarged Edition) (Cambridg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September 15, 1998)
- Morton D. Davis, *Game Theory* (New York: Basic Books Inc., 1970)
- Pruitt D. G. and Carnevale P. J., *Negotiation in Social Conflict*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1995)
- Robert Jervis, "War and Misconception," in Robert I. Rotberg and Theodore K. Rabb(eds.), *The Origins and Prevention of Major Wa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 Ronald A. Walker, "Negotiation," in Ronald A. Walker, *Multilateral Conferences: Purposeful International Negotiation* (New York: Palgrave, 2004)
- Saul Stahl, *A Gentle Introduction to Game Theory* (the American Mathematical Society(AMS), 1999)
- Schellenberg, James A. *The Science of Conflic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 Bueno de Mesquita, 김재한 譯, "국제 갈등의 연구에 대한 기대효용이론의 기여," 김우상 外 편, 『국제관계론 강의 1』 (서울: 한울, 2004)
- Thomas C. Schelling 지, 최동철 역 『갈등의 전략』 (서울: 도서출판 나남, 1992)

<국내논문>

- 김당택, "서희와 성종대의 정치적 지배세력," 고구려발해학회, 『고구려연구회 학술총서』 제2집 (1999, 12.)
- 김창현, "인물 바로보기-1: 서희, 세계화 속에서 고려를 찾은 외교의 귀재," 『내일을 여는 역사』 제13호 (2003, 9.)
- 박현모, "서희의 협상 리더십 연구," 『국제정치논총』 제49집 2호(2009)
- 서길수, "서희의 가계 연구," 고구려발해학회, 『고구려연구회 학술총서』 제2집 (1999, 12)
- 이재범, "여요전쟁시 고려와 요의 군사력 비교," 『고려연구회 학술총서』 제2집 (1999 년 12월)
- 이재범, "인물사로서 서희에 대한 재평가," 『명분과 실리, 서희 외교론』, 서희선생 서거 1010주년 추모 학술대회 자료집(2008)
- 이재석, "고려 전기 국제관계의 특질,"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한국 정치외교사 논총』 제2집 (2008, 2.)
- 이재석, "근대 외교사적 입장에서 본 서희," 고구려발해학회, 『고구려연구회 학술총서』 제2집, (1999, 12.)
- 이재훈, "여요전쟁시 고려와 요의 군사력 비교," 고구려 발해학회, 『고구려연구회 학술총서』 제2집 (1999, 12.)
- 하혜수, "우리나라 역사인물의 협상전략에 대한 비교연구: 을지문덕 장군과 서희장군을 중심으로," 『협상연구』 (제11권 제1호, 2005년 6월)

<국외논문>

- Dean G. Pruitt, "Strategic Choice in Negotiation,"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27, No.2 (Nov, 1983)
- Frederic L. Pryor, "The Rise and Fall of Marxist Regimes: An Economic Overview," *Orbis*, Vol.49, No.1. (Winter, 2005)
- Nash, John F. Jr., "Nash Equilibrium Points in N-Person Games," *Proc. Nat. Acad. Sci. U.S.A.* 36(1950)
- Richard Friman, "Side-Payments versus Security Cards: Domestic Bargaining Tactics in International Economic Negoti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47, No.3. (Summer, 1993)

<부록> 제1차 여요전쟁사 요약

거란은 989년 송을 제압하고 991년 여진을 공략하여 고려를 향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2년 뒤인 993년(성종 12년) 거란의 동경유수 소손녕이 대규모 군단을 이끌고 남하하여 전쟁의 시작을 알리게 된다. 고려는 이미 993년 5월에 여진으로부터 거란의 침공계획을 보고받았으나 이를 묵살하고 다시 8월에 거란의 정벌군 동원사실을 보고받아 거란에 대한 전쟁준비를 시작한다. 이미 3개월이나 뒤쳐진 후였으며 10월에 이르러서야 군대와 군량을 점검하고 군용을 갖추면서 방어군을 편성하게 된다.

거란과의 전쟁준비가 미진한 상황에서 고려는 거란과 맞닥뜨리게 된다. 고려와 거란이 처음 격돌하게 된 장소는 현재 황해도의 태천과 구성의 중간에 위치한 봉산성(蓬山城)이었다. 지리적으로 요새인 귀주와 약 하룻길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지대가 낮고 평지에 위치한 봉산성은 소군이 대군을 맞아 일전을 치르기에는 불리한 장소였다. 전쟁준비가 덜 된 고려의 첫 전투에서, 어찌 보면 필연적이었을 이 전투의 대패로 인해 급사중 윤서안이 사로잡히게 되고 고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다. 고려 성종은 중군사 서희를 이 지역에 투입한다.

소손녕은 봉산군일대에서 더 이상 남진하지 않고 서희군과 대치하면서 다음과 같이 항복을 요구했다. 즉, 고려가 거란의 영토를 침탈하고 있으니 토벌하는 것이며, 속히 항복하지 않으면 반드시 소탕할 것이니 지체없이 항복하겠다는 문서를 보내라는 것이었다. 이에 성종이 이몽전을 거란 군영에 보내 화친하기를 청하였으나, 이에 소손녕이 자신이 80만 군대를 이끌고 왔으며 속히 항복하지 않으면 소탕하겠다는 말을 되풀이 할 뿐이었다.

여기서 잠시 이 당시 고려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고려조정 내부의 협상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봉산군 전투에서 패하자마자 안주까지 와있던 성종은 당장 서경으로 되돌아왔다. 서경에서 고려의 중신들과 대책회의가 벌어졌다. 이 회의의 주제는 어떻게 싸울지가 아니라 어떻게 항복할지였다. 당시 고려의 조정에서 거론된 대안은 ‘항복론’과 ‘할지론’이었다. 『고려사』에 기록된 협의과정에는, 항복론이 “왕께서는 서울(개경)로 돌아가시고 중신을 시켜 군사를 이끌고 항복하자”는 제안이었다고 서술되어 있고, 할지론은 “서경 이북의 땅을 떼어주고 황주로부터 절령(岳嶺; 자비령)에 이르는 선으로서 경계를 삼는 것이 가하다”는 것이었다고 서술되어있다. 당시 송과 여진의 군사적 지원을 기대하기 힘들었던 상황에서 거란과의 전면전이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성종은 할지(割地)를 결정하고 서경에 비축된 쌀을 대동강에 버리도록 지시한다.

그러나 전선에 있던 서희는 쌀 수장을 중단할 것을 청하며, 대안으로 '선항전 후협상론'을 제시한다. 『고려사』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서희는 “식량이 족하면 성은 가히 지킬 수 있는 것이며 싸움은 가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싸움의 승부는 병력의 강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적의 틈을 엿보아 행동하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곡식을 버리라 하시나이까,”라는 진언으로 성종의 마음을 돌렸다고 한다. 또한, 서희는 “이번 거란이 침입한 목적은 두 성¹³²⁾을 취하는 데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고구려의 옛 땅을 모두 취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협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 중략 … 하물며 우리 영토를 적에게 떼어 주는 것은 만세의 치욕이 될 것입니다. 원컨대 임금께서는 개경으로 돌아가시고 신 등으로 하여금 적과 더불어 다시 한 번 싸우게 한 뒤에 다시 논의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발언으로 '선항전 후협상론'을 건의한 것이다. 결국 성종은 서희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하여 고려는 서희의 의견대로 쌀 수장을 중지하고 거란군에 일대 타격을 줄 수 있는 항전으로 입장을 선회하게 되었다.

다시 안용진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 소손녕은 이몽전에게 요구한 항복에 대한 답변이 지연되자 다시 별동대를 편성하여 993년 10월 청천강 이남의 작은 요새인 안용진을 공격했다. 거란은 조기에 화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려군 총사령부가 있는 안북부를 압박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거란군의 안용진 도하작전은 고려의 안용진 수비대인 중랑장 대도수(大道秀)와 낭장 유방(庾方)에 의해 격퇴당하게 된다. 이로서 고려는 청천강 전선을 확보하게 되고 거란군은 봉산성 일대에 완전히 발이 묶이게 된다. 잠시의 휴전기간 동안 고려군의 방어태세는 더욱 강화되어갔고, 거란군에게는 병참이 끊길 수 있다는 문제¹³³⁾와 군사들이 평야전투에 익숙하지 않다는 문제와 함께 악재로 작용하게 된다. 소손녕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모든 것을 잃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소손녕은 고려에 다시 사람을 보내 항복을 재촉하게 된다.

성종은 함문사인 장영(閤門舍人 張營)을 거란 군영에 보내 협의하도록 했으나, 소손녕은 대신을 보내 협상에 임하라고 응답했다. 자신이 거란의 대신이자 부마임을

과시하고 회답 상대의 격을 높이하고자 함이었다. 이에 성종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유

132) 광종대에 여진으로부터 수복한 명인 가주(嘉州)와 송성(松城)에 쌓았던 성을 말한다.

133) 당시 거란은 지나치게 남진을 서둘러 그들의 배후에 고려군의 방어선을 그대로 두고 전군을 계속했기 때문에 후방의 병참선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당시 고려는 적이 빠른 속도로 침공하면 자신의 곡식과 전리품을 고갈시킨 후 성에 들어가 지구전을 펼치다가 적의 허점을 공격하는 청야전술(淸野戰術)을 사용하였으므로, 전투종심이 길어진 거란군은 고려의 기습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거란군은 현지에서 보급품을 획득해야면서 전투를 수행하여야 했기 때문에 큰 곤란을 겪게 된다. 국방문서연구소, 『한민족전쟁통사-2: 고려시대편』 (서울: 국방연구소, 1993)에서 참조함.

명한 “누가 적진에 들어가 세 치 혀(三寸舌)로 적군을 물리쳐 만세의 공을 세우겠느냐” 라는 질문을 던졌다. 고려 조정의 수많은 대신들 중에 서희만이 성종의 질의에 응하였고 바로 적진으로 향하게 된다.

소손녕: 고려는 신라를 계승하였으므로 고구려의 옛 땅은 우리 것이다. 어찌서 침범하는가?

서희: 고려는 고구려의 후손이다. 그래서 이름도 고려고 서경에 도읍했다. 그러므로 원래대로 하면 거란의 동경도 우리 땅이다.

소손녕: 땅이 우리와 연결하였는데 왜 바다 건너 송을 섬기는가?

서희: 압록강 연안도 다 우리 땅이었는데 여진이 강점하여 거란과의 교통을 차단했다. 만일 여진을 구축하고 우리의 옛 땅을 회복하여 거기에 성들과 보들을 쌓고 길을 통하게 된다면 어찌 국교를 통하지 않겠는가?

서희를 만난 자리에서 소손녕은 일단 강하고 위압적인 자세를 취했다. 서희가 도착하자 소손녕은 서희에게 신하의 예를 갖추라고 요구했다. 서희는 양국 사신이 만나는 자리이니 동등한 예를 취해야 한다며 소손녕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다. 소손녕은 계속 고압적으로 나가보았으나, 서희는 미동도 하지 않고 숙소로 철수해버렸다. 결국 소손녕이 굴복하여 두 사람은 동등하게 서로 마주보고 인사하고 회담장에 나란히 착석하였다. 이 회담에서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문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담은 고려가 어느 나라를 계승했으며, 현 만주지역의 원 소유주가 누구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답은 형식적인 문답에 지나지 않는다. 누가 먼저 살았다는 말 한마디에 영토를 양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정작 중요한 발언은 회담의 두 번째 대화에 있다. 이때 근접한 거란을 두고 왜 송을 섬기느냐는 소손녕의 질문에 서희는 “만일 여진을 구축하고 우리의 옛 땅을 회복하여 거기에 성들과 보들을 쌓고 길을 통하게 된다면 어찌 국교를 통하지 않겠는가?” 라는 획기적인 제안을 내놓는다. 이 말의 의미는 압록강을 경계로 하여 거란과 고려가 동시에 여진족을 공격하여 축출하고, 이 지역을 나누어 점령하자는 것이었다.

소손녕은 서희의 협상조건을 수용하여 고려는 거란에 사대하고 거란은 압록강 이 동지역을 고려에게 주어 양국 사이의 통교를 방해하는 여진을 축출하고 성을 쌓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 후 소손녕은 서희의 제안을 거란의 성종(聖宗)에게 즉시 고하고 허락을 받은 후 전후처리 내용을 고려에 통보하였다. 양국은 압록강을 경계로 양 편에 각각 성보를 구축하여 통교하는 교통로를 확보하기로 합의했다.

강화회담에 의해 서희는 압록강 주변의 여진족을 축출하고 주요 지역에 성을 쌓았다. 먼저 안의진과 홍화진에, 그리고 996년(성종 15년)에는 선주와 맹주에 성을 쌓았다. 고려는 이 지역에 강동 6주를 설치하여 행정구역으로 편입시켰으며, 고려 건국 이래 처음으로 압록강 이동지역을 영토로 확보할 수 있었다. 한편 거란은 압록강 요충지인 보주 지역을 확보하여 압록강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장악함으로써 고려와 여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거란의 보주지역 확보로 고려는 더 이상의 서북방 개혁이 차단되었다. 그리고 고려는 강화회담의 조건대로 사대를 수용하여 994년(성종 13년)부터 거란의 통화(統和) 연호를 사용했고, 995년(성종 14년)부터 거란에 사절을 파견했다.

표 목차

- [표 1] 서희 게임의 첫 번째 국면에서 화종파와 국종파의 효용구조 행렬
- [표 2] 서희 게임의 두 번째 국면에서 소손녕과 서희의 효용구조 행렬

그림 목차

- [그림 1] 2인 게임에서의 선택의 행마
- [그림 2] 거란의 침략부터 고려의 내부협상까지의 흐름도
- [그림 3] '선저항 후협상론'의 채택부터 고려·거란의 후속조치까지의 흐름도 41

제1차 여요전쟁에 대한 게임이론적 고찰

한국해양대학교 : 양 재 영

<목 차>

I.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II. 이론적 분석틀

1. 게임이론(Game Theory)
2. 윈 셋(win-set)

III. 제1차 여요전쟁의 전개과정

1. 10세기 말 동아시아의 정세
2. 요나라의 침공과 항복 요구
3. 안용진 전투의 승리와 서희의 외교담판

IV. 게임이론으로 분석한 제1차 여요전쟁

1. 봉산성 전투 직후의 게임
2. 안용진 전투 직후의 게임

V. 결론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오늘날 한반도는 거대한 힘(Power)의 흐름 가운데에 놓여있다. 동북아의 패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들의 지정학적 이익이 맞물리는 한반도의 안보정세가 불확실해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통국가화를 추진하면서 점차 공세적인 외교전략을 펴고 있는 일본과 2차례의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극도로 긴장시키고 있는 북한, 풍부한 에너지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과거 소련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러시아의 힘이 맞물려 불확실한 위험은 더욱 증대되어 가고 있다. 강대국 간의 패권경쟁에서 한국의 이익을 수호하고 가치를 유지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세판단을 바탕으로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외교전략의 수립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 같은 외교전략을 바탕으로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국익을 극대화하고 세계의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까지의 한국은 이와 같은 국제정세 속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했다고 보기는 힘들어 보인다. 2006년 이라크의 무장단체에 의한 김선일씨의 피살사건, 50년이 넘게 이어져온 일본과의 독도 분쟁과 '과문'이라는 단어로까지 표현되었던 한일 어업협정, 2008년 국내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쇄고기 협상 문제, 대북정책의 급격한 변동으로 냉각된 남북관계 등의 일련의 사태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강대국의 논리에 휘청거리는 한국 외교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외교관 양성 과정마저 문제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는 '서희 외교 아카데미'¹³⁴⁾라는 교육기관을 설치하여 정예 외교관을 양성하자는 논의가 나타났다. 고려 초의 문신으로 요(遼)나라의 침공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단 한 번의 외교담판으로 극복하고, 오히려 평북 일대의 영토를 수복해낸 서희와 같은 외교관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취지이다.

고려 초는 동북아의 세력판도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던 시기였다. 당의 멸망 이후 쪼개진 '5대 10국'의 중국을 재통일한 송(宋)나라, 후진으로부터 연운 16주를 획득하고, 발해마저 멸망시켜 군사적으로 강성해진 요나라, 후삼국을 재통일하여 북진정책을 추진해 온 고려, 이외에도 여진(女眞), 서하(西夏)가 포진하여 동북아 질서를 형성하고 있었다. 대립과 협력의 구도가 매우 동태적으로 형성되던 당시의 시기는 강대국의 사이에서 불확실한 환경을 맞이하고 있는 현재와 매우 유사한 부분이 있다. 또한 제1차 여요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 사태에서 뛰어난 협상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국익을 수호했다는 점에서 서희의 외교는 현재 낮은 협상력으로 평가 받고 있는 한국이 지향해야 할 교훈을 내포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34) 중앙일보 2007년 1월 15일자.

제1차 여요전쟁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은 교훈을 도출해내기 위해 필요한 최우선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제1차 여요전쟁과 서희의 외교담판과 관련한 분석과 연구는 이미 많은 연구자들을 통해 이루어져왔다. 제1차 여요전쟁이나 서희의 외교담판을 주제로 한 기존의 연구는 특정 이론이나 분석틀을 적용시키기 보다는 역사적 사실을 인과적으로 그리고 조리에 맞게 분석하여 새로운 관점(혹은 사실)을 제시하거나, 기존의 관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세부주제로는 여요전쟁의 발발원인, 서희 외교담판의 의미, 고려와 요의 국경획정과 관련된 연구, 고려의 국내정치 상황과 북진정책, 송·요·고려의 외교관계 등이다. 단행본 가운데는 협상이라는 주제로 서희의 외교담판을 분석해 현대적 함의를 도출해내기도 했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분석·해석하는 방식에 머물렀다. 단순한 서술적 기법으로 사안 하나하나에 해석을 내리는 방식이다. 물론 이와 같은 연구도 제1차 여요전쟁과 서희의 외교를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 하지만 사건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사안별로 이해하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수많은 변수들을 종합적이고,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당시의 상황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로서 게임이론(Game Theory)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상호의존적 결정이론(theory of interdependent decision)”으로 불리는 게임이론은 복수의 참가자들이 어울려 상호작용하는 게임과 같은 상황에서 참가자들이 최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대응전략을 구하고자 하는 수학이론이다.¹³⁵⁾ 게임이론은 참가자들의 대응전략을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주어진 상황을 구조화하여 게임의 상황을 과학적(인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경제학, 경영학, 정치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게임이론은 고려와 요의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 제1차 여요전쟁을 분석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분석틀이라고 할 수 있다. 게임이론이 유용한 분석틀임에도 불구하고 제1차 여요전쟁을 게임이론적 시각에서 접근한 연구는 한 건도 발견하지 못했다. 참가자들 간의 전략적인 상호과정을 연구하는 게임이론은 그간 전쟁이나 외교문제에도 줄곧 적용되어왔던 점을 고려해볼 때, 제1차 여요전쟁을 게임이론적으로 고찰해보는 것은 조금도 무리가 아니다. 여요전쟁에 대한 게임이론적 고찰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게임이론의 다양한 모형(model) 창출을 위해서도 유의미하다.

또한 본 연구자는 서희의 외교를 분석하는 틀로서, 외교정책과 협상을 주제로 한 국제정치이론인 양면게임이론의 ‘윈 셋(win-set)’ 개념을 도입하여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고려와 요의 협상구조를 파악하고, 서희의 외교가 어떠한 구조 하에서 이루어졌는지, 혹은 서희의 외교가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135) 우철구, 『현대 국제관계이론과 한국』, 서울 : 사회평론, p. 153, 2004.

이처럼 본 연구는 제1차 여요전쟁과 서희의 외교라는 역사적 사실을 역사학과 국제정치학, 그리고 게임이론이라는 수학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인문학과 사회과학, 그리고 수학을 넘나드는 본 연구는 학제간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현재의 연구 경향에도 부합하며, 동 연구주제를 다뤄온 기존의 시각과는 또 다른 시각을 제공하여 기존의 시각을 보완하는 역할을 감당할 것을 기대하게 해준다.

2. 연구의 방법

II장에서는 제1차 여요전쟁을 분석할 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한다. 이론적 분석틀로는 먼저 게임이론의 개념을 살펴보고, 전쟁 상황을 게임의 구조로 재구성하기 위해 게임의 구성요소는 무엇인지 살펴보려 한다. 그리고 전쟁 상황 하에서 고려와 요나라의 전략, 효용(보수)을 표현할 수 있는 전략형 게임(strategic-form game)을 적용하고, 이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구조적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내쉬균형(Nash equilibrium)이라는 개념을 통해 고려와 요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한다. 게임이론을 설명한 후에는, 원 셋에 대해 고찰해보기로 한다. 이론적 분석틀을 설정하고 나면, III장에서는 제1차 여요전쟁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제1차 여요전쟁이 발발하게 된 원인으로서 당시의 동북아 정세를 파악하고, 이어 요의 침공과 전투, 서희의 외교담판과 후속조치로 이어지는 과정들을 파악한다. IV장에서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앞서 설정한 이론적 분석틀을 적용하여, 제1차 여요전쟁을 두 시기(안용진 전투를 전후)로 나누어 두 개의 게임으로 구성하고, 원 셋의 개념을 적용시켜 고려와 요의 보수함수를 설정한다. 다음으로 내쉬균형의 개념을 통해 고려와 요의 최적대응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실제와 비교한다. V장 결론에서는 이 같은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결과가 갖는 교훈과 본 연구의 의의를 재확인한다.

II. 이론적 분석틀

1. 게임이론

가. 게임이론의 개념

게임이론(game theory)의 개념은 게임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게임은 '놀이, 경기, 시합' 등의 의미를 갖는 단어로서 게임이론은 이들 게임(트럼프, 스포츠, 바둑 등)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속성들에 착안하여 명명된 이론이다. 공통적인 속성이란 게임이라는 상황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게임의 특징은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모든 게임에는 나름의 규칙(rule of the game)이 있다. 게임의 경기자와 팀의 구성 방식을 규정하고, 순서의 배치, 특정행위의 제한 등을 규정하는 나름의 규칙이 존재한다. 둘째, 전략(strategy)이 중요하며, 상대방 전략에 관한 예측이 중요하다. 게임은 자신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전략과 예측이 필요하다. 셋째, 모든 게임에는 최종 결과와 그에 따른 보수(payoff)가 있다. 스포츠 경기에 존재하는 승패나 무승부가 최종 결과이고 우승상금, 명예상 등 그에 따른 보수라 할 수 있다. 당연히 게임의 경기자들은 자신의 보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넷째, 게임의 결과는 경기자들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¹³⁶⁾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게임의 특징은 사전적인 의미의 게임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게임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기업들의 경제활동이나 국가 간의 외교협상, 심지어는 이웃과의 관계 등도 모두 게임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나름대로의 규칙 하에서, 상대방과의 전략적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보수를 얻는 메커니즘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된 외교는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관련국가와 유엔, 국제원자력기구 등의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게임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각각의 경기자는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의 전략을 예측하여 대응한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국의 금융제재 등은 모두 북핵 외교라는 게임 상황 하에서 이루어진 경기자들의 선택이자 결과였다.

이처럼 우리는 국제적 차원에서 개인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늘 게임 상황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인간의 행태와 경제사회 현상을 파악하는데 게임에 대한 이해는 그만큼 중요하다. 게임을 이해하기 위해서 게임의 특징을 체계화 한 것이 게임이론이다. 게임이론은 먼저 전략적 상호작용(strategic interaction)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전략 또는 행동이 초래하게 될 결과에 대한 모형을 세운다. 그렇게 모형화된 게

136) 김영세, 『게임이론』, 서울 : 박영사, pp. 1-2, 2008.

입에서 경기자는 상대방의 대응전략을 고려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고, 경기자에게는 최적의 결과를 가져다 줄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게임이론이다.¹³⁷⁾ 또한 게임이론은 어떤 바람직한 결과가 나타나도록 게임 상황을 디자인하는 데 이용할 수도 있다.¹³⁸⁾

나. 게임의 구성요소

게임의 구성요소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¹³⁹⁾

- ① 게임의 경기자
- ② 게임의 규칙
- ③ 게임의 결과와 보수

먼저 경기자(player)란, 게임의 참여자로서 의사결정의 주체이다. 유엔총회에서는 유엔에 가입하여 총회에 참석한 국가들이 모두 경기자이고, 임금협상에 있어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경기자이다. 게임이론에서는 경기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경제인간'임을 전제하고 있다. 여기서 합리성이란 첫째,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철저히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 둘째, 의사결정에 있어서 항상 일관성 있는 선택을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게임에 참여하는 모든 경기자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경기자가 합리적인 것을 주지의 사실(common knowledge)로서 알고 있다.

게임의 규칙이란 경기자들이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매 시점에서 경기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나 전략은 무엇인지, 경기의 순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나타낸다. 게임이론에서는 경기자들이 갖고 있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 완전정보와 불완전정보, 그리고 완비정보와 미비정보로 구분한다. 완전정보나 불완전정보란 각 경기자가 자신의 전략을 선택할 때 상대방이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른 구분이다. 행동이란 의사결정 상황에서 경기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을 이야기하며, 전략은 순수전략(pure strategy)과 혼합전략(mixed strategy)으로 나뉜다. 순수전략은 일어날 개연성이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해당 경기자가 취할 행동의 완전한 계획(complete contingent plan)으로 정의된다. 반면 혼합전략이란 경기자가 여러 개의 행동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되 주어진 확률분포에 따라 임의로 택하는 것을 뜻한다. 경기 순서의 경우 의사결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면 순

137) 상계서 p.3

138) 신성희, 『게임이론 길라잡이』, 서울 : 박영사, p. 3, 2003.

139) 상계서 p. 7

차게임이라고 부르며, 모든 경기자의 의사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동시게임이라고 부른다.

마지막으로 게임의 결과란 모든 경기자들이 규칙에 따라 전략을 선택함으로써 실현되는 최종적인 상태를 뜻한다. 보수란 주어진 게임에서 경기자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효용으로 정의된다. 경기자의 선호체계는 기대되는 효용(기대효용)으로 계산될 수 있다.¹⁴⁰⁾

다. 전략형 게임(strategic-form game)

전략이란 경기자가 게임을 하기 전에 미리 가능한 모든 상황을 상정하고 각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경기자들의 전략 속에는 게임의 규칙이 요약되어 있다. 즉 경기자들이 어떤 정보를 갖고 있고, 매 시점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는 전략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게임은 경기자와 전략, 그리고 게임의 결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게임을 경기자, 전략, 결과(보수)로 표현한 것을 전략형 게임 또는 정규형 게임(normal-form)이라고 한다. 전략형 게임은 <그림-1>과 같은 보수행렬의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기자 2	
		Left	Right
경기자 1	Up	10, 20	20, 15
	Down	20, 5	30, 10

<그림-1> 전략형 게임의 예

경기자 1은 행(row)으로 나열된 전략(Up, Down)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경기자 2는 열(column)로 나열되어 있는 전략(Left, Right) 중 하나를 선택한다. 그리고 경기자 1과 경기자 2의 전략이 만나는 각각의 셀에 각각의 전략조합이 받게 될 보수를 쓴다. 셀 안에 있는 보수 가운데 쉼표 앞의 보수는 경기자 1의 보수이고, 쉼표 뒤의 보수는 경기자 2의 보수이다. 만약 경기자 1이 Up을 선택하고, 경기자 2가 Left를 선택할 경우, 경기자 1의 보수는 10이고, 경기자 2의 보수는 20이 된다.¹⁴¹⁾

전략형 게임에 있어서 경기자들이 어떠한 전략을 선택할 것인가 혹은 게임의 결과로 어떤 상태가 실현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은 게임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게임에서 그 게임에 참여하는 ‘합리적인’ 경기자가 선택할 것으로

140) 김영세, 전제서 pp. 7~13

141) 상제서 pp. 15~16

예상되는 전략조합(결과)을 그 게임의 '해(solution)' 라고 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경기자가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을 우월전략(dominant strategy)이라고 하고,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을 열등전략(dominated strategy)이라 부른다. 우월전략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보수를 가져다주는 전략을 강우월전략(strictly dominant strategy)이라 부르고, 가장 낮은 보수를 가져다주는 전략을 강열등전략(strictly dominated strategy)이라 부른다. 합리적인 경기자는 우선적으로 강우월전략을 선택한다. 반면 강열등전략은 단계적으로 배제시켜나가는 합리화전략(rationalizable strategies)을 선택한다.

이제 앞서의 개념을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다. <그림-2>는 공범자의 딜레마 게임이다.

		용의자 2	
		부인	자백
용의자 1	부인	3, 3	0, 5
	자백	5, 0	1, 1

<그림-2> 공범자의 딜레마 게임

게임의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게임 상황을 설명하면, 공범으로 보이는 용의자 1과 용의자 2는 검거되어 따로 독방에 갇혀 취조를 당하고 있다. 경찰은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없는 용의자 1, 용의자 2에게 각각 다음과 같은 정보를 알려준다. 만약 두 용의자가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 이들은 각각 징역 4년형에 처하게 된다. 그런데, 한 명은 범행을 부인하고, 나머지 한명은 범행을 자백할 경우, 범행을 부인한 용의자는 위증죄가 추가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지만, 범행을 자백한 용의자는 정상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언도 받는다. <그림-2>는 이러한 게임상황을 표현한 전략형 게임이다. 전략조합의 결과로 나타난 보수함수는 보수의 정확한 수치라기보다는 용의자들의 선호체계에 기초하여 임의적으로 설정한 함수이다. 여기서 용의자 1의 우월전략은 무엇일까? 용의자 1의 우월전략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범행을 자백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용의자 2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용의자 1는 부인보다는 자백을 하는 것이 보수가 높다. 용의자 2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용의자 1,2이 선택할 전략조합은 (자백, 자백)이 되며 이것이 바로 이 게임의 해가 된다. 반대로 둘다 부인하는 것은 열등전략이 된다. 용의자 1, 2에게는 범행을 자백하는 것이 각 개인에게 있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것이다.

라. 내쉬균형(Nash equilibrium)

내쉬균형(Nash equilibrium)은 1950년 존 내쉬(John Forbes Nash Jr.)가 비협조적게임이라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개념으로, 여기서 비협조적게임이란 경기자들 간에 구속력 있는 협정을 사전적으로 맺을 수 없다는 전략적 상호관계가 존재가 존재하는 상황을 이야기한다. 내쉬균형은 <그림-3>의 다음의 수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

어떤 $s_1 \in S_1$ 에 대해서진, $u_1(s_1^*, s_2^*) \geq u_1(s_1, s_2^*)$ 이고, 동시에 어떤 $s_2 \in S_2$ 에 대해서진, $u_2(s_1^*, s_2^*) \geq u_2(s_1^*, s_2)$ 이 성립한다.

s : 경기자의 전략 S : 전략의 집합 1 : 경기자 1 (2 : 경기자 2)
 s^* : 최선의 전략으로 가정된 전략 u : 보수(효용)

<그림-3> 내쉬균형

수식을 풀어서 설명하면, 경기자 1이 선택할 보수함수인 $u_1(s_1^*, s_2^*)$ 은 경기자 1이 s_1^* 전략이 아닌 그 이외의 전략을 선택한 경우인 $u_1(s_1, s_2^*)$ 보다 항상 크거나 같고, 마찬가지로 경기자 2가 선택할 보수함수인 $u_2(s_1^*, s_2^*)$ 는 경기자 2가 s_2^* 아닌 그 이외의 전략을 선택할 경우인 $u_2(s_1^*, s_2)$ 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는 것이다.

결국 내쉬균형이란 게임상황과 상대방의 전략이 주어졌을 때, 자신 혼자만 전략을 변경하여 자신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만약 경기자들 중 누군가가 현재의 전략을 버리고 다른 전략을 취함으로써 자신의 효용이나 보수를 높일 수 있다면 현재의 상황은 매우 불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어느 누구도 현재 전략으로부터 이탈할 유인이 없다면 이들 전략의 결과인 현재의 상황은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 즉 균형 상태를 가질 것이다.¹⁴²⁾ 모든 행위자의 선택이 다른 행위자들의 선택에 대해 최선의 반응일 때, 그 행위자들의 선택은 내쉬균형이다.¹⁴³⁾ 내쉬균형은 우월전략이나 열등전략이 존재하지 않는 게임에서도 합리적 경기자들의 전략선택과 그 결과를 예측하는 데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림-2>의 공범자의 딜레마 게임에서 내쉬균형은 게임의 해인 (자백, 자백)이다. 용의자 1,2는 자신의 전략을 변경해서는 결코 보다 나은 보수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자백, 자백)이 양방향의 합리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므로 내쉬균형인 것이다. 모든 게임에서 합리적인 경기자는 내쉬균형점에서 자신의 사전적 기대효용을 극대화시킨다.

142) 상계서 pp. 36~37

143) 이태은, "북핵 협상을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외교정책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9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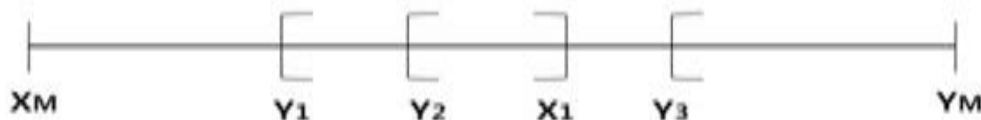
2. 윈 셋(win-set)

가. 개념과 전략

퍼트남(Robert D. Putnam)은 그가 전개한 양면게임(Two Level Game)이론¹⁴⁴⁾에서 서로 다른 레벨에서 일어나는 국가 간 협상과 국내적 요인을 연결하는 개념으로 윈 셋(win-set)을 도입했다. 퍼트남은 국가 간의 협상에 있어서, 국가의 힘(power)이 협상결과를 지배하는 원인 변수가 아니라, 단위수준의 변수인 국내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 윈 셋이 협상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주장했다. 양면게임에서 레벨 I의 게임은 국가 간의 행위주체인 협상담당자간의 게임이며 레벨 II의 게임은 협상담당자와 국내 집단과의 게임을 이야기 한다. 이때 레벨 II의 게임에서 국내적으로 비준¹⁴⁵⁾을 받을 수 있는 레벨 I 게임에서의 선택범위를 윈 셋이라고 부른다.¹⁴⁶⁾ 다시 말해, 주어진 상황에서 국내적인 비준을 얻을 수 있는 국가 간의 협상에서의 모든 합의의 집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이 윈 셋은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인 비준을 필요로 한다는 전제하에 성립된다.¹⁴⁷⁾

협상 당사국간의 윈 셋의 상대적인 크기는 협상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윈 셋이 클수록 국가 간의 게임인 레벨 I에서의 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왜냐하면 윈 셋의 크기가 클수록 상대국의 윈 셋과 교차할 가능성이 높고 윈 셋이 작을수록 교차하는 부분이 적어 협상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윈 셋의 상대적인 크기는 협상 합의에 따르는 이익(보수)의 분배를 결정한다. 윈 셋이 크다는 것은 협상과정에서 상대국에게 양보할 공간(협상안의 범위)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협상력의 상대적 약화를 초래하게 한다. 협상결과에 이익은 윈 셋이 큰 국가보다 작은 국가에 유리하게 분배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윈 셋의 크기와 협상력은 반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윈 셋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른 협상의 성립은 아래의 <그림-4>와 같다.



<그림-4> 윈 셋 축소 효과¹⁴⁸⁾

144) 양면게임이론은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는 상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인식 하에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를 동등한 위치에 놓고 그 상호작용의 역동성을 분석하는 틀이다.

145) 비준은 본래 의회의 의결을 의미하지만, 여기서 비준의 의미는 협상의 결과에 대해 국내 구성원들로부터 동의를 받는다는 광의의 의미이다.

146) 장상훈, "두레벨 게임이론을 적용한 戰後 北·日 修交協商 分析",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8-9, 2007.

147) 박형준, "남북기본합의서를 둘러싼 협상과정연구 : 양면게임이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22, 2008.

<그림-4>는 X와 Y 간의 제로섬 게임을 나타낸다. X_M 과 Y_M 은 각기 X와 Y의 최대 결과를 나타내며, X_1 과 Y_1 은 각기 비준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결과를 나타낸다. X_M 에서 X_1 까지가 X의 원 셋의 크기이고, Y_M 에서 Y_1 까지가 Y의 원 셋의 크기이다. 여기서는 X_1 과 Y_1 사이의 모든 협상안은 합의가 가능하다. 만약 Y의 원 셋이 Y_1 에서 Y_2 로 축소되면, Y는 협상결과 더 많은 이익을 획득하게 된다. 반면 Y의 원 셋이 Y_3 로 축소될 경우에는 X와 Y간의 원 셋이 교차하지 않기 때문에, 협상은 결렬된다.

원 셋의 크기는 협상의 성사 여부는 물론, 협상결과와 보수를 분배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합리적인 협상담당자들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크기의 원 셋을 설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협상담당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으로는 먼저 자국의 원 셋을 축소하는 전략을 들 수 있다. 협상담당자는 상대방으로부터 가급적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자국의 원 셋을 축소시키려 한다. 그런데 원 셋을 축소시켜 상대방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원 셋을 축소시키는 이유에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상대방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협상은 결렬되고 만다. 협상이 결렬로 끝나더라도 국가이익에 큰 해가 되지 않거나, 오히려 이익이 된다면 협상결렬도 협상담당자가 취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다. 이와는 반대로 자국의 원 셋을 확대하는 전략도 있을 수 있다. 협상담당자는 국내의 집단이기주의적인 압력에서 벗어나 보다 거시적인 입장에서 전체의 이익을 추구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원 셋을 축소시키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 오히려 국내의 원 셋을 확대하여 협상담당자의 재량권을 늘리는 것이 전체 이익을 위해 바람직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상대방가의 원 셋을 확대시키는 전략이 있다. 단일 이슈로는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다른 이슈와 연계시켜 협상의 이슈 구조를 변화시키는 전략이다. 이슈 구조가 달라지면 협상의 효용 역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원 셋을 간접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국의 정부가 담합을 통해 원 셋의 크기를 확대하는 전략이 있다.¹⁴⁹⁾

이를 게임이론의 언어로 설명하면 협상에 임하는 경기자들은 주어진 게임 상황에 따라 자국의 원 셋을 조절함으로써 효용이 극대화된 보수함수를 디자인하고, 그 게임에 존재하는 내쉬균형점을 선택하여야 한다.

148) Robert D. Putnam, "Diplomacy and Domestic Politics: The Logic of Two-Level Ga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2, No. 3, p. 441, 1988.

149) 이승연, "북·미 핵협상의 비관적 고찰 : 비대칭적협상이론과 무레벨게임이론의 혼합 적용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14 ~ 16, 2003.

III. 제1차 여요전쟁의 전개과정

1. 10세기 말 동아시아의 정세

10세기 말, 고려를 둘러싼 대외 정세는 동아시아의 질서와 세력의 구도가 재편되는 전환기로 표현할 수 있다. 당시의 동아시아의 정세를 송나라를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960년 중국 대륙에서는 후주(後周)의 절도사 조광윤(趙匡胤)이 50여 년간 이어져온 5대 10국 시대를 마감하고 송나라를 세웠다. 송(宋)나라는 건국 초기에는 국내문제 해결에 주력했으므로 북쪽의 강자로 떠오른 요(遼)나라와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되었다.¹⁵⁰⁾ 그러나 중국 대륙의 통일이 완성되어 가던 태종 시대에 이르러서는 무력충돌이 일어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요나라뿐만 아니라 송나라의 서쪽에 위치한 당항족(서하 : 西夏), 남쪽 변방에 위치한 토번(吐蕃)이 송나라와 적대감을 나타내면서, 송나라는 커다란 위협에 둘러싸인 형국이 되었다. 송나라는 건국 직후 크게 두 가지의 외교 현안에 직면해있었다. 하나는 연운 16주(燕雲十六州)의 패권을 둘러싼 요나라와의 분쟁이었고, 또 하나는 당항족과의 무력충돌이었다. 먼저 연운 16주란 북경 이북과 요동반도 사이에 위치한 연주·운주 등 16개 주로서, 936년 요나라가 후진으로부터 획득한 이후 점령하고 있는 상태였다. 연운 16주는 송과 요의 접경지대로서 송은 자국의 영토로서 회복해야 할 대상으로, 요는 만리장성 안쪽에 위치한 중원 정벌의 전초기지로서 필요한 곳이었다. 979년 송나라는 요나라의 지원을 받고 있던 북한(北漢)을 멸망시킨 후, 유주(幽州)를 점령하였으나 고량하(高梁河) 전투에서 요나라의 기병에게 포위되어 참패하였다. 982년 송나라는 요나라 성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 정국이 불안정한 틈을 타서 요나라를 공격하려 했으나, 요나라의 대응이 만만치 않아 결국 공격할 수 없었다. 중국 서북방면에서 일어난 당항족은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교역로를 오가며 중개무역으로 이익을 얻었고, 약탈 행위도 일삼았다. 984년에는 당항족의 추장 이계천(李繼遷)이 송나라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켜 거란과 동맹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송나라는 자국의 군사력을 어느 한 쪽으로 집중시키기가 어려웠다. 당항족은 1038년에 서하(西夏)를 세워 송으로부터 독립했고, 송의 서역 교역로를 위협했다. 이처럼 송나라가 연이은 패배를 겪은 이유는 송나라의 태조 조광윤이 건국 직후 지방의 군사권을 약화시켜 군벌을 무력화시키고, 문신에 의한 군권 장악에 주력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송나라는 경제와 문화면에서는 중흥기였으나, 군사력은 매우 취약했다.¹⁵¹⁾

연이은 패배를 계기로 송나라는 자국의 군사력만으로는 요나라를 제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고려와 군사동맹의 체결을 추진하게 된다. 985년에 고려에 한국

15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중군사관계사』,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p. 191, 2007.

15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고려시대 군사전략』,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pp. 85~86, 2006.

화(韓國華)를 사신으로 파견하여 군사동맹과 원병 파견 문제를 논의하게 했다. 요나라가 여진 정벌에 나선 틈을 타 986년 침공을 단행하면서 고려에 원병을 요청했으나 고려는 거절했다. 결국 송나라는 송 태종이 화살에 맞고 간신히 도망칠 정도로 참패하였다. 송나라와의 전쟁에서 연이은 승리를 경험한 요나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송나라를 침공했다. 988년 송나라 북방변경에 침공하여 979년 이래 송나라 치하에 있던 역주(易州)를 재탈환했다. 하지만 요나라는 송나라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려가 배후를 위협할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칼끝을 송나라에서 고려로 돌리게 된다.¹⁵²⁾

요나라는 947년 태종이 죽은 이후 대외 팽창을 주도할 강력한 황제를 옹립하지 못했다. 태종의 뒤를 이은 세종은 권력 기반이 취약했고, 즉위한 지 5년 만에 죽었다. 세종의 뒤를 이어 즉위한 목종은 969년 시해되었다. 어지러운 것은 대내환경만이 아니었다. 이 무렵 대외 환경도 좋은 편은 아니었다. 송나라에게는 요나라가 위협적이었지만, 요나라 역시 중국 대륙을 통일한 송나라와 마주하는 것이 위협으로 다가왔다. 요나라가 지원해온 북한이 송나라에 의해 멸망하고, 연운 16주를 두고 대립하게 되면서, 송나라와의 대결은 불가피해졌다. 동북만주 지역 일대에서는 여진의 약탈과 반란이 계속되었고, 고려와는 942년 이후로 단절하여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¹⁵³⁾ 여진은 발해의 유민과 요나라의 지배에 반발하면서 적대적인 태도를 고수하였다. 발해 유민이 세운 정안국(定安國)은 인근의 여진은 물론 고려와 송나라와도 통교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라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었다. 특히 송나라 태종이 요나라를 공략하기 위해 정안국을 비롯한 주변 세력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려 한 사실이 알려지자 요나라는 이들 적대적인 세력(송나라와 고려, 여진, 정안국) 사이에서 대외 전략을 구상해야 했다. 요나라는 성종이 즉위한 이후부터 급속한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 거란 특유의 부족제적인 전통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중국의 선진 문물과 제도를 도입하여 안정된 제국 경영이 이루어졌다. 국내 상황이 안정되자 요나라는 적대적인 송나라와 고려, 여진 등이 연합하여 대치되는 최악의 국면만을 벗어나기 위해, 먼저 고려와 여진의 연계를 차단한 뒤에 송나라를 공략하는 전략을 구상하게 된다. 984년과 986년에 요나라는 송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있는 여진을 두 차례에 걸쳐 공략하였다. 또한 발해유민이 세운 정안국을 멸망시켰다. 요나라는 979년과 986년에 침입한 송나라의 군대 역시 성공적으로 막아내면서, 송나라와 여진의 동맹 체제를 와해시켰다. 그리고 여진과 송나라가 통할 수 있는 길목을 차단하기 위해 991년에는 압록강 북쪽인 위구(威寇)·진화(振化)·내원(來遠)에 성을 쌓고 3천명의 군사를 배치하였다. 이 중 내원성의 축조는 한반도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

15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중군사관계사』,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pp. 194~195, 2007.

153) 942년 요나라의 태종은 30여 명의 사절단을 고려에 파견하여 낙타 50필을 전상하여 우호관계를 도모하고자 했다. 그러나 고려는 요나라 사절단을 섬에 감금하고 낙타는 만부교(만부교)에 묶어두어 굶겨 죽였다. 이후 고려와 요나라는 공식적 외교관계가 단절되었다.

서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¹⁵⁴⁾

요나라는 고려와 송나라의 연합을 사전에 차단하고 배후의 안전을 확보한 상태로 송나라와 결전을 벌일 준비를 하였다. 요나라는 990년경 송의 배후를 위협하기 위해 당항족(서하)과 우호관계를 맺었다. 『요사(遼史)』의 기록을 보면 990년 10월에 서하가 송 군대를 패배시켰음을 요나라에 고한 기록과 991년, 995년, 997년에 걸쳐 서하와 송나라가 전쟁을 벌였음을 나타내는 기록 등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송나라의 전쟁 상대가 요나라에서 서하로 바뀌었음을 이야기해준다. 요나라로서는 송나라와 서하의 마찰로 인해 서쪽과 남쪽에서 군사적인 여유를 갖게 되었고, 고려 침입도 보다 순조롭게 계획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¹⁵⁵⁾ 요나라는 991년 세 개의 성을 구축하고 난 뒤에도 고려에 사신을 파견하여 국교를 맺길 요구했으나, 고려의 거절로 관계개선 대신 무력으로 침공할 계획을 확립하게 된다. 요나라는 983년과 985년에 고려를 정벌하기 위해 준비했는데, 『요사』에 따르면 기후와 시기가 좋지 않아 여진 정벌로 선회했다고 기록되어 있다.¹⁵⁶⁾ 선회의 이유가 타당한지의 여부를 떠나 요나라가 고려를 침공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려를 둘러싼 대외관계는 이처럼 복잡하고, 역동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마지막으로 고려의 국내 정세와 대외정책을 간단하게 살펴보겠다. 고려는 943년 태조 왕건이 사망하자마자 권력 투쟁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웠다. 50년 동안 5명의 왕이 교체된 것이 이를 증명해준다. 불안정한 정치 상황을 안정화시키고 국가가 정상궤도에 다다르게 된 시점은 광종(光宗)이 즉위하고부터이다. 광종은 호족들의 권력을 약화시켜 왕권을 강화하였다. 이후 즉위한 성종(成宗)은 국가 체제 및 문물을 정비하는데 주력하였다. 최승로로 대표되는 유학자들을 중심으로 중앙집권적인 정치를 지향하였다. 고려의 대외정책은 태조 왕건 시절부터 훈요십조(訓要十條)¹⁵⁷⁾와 북진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중국의 한족 국가와는 교류하되, 거란에 대해서는 강경한 적대정책을 지향했다. 또한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한다는 취지하에 대동강과 청천강 사이에 패서 13진을 설치하여 고려의 영토는 청천강 유역까지 확장되었다. 이 같은 대외정책은 10세기 말까지 이어져왔다. 고려는 송나라와는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요나라를 견제하고 북방으로 진출하려는 정책을 추진했다. 고려는 송나라를 사대하기는 했으나 매우 탄력적이고 실리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했다. 대표적인 예가 송나라의 원병 파병 요청 거절이다. 요나라에 대해서는 여전히 적대관계를 유지했다. 발해가 멸망한 이후 국경이 맞닿게 된 고려와 요나라는 각각 북진정책과 남하를 견제해야 했다. 고려는 여진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여진은 요나라에

15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고려시대 군사전략』,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pp. 83~84, 2006.

155) 허인옥, “고려 성종대 거란의 1차 침입과 경제 설정” 『전북사학 제33호』, 전주 : 전북사학회, pp. 39~40, 2008.

156) 상계서 p. 41

157) 4조 거란과 같은 야만국의 풍속을 배격할 것

대한 견제와 완충지대로서 매우 유용한 존재였다. 또한 요나라의 동태를 파악하는 데도 이용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에게 생필품을 주어 회유하면 변방의 소요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¹⁵⁸⁾ 하지만 북진을 위해서는 이들을 북쪽으로 밀어내야 했다. 이 때문에 고려는 여진에게 유화책을 쓰는 동시에 여진 거주 지역에 성과를 축조하고 군대를 파견하면서 여진을 북쪽 변경으로 구축시켜 나갔다.

고려는 기본적으로 친송반요(親宋反遼)의 기초를 유지했으나, 위협부담이 따르는 군사 대립에는 개입하지 않았다. 송나라와 요나라, 여진의 사이에서 국익을 확보해나가기 위해 정세 변화에 탄력적으로 반응하면서 실리적인 외교를 추구했다. <그림-5>는 고려와 송나라, 요나라의 역학관계를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다.

고려 - 요	고려 - 송	송 - 요
-고려의 친송반요(親宋反遼) 기초와 북진정책이 요나라 자극. -요나라는 고려를 배후의 위협으로 인식.	-사대관계를 맺고 있으나 군사·안보적 부문에선 탄력적인 관계. -문화·경제적 부문에선 교류가 심화.	-연운 16주를 중심으로 중국 대륙을 둘러싼 패권전쟁. -송과 서하의 대립, 요의 통진으로 일시적인 소강.

<그림-5> 10세기 말 동아시아 역학 관계

2. 요나라의 침공과 항복 요구

983년과 985년에 두 차례에 걸쳐 여진을 정벌한 요나라는 본격적으로 고려를 침공할 준비에 들어간다. 1차 여진 정벌 당시 요나라 군대는 고려 영내로 도망치는 여진족을 추격한 바 있고, 2차 여진 정벌 당시 요나라의 성종은 '동쪽으로 고려를 친다.'고 함으로써 고려침략이 임박했음을 암시했다. 993년 8월 드디어 요나라 군대는 압록강을 도하하여 고려를 침입했다. 제1차 여요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요나라가 고려를 침공한 이유는 크게 2가지이다. 첫째, 송나라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고려가 배후의 위협으로 인식하여, 송나라와 고려 간의 연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979년 송나라가 요나라의 지원을 받고 있는 북한(北漢)을 공격하기 전에 고려에 사신 장계(張洎)를 보내 북벌을 알린 점과 985년 한국화가 군사동맹과 원병 지원을 요청했다는 점은 요나라에 위협을 느끼게 했을 것이다. 비록 고려와 송나라의 연합군이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요나라의 입장에서는 연합의 가능성조차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따라서 고려와 송나라간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배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고려를 침공한 것이다. 둘째, 압록강 안쪽으로 요나라의 영역을 확장시켜 고려

158) 김위현, 『高麗時代 對外關係史 研究』, 서울 : 정인문화사, p. 51, 2004.

를 견제하고, 그 지역에 사는 여진인과 발해유민들을 통제하려는 이유이다. 요나라는 985년에 발해를 계승한 정안국을 멸망시켰지만 그 잔존세력이 압록강 부근에 남아 있었다. 요나라는 발해유민이 고려와 결탁하여 발해유민의 부흥운동이 일어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시키려 한 것이다.¹⁵⁹⁾ 요나라의 침공이 고려를 대상으로 한 전면전이 아니라는 것은 전쟁의 전개과정 중에 수차례 증명된다.

993년 8월, 동경요양부(東京遼陽府)에서 출동준비를 마친 요나라의 고려 원정군은 보주로 진군을 개시하였다. 요나라의 원정군은 압록강을 도하한 후에 청천강 남안의 안북부(安北府) 공략을 목표로 삼고 고려 서북계(평안도) 통로인 보주-천마-귀주-봉산-태주-박주를 연결하는 경로를 따라 남진했다. 이것은 고려 서북계 방어진의 심장부인 안북부를 단시일 내에 장악, 청천강 남안에 교두보를 확보하여 서경을 단숨에 석권할 태세를 갖추고 난 다음, 이곳에서 일단 남진을 중지하고 유리한 입장에서 고려에 강화를 제의하여 송나라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청천강 이북지역의 영토를 포기한다는 약속을 받아 항복을 얻어내려는 계획이었다.¹⁶⁰⁾

한편 요나라가 고려를 침략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첩보는 서북계에 거주하고 있던 여진으로부터 처음 입수되었다. 하지만 당시 고려는 북진정책을 추진하면서 불복하는 여진족을 변경 밖으로 추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진의 첩보를 신뢰하지 않았다. 도리어 '여진인들은 고려를 속여서 혼란을 조장하려는 술책' 또는 '요가 여진인들을 약탈하기 위하여 출병하려는 것을 오인한 것'으로 단정하여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았다. 3개월 후 "거란군이 이미 고려 국경까지 도달했다."는 여진족의 첩보가 계속되자, 이때서야 비로소 고려는 여진의 첩보가 정확하다는 것을 깨닫고 전쟁 준비에 돌입하였다.¹⁶¹⁾ 전쟁의 준비 결과, 정종 때 창설된 예비군인 '광군(光軍)'¹⁶²⁾이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단시일 내에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대항하면 승산이 있다고 결론을 내었다. 그리하여 고려 조정은 각도에 군마제정사(軍馬齊正使)를 파견하여 장정 및 군마를 징집하여 전선으로 이동시켰다. 그리고 시종 박양유(朴良柔)를 상군사, 내사시랑 서희(徐熙)를 중군사, 문하시랑 최량(崔亮)을 하군사로 임명하여 북계로 침략하는 거란군에 항전하게 하였다. 국왕인 성종은 친위부대를 이끌고 서경으로 북진하여 이곳에 행재소(行在所) 설치하여 대요전쟁(對遼戰爭)을 총지휘하기로 했다. 고려가 방어체제를 강화해 가고 있을 무렵 요나라 군대는 압록강 중류 일대에 부교를 가설하고 대규모 도하작전을 감행하였다. 이때 압록강 연안에 배치되어 있던 고려군의 전초부대들은 수적으로 우세한 요나라 군대를 상대로 산발적이며 소규모적인 기습공격을 감행하여 요나라 군대의 전열을 혼란시켰다. 또

159) 상계서 p. 66

16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麗遼戰爭史』, 서울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p. 55, 1990.

161) 장학근, 『고려의 북진정책사』,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p. 71, 2004.

162) 광군(光軍)은 정종 2년에 요나라의 침입을 우려한 대비책으로 조직된 전국적 규모의 군사조직이었는데, 창설 당시의 병력 규모가 30만명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규모의 실제 동원가능한 일종의 예비군적 성격의 상설군사조직이었다. 국방군사연구소, 『韓國軍事史研究3』, 서울 : 국방군사연구소, pp. 75-76, 1999.

한 이들은 요나라 군대가 압록강을 도하한 후에도 요나라 군대의 행군로 주변의 백성들과 협력하여 적의 정찰기병대를 기습 공격해 전후 연락망을 혼란시켜, 남진의 속도를 지연시켰다. 원정군은 전후 양면에서 공격을 받고, 지리에도 익숙지 않아 그 기세가 약화되었다. 하지만 원정군은 고려군의 대소방어진들을 유린하거나 그대로 통과하여 귀조 동남쪽 15리 지점의 봉산성에 이르렀다. 당시 봉산성에서는 급사중(給事中) 윤서안(尹庶顔)의 지휘하에 봉산군 일대의 주민이 함께 입성하여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봉산성 밖의 요나라 군대는 요지에 병력을 배치한 후 사자를 파견하여 항복할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이를 거부하자 윤서안의 항복 거부통첩을 접수한 소손녕은 각종 공성장비를 동원하여 봉산성을 공격했다. 고려군은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적군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나 결국에는 병력과 장비의 열세로 지휘관인 윤서안과 군민 대부분이 적의 포로가 되고 말았다. 봉산성 전투의 패전 소식은 요나라 군대의 포위망을 벗어나 탈출에 성공한 일부 장병들이 안북부로 후퇴하여 고려 방어군 지휘부에 보고함으로써 알려졌다.¹⁶³⁾

고려군은 봉산성 전투에서 패하였지만, 봉산성 전투에서의 강력한 저항으로 요나라 군은 침공계획에 차질이 생겼음을 인식했다. 당초 고려를 침략하기 전에는 기병을 운용하기가 수월한 서북계 남토로 진군하려 하였던 요나라 군대는 서북계 남토에 고려의 정예군이 배치된 것을 우려하여 산악지대인 서북계 북토를 통해 남진을 결정한다. 봉산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고려 조정은 중군사인 서희에게 휘하군대를 이끌고 봉산군 10리 전방까지 전진케 하였다. 서희가 군사를 이끌고 봉산군을 구원하려 하니 요나라 군대의 총사령관인 소손녕이 다음과 같은 침략명분을 들어 항복을 권유했다.

“대조(遼)가 이미 고구려의 옛땅을 차지했는데, 이제 너희 나라가 강토의 경계를 침탈하니 이 때문에 정토한다. 대조가 사방을 통일하는데 귀부하지 않은 자는 기필코 소탕할 것이니 속히 와서 항복하고 지체하지 말라.”¹⁶⁴⁾

소손녕의 주장은 요나라가 고구려에 대한 연고권을 갖고 있으며, 요나라가 주변국을 군사력으로 제압했으니 고려는 버티지 말고 항복하라는 것이다. 소손녕은 고려가 자신들의 영역인 옛 고구려 영토를 침범했음을 문제 삼음으로서 영토의 할양을 압박하는 반면, 항복하여 요나라의 질서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서희는 소손녕의 발언에서 요나라가 전투보다는 강화를 원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국왕인 성종에게 화친을 권고했다. 이에 성종은 감찰사언 이몽진을 강화사로 임명하여 요나라 진영으로 보내 화친하기를 청하였다. 소손녕은 다시 고려에 글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6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麗遼戰爭史』, 서울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pp. 56~63, 1990.

164) 『고려사절요』 기사 12년

“80만 군사가 다다르리라. 만약 강에 나와 항복하지 않으면 마땅히 모두 멸할 것이니 군신이 빨리 진영 앞에 와서 항복하라.”¹⁶⁵⁾

이후 이몽진이 요나라 진영에 이르러 침략의 이유를 물으니 소손녕은 “너희 나라가 백성의 일을 돌보지 않으므로 이 때문에 우리가 공손히 하늘을 대신하여 천벌을 시행한다. 만약 화친하려고 한다면, 마땅히 빨리 와서 항복하라.” 고 하였다.¹⁶⁶⁾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요나라 군의 병력수이다. 소손녕의 주장대로 80만이 침공했다면 고려에게는 국가의 존립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일 것이다. 하지만 요나라의 침공군이 80만이라는 것은 별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본래 요나라가 다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원정의 형태는 황제가 이끄는 친정(親征), 도통(都統)이 이끄는 원정, 도통을 임명하지 않은 원정 등 세 가지로 구분되었다. 이 가운데 도통이 이끄는 원정대는 15만 명 이상으로 구성되었고, 도통을 임명하지 않은 원정은 6만 정도로 원정군을 편성하였다. 특히 도통이 임명되지 않은 원정은 편성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적국 깊이 들어가지 않고 성과를 공격하지 않는 등 몇 가지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즉 이 원정군은 전면전과 같은 장기전보다는 단기간에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고 귀환하는 임무를 띠었다. 그런데 소손녕은 도통이 아니었으므로 소손녕의 원정군은 최대 6만의 병력을 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¹⁶⁷⁾ 이것은 이후 제2차 여요전쟁과 비교해보면 더욱 확실해 지는데, 제2차 여요전쟁에서는 요나라의 성종이 친히 친정하였는데, 이때 총병력이 40만이었다. 황제가 이끄는 군대의 병력이 40만인데, 도통조차 되지 않은 소손녕의 군대가 80만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소손녕은 자신들의 군세가 80만이라고 주장한 것은 고려를 위협해 고려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차후 강화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에서 담판을 진행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그리고 소손녕은 고려민에 유화적인 자세를 보이는데, 이것은 고려의 북진정책은 군비를 증강시켜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고 주장하여 지배층과 피지배층간을 이간하려는 것이다.¹⁶⁸⁾ 이때까지 소손녕은 항복을 3번이나 권고하였다. 그리고 80만 정복군의 모습과는 달리, 전투 한 번에 수차례 강화의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이몽진이 적진에서 돌아오자 조정의 국왕과 신하들은 대책을 논의하였다. 봉산성 전투에서의 패배와 80만 대군이라는 엄포의 영향을 받은 고려 조정의 분위기는 강화를 청하되, 할지론(割地論)과 항복론(降伏論)이 대세였다. 서경 이북의 땅을 떼어 주어 물러가게 하고, 황주부터 절령까지를 국경으로 삼자는 할지론(割地論)이고, 군신이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항복하자는 항복론(降伏論)이다. 성종은 할지론의 의견

165) 『고려사절요』 기사 12년

166) 『고려사절요』 기사 12년

16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고려시대 군사전략』,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pp. 92-93, 2006.

168) 이정신, 『고려시대의 정치변동과 대외정책』, 서울 : 경인문화사, p. 61-62, 2004.

을 따르려 하였는데, 그 이유는 예전에 소손녕이 언급한 고구려 영토에 대한 주장으로 미루어 그들의 목적이 영토를 취하는 데에 있고, 할지론도 사실상의 항복이니 항복을 권고하는 요나라의 필요를 충족시켜 요나라 군대의 철군을 합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 성종은 서경의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마음대로 쌀을 가져가게 하였고, 남은 것은 적군에게 이용되지 않도록 대동강에 던져버리게 하였다. 그리자 서희가 이에 반대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개진한다.

“먹을 것이 넉넉하면 성도 지킬 수 있을 것이며, 싸움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의 승부는 군사의 강약에 달린 것이 아니요, 다만 능히 틈을 보아 움직이는 데 있을 뿐인데, 어찌 대변에 쌀을 버리도록 하십니까, 하물며 먹을 것은 백성의 생명이니 차라리 적군에게 이용되었으면 되었지 헛되이 강물 속에 버리는 것은 또한 하늘의 뜻에 맞지 않을 듯합니다.”

“거란의 동경부터 우리나라 안북부에 이르는 수백 리의 땅은 모두 생여전에게 점거되었었는데 광종이 이를 빼앗아 가주·송성 등의 성을 쌓았으니 지금 거란군사가 쳐들어온 것은 그 의도가 이 두 성을 빼앗으려는 데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고구려의 옛땅을 빼앗는다고 소리치는 것은 실상은 우리를 공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군사의 세력이 강성함을 보고 대변에 서경 이북의 땅을 그들에게 떼어주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더구나 삼각산 이북의 땅 또한 고구려의 옛땅이니 욕심 많은 자들이 한없이 요구한다면 그대로 다 주겠습니까, 하물며 지금 땅을 떼어준다면 진실로 영원토록 수치가 될 것입니다. 원컨대 임금께서는 도성으로 돌아가시고, 신들이 한번 싸움을 연 후에 의논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169)

<그림-6> 할지론에 대한 서희의 반대

전임 민관에서 이지백이 서희의 주장을 옹호하자, 성종은 이를 받아들이고, 할지론에서 항전론으로 입장을 선회한다. 서희는 요나라의 침공 의도와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서희는 요나라가 전면전이 아닌 강화를 목적으로 전쟁을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었다. 후술할 내용에서 이는 더욱 증명되는데, 먼저 서희는 요나라가 전면전을 전개하기보다는 거란의 동경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가주와 송성의 점령에 본 뜻이 있었음을 간파하였다. 가주와 송성은 원래 여진인이 거주하던 지역으로 이들은 발해유민이라고 볼 수 있다. 요나라는 이들 발해유민이 고려와 결탁하여 요나라에 항거할 것을 우려한 점을 알고 있었다.¹⁷⁰⁾ 또한 요나라가 침공한 가장 큰 목적은 송나라와 고려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고려와 국교를 맺는 것이었기 때문에 요나라 원정군은 고려 조정이 체감하는 위협보다는 덜할 것이라는 것 또한 인식했다. 땅을 떼어주거나, 항복하는 것은 몇 차례 전투를 진행하면서, 적의 군세에 대해 보다 정확히 파악 하고난 뒤에 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전투에서 고려군이 승리하면,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요나라와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 성급하

169) 『고려사절요』 개사 12년

170) 이정신 전제서 p. 66

게 항복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비합리적인 행위인 것이다.

서희의 설득으로 고려는 다시금 요나라 군대와 전투를 준비하게 되었다.

3. 안용진 전투의 승리와 서희의 외교담판

고려 조정이 소손녕이 제시한 강화교섭에 응하지 않자, 고려군은 기습 남진하여 고려군의 지휘부가 있는 안북부를 공격하려 했다. 요나라 군대는 별군 일개 부대를 차출하여 안북부로 가는 지름길인 태주-박주-안북부의 통로를 거치지 않고, 태주 북방으로 우회하여 위주-연주를 연하는 산간 협로를 통하여 안북부로 진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고려 측에서는 이 지역에도 요새를 구축하고 군사로 대비하고 있었으므로, 요나라 군대의 기도는 차질을 빚게 되었다. 남진하던 요나라 군대는 위주성에서 고려군에게 큰 손실을 입었고, 연주성에 이르러서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여 봉산성 부근으로 군대를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요나라 군대는 연주성 공격에 실패한 이후에도 안북부를 기습 공격하기 위해 남진을 시도하였다. 요나라 군 지휘부는 기병정찰대인 원탐난자군(遠探欄子軍)으로부터 고려군의 방어가 비교적 취약한 곳이 청천강 하류의 남북 양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요군 지휘부는 요군 선봉부대를 봉산성을 출발하여 가주-송성의 경로를 따라 남진하여 청천강 하류 북안에 이르러 부대를 분산 배치한 다음, 선봉부대가 얼어붙은 청천강을 건너 안용진(安戎鎭) 북방 전면을 향해 접근했다. 안북부 서쪽 65리 지점의 해변에 위치한 안용진은 고려 광종 때 구축한 군사거점으로 둘레가 755m에 불과한 작은 토성이었다. 안용진에서는 중랑장 대도수(大道秀)와 낭장 유방(庾力)이 500여 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방어에 입하고 있었다. 봉산성을 출발한 요나라 군대는 가주-송성을 연결하는 경로를 따라 남진하여 청천강을 건너 안용진을 공격하였다. 안용진의 고려군은 기습공격을 감행하여, 요나라 군을 교란시키고 강력한 타격을 가함으로써 요나라 군을 패퇴시켰다. 안용진에서 고려군이 요군의 선봉부대를 격퇴시켰다는 승전보를 접한 고려조정은 즉각 대규모 병력을 안용진으로 급파하여 청천강 하구에 대한 방어 태세를 강화하였다. 이로부터 요군은 봉산성 일대에 완전히 발이 묶이게 되어 그 행동에 제약을 받게 되었으며, 반면에 고려군의 방어태세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불안감이 가중되었다. 더욱이 요군은 지나치게 남진을 서둘러 배후에 있는 고려군의 여러 방어진을 두고 그대로 진군했기 때문에, 후방의 병참선의 안전조차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요군은 철군이 늦을수록 불리하다는 점을 깨닫고, 철군의 명분을 찾기 위해 고려와의 강화를 서두르게 되었다.¹⁷¹⁾

이에 고려는 합문사인 장영을 요군 진영으로 보내었는데, 소손녕은 대신(大臣)을 다시 군영 앞으로 보내어 대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협의하지 않았다. 이에 고려조정은 서희를 보내어 소손녕과 강화를 추진토록 하였다. 『고려사』에 나타난 강화교

171) 국방군사연구소, 『韓民族戰爭通史Ⅱ：高麗時代篇』, 서울: 戰爭紀念事業會 國防軍史研究所, pp. 34-36, 1993.

쉽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너희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 소유인데도 너희들이 침략하여 차지했다. 그리고 우리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도 바다를 넘어 송나라를 섬기기 때문에 오늘날의 출병이 있게 된 것이다. 만약 땅을 분할해 바치고 조병을 한다면 무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가 바로 고구려의 옛 땅이니, 그 때문에 국호를 고려라 하고 평양에 도읍한 것이다. 국경 문제를 두고 말한다면, 요나라의 동경도 모조리 우리 땅에 있어야 하는 어찌 우리가 침략해 차지했다고 하는가? 게다가 압록강 안팎도 우리 땅인데, 지금 여진이 그 땅을 훔쳐 살면서 완악하고 교활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길을 막고 있으니 요나라로 가는 것은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더 어렵다. 조병이 통하지 않는 것은 여진 때문이니, 만약 여진을 쫓아내고 우리의 옛 영토를 돌려주어 성과 보루를 쌓고 도로를 통하게 해준다면 어찌 감히 조병을 잘하지 않겠는가? 장군이 만일 나의 말을 천자께 전달해 준다면 천자께서 애절하게 여겨 받아들이실 것이다."

<그림-7> 서희와 소손녕의 담판¹⁷²⁾

소손녕은 두 가지의 주장을 하는데, 첫째는 영토에 관하여, 고구려의 영토는 요나라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둘째는 고려가 송나라와는 교류하고, 요나라와는 교류하지 않는 데에 문제를 삼는다. 즉 침공의 이유란 영토문제와 송나라와의 관계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희는 소손녕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한다. 고구려의 계승자는 고려임을 분명히 하면서, 도리어 요나라의 동경마저 고려의 땅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틀림이 없으면서, 요나라의 무리한 요구를 무마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서희는 요나라와 교류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여진의 탓으로 돌리고, 여진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려의 옛 땅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진 문제의 해결은 요나라로서도 반가운 일이었으므로, 요나라는 여진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득을 취하는 대신, 고려가 원하는 영역의 획득을 인정하여 합의를 성사시켰다.

소손녕은 서희의 주장에 납득하고, 이를 자기 조정에 보고했다. 그러자 요나라의 황제도 고려가 강화를 요청했으니 철군하라고 지시했다. 소손녕은 노고를 위로하는 잔치를 베풀고, 서희에게 낙타 열 마리, 말 1백 마리, 양 1천 두, 비단 5백 필을 선물로 주어 보냈다. 이에 성종은 크게 기뻐하여 강가에 나가 맞이했다. 후에 서희는 군사를 거느리고 여진을 쫓아낸 다음 장흥진·귀화진의 두 진과 광주·귀주의 두 주에 성을 쌓았다. 이듬해 다시 군사를 거느리고 안의진·흥화진의 두 진에 성을 쌓았고, 그 이듬해 선주·맹주의 두 주에 성을 쌓았다. 이것으로 고려의 방어선은 이전보다 확장되었다.

제1차 여요전쟁의 결과로서 고려와 요나라가 얻은 이익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고려

172) 『고려사』 열전 서희편

가 얻은 이익을 살펴보면 첫째, 고려는 최우선 과제였던 전쟁의 위기를 극복해낸다. 단기전으로 끝나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피해가 적어 국가적인 손실을 예방할 수 있었다. 둘째, 청천강 이북의 영토를 획득하여 북진정책의 기초를 유지할 수 있었다. 셋째, 강동6주에 성과 진을 설치하여 방어선을 확대하는 전략적 이점을 획득한 것이다. 훗날 제2차 여요전쟁을 고려해 볼 때, 서희의 외교담판으로 획득한 강동6주는 요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넷째, 동서 여진을 회유할 수 있는 역량이 증가되었다는 것이다. 다섯째, 요나라의 침공을 이겨내면서 고려의 위상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고려는 이후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외세의 압력에 대처해 나갔다.

요나라 얻은 이익으로는 첫째, 송나라와 고려의 관계를 단절시켜 배후의 위협을 해소하고, 송나라를 고립시켰다는 것이다. 적대세력이었던 고려를 후원세력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요나라로서는 최우선의 과제를 해결한 셈이다. 둘째, 고려의 영토를 압록강을 기준으로 획정하여, 일시적으로나마 고려의 북진에 제약을 가한 점이다. 셋째, 요나라 역시 조기에 목표를 달성한다는 목적을 성취하여, 자원의 손실이 적었다는 것이다. 넷째, 고려를 사대관계로 끌어들이므로써, 요나라의 위상을 강화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획득했다는 점이다. 다섯째, 요나라 역시 안전한 조공로의 보장이라는 명분으로 압록강 북쪽에 5개의 요새를 구축하면서, 고려의 북진을 감시할 수 있는 이점을 얻었다는 점이다. 여섯째, 고려와 연합할 것으로 우려되던 여진과 발해유민의 문제를 고려 스스로가 처리하기로 한 점이다.

하지만 손실도 있었다. 고려는 요나라를 사대함으로 그동안 국정기조의 근간이 되어온 훈요십조를 어기게 되었고, 송나라와 관계가 단절되었다. 또한 일시적으로나마 국경선이 압록강 이남으로 제한되어졌다. 거란이 입은 손실은, 전쟁 초기 고려로부터 획득할 수 있었던 서경 이북의 영역을 안용진 전투의 패배와 서희와의 외교담판으로 획득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강동6주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함으로써, 한반도를 공략할 수 있는 주요한 공격 거점을 상실했다는 손실을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손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고려와 요나라는 손실보다는 이익이 큰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IV. 게임이론으로 분석한 제1차 여요전쟁

4장에서는 앞선 장에서 언급한 이론적 분석틀을 역사적인 사실관계에 적용하여 제1차 여요전쟁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1차 여요전쟁에서 게임 상황이라 불릴 수 있는 상황은 대표적으로 봉산 전투 직후와 안용진 전투 직후라고 할 수 있다. 두 시점은 제1차 여요전쟁 가운데서 고려와 요나라 간에 전략적인 상호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시점이다. 따라서 이 두 시점을 분석하여 고려와 요나라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결과가 실제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1. 봉산성 전투 직후의 게임 분석

봉산성 전투 직후는 요나라 군대가 봉산 전투에서 승리하고, 고려에게 항복을 권고하던 시점이다. 강화사로 임명된 이몽진이 소손녕과의 협상에서 실익 없이 돌아오고, 고려 내부에서는 할지론이나 항복론이나가 대두되다가 서희의 항전론으로 일축된 상황이다. 봉산성 전투 직후 또 다른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고려와 요나라가 처한 상황을 게임 상황으로 재구성하여 가장 합리적인 결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봉산성 전투 직후의 상황을 게임 상황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게임의 구성요소를 기본으로 하여 몇 가지의 가정이 필요하다. ① 게임의 경기자는 고려와 요나라이다. ② 고려와 요나라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협상과 전투뿐이다. ③ 고려와 요나라가 선택한 전략의 조합은 (협상, 협상), (협상, 전투), (전투, 협상), (전투, 전투)이다. ④ 전략조합을 보수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text{협상}, \text{협상}) = (0, 0) \quad (\text{협상}, \text{전투}) = (-1, 2)$$

$$(\text{전투}, \text{협상}) = (2, -1) \quad (\text{전투}, \text{전투}) = (1, 1)$$

⑤ 이외의 몇 가지 규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인 협상과 전투는 동시에 준비할 수 없다. 반드시 둘 중 하나만을 택해야 한다. 둘째, 동시적이거나 순차적이거나 상관없이 전략조합의 결과만을 가지고 분석한다. 셋째, 실제 상황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전략조합이지만, 전략의 순수한 크기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넷째, 게임에서 설정된 보수(payoff) 값은 임의값이다. 임의값이지만, 효용의 선호에 따라 수의 크기를 달리했기 때문에 설명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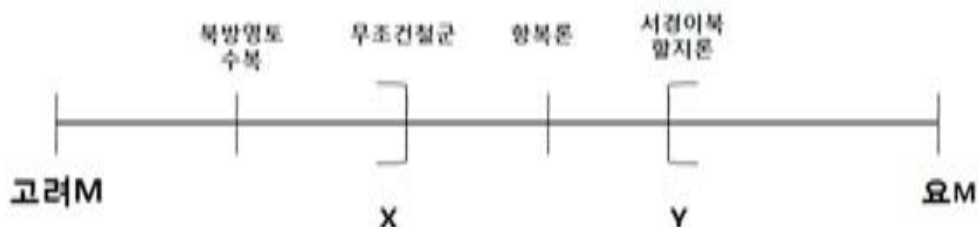
<그림-8>은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본 게임 상황을 전략형 게임으로 표현한 것이다.

		요나라	
		협상	전투
고려	협상	0, 0	-1, 2
	전투	2, -1	1, 1

<그림-8> 봉산성 전투 직후의 여요(麗遼)간 전략형 게임

주어진 게임 상황에 따르면 고려와 요나라가 모두 협상할 경우 고려가 얻는 보수(효용)은 0이고, 요나라 역시 0을 얻는다. 양국의 협상이 성사될 경우 얻을 수 있는 효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교섭이 성사되지 않거나 결렬되었음을 뜻한다. 실제로 봉산성 전투 직후 고려와 요나라는 실질적인 교섭에 실패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에 대해서는 원 셋의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하겠다.

봉산성 전투 직후, 소손녕이 제시한 협상의 조건은 요나라가 철군하기 위해서는 고려가 고구려의 영역을 요나라에게 돌려주고, 항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고려 조정은 할지문이나 항복문이나를 가지고 의견이 분분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서희의 의견이 채택되어 협상 대신 항전의 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왜냐하면 서희가 주장하는 바로는 요나라와의 협상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림-9>는 고려와 요나라 간의 원 셋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9> 봉산성 전투 직후의 여요(麗遼)간 원 셋 1

고려M은 고려가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결과이며 요M은 요나라가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결과이다. X는 고려가 비준 받을 수 있는 결과이며, Y는 요나라가 비준 받을 수 있는 결과이다. 따라서 고려M에서 X까지는 고려 원 셋의 크기를 나타내며, 요M에서 Y까지는 요나라 원 셋의 크기를 나타낸다. [북방영토의 수복]은 요나라가 고려에게 청천강 이북의 영유권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무조건 철군]은 요나라가 고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철군하는 것이다. [항복문]은 고려의 군신이 요나라에 항복하는 것이고, [서경이북 할지문]은 서경이북의 고려영토를 요나라에 할양해주는 것이다. 그림을 보시다시피 고려의 원셋과 요의 원셋은 서로 교차하는 지점이 없다. 봉산성 전투에서 승리하여 기세가 오를 대로 오른 요나라는 고려로부터 서경이북의 영역을 할양받으려 하고 있다. 반면 고려는 서희의 종용에 따라 요나라에게 결코 항복하거나 땅을 떼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최소한 아무조건 없이 철군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요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고려의 입장이다. 만약 고려와 요나라가 이와 같은 원 셋을 유지한다는 조건 하에 협상을 벌인다고 가정해보면, 고려와 요나라의 협상은 결렬될 것이다. 결렬된 협상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으니 그

효용은 0이다. 따라서 고려와 요나라가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보수는 0인 것이다. 만약 고려 조정이 서희의 주장을 따르지 않고, 초기의 대세에 휩쓸려 할지론을 채택했다면 원 셋의 구조는 <그림-10>의 모습으로 달라질 것이다.



<그림-10> 봉산성 전투 직후의 여요(麗遼)간 원 셋 2

<그림-10>은 <그림-9>와는 달리 고려와 요나라 간의 원 셋이 서로 교차하고 있다. 만약 고려 조정이 할지론을 채택했다면, 고려는 서경 이북의 땅을 떼어주는 조건으로 요나라의 군대를 철군시키는 협상을 성사시켰을 것이다. 협상은 성사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고려에게 큰 손실을 끼치는 선택이 되었을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서희의 역할이다. 서희는 자칫 할지론으로 타결될 뻔한 여요간의 협상을, 원 셋 축소 전략을 통해 무마시킴으로써, 고려에게 새로운 선택의 기회를 열어주었다. 서희의 원 셋 축소 전략으로 여요간의 협상은 결렬되면서, 양국은 다시금 전투에 몰입하게 된 것이다.

다음은 고려가 협상을 선택하고, 요나라가 전투를 선택하는 (협상, 전투) 전략조합인데, 이 전략조합의 보수에 따르면 고려는 -1만큼의 손실을 입고, 요나라는 2만큼의 이익을 얻는다. 고려는 협상을 선택하여 요나라를 공격하지 않지만, 요나라는 전투를 선택하여 일방적으로 고려를 공격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고려는 전쟁의 패배로 -1만큼의 손실을 입고, 요나라는 일방적인 승리를 거둬 2의 보수를 얻는다. 그런데 이 상황은 현실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방이 협상을 기다리면서, 무방비로 전투를 감내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가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된 게임의 규칙에 따라, 일방적인 상황에서의 전투는 이익으로, 협상은 손실로 표현함으로써 전투와 협상이 갖는 보수의 크기를 나타내는 데 필요한 조건으로 본다. 반대로 고려가 전투를 선택하고, 요나라가 협상을 선택하는 (전투, 협상)도 마찬가지이다.

마지막으로 고려가 전투를 선택하고, 요나라가 전투를 선택하는 (전투, 전투) 전략조합을 보면, 고려와 요나라는 각각 1의 효용을 얻게 된다. 여기서 전투가 1의 효용을 갖는 것은 고려와 요나라가 전투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용을 협상의 효용과 비교하여 표현한 것이다. 만약 양국이 모두 협상을 하면 둘은 0의 보수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양국이 전투를 하게 되면 양국은 각국이 기대한 만큼의 기대효용에 따라 보수를 받을 것이다. 고려와 요나라는 모두 전투에 승리했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협상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갖는다. 반면 패배할 경우가 문제인데,

고려로서는 협상을 통해서 합의할 수 있는 것은 땅을 빼앗기거나 항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패배를 감수하고서라도 전투에 임할 것이다. 승리에 대한 기대가 패배에 대한 기대보다 크므로 보수값은 1이다. 요나라 역시 한차례 승리한 기세를 몰아 더욱 고려를 몰아쳐 보다 확실한 협상상황을 만들고자 하는 기대감이 패배의 기대감보다 크므로 보수값은 1이다.

앞에서의 전개대로라면 고려와 요나라가 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바로 전투가 된다. 만약 요나라가 반드시 협상을 택한다고 가정했을 때, 고려가 선택할 수 있는 보수값은 협상 시에는 0, 전투 시에는 2이다. 반대로 요나라가 반드시 전투를 택한다고 가정했을 때, 고려가 선택할 수 있는 보수값은 협상시 -1, 전투시 1이다. 즉 요나라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고려는 전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요나라의 경우도 계산해보면 고려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 즉 고려와 요나라가 모두 전투를 선택하는 것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며, 이것은 이 게임의 해가 된다. 그리고 고려와 요나라 모두 전투를 택했을 때, 어느 일방이 전략을 바꾸더라도 더 나은 효용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전투, 전투) 전략조합은 내쉬균형이다.

봉산성 전투 이후 고려와 요나라가 협상을 하지 않고, 전투를 준비한 것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으며, 서희는 고려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변수였다.

2. 안용진 전투 직후의 게임 분석

안용진 전투 직후는 고려 군대가 요나라 군대를 상대로 승리하고, 요나라가 봉산성에 발이 묶여 협상을 추진하던 시기이다. 고려는 승리로 인해 자신감에 찼고, 요나라는 온전한 철군조차 힘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고려와 요나라는 서희와 소손녕을 대표로 담판을 벌인다. 이번에도 역시 고려와 요나라가 처한 상황을 게임 상황으로 재구성하여 가장 합리적인 결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봉산성 전투 게임 상황과 비교했을 때, 안용진 전투 게임 상황에서 달라지는 값은 보수값 뿐이다. 안용진 전투 게임 상황에서 각 전략 조합의 보수값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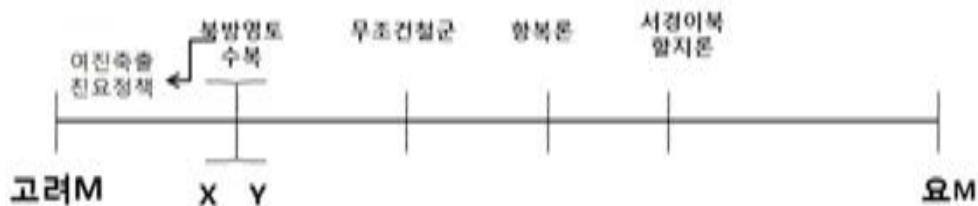
$$\begin{aligned} (\text{협상}, \text{협상}) &= (3, 2) & (\text{협상}, \text{전투}) &= (-1, 2) \\ (\text{전투}, \text{협상}) &= (2, -2) & (\text{전투}, \text{전투}) &= (1, -1) \end{aligned}$$

<그림-11>은 안용진 전투 직후의 게임 상황을 전략형 게임으로 나타낸 것이다.

		요나라	
		협상	전투
고려	협상	3, 2	-1, 2
	전투	2, -2	1, -1

〈그림-11〉 안용진 전투 직후의 여요(麗遼)간 전략형 게임

다음의 게임 상황에서 고려가 협상을 선택하고, 요나라가 협상을 선택할 경우, 고려가 얻는 보수는 3, 요나라가 얻는 보수는 2이다. 양국이 모두 (+)의 보수를 얻는데, 이것은 협상의 내용이 합의되었음을 말해준다. 고려의 보수가 3이고 요나라의 보수가 2인 것은 협상 결과 고려가 좀 더 많은 이익을 얻었기 때문이고, 요나라 역시 적지 않은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설정된 보수값이다. 안용진 전투 직후 고려와 요나라의 협상 상황을 원 셋을 통해 살펴보겠다. 〈그림-12〉는 안용진 전투 직후의 여요(麗遼)간 원 셋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12〉 안용진 전투 직후의 여요(麗遼)간 원 셋

그림을 보면 안용진 전투 이후 고려와 요나라의 원 셋은 [북방영토의 수복]에서 맞물린다. 바로 요나라가 고려에게 강동6주를 영유권으로 인정해준 사건을 가리킨다. 안용진 전투에서 승리한 고려는 보다 유리한 상황에서 요나라와 협상을 할 수 있었다. 서희는 고려가 북방의 영토를 회복한 뒤에 그곳에 성을 쌓고 진을 구축하여, 요나라와의 교류를 방해하는 여진을 물리치겠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요나라와 친하게 지낸다는 친요정책을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 요나라는 고려에게 강동6주의 영유권을 인정해주어 영토확장 면에서는 이익(오히려 손실)이 없었지만, 대신 여진을 축출하고, 고려를 송나라로부터 요나라로 끌어들이 배후의 위협을 제거한 이익을 얻었다. 요나라는 여진과 고려, 송나라가 연합하여 견제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고려침공을 단행한 것인데, 그 위협이 사라졌으니 큰 이익을 얻은 것이다. 고려는 봉산성 전투 때와 비교했을 때, 원 셋을 더욱 축소했고, 요나라는 원 셋을 크게 확대했다. 이 같은 원 셋의 크기 변화의 중심에는 역시 서희가 존재한다.

안용진 전투의 승리로 고려의 협상력이 상승한 측면도 무시할 수 없지만,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협상에서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서희의 외교 답판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협상, 전투), (전투, 협상) 전략조합의 보수값은 봉산성 전투와 비슷한데, 그 이유는 봉산성 전투 때와 동일하다. (전투, 전투) 전략조합의 보수값은 (1, -1)인데, 요나라는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고려에 비해 훨씬 불리해지기 때문에 생긴 보수 값이다. 안용진 전투 이후 남진에 대한 예봉이 꺾이면서, 전투에 대한 기대효용은 (-)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안용진 전투 게임의 해는 (협상, 협상)이다. 고려가 협상을 선택할 경우, 요나라는 협상이든 전투든 동일한 보수인 2를 얻지만, 요나라가 협상을 선택할 경우, 고려는 협상을 선택해야 최대의 보수인 3을 얻으므로 (협상, 협상)은 내쉬균형이 된다.

V. 결론

영국의 역사학자 카(E.H.Carr)는 그의 저서인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것은 역사의 중심을 과거에 두는 역사관과 현재에 두는 역사관의 양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과거와 현재의 유기적 특성을 강조한 역사관이라고 생각된다. 카의 정의대로라면 과거는 현재의 가치에 따라 그에 대한 평가가 유동적일 수 있고, 현재는 과거의 경험에 의해 평가받을 수 있고, 미래는 예견되어질 수 있다. 정리하면, 과거를 통해 현재를 깨닫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역사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자는 1000년 전 한반도의 역사가 현재에 유효한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기대하며 연구 활동을 전개했다.

10세기 말, 동아시아는 어느 누구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기였다. 중국 대륙을 통일한 송나라, 강력한 군사력으로 북중국을 차지하고 있던 요나라, 두 강대국의 갈등이 형성시킨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의 구도 속에서 고려는 자국의 가치를 보전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건국 초, 50년 동안 5명의 국왕이 교체되는 국내 정세를 극복한 고려는 동아시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요나라 역시 극복해야만 했다. 때로는 송나라와의 협력을 통해, 때로는 실리적인 대처를 통해 자국의 생존을 도모해야 했다. 그 당시 고려가 보여준 외교 전략과 위기관리 능력은 제1차 여요전쟁이 발발하면서 더욱 빛을 발했다.

본 연구는 제1차 여요전쟁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보다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추구한다는 취지에서 제1차 여요전쟁을 게임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게임이

론으로 분석한 결과 제1차 여요전쟁은 합리적인 행위자(고려, 요나라)들이 가장 합리적인 전략을 선택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낸 사례였다. 참여자의 합리성을 가정하는 게임 상황에서의 최선의 선택(내쉬균형)과 실제 상황에서의 선택은 거의 정확하게 일치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고려가 합리적인 전략을 선택하는 데에는 서희라는 개인의 존재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서희는 봉산성 전투 직후 항복론과 할지론이 주류를 이루던 비관적인 분위기 속에서 현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처방을 제시하여 고려의 변화를 이끌어내었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강동6주를 획득하고, 전쟁을 종결시키기까지 했다. 본 연구에서는 서희가 이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로 서희의 윈 셋 능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서희는 고려와 요나라 간의 협상 구도에서 지나치게 큰 고려의 윈 셋을 축소시키고, 상대방인 요나라의 윈 셋을 증대시켜 최적의 협상 결과를 도출해냈다. 서희는 소극적이고 비관적이었던 고려 조정에서 냉철하면서도 희망적인 비전을 제시하여 동의를 이끌어내었고, 협상 테이블에서는 자국의 필요는 물론, 상대방의 필요 역시 감안하여 함께 승리하는(win-win)의 결과를 가져왔다. 서희가 가졌던 합리성에 근거한 희망과 전략적 상호작용에 기반을 둔 대안의 제시는 오늘날 한국의 외교관들은 물론 각각의 게임 상황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두어야 할 능력이며, 본 연구과제가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유의미한 교훈이다.

참 고 문 헌

<원전>

- 『고려사』
『고려사절요』

<단행본>

- 국방군사연구소, 『韓國軍事史研究3』, 서울 : 국방군사연구소, 1999.
국방군사연구소, 『韓民族戰爭通史Ⅱ : 高麗時代篇』, 서울 : 戰爭紀念事業會 國防軍史研究所, 199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고려시대 군사전략』,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중군사관계사』,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麗遼戰爭史』, 서울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90.
김기홍, 『서회, 협상을 말하다』, 서울 : 새로운 제안, 2004.
김영세, 『게임이론』, 서울 : 박영사, 2008.
김위현, 『高麗時代 對外關係史 研究』, 서울 : 경인문화사, 2004.
신성휘, 『게임이론 길라잡이』, 서울 : 박영사, 2003.
우철구, 『현대 국제관계이론과 한국』, 서울 : 사회평론, 2004.
장학근, 『고려의 북진정책사』,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논문>

- 박형준, "남북기본합의서를 둘러싼 협상과정연구 : 양면게임이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이승연, "북·미 핵협상의 비판적 고찰 : 비대칭적협상이론과 투레벨게임이론의 혼합 적용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이학주, "양면 게임이론에 의한 협상사례 분석 : 2001년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개정협상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이해은, "북핵 협상을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외교정책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장상훈, "투레벨 게임이론을 적용한 戰後 北·日 修交協商 分析",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허인옥, "고려 성종대 거란의 1차 침입과 경계 설정" 『전북사학 제33호』, 전주 : 전북사학회, 2008.
Robert D. Putnam, "Diplomacy and Domestic Politics: The Logic of Two-Level Ga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2, No. 3, 1988.

<신문>

중앙일보 2007년 1월 15일자

<그림 목차>

<그림-1> 전략형 게임의 예

<그림-2> 공범자의 딜레마 게임

<그림-3> 내쉬균형

<그림-4> 윈 셋 축소 효과

<그림-5> 10세기 말 동아시아 역학 관계

<그림-6> 할지론에 대한 서희의 반대

<그림-7> 서희와 소손녕의 답판

<그림-8> 봉산성 전투 직후의 여요(麗遼)간 전략형 게임

<그림-9> 봉산성 전투 직후의 여요(麗遼)간 윈 셋 1

<그림-10> 봉산성 전투 직후의 여요(麗遼)간 윈 셋 2

<그림-11> 안용진 전투 직후의 여요(麗遼)간 전략형 게임

<그림-12> 안용진 전투 직후의 여요(麗遼)간 윈 셋

“서희와 21세기 협상의 리더쉽”

- 새로운 협상교육의 패러다임 ‘서희형 협상전문가 육성’ (승실대학교 대학원 : 이호재)
- 多元主義 東아시아 政勢 속 徐熙의 對 契丹外交 (건국대학교 : 김재범)
- 서희의 외교전략에 대한 국제정치적 측면에서의 분석 :
‘자칼’의 편승전략과 ‘고슴도치’ 외교전략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 조정원)
- 서희의 993년 체제—한국 정체성 형성의 결정적 순간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 옥창준)
- 위기관리로 보는 서희 -제 1차 고려전쟁 분석- (원광대학교 : 서경수)

새로운 협상교육의 패러다임 ‘서회형 협상전문가 육성’

승실대학교 대학원 : 이호재¹⁷³⁾

<목 차>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II. 협상교육의 필요성과 현실

1. 협상교육의 영역과 목적
2. 미국의 협상교육 방법론
3. 한국의 협상교육 현실

III. 서회와 협상교육

1. 서회 협상 전체의 개요
2. 서회의 협상가적 자질
3. 협상의 과정

IV. 서회 협상의 분석

1. 외부협상과 내부협상 측면
2. 협상 과정상의 분석
3. 서회의 협상력의 우수성

V. 협상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

1. 한국형 협상교육의 신설
2. 서회형 전문 협상가 육성

VI. 결론 및 제언

1. 새로운 모델로서의 서회
2.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서회 협상학교를 기대하며

173) 승실대학교 일반대학원 벤처중소기업학과 석사과정 4학기생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협상이라 함은 사전에서 확인하여 보면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결정을 하기 위하여 여럿이 서로 의논함.”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이처럼 협상은 상호간의 네트워크와 함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험난한 여정이다. 이러한 협상의 중요성이 과거 어느때 보다도 커지고 있다. 2007년 한국과 미국의 FTA 협상 이래 지금까지도 계속적인 현안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북핵을 둘러싼 6자회담이 또한 진행되고 있고 2007년 아프카니스탄에 억류된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협상전문가' '협상력' '협상기법' 등 협상이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¹⁷⁴⁾.

국가간의 통상이나 외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에 있어서도 기업환경의 변화로 협상의 중요성은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 기업들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지식상품화 되어감에 따라 일률적인 대량마케팅이 아닌 차별화된 개별상품으로써 고객에게 각각의 니즈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들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역량 또한 기업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외부조직과 전문가와의 연결을 통하여 확보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노사간의 협력이 기업의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얼마 전 쌍용차 사건에서 보듯이 협상은 회사의 운명에도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2008년에 국제적 금융위기가 도래하며 많은 기업들이 인수합병의 대상이 됨으로써 그 과정에서 협상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 (조선닷컴2008) 이처럼 기업 활동의 전반에 걸쳐 협상에 대한 필요성은 급속히 증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실무에서 협상에 임하는 협상자들은 대부분 경험이나 직관 또는 단편적인 지식에 의존하고 있어(Thompon, 2005)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과거 이래 “한국인은 왜 항상 협상에서 지는가”라는 책이 출판된 바도 있을 정도로 모든 국민들이 한국인은 협상을 못할까? 라는 의문에 빠져있다.

최철규¹⁷⁵⁾는 한국인의 협상능력 부재의 이유를 다음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문화적 이유로 어린 시절 학교 갈 때마다 대다수의 어머니가 하는 말씀에서 유추할 수 있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와 싸우지 마라.” 잘 듣고, 싸우지 말고..., 한마디로 ‘순응이 미덕’인 문화로서 나와 상대가 의견이 다를 때 이를 대화를 통해 풀어가는데 익숙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 상대와 내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치열한 의사소통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협상’에 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두 번째 이유는 한국인 특유의 ‘기질’ 때문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인의 협상 특성은

174) 조선닷컴 2007a, 2007b; 조선일보 2007

175) “한국인은 왜 협상에 약할까?,” 『조선일보』, 2008년5월24일

‘감정적’ 이고 ‘급하다’ 는 것이다. 협상에서 승자는 ‘시간적 제약’ 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다. 이번 쇠고기 협상에서 나타나듯 뭔가에 쫓기듯이 스스로의 데드라인을 먼저 설정하는 사람은 상대에게 많은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협상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국이나 서구에서는 협상 교육이 리더십 교육만큼이나 대중화돼 있다. 이는 오늘날 미국이 협상 강국이 된 비결이기도 하다. 바꿔 말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이 판판이 꺾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이미 대학에 협상 과정이 개설돼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했으며 기업교육 등에서 협상교육이 단골메뉴가 된지 오래이다. 미국 내 최대 협상 전문스쿨 한 곳에서만 1년에 3만명 이상이 교육을 받는다고 한다.

이처럼 협상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증가하고 있으나(곽노성, 2000; 박헌준, 이종진, 2000; 조기숙, 2002) 아직까지는 연구자의 수가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는 소수의 학교에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조기숙(2002)은 현재 한국의 협상교육은 프로그램과 강사에 따라 내용과 형식면에서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하며 또한 국내의 협상교육은 지금까지는 경영학보다는 국제통상 관련 학과를 중심으로 연구와 강의가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다수의 경영대학에서 협상 강의를 개설하고 있으나 강사에 따라 내용과 방법 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경영학적인 시각에서 협상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구명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겠다.

이와 같이 협상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협상교육의 강화가 현실화 되어야 하는 시대에 도달하였으나 대부분의 교육이 미국식 협상 교육을 받아들이고 순용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한국인들의 오랜 역사 속에서 제대로 된 협상의 물모형을 찾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찾더라도 그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단순한 역사적 현상으로만 이해하고 낮추어 보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고려 6대 왕인 성종(176) 때, 뛰어난 외교 사신으로 이름을 떨쳤을 뿐만 아니라 국가 존립의 위기에서 단 세치의 혀로 물리친 대단한 협상가인 서희(177)에 대해서도 현상으로만 이해 할 뿐 이에 대한 협상전략의 우수성이나 놀라운 성과적 특성에 대한 이해는 없는 편이다. 서희는 전문적인 협상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끌어낸 점 역시 간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서희에 대한 협상전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이를 통한 한국형 협상교육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활용하는 초석이 되고자 한다. 특히 향후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대학생들의 경영학 교육에 어떻게 활용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제언해 보고자한다.

176) 성종(成宗 981~997) 고려 제6대왕 960(광종11) ~ 998(성종16)

177) 고려의 외교가, 942년~998년 (57세) 문신, 자 염윤, 시호 장위 본관 이현, 고려 건국 초 내의명 필의 아들로 태어났다. 문과에 급제, 광평원외랑에 이어 내의시장이 되었다. 982년 송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오고 993년(성종12) 거란이 쳐들어오자 중군사가 되어 참전하였다. 내사명을 지내고, 개국사에서 죽었다.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가. 연구과제

본 논문의 연구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로 협상교육의 선도 국가인 미국의 다양한 협상교육을 한국과 비교하여 보고 두 번째로 한국식 협상교육을 위하여 서회의 협상 전략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여 이를 효율적인 교육방법으로 접목 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하여 연구해 본다. 세 번째로는 이를 현실화 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논의하여 향후 서회형 협상인재 산출에 기초를 다지고자 한다.

나. 연구방법론

협상 교육에 대한 논문을 바탕으로 협상의 현재 교육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한 서회에 대한 학술적 자료들을 총괄적으로 분류 구분하여 협상 부분에 대한 접근을 시도, 현재에 본이 되는 모델링으로 구성하여 이를 현재 교육과 비교 연구하여 본다.

II. 협상교육의 필요성과 현실

1. 협상교육의 영역과 목적

협상의 범위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즉 사람과 사람의 관계 하에서 끊임없이 발생한다. 즉 생활상의 모든 범위에서 경영학적인 협상의 교육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협상전문가 양성을 위한 것인가 하는 부분과 현실 생활에서 협상역량을 가진 사회인을 양성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에 앞서 사회에서 협상이 요구되는 영역을 분류하여 구분해 볼 필요가 제기된다.

첫째, 우선적으로 협상이라는 단어적 무게가 있는 협상 전문가의 협상의 세계가 존재한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협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6자회담이나 남북 경제협력 문제, FTA 등과 같은 국가 간의 통상이나 외교적인 문제 등 고도로 훈련된 협상전문가가 필요한 영역이다.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은 현재 미비한 상태이며 단순한 직관적 경험하에 이루어지는 경험의 노하우 전수가 전부이다. 또한 글로벌 내

의 협상의식은 이를 후발 학습한 한국인으로서 특징 없는 따라가기 형태의 연속성 하에 놓여 있다.

둘째,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협상 부분으로 이 역시 협상 또는 조정전문가 필요한 영역으로 상사나 민사 등에 대한 법적 다름이 있는 경우 혹은 환경분쟁이나 공공분쟁 등의 경우 이를 대리할 변호사 등과 NGO 등의 전문가들이다. 그간 사법연수원 등에서 일부 교육이 있었지만 미흡한 수준이었으며 공공분쟁의 경우 몇 년 전부터 KDI에서 전문대학원 개념으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변호사의 경우에는 로스쿨이 생기며 많은 로스쿨에서 협상 및 조정 교육을 준비하고 있으나 충실한 협상교육을담당할 전문가가 현재로서는 많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NGO에 대한 별도의 교육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경희대를 비롯한 몇몇 대학원의 NGO 대학원에서 혹은 경실련의 갈등해결 관련연구소 등에서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셋째, 사회인으로서 협상역량이 필요한 경우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직장, 즉 작업장에서의 수많은 갈등들을 해결하는 것도 협상의 주요한 영역이다. 그것이 단체교섭이나 임금협상과 같은 이익분쟁의 영역도 있겠지만 고충처리나 권리분쟁과 같은 나아가 사소한 직장 안의 다름의 문제들도 모두 협상을 통해 풀어나간다면 훨씬 원활해 질 수 있는 영역이다. 불행히도 이 부분에 대한 협상교육은 특별히 이루어지는 데가 없다. 향후 이 분야에서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를 통한 강도 높은 학습 강화가 이루어 지야 한다.

넷째, 사람 사이의 관계 상 그중에서도 부부관계 및 이혼갈등의 경우이며 이 역시 사회인으로서 협상역량이 필요하다. 최근 이혼율이 크게 증가하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를 직장 안의 인간관계 및 이혼의 예방차원에서라도 교양으로서 협상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혼이나 인간관계 관련된 부분은 상담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며 여성단체나 심리학 등에서 부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담 혹은 부부관계 차원에서 진행되며 협상 혹은 조정의 영역으로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즉 사회적 문제 해결능력에서도 협상이라는 시대의 조류는 반드시 필요한 학습이며 이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내용들이 존재한다.

다섯째, 기업에 취업하였을 경우 마케팅이나 영업 등 기업업무상 요구되는 협상능력으로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생각보다 매우 초보적인 개별지식에 의존하여 협상이 진행되는 경우이다. 기업에 있어서도 기업환경의 변화로 협상의 중요성은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 기업들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지식상품화 되어감에 따라 일률적인 대량마케팅이 아닌 차별화된 개별상품으로써 고객에게 각각의 니즈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들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역량 또한 기업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외부조직과 전문가와의 연결을 통하여 확보된다. 이들 제품을 고객에게 접근하는 방법 역시 과거와는 달리 매우 개별적으로 협상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즉, 과거에는 시장메커니즘의 발달로 인하여 개별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시장 가격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식사회에서는 시장가격에 의존하는 교환가치보다

는 나름대로의 사용가치가 중시되게 된다. 사용가치가 중시되게 되면 협상의 여지가 많아지며 비즈니스역량은 협상역량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다. 이는 취업준비생들 대학생들 및 신입 직원들에게 많이 요청되는 지식이자 학습인데 이 같은 학습의 양이나 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면이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 영역을 재차 표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협상의 구분>

협상	교육의양	구분
국제적 전문 협상	(?)	전문가 협상
법률적 전문 협상	중간 이상	전문가 협상
직장 사회 내 협상	전부	일반적 협상
인간 관계 내 협상	일부	일반적 협상
직장간 업무 협상	일부	일반적 협상

이와 같이 협상을 쪼개어 살펴보면 전방위적인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이해 할 수 있다. 여기에 추가적인 교육의 양과 질만이 추가된다면 사회적 안정망 확보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이는 전방위적인 국제 표준이 존재 하기는 하나 그 안에 한국적 특수성이 존재하는 사회와 연관되어진 문화 특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한국적 협상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서는 물모형을 반드시 설정하여 이를 통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사회적 과제가 되는 것이다. 또한 경쟁 사회의 치열한 인간관계 하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선도하는 역량으로서 협상이 요청되기 때문에 사회인으로 또는 기업내의 구성원으로 전방위적인 인간 객체로 협상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과제라 하겠다.

2. 미국의 협상교육 방법론

미국에서는 1980 년대부터 협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이 시작되었다 (Thompson & Leonardelli, 2004). 현재 협상분야의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미국의 대학이고, 강의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통로는 미국 대학의 MBA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협상연구의 주류를 이루는 관점은 사회심리학에 기반을 둔 행태적 의사결정 (behavioral decision-making)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Bazerman, 1998; Bazerman & Neale, 1992; Raiffa, 1982; Thompson, 1990). 특히 Harvard 대학

의 Raiffa(1982), Fisher & Ury(1981) 등은 1980년대 초에 협상을 경제학의 게임이론의 한 분야로부터 독립시켜 경영학 내의 주요 연구 및 강의분야로 이끌어 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경영대학에서의 협상연구와 교육은 조직전공 관련학과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인접한 사회심리학, 법학, 경제학 등의 다양한 전공 분야와 연관을 맺고 있다.

가장 많은 강의에서 채택되고 있는 Fisher, Ury, & Patton (1991)은 Harvard 대학의 협상연구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해 저술되었으며, 62개 강의 중 58.1%에 해당하는 36개 강의에서 사용되고 있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책은 이론적인 바탕위에 저술되어 있으면서 교과서가 아닌 일반서적의 성격을 띠고 있다. 다음으로는 Lewicki, Saunders & Barry(2005), Lewicki, Barry Saunders(2006)가 합쳐서 29.0%에 해당하는 18개 강의에서 채택되고 있었다. 이 책은 전형적인 교과서 형태를 띠고 있어 전자와는 대비되며 보완적인 성격을 띤다. 다음으로는 비교적 최근에 집필된 교과서로 협상의 이론적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 Thompson(2005), 이론적인 배경 하에 실무적인 지침을 주는 경영전문서적인 Shell(2006)과 Bazerman & Neale(1992), 경영 및 일반교양서적의 성격을 띠는 Ury (1993) 등의 순으로 채택되었다 (조남신, 2007).

이처럼 협상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교육체계에서 특히 MBA에서의 협상 교육은 세계 유수의 학교들이 이를 받아 들여 따라하는 형태의 모델이 되고 있다. 이를 자세하게 살펴 보면 다음의 <표-2>와 같다.

<표-2 미국 대학 MBA과정 협상과목에서 다루는 주제의 비중>¹⁷⁸⁾

주 제	역할수행 시플레이션 예
1. 총론 및 협상의 기본틀과 기법	Synertech-Dosagen BioPharm-Seltech 67 Fish Pond Lane
2. 분배적 협상과 통합적 협상	Bentley Convertible Texoil Las Flores
3. 조직, 팀웍, 신뢰	New Recruit Aerospace Investment Casino
4. 윤리의 공정성, 신뢰성	Bullard Houses SHARC Arms Control on Cobia
5. 다자간 협상의 연대	FG&T Towers Ad Sales, Inc. Allies in Alexia
6. 분쟁, 중재, 조정	Viking Ancolet- Elson Reality Puerile Printer
7. 파워, 어려운 상대 대처	Ultimatum Game Alplus Supply Company Bakra Beverage
8. 불확실성과 의사결정 및 장애요인	Catoon Win as Much as You Can Work Rules Strategy
9. 이문화, 국제협상	Cobalt-Silverlight Tipal Dam Granite Mouse

3. 한국의 협상교육 현실

협상을 구분함에 있어 대외적인 협상과 대내적인 협상으로 구분하여 확인하여 볼 수 있다. 앞서 이야기한 FTA나 쇄고기협상 등은 국가와 국가간의 대외적인 협상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쌍용차 협상이나 각종 노조 협상등은 대내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과연 한국은 높은 수준의 협상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대내적인 갈등에 대한 협상력을 보면 우격다짐과 벼랑끝 전술, 타협을 피박시하는 분위기, 공생이 아니라 공멸로 나가는 전투적 태도 등으로 대변 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는 몇 년간 계속되었던 사회적 갈등, 화물연대의 파업이라든지 농민단체의 시위등을 살펴보면 과연 한국의 협상력은 어디에서도 타협과 WIN-WIN을 관계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부분의 대부분은 현재 한국내의 협상과 관련된 학문적 체계가 잡혀져 있지 않으며 미국의 협상법에 기반한 한국적 특수성에 대하여 간과하고 있음을 이해 할 수 있다. 이를 극복 할 수 있는 체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이 논문의 연구 주제가 된다.

178) Northwest대학의 DRRC 및 하버드 대학의 PON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III. 서희와 협상교육

1. 서희 협상 전체의 개요

서기 993년 거란이 고려를 침입하였을 때 거란의 소손녕¹⁷⁹⁾은 “80만의 군사가 도착하였다. 만일 청천강을 건너와 항복하지 않으면 고려를 섬멸하고 말거이다. 고려의 국왕과 신하는 속히 항복하라.”

당시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보면 세 나गर 패권을 다투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었다. 중원의 송나라 북방의 요(거란) 그리고 한반도의 고려였다. 거란은 중국 북부를 점령한 다음 서역까지 정복하면서 성장한 강력한 군사 대국이었다. 기마 민족이었던 거란인들은 특히 말을 다루는 기술이 뛰어나 군대 역시 기병 중심의 군대였다. <거란사 병위지>를 살펴보면 총 50만 정도가 동원 가능한 병력이었다. 곧 이는 이 당시 거란의 역사에서 80만 명이 정벌 전쟁에 참여 한 것은 드문 일이며 질적 수준을 넘어서 숫자 자체에서 오는 위협성은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80만이라는 병력은 거란으로서도 건국 이래 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한 최대규모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소손녕의 80만 대군은 출병하자 단숨에 압록강을 건너 고려로 넘어왔다. 고려는 즉시 서희, 최량, 박양유를 보내 맞서 싸우게 하였으나 봉산군 일대(현재의 청천강 이북 지역)를 빼앗기고 말았다. 1차 승리를 거둔 후에 거란 장수 소손녕은 고려의 항복을 요구하였다. 이미 1차 전투에서 패배한 고려로서는 군사적 대결로는 거란을 당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였지만 다른 방법을 제안하지 못하였다. 소손녕이 밝힌 침략의 이유는 고려가 압록강 유역을 침범해서 웅장하려 왔다는 것이었는데, 결국 압록강 유역이 거란의 땅이라는 주장이었다. 당시 이곳은 고려와 거란 여진이 함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이었으며 뚜렷한 주장을 하기 어려운 지역이었다. 고려에서도 성을 세워 두기는 하였으나 실제 그곳은 여진족인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들의 땅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지 못하였다. 거란으로서는 변방이라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다.

고려 조정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당시 상황을 기록한 <고려사>를 보면 ‘할서경이 북 割西京以北’이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일부 중신들은 서경 이북, 즉 평양 이북의 땅을 거란에게 떼어주자고 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솔군절항 率軍乞降’ 즉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항복하고 빌자고 한 이야기도 있다. 당시의 상황을 확인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희는 협상을 주장하여 협상 자리에 고려 대표로 나서게 된다. 협

179) 거란의 장수로 동경유수 993년(고려 성종12) 거란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할 당시 거란군의 총사령관

상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이들의 협상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으로 요약되는데 소손녕의 주장은 “당신의 나라는 옛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의 옛 땅은 우리나라 소속인데 당신들이 침식하였다. 또 우리나라와 접하고 있으면서도 바다 건너 송나라를 섬기는 까닭에 이번 정벌을 하게 된 것이다” 일단 외형적으로 침략이유를 1) 거란 땅인 고구려 옛 땅을 고려가 침식하였다, 2) 고려가 송나라를 섬기고 있다. 이 두 가지였다. 여기에 대한 서희의 논리는 고구려의 옛 땅은 거란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에 속하는 것을 ‘고려’ 라는 국호를 들어 설명하고, 거란과 국교를 맺기 위해서는 거란과 고려를 가로막고 있는 여진이 속해 있는 땅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런 주장이 거란왕에게 받아들여져 소손녕은 서희와 ‘강화협정’ 을 체결한다. 이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80만 대군의 한반도 침입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여진이 차지하고 있던 강동6주(홍화진, 용주, 철주, 동주, 좌주, 귀주)를 고려의 영토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

2. 서희의 협상가적 자질

서희는 18세 되던 해인 고려 광종 11년 갑과에 급제하여 국정을 총괄하는 광평원외랑이라는 관직에 오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당시 관리를 임용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등장한 과거 제도를 통해 관직에 발을 들여 놓은 것이다. 이후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기까지 그는 계속 관직에 몸을 담았다. 당시 과거 제도는 신진 세력을 등용시켜 호족 중심의 관료 사회를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새로운 장치였다. 이 제도를 통해 등장한 것이 ‘과거 세대’ 이다. 고려 사회에서 그들은 새로운 역할을 담당해 내기 시작한 신세대였다.

제1차 과거는 광종 9년인 958년에 있었는데 이때 뽑은 인원은 불과 7명에 그칠 정도로 적었다. 제2차 과거의 선발인원도 12명으로 극히 제한되었다. 그들의 역할이나 입지 역시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는데 초기의 과거 세대는 이처럼 소수에 불과한 신진관료였을 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들 신흥 세력을 국정의 중심세력으로 점차 키워나가며 성장과 함께 왕권을 강화시켜 나가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밟으며 성장한 인물이 바로 서희다. 과거에 급제해서 일찍이 관직에 올랐던 그는 송나라에 사신으로 파견되기도 했을 만큼 인정을 받은 인물이었는데 그는 사신으로 간 송나라에서 극진한 대접뿐만 아니라 명예직이기는 하지만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벼슬까지 받았다. 더 중요한 점은 송나라에 사절로 갔던 경험으로 서희는 국제 관계를 어느정도 꿰뚫어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정리하면, 높은 수준의 관문을 통과한 엘리트 관료이며, 국정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아 나라 사정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고, 외국에 사신으로 파견되어 국제 정세를 읽을 수 있는 안목까지 겸비한 인물이었다. 이는 거의 완벽한 협상가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협상의 과정

거란과의 협상에 대표로 간 것은 서희가 처음이 아닌데 성종은 상황이 악화되자 소손녕에게 화의를 청하고자 맨 처음에는 이몽전을 청화사로 보냈다. 달래려는 의도로 보냈지만 소손녕은 오히려 더욱 기고만장해져 호통을 치며 협박의 전술로 일관했다. 화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자 고려 조정은 투항론과 서경 이북땅을 주자는 할지론으로 나누어졌다. 이 두 의견을 반대하고 나선 인물이 바로 서희였다.

성종은 다시 장영을 사신으로 보내 화의를 청하였지만 소손녕은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항복만을 독촉하였다. 이때 세 번째로 나서는 데 자칭한 이가 바로 서희였다. 그의 의견은 이른바 지피지기론이었다. 적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약점을 찾아내어 그곳을 파괴하여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논리인데 이는 협상에서의 정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이론으로 할지론에 기울어지 있던 성종을 설득하여 협상과정에 나서게 된다.

서희의 본격적인 등장은 바로 이 세 번째 협상에서 있는데 상견례 과정의 신경전과 침략의 원인을 둘러싼 공방전 마지막으로 협상 후의 연회 참석 여부를 둘러싼 공방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는 현재 협상과정에서 볼 수 있는 사전협상단계, 본협상단계, 후속협상단계에 해당한다. 사전협상단계에서는 협상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파악하거나 협상의 외적인 문제를 이용하여 기선을 제압하고, 본협상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개진하여, 후속협상단계에서는 협상결과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약하게 된다.

가. 예비협상 : 상견례 과정에서의 신경전

외교절차에 관한 것으로 서희가 뜰 아래에서 절할 것을 요구한 소손녕과 나라의 크기와 관계없이 같은 대신끼리는 그럴 수 없다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이는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닌 본협상 전에 힘겨루기로 이해 할 수 있는데 누구의 협상전략에 순응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서희는 침묵과 무반응으로 사전협상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여기서 서희의 논리성이 부각되는데 당위성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닌 부분의 강조나 대등한 예식절차 등은 예비협상에서 우위에 설 수 있게 되었다.

나. 본협상 : 침략 이유의 공방전

거란이 고려를 침략한 이유와 그 이유에 대한 서희의 반론인데 소손녕의 협박에 대하여 의연하게 대응하고 역으로 이용하는 서희의 놀라운 협상전략을 알 수 있다. 명분에 대한 첫 번째 공방전은 과연 누가 고구려의 후예인지에 대한 논의였다. 아무

근거 제시 없이 고구려의 후에임을 내세운 소손녕에 비하여 서희는 국가명으로부터 계승함을 자세하여 확인 시켜주며 논리를 펴나가게 된다. 또한 고려의 창업과 함께 계속 이어져 온 북진정책과 훈요십조를 강하게 나타나면서 고구려의 계승된 국가임을 인지 시킬 수 있었던 부분은 사회적 분위기를 인지하고 그에 대한 사전 준비로 인하여서임을 예측하여 볼 수 있다.

서희가 강경한 자세로 이치에 맞게 반론을 하자 고려 침범의 실제 이유를 털어 놓는데 이는 육토로 거란과 인접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서 송과 국교를 맺고 섬기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다. 이에 서희 논리정연하게 거란과의 국교 수립이 안되는 이유의 원인을 고려에 두지 않고 여진족이 중간 지역을 점령하고 있음에 집중화하여 여진을 제치고 안전성의 확보되면 국교 수립은 당연함을 이야기한다. 당시 송과의 일전을 앞둔 거란으로서는 고려를 자기편으로 만들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존재한다. 이를 이해하고 있던 서희는 압박과 호통대신에 유연한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하여 상대방의 주장과 논리를 이용하여 자기의 주장과 논리를 전개하는 방법론을 펼치게 되었다.

이 의견을 수립한 거란의 성종은 화의를 받아들여 즉시 철군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고 결론적으로 자연스럽게 여진이 차지하고 있는 고려의 땅을 돌려 달라는 의사표현이 성립되게 되었다.

협상가적 우수성을 더욱 크게 확인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의견을 왕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분인데 먼저 이 말은 예비협상과정에서 서희가 일관되게 주장한 것으로 당위와 명분을 줄테니 너희 왕에게 보고하라는 형태는 두 국가 모두에게 이득과 명분을 줄 수 있도록 하며 협상당사자에게도 그에 의한 성공적 협상임을 인지 시키는 요소가 된 것이다.

다. 후속협상: 연회참석 공방전

본 협상 후에 소손녕은 위로언을 베풀어 서희에게 참여를 요청하게 되었으나 고려가 전쟁중임을 이유로 참석 권유를 받지 않는다. 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향후에 대한 활동반경을 협상 내용대로 집행 하도록 강권하는 의미로 작용하며 강화협정을 성실히 하며 이 모든 불편함이 너로 인해서임을 이해시켜 협상의 이해를 담보시키는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여기에 더하여 융통성 있게 계속 된 요청에 받아들여져 인간적인 관계로 협상당사자들의 관계를 격상시키는 효과를 발휘하는 기지를 보이게 되었다.

라. 협상의 결과

협상으로 고려가 강동 280리를 수복하게 된 것은 성과로 평가 할 수 있지만 거란

의 연호인 통화를 도입하는 등 거란에 대해 사대하는 관계로 변한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 받을 수도 있으나 투항론과 할지론으로 점철되던 상황에서 협상을 통하여 일반적인 항복이 아닌 현실적 적용, 복진정책을 유지하면서 강동 280리를 수복하고 전쟁을 피하고 백성의 고통을 줄게 한 점은 한국사의 어느 시대에서도 보기 힘든 성공적인 협상이라 평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IV. 서희 협상의 분석

1. 외부협상과 내부협상 측면

거란의 침입에 대한 고려의 국론을 결정 과정을 내부협상으로 이해 할 수 있다면 외부협상은 서희와 소손녕 사이에 이루어진 협상이라 말 할 수 있겠다. 고려가 거란과의 협상에서 성공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서희가 소손녕 개인과의 협상(외부)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역사서에 따르면 성공의 공을 서희의 언변과 논리성에 두고 있는데 이는 단순하게 말을 잘하는 능력의 차원을 넘어서 상대방이 그 것을 통해 감동 받는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당시의 고려사회가 서희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물을 키울 수 있었기에 거란과의 협상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협상의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내 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해주는 내용이다.

서희가 소손녕과의 외부협상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외부협상과 내부협상의 측면은 결국 서희의 탁월한 외부협상력과 함께 거란에 대한 자신감과 복진정책으로 대표되는 고려 사회의 내부 조건, 즉 내부협상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2. 협상 과정상의 분석

이몽전의 1차 협상과 장영의 2차 협상은 그 자체로는 성공을 하지 못했으나 이 협상을 통하여 소손녕의 입장을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예비협상과정에서의 과감한 침묵전략은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진행 할 수 있도록 만든 탁월한 전략이었다.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 고려에 대한 침략 목적 보다 송을 치기 위한 사전적 준비로 이해한 해안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본협상 과정에서의 탁월한 설득력과 조목조목 이치를 설명하는 지식은 소손

념으로 하여금 사람에 대한 감동을 통하여 성공적인 협상으로 이끌게 된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무리로서 협정문에 서명 전까지 협상의 끝이 아님을 이해한 집중력과 인내력 역시 귀감이 된다.

결론적으로 협상 과정의 측면에서 볼 때 서희가 협상에서 승리 할 수 있었던 것은 1)사전의 두 번의 협상을 통해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한 점 2)예비협상과정에서 상대방과의 기 싸움에 우위를 차지하며 대등한 위치로 자신을 격상시킨 부분 3)본 협상에서의 설득력과 논리력으로 설득 감복 시킨 점 5)최후 협상 완료까지 인내하고 마무리 한 점이라 할 수 있겠다.

3. 서희의 협상력의 우수성

가. 배포와 용기

협상 초반에 서희보다는 소손녕에게 무게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서희의 배포와 용기로 이를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만든 부분은 현재에 와서 한국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나. 커뮤니케이션 능력

협상은 기본적으로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협상의 타결에 대한 서로의 기대를 일치시키는 과정인 협상은 상대방에게 내 의견을 말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런점에서 서희는 커뮤니케이션이 뛰어난 사람이며 상대방 논리의 허점을 어떻게 공략하고 어떤점에서 이야기의 맥을 잡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임을 이해 할 수 있다.

다. 말을 잘 듣는 능력자

소손녕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것이고 앞선 1차 2차 협상과 마찬가지로 패배한 협상가가 되었음은 자명한 일이다. 특히 현대인들에게도 강조되고 있는 좋은 청취자로서의 능력은 말하는 이로 하여금 내가 듣고자 하는 의도로 흘러 갈 수 있도록 만드는 놀라운 전략이다

라. 국제감각

앞서 살펴본 협상의 분류에서 서희의 협상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국가간 외교적 협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은 부분에서 기초가 되는 부분이 바로 국제감각이다. 즉

현재 일어 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여 내부적 협상일 때는 그 관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마. 편견없는 시선

협상가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사물을 그대로 보는 것인데 이는 편견이나 고집이 만든 색안경을 끼지 않고 강하면 강한대로 이해하고 약하면 약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객관적 시선 없이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바. 유연함

실익과 명분을 구분할 수 있는 해안과 함께 유연한 사고는 협상가의 중요한 덕목이 된다. 이는 협상의 진행과정에서 너무 골게 나가는데 대한 문제를 야기시키며 이를 극복하는 유연성이야말로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협상 후 초대에 계속적인 거부의를 내다가 유연하게 시점을 이해하여 그쪽에서 실익과 명분을 모두 얻은 부분은 높은 유연함을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사. 인내심

협상은 단시간에 끝날 수 있으나 협상의 전체적인 부분 사전협상 본협상, 사후 협상등을 따지어 본다면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대해 의견을 성급하게 내밀고 정확한 처리 전까지 분위기에 휩싸여 진행하게 되는 여러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는데 이때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서회는 이러한 인내심으로 성공적인 협상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아. 시점의 인식_통찰력

때를 살피 협상을 진행하는 전략으로 협상을 개시한 시점은 거란으로서도 자신들이 매우 불리한 입장이란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한 때이다. 이는 즉 주도적으로 협상이 가능 할 타이밍을 정확히 인식한 통찰력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V. 협상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

1. 한국형 협상교육의 신설

앞서 미국의 높은 수준의 협상교육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체계적인 학습 프로세스와 함께 전방위적인 협상에 대해 공부하고 있음에 현재 한국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의 이해를 할 수 있었다. 이를 한국에 그대로 가져와서 협상교육의 잣대로 삼고 계속적인 학습의 양과 질을 높이는 방법 역시 고려 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으나 서양적 사고와 한국적 사고가 다름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한국형 협상교육의 전문화가 더욱 중요하며 바람직함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서회라고 하는 시대의 협상전문가의 존재는 현재 협상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고 자질의 모자람을 맞하고 있는 한국인에게 과거의 높은 위상을 재차 확인 시켜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형 협상교육은 무엇보다 세계의 표준화 된 교육에 맞추어 진행되지만 거기에 더하여 한국의 협상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그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서회에 대한 협상 전략을 좀 더 많은 학습과 연구로 평가하여 접근하여 서회 협상론이라고 하는 과목으로 확대 개편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앞서 배포와 용기, 커뮤니케이션 능력, 청취 능력, 국제감각, 객관적 시선, 유연한 사고, 인내심, 통찰력은 서회 선생의 협상가적 장점이며 이를 활용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내용이 더욱 많이 요구된다.

2. 서회형 전문 협상가 육성

앞서 협상은 단순히 국가간의 협상, 법률적인 협상으로만 구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많은 부분에서 형성되고 구현됨을 이해했다. 이러한 부분에서 서회형 전문가의 육성은 사회에서 좀 더 안정망이 확보되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극대화되고 인내심과 유연성이 높아지며 통찰력과 객관적 시선으로 사회를 인식시킬 수 만 있다면 좋은 사회로 갈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 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에 서회형 전문협상가의 필요성과 함께 국가 교과서에 이를 활용한 전문 협상가 교과서 등의 개진이 요청된다.

V. 결론 및 제언

1. 새로운 모델로서의 서회

서회선생에 대한 많은 부분이 실제로 당시 사회에서 발생한 한가지 현상에 의하여 평가되고 있음이 작금의 현실이다. 하지만 그 상황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시대를 안정 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협상에서도 보지 못했던 놀라운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 비슷한 처지에서 조선시대 선조의 실패나 한국의 여러 협상에서 보듯이 실패한 사례가 더욱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이해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서회의 협상 사례는 서회의 영웅적인 모델을 가리는 사건으로 점철 될 수도 있지만 성공적인 사례에 대해 좀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널리 홍보 할 필요가 요청된다. 이를 위하여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서회협상론에 대한 초중고의 교과서 발간 등에 대해 적극적인 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기울어져야 한다. 윤리교과서 및 국사 교과서에 일부 있는 서회의 역량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며 이는 자라나고 있는 학생집단에 효과적인 학습을 영도할 필요충분 조건이 될 것이다. 또한 미국과 같이 어려서부터 협상력에 대한 진지한 이해를 통하여 향후 더 넓은 글로벌 시대에서 뒤처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2.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서회 협상학교를 기대하며

서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서회협상 학교의 가치가 높아지고 설립되기를 제안한다. 이는 서회라는 협상의 달인을 물모델로 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협상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협상가를 길러 낼 수 있는 사회적 혁신형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면 서회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나와 상대방이 서로 상생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일이 될 것이다. 즉 사람과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어 사회에 걸친 다양한 문제들의 부침을 조금이나마 사전에 해소 할 수 있는 방법론이 될 것이며 예를들어 이혼에 대한 준비기간에 서회의 협상과정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으로 서로에 관한 상생을 유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사회에 필요한 전문가적 집단을 키워냄과 함께 사람간의 관계속에 서로에 대한 이해와 상생을 부각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의 서회협상 학교의 등장을 기대해 본다.

참 고 자 료

1. 협상의 창 관점에서 바라본 정부간 갈등 연구, (고경훈, 정인화) 한국공공관리학회 2008
2. 협상교육,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미국경영대학원의 협상교육 내용과 분석 방법을 통한 제언, (조남신) 경영교육연구 2009
3. 한국협상학 교육의 현재 : 현황평가와 미래 발전방향, (곽노성) 협상연구 2000
4. 협상론, (이달곤) 법문사 2005
5. 협상전문가 보호 육성해야 (조선닷컴) 2007a
6. 한국인은 왜 협상에 약할까?, (조선일보 최철규), 2008년5월24일
7. 한국인은 왜 항상 협상에서 지는가? (김기홍) 서울: 굿인포메이션, 2002
8. 한국대학의협상강의안분석, (조기숙) 협상연구, 8권8 pp. 129-145, 2002
9. 세상을 바꾼 협상이야기 (정호수) 발매그후 2008
10. 서회 협상을 말하다 (김기홍) 새로운제안 2007
11. CEO는 낙타와도 협상한다 (안세영) 삼성경제연구소 2005
12. 거래의 위대한 스승 서회 (이인수) 이천무화원 서회선생기념사업회 2004
13. 한국 대외관계사의 흐름과 사회의 위상 (박한남)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14. 협상교육: 경험적학습을통한협상능력개발, (박현준, 이종진) 협상연구, 6권6 pp. 129-142, 2000

多元主義 東아시아 政勢 속 徐熙의 對 契丹外交

건국대학교 : 김 재 범

<목 차>

I. 들어가는 글

II. 10세기 동북아시아의 다원적 구도

1. 고려의 북진정책(北進政策)과 송(宋)과의 동맹(同盟)
2. 거란의 고려 견제
3. 거란의 고려 침략

III. 서희의 가계(家系)와 관직(官職)

1. 서희의 가계(家系)
2. 서희의 관직 생활

IV. 서희의 대 거란외교

1. 서희의 거란 교섭
2. 강동 6주 획득의 의의

V. 나오는 글

I. 들어가는 글

현대는 다원주의 시대라고 불리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EU연합 등 여러 독립적인 집단들이 경쟁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주체가 되어 다원주의 시대라고 불릴 수 있는 시대가 딱 한때가 있었다. 바로 고려시대의 국제 정세가 다원주의 시대라 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국제적으로 중국의 한(漢)·당(唐)나라 같이 절대 권력의 강력한

중심국가가 형성되지 않은 시대였다. 대신 중국 본토에는 송나라가, 중국 동북지방에는 거란족의 요나라가 한반도에는 고려가 건국되어 동아시아의 패권을 둘러싸고 각축을 벌이는 시대가 펼쳐졌다.

고려시대의 대외환경을 특징짓는 다원적인 국제질서는 고려왕조의 발전과정과 역사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외관계는 일국(一國) 대 일국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조선왕조의 경우 전기에는 명나라와, 중기 이후에는 청나라와의 관계가 대외관계의 중심축이었다. 그리고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반도에서 방과제 역할을 한 고구려도 각각 한(漢)·수(隋)·당(唐)나라와 차례로 일국 대 일국의 관계를 맺어왔다. 물론 우리 역사 내내 일국과 관계를 지속했지만, 당시 대외관계에서 일본은 종속적인 변수에 불과하였다.¹⁸⁰⁾

그런데 이와 같은 전통적인 대외관계와 달리 유독 고려시대에는 다원적인 관계가 유지되었다. 거란의 요나라가 멸망하는 12세기 초반까지는 고려와 송·요나라 3국이, 이어 12세기인 고려 중기에는 금과 고려·송나라가, 그리고 1234년 금나라가 멸망하면서는 고려와 원나라·송나라가 다원적인 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러다 고려 말인 14세기 후반 명나라가 등장하면서 다시 고려·명·원이 각축을 벌인다. 즉 고려는 왕조가 지속되는 내내 다원적인 국제질서 속에 놓여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¹⁸¹⁾

이런 점에서 고려가 다원적인 대외질서 속에서 동아시아 세계 질서의 한 축을 이루었다는 점은 고려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¹⁸²⁾

이러한 다원주의 시대에 존재했던 고려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외교 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되었을 것이다. 오늘날의 다원주의 사회에서도 외교문제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고려는 당시 등거리 실리외교를 펼쳤다고 할 수 있다. 송과 거란의 요 사이에서 어느 한쪽과 일방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채 고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한쪽과 관계를 유지하거나 단절하는 적절한 외교정책을 취하여, 영토적·문화적 실리를 추구했다.¹⁸³⁾

이러한 실리외교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로 서희(徐熙)를 꼽을 수 있다. 우리는 서희를 흔히 '서희 장군'이라 칭하면서, 서희를 무관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문관 출신의 외교에 밝은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서희의 가장 큰 업적은 고려 초 거란의 제1차 침입 때 '세치 허'로 상대를 설득해 압록강 하구에 있는 강동 6주를 획득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언변만이 좋아서 가능했던 일이 아닐 것이다. 아마도 국제적인 정세를 읽는 안목과 역사적 상

180) 박종기, 『5백년 고려사』, 푸른역사, 250쪽, 1999.

181) 박종기, 위의 책, 250쪽.

182) 박종기, 위의 책, 254쪽.

183) 박종기, 앞의 책, 259쪽.

황 인식이 더불어 갖춰야 가능 했던 일일 것이다.

지금부터 서희가 생존했었던 당시의 동북아시아의 다원적 구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서희가 이러한 다원적 구도를 이해하는 외교적 능력을 갖추게 된 배경을 그의 생애에서 찾아보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거란의 제1차 침입 때 외교를 통해 영토를 확장시킨 과정 등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II. 10세기 동북아시아의 다원적 구도

1. 고려의 북진정책(北進政策)과 송(宋)과의 동맹(同盟)

10세기 동북아시아의 정세는 고려의 건국(918)과 통일(936), 송(宋)의 건국(960), 거란(契丹)의 등장(916) 및 만주지역 지배(926) 등으로 요약 될 수 있다. 그런데 송이 중원(中原)을 통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란과 대립 상태였기 때문에 전대(前代)의 한(漢)이나 당(唐)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갖지는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와 송-거란은 상호간의 견제와 협력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즉, 이때의 동북아시아는 단일 세력의 독주가 아닌 상호간의 세력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고려는 태조 때부터 국호(國號)를 고려로 정한 것에서 알 수 있듯, 고구려의 후예임을 내세우면서 고구려의 고토(故土) 회복을 목표로 삼는 북진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래서 태조 때에 고려는 오늘날의 평안남도 지역을 모두 확보하고 평안북도까지 진출하였다. 정종 대는 서북지방의 개척으로 덕창진(德昌鎭)·박주(博州)의 확보와 더불어 30만의 광군사를 두어 거란에 대한 방어책을 구성하였다. 계속해서 광종 대와 경종 대를 거쳐 적유령 산맥 아래의 주요 지역을 모두 점령하여 압록강 이남에서 남은 지역은 압록강 서쪽 유역의 일부분 정도였다.¹⁸⁴⁾

이렇게 공격적인 북진정책으로 인해 고려는 거란과 마찰을 빚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태조는 같은 동족의 국가인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극도로 싫어하였다. 그래서 942년(태조25) 10월에 거란에서 사신이 와서 낙타 50필을 헌상(獻上)하자, 사신을 섬으로 유배하고 낙타는 만부교(萬夫橋) 아래에 매어 놓아 굶어죽게 하였다.¹⁸⁵⁾ 그리고 훈요십조(訓要十條)에서도 '거란과 같은 야만국의 풍속을 배격할 것'이라 하여, 후세에까지 거란을 배척할 것을 가르침으로 남겼다.

반면에 중원제국(中原諸國)과의 교섭은 게을리 하지 않았다. 고려는 송 건국 이전의 5대와 계속 교섭하였다. 그리고 송이 중국을 통일하자 두 나라 사이에는 왕래가

184) 이정선, 『고려시대의 정치변동과 대외정책』, 경인문화사, 55쪽, 2004.

185) 金潤顯, 『徐熙의 外交』, 『徐熙와 高麗의 高句麗 繼承意識』, 高句麗研究會, 108쪽, 1999.

찾아지게 되었다. 특히 고려 성종 대에 들어서는 송과 고려와의 사신 왕래가 더욱 빈번해진다.¹⁸⁶⁾ 『고려사(高麗史)』 권3 성종세가(成宗世家)에 의하면 성종 즉위 이후에서 거란 침입 전까지 송과 고려는 서로 여섯 차례의 사신을 파견하여 총 12회의 접촉을 가진다. 한편 『송사(宋史)』 고려전(高麗傳)에 의하면 송에 보낸 고려 사행(使行)은 8회, 고려에 온 송 사행(使行)은 6회로 총 14회의 접촉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¹⁸⁷⁾

두 나라의 관계가 급속히 가까워진 배경에는 서로가 필요로 하는 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고려는 송과의 관계를 통하여 북방의 거란을 견제하며 송의 진보된 문물을 받아들여려는 속셈이 있었고, 송도 고려와 연합하여 거란세력을 견제함에 이용하려 하였던 것이다.¹⁸⁸⁾ 특히 원교근공(遠交近攻) 정책을 펼치온 송은 바다를 통해 멀리 떨어져 있는 고려와는 친선을 도모하고, 가까이에 있는 거란과는 직접적으로 대결을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송과 거란은 후진(後晉) 때 거란에 양여한 연운 16주의 문제로 전쟁을 하였고, 송 태종은 978년(고려 성종5) 고려에게 거란을 같이 정벌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고려 성종은 선 듯 응하기 어려운 형편이라 하면서 거절을 하다가 결국 군사를 일으켜 서쪽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고려의 이러한 행위는 거란으로서는 도저히 방과(放過) 할 수 없는 일로 거란의 침입을 불러들인 것이나 다름이 없는 일이었다.¹⁸⁹⁾

2. 거란의 고려 견제

고려가 송과는 국교를 맺고 거란과의 국교 수립을 거부하자 고려와 거란의 관계는 악화되어 갔다. 송을 공격하려던 계획을 세우고 있던 거란에게 배후에 존재하던 고려는 송의 동맹 국가이기 때문에 위협의 대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란은 송을 공격하기 이전에 고려와의 화친을 우선적으로 도모해야만 하였다. 그러나 실상은 거란의 힘이 고려까지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다.

거란은 홀한성(발해 상경)을 함락시켰으나, 발해의 영토인 고구려 고토(故土) 전역에 대한 실제적인 지배력을 미치지 못하는 못하였다. 홀한성에 동단국을 설치했지만 동단국 수도를 동경 요양부로 이전해야 했다. 이후 거란이 길림산맥·장백산맥을 넘어 동쪽을 지배했다는 기록은 없다. 당시 송화강 하류 지역과 두만강 유역에 걸쳐 생여진이 있었고, 요동 지역에는 숙여진과 정안국이 있었다.¹⁹⁰⁾ 즉, 거란과 고려 사이에

186) 金潤顯, 위의 글, 110쪽.

187) 具山祐, 「高麗 成宗代 對外關係의 展開와 그 政治的 性格」, 『한국사연구』 78, 한국사연구회, 43쪽, 1992.

188) 金潤顯, 위의 글, 110쪽.

189) 金潤顯, 위의 글, 110~111쪽.

190) 안주섭, 『고려거란전쟁』, 정인문화사, 90쪽, 2003.

여진족과 발해 유민들이 새로운 정안국이 있어, 거란의 힘이 고려에 까지 미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란은 고려 침입을 위한 정치작업을 시작하였다. 특히 압록강 근처의 여진이 선두가 되어 거란과 대치관계에 있는 송과 말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여진 정벌은 시급한 문제였다. 게다가 고려가 발해유민을 수용하여 북방정책에 박차를 가해왔기 때문에 발해의 잔존 세력들 역시 제거해야만 했다.¹⁹¹⁾

거란은 여진을 정벌할 때마다 고려를 친다고 성언(聲言)하면서 실은 여진을 쳤다. 거란의 여진정벌을 보면 982년 10월 장차 고려를 정벌한다고 하면서 병마를 정돈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는 여진부를 경략(經略)토록 하였다. 이 경략은 6개월 동안 이어졌고, 거란은 압록강 하류의 여진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하였다. 그러나 이것으로 는 미흡하다고 생각하였던지 1년 뒤인 985년 7월에 다시 여진 정벌을 하도록 한다. 그런데 2번째 여진 정벌은 실상 정안국 정벌이었다. 압록강 중류에 자리 잡고 있던 정안국은 발해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였으며, 역시 송이 군사연맹을 시도했던 나라였다. 게다가 압록강을 통하여 대륙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나라였다. 거란은 정안국을 성공적으로 정벌하였고, 앞서의 여진정벌과 더불어 압록강유역에서의 적대세력들을 정벌하는데 성공하였다.¹⁹²⁾

이렇게 두 차례의 요동 정벌을 단행해 여진을 장악하고 정안국을 멸망시킨 거란은 압록강 연안으로 진출하여 991년 위구(威寇)·진화(振化)·내원(來遠) 등 3개의 성을 구축했다. 이것은 여진과 송의 해상통로를 봉쇄하여 고려정벌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은 모두 제거하려고 하였기 때문이었다.¹⁹³⁾

3. 거란의 고려 침략

거란이 압록강 연안에 3개의 성을 구축하자 고려는 심대한 위협을 느꼈다. 고려 성종은 서경에 행차하여 불안해하는 백성을 안정시켰고, 압록강 연안의 여진을 백두산 밖으로 쫓아냈다. 고려는 이미 안북부를 중심으로 청천강 이북까지 영역을 확장하면서 주요 요충지에 성을 쌓아놓고 있었다. 당시 서북방 일대에는 전쟁이전에 이미 62개소에 이르는 성이 신축 또는 개축되어 청천강을 중심으로 한 방비 태세가 갖추어 있었다.¹⁹⁴⁾

청천강을 연하여 개주성·안용진성을 구축하였고, 청천강 이북 지역에는 대령강을 연하여 태주성·박주성을, 구룡강을 연하여 영변성·운산성을 구축했다. 또 서부 해안 지역의 교통로에는 박주성과 가주성이 안북부에 이르는 중심을 유지하고 있었다. 내

191) 金潤顯, 앞의 글, 111~112쪽.

192) 金潤顯, 위의 글, 112~113쪽.

193) 金潤顯, 위의 글, 113쪽.

194) 안주섭, 위의 책, 90~91쪽.

북 지역의 교통로에는 태주성과 영변성이 개주성에 이르는 중심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성의 총지휘 사령부는 안북부에 있었다.¹⁹⁵⁾

마침내 993년(고려 성종12) 윤(閏) 10월 거란 성종은 동경유수(東京留守) 소손녕(蕭遜寧 또는 소항덕 : 蕭恒德)에게 명하여 군사 80만을 거느리고 고려를 정벌토록 하였다. 그런데 고려는 이러한 거란 군정(軍情)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해 5월 서북계 여진이 와서 거란이 군사를 일으켜 침입해온다는 정보를 전해주었으나 고려조정은 이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해 8월 여진이 또 다시 와서 정세가 급박함을 알리자 그제야 사태의 위급함을 깨닫고 긴장하여 각 도에 병마제정사(兵馬齊正使)를 급파하여 병사를 정돈케 하고, 그해 10월에 가서야 병사를 3군으로 편성하여 변성요진(邊城要鎭)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시중 박양유(侍中 朴良柔)를 상군사(上軍使), 내사시랑 서희(內史侍郎 徐熙)를 중군사(中軍使), 문하시랑 최량(門下侍郎 崔亮)을 하군사(下軍使)로 삼고 성종이 친히 독군(督軍)하였다.¹⁹⁶⁾ 이 때 주현군을 제외하고 출정한 병력의 규모는 3만~6만 명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성종은 안북부까지 행차하고자 하였다.¹⁹⁷⁾

소손녕의 거란군과 고려군이 최초로 전투를 벌인 곳은 봉산군(蓬山郡)이다. 귀주에 인접한 봉산군은 귀주에서 정주에 이르는 교통로와 귀주에서 태주박주에 이르는 교통로를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요충지였다. 봉산군 일대는 성을 구축할 수 있는 지형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주하는 주진군은 없었고, 출정군의 선봉군인 윤서안(尹庶顔)의 지휘 하에 고려군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고려군은 거란군에 대패하였고, 선봉장 윤서안이 사로잡혔다. 이로 인해 성종은 계획된 안북부 행차를 취소하고 서경으로 돌아가야 했고, 중군사 서희를 봉산군에 투입하였다.¹⁹⁸⁾

거란군의 봉산군 전투 승리 이후 전쟁은 소강상태로 접어들었고, 거란의 소손녕은 더 이상 남진하기 않고 서희의 군대와 대치하면서 항복을 요구하는 소문을 퍼트렸다. 그리고 고려 조정에

“우리 거란이 이미 고구려의 옛 땅을 모두 차지하였는데 이제 너희 나라가 우리의 강역을 침탈하였으므로 정벌하려 한다.”

라는 글을 보냈다. 중군사 서희는 이 글을 보고 화의(和議)가 가능할 것을 알고 그것을 성종에게 상주(上奏)하자 성종은 이몽전(李蒙戡)을 거란 군영에 보내어 화의를 청하였다. 이에 소손녕이

195) 안주십, 앞의 책, 91쪽.

196) 金潤顯, 앞의 글, 114쪽.

197) 안주십, 위의 책, 91쪽.

198) 안주십, 위의 책, 99~100쪽.

“80만 군대가 이르렀다. 만약 강을 건너와 항복하지 않으면 물살시킬 것이다. 군신(君臣)은 마땅히 군영 앞에 나와 항복해야 한다.”

라고 말하자, 이몽전이 고려를 침공한 이유를 물었다. 이에 소손녕은

“너희 나라가 백성을 돌보지 아니하니 우리가 하늘을 대신하여 천벌을 내리려 한다. 만약 화의를 맺고자 하거든 속히 나와 항복하라.”

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고려의 내정 문제를 제기하여 화친에 앞서 항복부터 하라고 했다. 어떻게 보면 소손녕은 앞뒤가 맞지 않는 침입의 구실만 되낼 뿐이었다.¹⁹⁹⁾

이상의 기록을 통해 볼 때, 소손녕이 밝힌 고려 침공의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거란이 고구려 고토를 차지하고 있는데 고려가 침탈했다는 것이다. 이는 고려가 태조 대 이래 서북방 지역으로 영토를 확장하여 압록강 연안에 성을 쌓으려고 하면서 이 지역의 여진을 축출한 일련의 행동을 지적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거란이 이미 서방 경략을 단행했고 동방 경략, 특히 제1·2차 여진 정벌로 여진과 정안국을 정벌하고 요동 지역을 장악했는데도 고려가 귀부하지 않고 있어 고려를 복속시키겠다는 것이다.²⁰⁰⁾

이몽전이 돌아와서 성종에 거란 군정을 상주(上奏)하자 성종은 즉시 군신을 모아서 거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중신들의 의견은 백출(百出) 하되 묘책(妙策)은 하나도 없었다. 당시 신하들은 항복론(降伏論)과 할지론(割地論)으로 나뉘게 되었다.

첫째, 항복론은 소손녕의 항복 요구를 받아들여자는 것이었다. 이는 거란에 대한 사대를 받아들임으로써 전쟁으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와 위험은 피할 수 있지만, 대신 거란의 속국이 되어 많은 공물을 바치고 내정 간섭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²⁰¹⁾

둘째, 할지론은 항복 대신에 서경 이북의 땅을 거란에 떼어주고 황주에서 절령까지를 경계로 삼자는 것이다. 이는 항복에 대한 부담을 지기보다는 고려 서북방의 신개척지를 포기하자는 입장이었다.²⁰²⁾

처음에 성종은 할지론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서경 창고(西京 倉庫)를 열어서 쌀을 백성들 마음대로 가져가게 하고 그래도 쌀이 남자 이 쌀을 적군에 이용될까 두려워하여 대동강에 버리도록 명하였다.²⁰³⁾ 이는 남은 양곡을 적이 이용할까 두려워서 취한 조치였다.

199) 金潤顯, 앞의 글, 114~115쪽; 안주섭, 앞의 책, 100~101쪽.

200) 안주섭, 위의 책, 101쪽.

201) 안주섭, 위의 책, 104~105쪽.

202) 안주섭, 위의 책, 105쪽.

203) 金潤顯, 위의 글, 115쪽.

그러나 할지론은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특히 서희는 거란이 대동강 이북이 아닌 청천강 이북 지역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하고 있음을 논거로 할지론을 비판하였다.²⁰⁴⁾

“거란의 통정에서 우리의 안북부에 이르는 수백 리의 땅을 모두 생여진(生女眞)이 점거하고 있었는데 광종이 취하여 가주(嘉州)·송성(松城) 등의 성을 쌓았습니다. 지금 거란이 온 것은 그 뜻이 북쪽의 두 성을 취하려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가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우리를 겁주려는 것입니다. 지금 그 군사의 세력이 강성함을 보고 갑자기 서경 이북 땅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더구나 삼각산 이북의 땅 또한 고구려의 옛 땅이오니 저들이 욕심으로 한없이 요구한다면 그대로 다 주겠습니까? 하물며 땅을 떼어준다면 진실로 만세의 치욕이 될 것입니다. 원컨대 어가를 도성으로 돌리시고 신 등으로 하여금 한번 더불어 싸우게 한 연후에 의논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서희의 주장에 성종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이지백(李知白)도 촉한(蜀漢)이 위(魏)에 할지했다가 결국 패망한 사례를 들면서 할지론을 비판했다. 이에 성종은 할지론을 포기하고 거란과의 강화를 모색했다. 성종은 각문사인(關門舍人) 장영(張瑩)을 거란 진영으로 보냈으나, 소손녕은 고려의 대신이 와서 군전(軍前)에서 면담할 것을 요구했다.²⁰⁵⁾ 성종은 군신(君臣)을 모아놓고 누가 거란 진영에 나가서 말로서 만세의 공을 세우겠느냐고 물었다. 만당에 모인 조신들은 묵묵부답이었으나 오직 서희만이 한발 앞으로 나서면서

“신이 비록 불민하오나 어찌 왕명을 받들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였다.²⁰⁶⁾ 이에 성종은 서희를 거란군 진영으로 보내는 사신으로 임명하였다. 이로써 서희는 전쟁에서의 협상 전권을 책임지게 되었고, 전쟁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204) 金潤顯, 앞의 글, 115~116쪽; 안주섭, 앞의 책, 105~107쪽.

205) 안주섭, 위의 책, 107쪽.

206) 金潤顯, 위의 글, 118쪽.

III. 서희의 가계(家系)와 관직(官職)

1. 서희의 가계(家系)

서희의 고향은 오늘날 경기도 이천이다. 이 지역은 고려시대에 개경과 경주를 잇는 중부지역의 주요 통로였다.²⁰⁷⁾ 오늘날에도 중부고속도로의 개통으로 한반도 중부 내륙의 교통의 중심지라 할 수 있다.

서희는 이천 서씨이다. 이천 서씨는 서희의 할아버지인 서신일(徐神逸)이 시조로 되어 있다. 하지만 서신일의 행적에 대해서는 정사에 나오지 않고, 다만 『世宗實錄(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서신일이 사슴을 살려주고 나이 80세에 서희의 부친인 서필(徐弼)을 얻었다는 기록만이 있다. 서필은 이천 서씨의 기반을 닦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²⁰⁸⁾

이천의 서씨는 후삼국의 난세에 서목이 고려의 태조 왕건을 도와 후삼국 통일에 기여하면서 중부지역을 대표하는 집안으로 떠올랐다. 이천의 원래 이름은 '남천'이었는데 서목이 왕건의 군대가 냇물을 건너는데 도움을 주어 '이천(利川)'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았다고 한다.²⁰⁹⁾

서필은 행정 능력을 인정받아 재상(宰相)에 오르게 된다. 그는 후삼국 통일의 후유증을 수습해 융화를 이루어낸 광종정권의 핵심인물 중 한 사람이었다. 충주를 외가로 둔 광종과 이천이 고향인 서필은 중부지역의 정서를 공유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서필은 광종의 신임을 얻어 광종의 개혁을 뒷받침하였지만 공신들을 지나치게 탄압하는 데에는 반대한 온건한 노선을 걸었다.²¹⁰⁾

뿐만 아니라 서필은 자신을 돌보지 않고 과감하게 임금의 잘못을 지적하였다. 대표적으로 왕실 재정을 걱정하여 왕의 하사품을 받지 않은 일, 광종이 투항하는 귀화한인(漢人)에게 신하들의 살림집과 딸을 골라 나누어주는 일을 반대한 일 등에서 서필의 강직한 성품을 잘 알 수 있다.²¹¹⁾ 이러한 서필의 강직한 성품은 훗날 서희에게도 계승되어진 것 같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 하겠다.

2. 서희의 관직 생활

서희가 태어난 해는 어느 사료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다. 그러나 서희 열전

207) 김창현, 『서희, 세계화 속에서 고려를 찾은 외교의 귀재』, 『내일을 여는 역사』 제13호, 내일을 여는 역사, 183쪽, 2003.

208) 徐吉洙, 『徐熙의 家系 研究』, 『고구려연구회 학술총서』 제2집, 고구려발해학회, 10~12쪽, 1999.

209) 김창현, 앞의 글, 183쪽.

210) 김창현, 위의 글, 184쪽.

211) 徐吉洙, 위의 글, 16~17쪽.

에 '광종 11년 나이 18세에 갑과에 급제하여 광평원외랑에 임명되었다.' 라는 기사를 보면 942년도에 태어난 것으로 비정 할 수 있다.²¹²⁾

서희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광종 11년 과거를 통하여 소위 후대의 후생으로 지칭되는 관료군의 일원으로 출발하였다. 당시 광종이 추진한 신구(新舊)세력의 세대교체를 통한 왕권강화를 위한 과거출신 관료군의 육성정책에 따라 광종 23년에는 초고속 승진을 하여 내의시랑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²¹³⁾

그리고 31세(972)의 나이로 대송사행의 총책임자가 되어 최업·강유업 등과 함께 송나라에 가게 되었다. 그가 젊은 나이에 송 사행의 대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가 광종대 초기 정치를 주도한 서필의 후사라는 것 이외에도 과거 관료 출신으로 고속 승진을 하여 불과 10여년에 내의시랑이 될 수 있을 정도의 탁월한 유학적 실력과 국제적 안목을 구비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당시 대륙을 양분한 송나라나 거란은 물론 고려와 거란 사이에 개재하여 장차 고려·송·거란 모두에 중요한 관심거리가 되고 동아시아의 정치군사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여진에 대해서까지 상당한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당시 중국대륙을 통일해 나가고 있던 신생국 송나라와 연운 16주를 선점한 거란이 날카롭게 대치해 있던 국제정세 하에 서희를 중요 외교 전담자로 선발하여 파견하였을 리가 없었을 것이다.²¹⁴⁾

송나라에서 서희는 송 태조에게 고려의 직첩보다 더 높은 직첩을 받게 되었다. 이는 어디까지나 서희의 능숙한 외교적 수완에서 기인한 것일 것이다. 이러한 재주와 경험이 후일 거란과의 교섭에서 능력을 발휘했을 것이다.²¹⁵⁾

서희는 관직 생활 중에 아버지 서필과 마찬가지로 강직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성종(成宗)이 서경 순찰길에 몰래 영명사에 가서 놀고자 하자 만류하는 글을 올렸다. 또 성종이 서희 막사로 와 안으로 들어와 술을 올리라고 명령하니, '임금이 신하의 막사에 들어와 술을 마서서는 안 된다.' 며, 성종을 막사 밖에 앉히고 어주(御酒)를 올리도록 하여 함께 마셨다. 그리고 공빈령(供賓令) 정우현(鄭又玄)이 당시 7가지 바로 다스려야 할 일을 논하는 상소문을 올렸다가, 성종에게 직책을 벗어난 일을 논하였다고 해서 벌을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서희는 옳은 말하는 데에는 관직의 높낮이가 없다고 간언하여 정우현을 구해내었다.²¹⁶⁾

이러한 서희의 행동을 보면 앞에서 언급한 아버지 서필과 유사한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렇듯 서희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강직한 선비였다고 할 수 있다.

212) 徐吉洙, 위의 글, 17~18쪽.

213) 崔圭成, 「徐熙의 北方政策」, 『徐熙와 高麗의 高句麗 繼承意識』, 高句麗研究會, 128쪽, 1999.

214) 崔圭成, 앞의 글, 128쪽.

215) 金潤顯, 앞의 글, 117쪽.

216) 徐吉洙, 앞의 글, 20~22쪽.

IV. 서희의 대 거란외교

1. 서희의 거란 교섭

안용진에서의 패배로 군사행동을 멈추고 있었던 소손녕은 사신으로 온 서희에게

“나는 대국의 귀인이니 그대는 뜰에서 나에게 절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서희는

“신하가 임금을 뵈는 때에는 뜰아래에서 절하는 것이 예이다. 그러나 두 나라 대신이 대면하는 좌석에서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

하면서 반대하였다. 소손녕이 계속 고집을 부리자 서희는 화를 내면서 숙소로 돌아가 버렸다. 소손녕은 마음속으로 서희의 인품이 비범함을 생각하고 사람을 시켜 서희를 다시 모셔오게 하고, 당위에서 대등하게 대면하는 의식절차를 승낙하였다.

이러한 서희의 행동에서 평소 서희의 강직한 선비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쪽으로 생각해보면 서희의 이러한 행동은 아마도 강화가 급한 쪽은 배후에 송이라는 적을 두고 있는 거란인지라 거란의 급한 마음을 서희가 이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하여 서희는 소손녕의 진영문 앞에서 말에서 내려서 걸어 들어가 소손녕과 뜰에 마주서서 읍한 후에 당에 올라가서 예를 행하고 동서로 대화하고 답판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의식적 절차는 매우 중요한 외교형식면에서의 승리라 하겠다. 만약에 소손녕이 하라는 대로 서희가 따라 했으면 소손녕이 서희를 업신여기고 고압적으로 자기주장을 관철시키려 했을 것이다.²¹⁷⁾ 하지만 서희가 처음부터 소손녕의 뜻대로 따라주지 않고 본인의 주장을 관철시키자 소손녕 입장에서는 서희를 쉽게 보지 않게 되는 계기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서희와 소손녕은 강화회담을 시작하였다. 강화회담의 핵심은 누가 고구려 고토에 대한 주인인가 하는 문제에 있었다. 이는 분쟁 대상이 되는 압록강 연안 영유권 주장이 주된 논거이기 때문이다. 소손녕은 서희에게 거란의 침공 이유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고려가 거란의 영토를 침식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려가 송에 사대하고 있다는 것이다.²¹⁸⁾

“당신의 나라는 신라의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의 옛 땅은 우리나라 소속인데 당신들이 침식했다. 또한 우리와 땅을 접하고 있으면서 바다를 건너 송에 사대 하고 있

217) 金潤顯, 앞의 글, 118쪽.

218) 안주섭, 앞의 책, 107쪽.

다. 그래서 오늘날의 출병이 있게 된 것이다. 만약 땅을 빼어 바치고 국교를 회복한다면 무사할 것이다.”

먼저, 고려가 거란의 영토를 침식했다는 문제이다. 이 주장은 고구려 고토를 현재 거란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현재 중국의 동북공정 주장처럼 위치 중심의 역사 계승이라 할 수 있겠다. 즉, 고구려 고토를 그리고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를 멸망시켜 그 영토를 거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고구려 고토 역시 거란이 계승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손녕은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고려가 고구려의 옛 영토를 되찾으려고 하는 행동은 거란의 영토에 대한 침식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고려의 송과의 사대 외교 문제이다. 소손녕은 고려가 거란과 근접해 있으면서 거란을 제쳐두고 바다를 건너면서까지 송에 사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려가 거란과 단교하고 송과 사대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송이 거란을 공격할 때 고려에 협공을 제의한 사실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²¹⁹⁾

이에 서희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²²⁰⁾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는 바로 고구려의 후계자이다. 그러므로 나라 이름을 고려라 하고 평양을 도읍한 것이다. 그리고 경계를 가지고 말한다면 귀국의 동경이 우리 국토안에 들어 와야 한다. 당신이 어떻게 우리가 침범했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 또 압록강 안팎도 우리 땅인데 지금 여진이 그 사이를 접거하고 있으면서 완악하고 간사 스리워 육로로 가는 것이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도 더 곤란하다. 그러니 국교가 통하지 못하는 것은 여진 탓이다. 만일 여진을 구축하고 우리의 옛 땅을 돌려주어 거기에 성과 보루를 쌓고 길을 통하게 된다면 어찌 국교를 맺지 않겠는가? 장군이 만약 나의 의견을 귀국의 임금에게 전달한다면 어찌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서희는 고려가 고구려의 국호와 수도를 계승했다는 논거를 들어 고려가 고구려의 계승국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송과의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와 거란의 사이를 여진이 가로막고 있어서 고려가 거란에 국교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했다. 문제가 되는 지역이 원래 고려의 땅인데 여진이 차지하고 있어서 국교가 불가능하므로, 여진을 축출하고 고려가 그 지역을 차지하면 거란과 국교 할 수 있다는 것이다.²²¹⁾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따지자 소손녕은 더 이상 서희에게 따질 수 없었고, 이 사실을 거란 성종에게 보고 하였다. 이에 성종은 고려의 요구를 들어주고 국교를 맺도록 명하였다. 소손녕은 서희를 청하여 연회를 베풀어 화해를 축하하였다. 서희는 7일간이나 거란 진영에 머물다 돌아갔는데, 돌아갈 때 선물로 낙타 10필, 말 100필, 양 1,000마리, 비단 500필을 받아 왔다.

219) 안주섭, 위의 책, 108쪽.

220) 안주섭, 앞의 책, 108~109쪽; 金潤顯, 앞의 글, 119쪽.

221) 안주섭, 위의 책, 109쪽.



고려진영으로 온 서희는 성종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거란과 약속한대로 여진족이 점거한 압록강 유역 고구려 옛 땅의 수복에 나섰다. 거란은 이미 약속을 한데다가 고려와의 원활한 국교 수립을 위해 고려의 군사작전에 협조할 수밖에 없었다. 서희는 적적 군대

를 거느리고 여진족을 축출한

<강동 6주>222)

후흥화(興化:義州)·용주(龍州:龍川)·통주(通州:宣川)·철주(鐵州:鐵山)·귀주(龜州:龜城)·곽주(郭州:郭山)에 성을 쌓았다. 이곳들은 압록강과 청천강 사이에 위치한 요새로 이른바 강동 6주가 설치된 것인데 이로써 고려의 영토가 압록강에 도달하게 되었다.223)

서희는 원래 거란의 양해를 얻은 만큼 압록강의 안쪽만이 아니라 바깥쪽 일대까지 수복한 후 거란과 국교를 맺으려 했다. 하지만 성종이 수교를 빨리 하지 않으면 후환이 두렵다고 하는 바람에 고려는 압록강 안쪽만 수복한 상태에서 거란과 수교하였다. 이처럼 고려가 미적거리는 사이에 거란은 고려에게 압록강 남쪽 유역을 내준 것을 후회해 고려가 압록강을 넘지 못하도록 막았을 뿐만 아니라 강동 6주까지 내달라고 요구하였다.224) 고려가 서희의 주장대로 압록강 너머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면, 아마도 말해 이후로 명백이 굶긴 만주로의 재입성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한다.

2. 강동 6주 획득의 의의

서희의 강동 6주 획득은 많은 의의를 담고 있다. 단순히 영토를 확장했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고려의 영토가 압록강까지 도달함으로써 압록강을 경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국방상의 안정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강동 6주 지역이 험산 지형을 갖춘 철의 요새 지역이라 훗날 외적의 침입 때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실제로 거란의 2·3차 침입 때 고려군의 주요 방어선이었던 곳이 흥화진·귀주 등이었으며, 훗날 몽고의 침입 때도 귀주성 등에서 적의 침략에 대항하였다.

또한 서희가 강동 6주를 획득한 것이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외교를 통해서라는 데에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고려 입장에서는 외침의 위협에서 벗어나는데

222) EnCyber.com

223) 김창현, 위의 글, 191쪽.

224) 김창현, 앞의 글, 191~192쪽.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서희의 외교력만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피해를 입었고, 오히려 강동 6주 획득이라는 최대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고려가 전략적 요충지를 장악하고 국력의 신장을 이룸으로써 동아시아에서 요-송-고려 내지 금(여진)-송-고려의 세력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고려는 우리 역사에서 어느 왕조보다도 국제적으로 자율성과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²²⁵⁾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서희가 거란을 설득하여 고려가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인정 받은 것 역시 의의라 할 수 있다. 물론 거란이 당시 배후에 있는 송의 위협이라는 국제 정세 때문에 쉽게 고려가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인정 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거란이 고려를 신라를 발판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서희의 외교로 인해 고려를 고구려의 후계자로 이해하게 된 것은 고려가 대외적으로도 삼한을 일통한 것을 인정받았다고 풀이 된다.

V. 나오는 글

지금까지 10세기 동북아시아의 다원주의 구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고려와 거란과의 1차 전쟁에서 외교로써 강동 6주를 획득한 서희의 가계(家系)와 생애(生涯) 그리고 대 거란 외교의 활약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0세기 동북아시아는 고려-송-거란으로 대변되는 다원주의적 정세를 띄고 있었다. 삼국은 서로간의 견제와 협력을 통해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고려의 입장에서는 지리적으로 가깝게 있지만 야만족이라고 인식되어지는 거란보다는 멀지만 선진문물을 배울 수 있는 송과의 교류를 선호하였다.

거란은 이러한 고려의 외교에 불만을 느꼈고, 소손녕으로 하여금 80만 대군으로 고려를 공격하게 된다. 이것이 거란의 고려 1차 침략이다. 봉산군에서 첫 승리를 한 거란의 소손녕은 고려에 항복을 요청하였다. 이에 고려는 할지론과 항복론을 두고 격론을 펼쳤고, 고려 성종은 할지론으로 결정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서희와 이지백의 반대로 고려는 할지론과 항복론 대신 협상 정책을 펼치게 된다. 이때 고려의 대표로 거란과의 협상에 나선 이가 바로 서희이다.

서희는 이천 사람으로 아버지 서필은 광종 대에 재상을 지낸 인물이었다. 서희 역시 젊은 나이로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갔고, 광종 23년에는 초고속 승진을 하여 내의시랑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그리고 31세(972)의 나이로 대송사행의 총책임자가 되어 최업·강유업 등과 함께 송나라에 가게 되었다. 이때 31세의 젊은 서희가 대송사행의 총 책임자가 된 것은 아마도 그의 국제적 시각이 남들보다 탁월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225) 김창현, 위의 글, 192쪽.

서희와 소손녕의 협상과정에서 소손녕은 고려가 고구려의 땅을 바탕으로 일어난 거란의 영토를 침식했다는 주장과, 고려가 거란을 멀리하고 송에 사대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서희는 고려야 말로 국호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려를 이은 국가이며, 송과의 국교는 문물교류를 위한 것이며 거란과의 국교는 여진의 방해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거란이 여진을 축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고려가 거란과 국교 할 수 있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거란의 성종은 서희의 제시안은 수락하였고, 결국 고려는 서희의 외교로 인해 거란의 침입을 물리침과 동시에 강동 6주라는 영토를 획득 할 수 있게 되었다.

강동 6주의 획득은 단순히 영토를 확장하였다는 의의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영토의 경계를 압록강까지 확장시켰고, 강동 6주의 험한 지형을 요새화하여 국방상의 요충지로 삼았다. 이는 국방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었다. 또한 고려가 전략적 요충지를 장악하고 국력의 신장을 이룸으로써 동아시아에서 요-송-고려 내지 금(여진)-송-고려의 세력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고려는 우리 역사에서 어느 왕조보다도 국제적으로 자율성과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뿐만아니라 역사적으로 서희가 거란을 설득하여 고려가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인정받은 것 역시 의의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서희의 외교력으로 고려는 외침의 위기에서 큰 피해 없이 벗어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중요했던 강동 6주를 획득할 수 있었다. 이는 앞으로 고려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서희의 외교력과 충성심의 결실이라 평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박종기, 『5백년 고려사』, 푸른역사, 1999.
- 안주섭, 『고려거란전쟁』, 경인문화사, 2003.
- 이정신, 『고려시대의 정치변동과 대외정책』, 경인문화사, 2004.
- 具山祐, 「高麗 成宗代 對外關係의 展開와 그 政治的 性格」, 『한국사연구』 78, 한국사연구회, 1992.
- 金潤順, 「徐熙의 外交」, 『徐熙와 高麗의 高句麗 繼承意識』, 高句麗研究會, 1999.
- 김창현, 「서희, 세계화 속에서 고려를 찾은 외교의 귀재」, 『내일을 여는 역사』 제 13호, 내일을 여는 역사, 2003.
- 徐吉洙, 「徐熙의 家系 研究」, 『고구려연구회 학술총서』 제2집, 고구려발해학회, 1999.
- 崔圭成, 「徐熙의 北方政策」, 『徐熙와 高麗의 高句麗 繼承意識』, 高句麗研究會, 1999.

서희의 외교전략에 대한 국제정치적 측면에서의 분석 :

‘자칼’의 편승전략과 ‘고슴도치’ 외교전략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 조정원

<목 차>

I. 서 론

1. 문제제기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목적

II. 이론적 배경

1. 편승의 개념과 유형
2. 고슴도치 전략

III. 10세기 동아시아 국제체제의 특성

1. 고려, 송, 거란의 외교관계
2. 동아시아 국제체제의 특성과 약소국 외교정책

IV. 서희의 외교전략: 자칼식 편승과 고슴도치

1. 고려와 거란의 1차 전쟁
2. 서희의 외교전략
3. 서희 외교전략의 결과와 국제정치적 함의

V. 결론

I. 서 론

1. 문제제기

자국의 안보를 확보하는데 군사와 경제적인 능력을 충분히 갖추기 어려운 약소국은 강대국에 비해 국제체제의 변화와 위협 국가와의 세력분포 변화에 대해 훨씬 많

은 영향을 받는다.²²⁶⁾ 약소국과 강대국의 국제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원리가 다른데, 강대국은 특별한 정책이 없어도 생존을 위협받지는 않지만, 약소국은 생존, 자주성을 확보와 유지하기 위해 국제정치 풍토의 변화양상에 적응해 가는 특수한 전략을 가지야만 하며, 이는 자국의 힘만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편승(Bandwagoning) 전략은 약소국이 강대국에 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전략이다. 국제환경의 변화와 대응국가의 국제적인 지위문제는 주요한 요인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세력균형을 이룰 수 없는 약소국은 위협의 대상인 강대국에 편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다른 강대국이나 주변 국가로부터 안보를 보장 받을 수 없는 약소국이 강대국과 적대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약소국이 강대국 편승하는 전략을 취하게 될 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독자적 결정의 영역'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이는 '내재적 한계성의 최소화'를 일컫는다. 그리고 수많은 학자들이 제시한 약소국 외교의 철칙, 즉 외세(external power)의 극소화와 내세(internal power)의 극대화를 달성해 나가는 것이다.²²⁷⁾ 중립화나 자주선언으로 '명분상의 독자적 결정 영역의 구축'이 아닌 '현실적으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가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서희(徐熙)의 외교정책은 이러한 영역의 모색에서 나온 가장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슈웰러(Schweller)는 편승에 대한 이익균형의 측면에서 설명하며 국가의 형태에 따라 사자, 늑대, 자칼, 양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²²⁸⁾ 한국의 편승이 갖는 특성은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양'의 경우였다고 할 수 있다. 현존 질서의 주된 창시자이면서 현상유지의 주된 수혜자이기도 했던 미국의 2차 대전이 끝난 이후부터 이 질서를 보존하는데 기득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자가 늑대를 견제하는 것처럼, 현상유지적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은 강력한 현상타파적 국가들이 침략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억제해야만 했다. 한국은 전 냉전기 동안 미국의 편승에 오르는 것 외에는 어떠한 대안도 갖지 못했다는 점에서 '양'과 같은 국가였다.²²⁹⁾ 조선도 이러한 양과 같은 모습의 국가였다.

반면, 고려는 조선이나 현재의 한국의 모습 보다 자주적이고 효과적인 대외관계를

226) Robert L. Rothstein, *The Weak in the World of the Strong*(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7)

227) 이원형은 외세의 극소화와 내세의 극대화에 한국의 국가전략을 두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시행 방법으로서 외세의 극소화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약소국의 목표는 항상 그 국가를 둘러싼 강대국 간의 세력균형에 의하거나, 지배적인 한 강대국의 보호에 의존하고, 강대국 간 경합상태만이 약소국의 외교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원형, 『이명박 정권의 외교전략: 한국의 국가전략』, 박영사, 2008, pp.55-56.

228) Randall L. Schweller, "Bandwagoning for Profit: Bringing the Revisionist State Back In," *International Security*, vol.19, No.1 (Summer 1994), p.93, pp.101-104.

229) 강성하, 『새우와 고래싸움: 한민족과 국제정치』, 박영사, 2004, pp.183-184. 나아가서 한국의 대미 '편승' 외교를 '어린 양'의 비유를 통해 설명한 논문으로는 강성하, "한국외교정책의 특성: 편승에서 쿠오마디스토?", 『IRI 리뷰』, 제2권 2호, 1997, pp.5-42.를 참조하기 바람.

맺고 유지했었다. 고려전기 시대의 동아시아 국제사회는 변화가 심하여서 각국은 군사력 못지않게 능란한 외교력을 필요로 하였고, 서희는 고려와 거란의 1차 전쟁에서 항복(降伏)이나 할지(湖地)를 하는 대신 편승을 택하면서 고려의 국가 이익을 확보하며 ‘자칼’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서희의 외교정책은 당시 고려의 생존을 보존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 강동6주라는 고려의 국가적 이익을 확보 및 증진하였다. 이것은 서희가 ‘편승’을 왈츠(Waltz)나 월트(Walt)가 주장하는 ‘생존을 위협’함에 의해 편승을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슈펠러의 편승의 개념인 ‘국익의 확보와 증진’의 차원에서 사용하였던 것을 의미한다.

한편, ‘고슴도치 전략’은 서희의 외교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송과 거란에 비해 약소국인 고려에게 국가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략이었다. 이 이론의 핵심은 “강대국이 영향능력을 발휘하여 얻어낼 수 있는 이득보다, 더 큰 손실을 그 강대국에 입힐 수 있는 거부능력을 갖추면 약소국은 안전하다”는 논리로서, 고려와 거란 1차 전쟁에서 안용진 전투의 승리는 이러한 ‘고슴도치’ 전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목적

고려시대의 국제관계나 외교사에 대한 연구와 서희에 대한 연구는 그 동안 많이 이루어져왔으나, 19세기 후반 이전의 전통시대의 국제관계나 외교사에 대한 정치학자들의 연구는 매우 드문 편이며, 특히 서희에 대한 국제정치학적 연구는 전무한 편이다. 고려시대의 국제관계에 대한 정치학자의 연구로 노계현의 저서와 이재석의 논문이 있다. 노계현의 연구는 고려 건국부터 멸망 때까지 고려외교 전체를 역사적 전개에 따라 시대적으로 고려와 상대국의 관계중심으로 분석한 것으로, 사건중심으로 일차사료를 분석해 사실을 밝히고 상황에 따라 고려 외교의 특성을 부분적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외교나 국제관계의 특질을 정리해 밝히지는 않는다.²³⁰⁾ 이재석의 연구는 고려가 전기시대에 동아시아 국제체제에 있는 복수의 국가들 사이에서 보인 대표적인 행위양태의 특성을 살펴 그것을 고려 국제관계의 특질을 설명하려고 하였다.²³¹⁾ 하지만, 고려에 대한 국제관계의 특성을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으로 설명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고려는 송이나 거란에 비하면 열세국(劣勢國) 혹은 약소국이었으므로 편승 ‘의 개념이 보다 유용한 설명력을 가지나 이러한 부분이 빠져 있다. 따라서, 고려의 외교전략에 대해 설명하기가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서희에 대한 연구 역시 대부분 서희의 정치학자의 연구는 장철균의 연구가 있다. 그는 농경 정주세력(중국의 한족, 한민족 등)과 북방 유목민족(거란, 여진, 몽

230) 노계현, 『고려외교사』, 갑인출판사, 1994.

231) 이재석, “고려 전기 국제관계의 특질,” 『한국정치외교사론총』, 제29집 2호, 2008.

콜 등)간의 갈등과 공존의 관점에서 동아시아를 바라보고 중국중심의 한-중관계에서 벗어나 동아시아의 역사의 전체적 맥락에서 왕건의 삼국통일과 북방정책 그리고 그것을 계승하는 서희의 외교담판을 분석한다.²³²⁾ 하지만, 고려라는 당시 상대적 약소국의 상황과 외교전략을 연계하거나, 이를 서희의 외교전략으로 연계해서 분석하는 것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의 서희와 고려전기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역사학이나 소수의 정치학적 접근에 머물러 있는 한계를 벗어나 국제정치학적 접근에서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체제와 서희의 외교전략을 연계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서희의 외교전략의 특성을 추출하여 보다 국제정치학의 이론적인 접근의 모색을 하고자 한다.

보통 서희의 외교정책 혹은 외교전략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실리외교'라는 말을 널리 쓰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서희의 외교정책에 대해 보다 개념화시킨 연구의 필요성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서희의 외교정책을 국제정치학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이론적 개념화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약소국의 외교전략을 서희의 외교전략과 연계하여 '편승'과 '고슴도치' 외교전략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서희의 외교정책은 국제정치학적 측면에서 설명하자면 강대국간 세력균형에서 약소국의 외교정책을 펼친 것이며, 이것은 '편승(bandwagoning)'의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편승이라는 개념을 10세기의 동아시아 국제상황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편승의 기본원리를 원용해 당시 서희의 외교전략을 해석해 보는 것은 유용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동아시아의 전통적 위계질서 하의 국제체제가 오늘날 국제정치이론에서 말하는 편승의 개념과는 동일 할 수 없겠지만, 거의 편승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력균형은 강대국의 정책이며, 편승은 주로 약소국에 의해 행해지는데, 고려의 당시 상황을 고려해보면 균형보다는 '편승'의 개념이 더욱 적용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설은 서희의 외교전략을 위협균형(balance of threat)과 이익균형(balance of interest)으로서의 편승전략인 공격적 전략으로서 자칼적 편승전략, 방어적 전략으로서 고슴도치 전략을 적용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편승과 고슴도치 외교전략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고려, 송, 거란의 외교관계를 알아보고, 10세기 말의 동아시아 국제정치 상황과 특성을 검토할 것이다. IV장에서는 서희가 실제 펼쳤던 외교전략을 자칼적 편승과 고슴도치 전략을 대입하여 약소국 외교전략과 연계해서 알아 본 뒤, 서희의 외교전략의 결과와 국제정치적 함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232) 장철균, 『서희의 외교담판』, 현암사, 2004.

II. 이론적 배경

1. 편승의 개념과 유형

편승(bandwagoning)의 개념에 대한 기원 및 기본적 인식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커스단의 밴드(band) 행렬에 한 아이가 뛰어들면 다른 아이들도 연달아 뛰어드는 현상을 지칭하는 표현이었던 편승은, 시류에의 편승(Jumping on the Bandwagon)이라는 심리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적 동맹 형태를 묘사함에 있어 "편승(bandwagoning)"이라는 개념은 라이트(Quincy Wright)의 *A Study of War*(1942)에서 처음 제기되었으며, 왈츠(Kenneth Waltz)의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1979)에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라이트와 왈츠 모두 편승의 개념을 균형(balancing)에 반대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²³³⁾ 라이트에게 편승은 '패배(희생)적 정책(the underdog police)'으로 불렸다.²³⁴⁾ 결국 라이트와 왈츠는 균형과 편승을 서로 대립하는 개념으로 정의한 것이다. 그들에 따르면, 편승은 강한 쪽과 연합하는 것이며, 균형은 약한 쪽과 연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³⁵⁾ 하지만 신현실주의자들의 논리와는 반대로, 라이트는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 하에서는 편승이 국가들 간의 힘의 균형을 유지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²³⁶⁾ 미어샤이머(John J. Mearsheimer) 또한 편승 개념에 대해 밝히고 있는데, 그의 표현에 따르면, 편승의 일반적 정의란 위협을 당한 국가가 그 적국에 대해 취하는 전략이며 이는 침략국에 대해 불균형적인 대폭 양보를 포함하는 것이다.²³⁷⁾

윌트(Walt)는 왈츠와 같이 균형과 편승을 이분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편승을 '위협의 근원이 되는 세력과의 제휴 행위'라고 재정의 하였다.²³⁸⁾ 그에 '위협균형(balance of threat)'이론에 따르면, 편승은 우세한 세력이나 급부상하는 세력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우세한 세력으로부터의 잠재적 위협을 유화(appeasement)시키기 위해 취해지는 행위이다. 이러한 윌트적 편승은 위협받는 국가가 압력에 굴복하여

233) 이러한 편승과 균형이란 단어가 하나의 짝을 이루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국제정치의 (신)현실주의 이론에서 국제 세력관계와 안보위협에 대한 동맹형성(alliance formation)의 원인과 양태를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강봉구, "편승과 균형: 21세기 세계정치와 리-미관제," 『國際政治論叢』, 제 45집 3 호, 2005, p.265.

234) Randall L. Schweller, "New Realist Research on Alliance : Refinding, Not Refuting, Waltz's Balancing Proposition,"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1, No.4 (December, 1997), p.928.

235) 왈츠에 따르면, 국내적 차원에서는 '강자에의 편승'이 현명하지만, 국제적 차원에서는 '균형을 이루는 행위'가 현명하다고 주장했다.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Massachusetts: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79), p.126.

236) Randall L. Schweller, *op. cit.*, 1997.

237) John J. Mearsheimer 저, 이춘국 역,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나남출판사, 2006, p.322.

238) Stephen M. Walt, *The Origins of Alliances*(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p.17.

적용하기 위해 종속적 지위를 감수하는 정책이며, 약소국은 일반적으로 편승전략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역사학자 슈뢰더 (Paul Schroeder)는 유럽근세사에서 편승이 오히려 균형보다 더 자주 나타난 동맹정책이라고 주장했다.²³⁹⁾ 그에 따르면 무정부적 상태에서 국가들이 위협에 대처하는 방식은 균형이나 자구(自救)만이 아니다. 국가들은 때로 몸을 낮춰 위협으로부터 숨기도 하고, 상황의 정의를 바꿔 위협을 초월하기도 하며, 때로 강자에 편승하여 생존을 추구하고 이득을 꾀하기도 한다. 그가 본 역사속에서는 편승이 균형보다 오히려 자주 일어나는 행위이며, 약소국의 경우는 특히 그렇다.²⁴⁰⁾

슈웰러(Schweller)는 월트식 편승에 대한 정의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편승' 이 잠재적 위협국가와의 제휴로만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더 강한 국가와의 제휴" 로도 해석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편승을 강대국의 위협에 대한 굴복정도로 이해한 것은 지나치게 협소한 개념화였다는 것이다. 더욱이 처벌의 위협보다는 보상에 대한 약속이 '편승' 의 주요 동인임을 강조한다. 국가는 '이익' (profit) 수취 기회에 대한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더 강한 국가와 동맹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슈웰러는 자신의 이론을 '이익균형(Balance of Interests)' 이론이라고 말하고 있다.²⁴¹⁾ 즉 "제휴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은 세력 혹은 위협의 불균형이 아니라 정치적 목표의 양립가능성인" 것이다.

슈웰러는 "일반적으로 현상타파 세력이 동맹 행위의 주요 담당자인 반면, 현상유지 국가는 (수동적) 반응자" 라고 주장했다.²⁴²⁾ 그에게 있어 동맹이란 "위협에 대한 반응일 뿐만 아니라 기회(opportunities)에 대한 반응" 이다. 슈웰러에 따르면 국가의 동맹 행위는 외적 위협의 존재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이익수취를 위한 기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²⁴³⁾ 이러한 주장은 국가의 동맹선택이 그와 관련된 비용과 효과의 계산 결과라고 보는 합리주의(rationalism)에 기반을 둔 것이다.²⁴⁴⁾

슈웰러는 이익균형의 측면에서 국가들의 행태에 대한 분류를 시도하며 은유를 통해 네 종류의 국가를 구분하고 있다. 현상유지에 만족하는 '사자' (lions)와 같은 국

239) Paul W. Schroeder, "Historical Reality vs Neo-realist Theory," *International Security*, Vol.19, No.1 (summer 1994), pp.108-148.

240) *ibid.* p.117.

241) Randall L. Schweller, "Bandwagoning for Profit: Bringing the Revisionist State Back In," *International Security*, vol.19, No.1 (Summer 1994), p.99.

242) 현상타파적 세력과 현상 유지적 국가의 일반적 특징에 관한 그의 논자는 Randall L. Schweller, *op. cit.*, 1994, pp.104-105.을 참조하기 바람.

243) 국가들이 생존을 추구하고 본 왓츠의 세력 균형이론은 현상유지를 원하는 국가들만 전제한다고 비판한 그는 실제에 있어 국가들은 현상유지와 현상변경이 주는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여 그 중 하나를 선택한다고 본다. 따라서 국제체제 속에는 항상 현상유지국가와 현상변경국가를 사이의 균형에 의해 특징지어지고 또 묘사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태현, "세력균형이론," 우철구·박건형 편, 『현대 국제관계이론과 한국』, 사회평론, 2004, p.96.

244) Patricia A. Weitsman, *Dangerous Alliances: Proponents of Peace, Weapons of Wa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pp.15-16.

가는 자신의 소유물을 방어하는데 높은 비용을 치르려고 하며, 이들은 주로 균형 혹은 책임전가(buckpassing)를 사용한다. 현 상황을 수용할 수 없는 현상타파적 ‘늑대’(wolves)와 같은 국가는 현상유지를 전복하는데 기꺼이 높은 비용을 치르려 할 것이며, 이들은 위협을 무릅쓰고 공격적인 행태를 보인다. 양(Lambs)과 같은 국가들은 현상유지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들은 유화정책이나 장래의 추세에 따라 편승 혹은 거리두기(disrancing)를 시도한다. 자칼(Jackals)은 다소 제한된 목적을 가지고 늑대 때로는 사자와 같은 국가들과 제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자와 늑대간의 투쟁으로 인해 생기는 이익을 노린다. 특히, 이들의 형태중에서 눈치를 보면서 먹을 것을 쟁기는 자칼, 그리고 눈치만 보며 살면서도 항상 먹이가 되는 불쌍한 양들의 모습은 약소국의 행태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슈펠러의 은유를 10세기 말의 동아시아 국제정세와 적용해 보면, 당시 사자는 송나라이며 공격적 성향의 현상타파적 늑대는 거란이며 고려는 양과 자칼의 모습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0세기의 복잡한 동아시아 국제정세 속에서 고려는 현상유지를 목적으로 양의 편승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송과 거란이라는 강대국들의 투쟁과 경합의 관계 속에서 국가의 안정을 유지시키고, 강대국들과 국교를 가지며 옛 고구려 땅을 찾기 위해 압록강 지역으로 영토를 확장시키는 자칼식 편승 모습을 보이며, 항상 먹이가 되는 양만의 모습을 보이진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고려·거란 1차전쟁 당시의 서희의 거란에 대한 외교전략은 능동적인 모습을 보이며 당시 송과 거란의 경합하는 동아시아 국제정세를 이용하여 강동 6주를 얻는 안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모습은 양보다는 자칼적인 편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슈펠러의 주장은 ‘편승’을 강대국 위협에 대한 약소국의 소심한 대응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며 종종 자기확장 (self-extension)을 위해 자발적으로 선택되어 질 수 있다는 통찰력을 제공하였다.²⁴⁵⁾ 한편, 편승의 개념에 대해 시각의 차이로 인해 많은 정의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 편승은 ‘한 국가가 중대한 외적 위협에 직면했을 때 그 위협의 근원이 되는 세력과 제휴하는 것이며, 또한 이익수취를 위한 기회에 대한 대응을 의미하며, 주로 약소국이 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2. 고슴도치 전략

고슴도치 전략은 서희의 외교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송과 거란에 비해 약소국인 고려에게 국가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략이었다. 고슴도치식 생존과 방어전략은 1970년대 중반에 고슴도치이론으로 체계화되었으며, 이 이론은 약소국이 자국의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타국의 간섭에 굴복당하지 않도록 거부능력(denial capability)을 갖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거부능력은 주로 방어능력이고, 따라서 고슴도치론의 핵심은 자주 국방력에 입각한 방어전략과 억지전략에 있다.²⁴⁶⁾

245) 최명해, 『중국·북한 동맹관계: 불편한 동기의 역사』, 오름출판사, 2009, p.44.

고슴도치 전략의 이해를 위해, 먼저 국가의 군사력에 대한 거부능력과 영향능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가. 국가의 군사능력

국가의 군사능력은 군사력 보유의 두 가지 목표에 따라 평가가 다른데, 군사력 보유의 두 가지 목표는 외국의 위협에서 자국의 영토를 보전하고 행동의 자주성을 지키는 거부능력의 확보와 반대로 외국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국의 이익을 신장하는 영향능력의 확보에 있다. 일반적으로 약소국은 거부능력 위주로 군사력을 평가하며 강대국은 거부능력을 넘어서 외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영향능력을 갖추는데 주력하고 있다.

거부능력은 성격상 방어능력이고, 영향능력은 공격능력이지만 반드시 그렇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거부능력도 효과적인 거부를 위해 공격능력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부능력은 적의 공격시, 이를 격퇴하는 전투능력과 아울러 적이 공격을 감행하지 못하게 하는 억제능력(deterrence capability)을 포함한다. 따라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힘의 보유가 유효한 억제능력을 형성하며 이것이 곧 거부능력으로 작용될 수 있다.

약소국의 군사목적은 주로 거부능력의 보유에 국한되는데, 타국의 군사위협으로부터 손실을 입지 않고, 자국의 자주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의 보유를 우선적으로 갖추려 한다.

나. 고슴도치 전략의 논리와 명제

약소국의 입장에서 강대국이 난무하는 국제정치질서 속에서 자력방어능력을 갖추는데 적용할 이론으로 '고슴도치이론(the porcupine theory)'이 있다. 이 이론의 핵심은 "강대국이 영향능력을 발휘하여 얻어낼 수 있는 이득보다, 더 큰 손실을 그 강대국에 입힐 수 있는 거부능력을 갖추면 약소국은 안전하다"는 논리이다. 고슴도치가 사자나 호랑이에 비해 힘은 문제가 안 되게 적으면서도 공격하는 맹수에게 결정적 피해를 줄 수 있는 가시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자나 호랑이일지라도 공격을 삼가고 있는 것과 같은 논리에서 나온 것이다.²⁴⁷⁾

고슴도치 이론의 주요한 명제는 첫째, 약소국일지라도 공격하는 강대국이 기대하는 이득보다 더 큰 손실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고 둘째, 강대국은 이(利)보다 손(損)이 크다고 판단되면 약소국에 대한 공격을 삼갈 것이고, 따라서 약소국은 거부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 이론의 핵심은 약소국의 보복능력의 향

246) 김우상, 『신한국 책략2: 동아시아 국제관계』, 나남출판사, 2007, pp.291-293.

247) 이상우, 『국제관계이론: 국가간의 갈등원인과 질서유지』, 박영사, 1999, p.480.

상으로 강대국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고슴도치 이론은 방어전략이며 영향능력 증대를 의도하는 것이 아니며, 고슴도치 이론의 핵심 전략은 억지전략이다.

고슴도치 이론에 입각하여 약소국이 유효한 거부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약소국은 다음의 두 가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첫째는 양적으로는 적더라도 신뢰도가 높은 공격능력이고 둘째는 적 공격을 최대한으로 흡수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어능력이다. 첫째는 억지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고, 둘째는 강대국이 공격계획을 세울 때 공격비용을 높게 계산하게 하여 얻을 이익에 비례한 비용의 비율을 높여 공격을 포기시키려는 것이다.²⁴⁸⁾ 제 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은 프랑스 공격을 계획하면서 마지노(Maginot) 방어선을 피하기 위하여 스위스를 경유하려 했으나, 스위스의 공격흡수능력이 높다고 평가되어 손익계산을 해보고 매우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리라 판단하여 독일 측이 스스로 공격을 포기했었다.

고슴도치전략은 특정의 적을 상정하지 않고, 누구라도 공격하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강대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자극이 없을 때 고슴도치론은 더 높은 효과를 가져 오게 되는데, 이는 어떤 강대국이 자국의 피해를 감수하고 공격해오면 고슴도치론에 입각하여 자위능력을 갖추려는 약소국은 방어할 수 없다는 현실적 이유 때문이다. 이 고슴도치전략은 그러한 결심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공격을 시켜놓고 막겠다는 것이 아니며, 거부능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²⁴⁹⁾

III. 10세기 동아시아 국제체제의 특성

10세기 초 당이 멸망한 후 거란은 5대(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와 송으로 이어지는 중국대륙으로 진출하는 서방 경략과 발해, 후발해, 정안국, 고려로 이어지는 옛 고구려 지역으로 진출하는 동방경략을 병행했다. 서방 경략시는 동방을 전제하고 동방경략시는 서방을 전제하면서 세력을 확장시켜 나갔다. 거란은 동방경략으로 발해를 멸망시키고 요동 지역을 거쳐 압록강까지 진출했다. 한편, 고려는 옛 고구려 땅을 찾기 위한 서북방 경영을 통해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 청천강 일대를 거쳐 압록강 지역으로 영토를 확장시켜 나갔다.²⁵⁰⁾

248) 위의 책, p.483.

249) 때로 어떤 학자들은 북한을 고슴도치로 비유하기도 하지만, 맥코맥(McCormack)은 북한을 공격받는 순간 곳곳이 틈을 새워 최대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고슴도치 대신에 애기치 않은 물건과의 미세한 접촉에도 움찔해서 껍데기 안으로 숨어버리는 달팽이(snail)로 비유하고 있다. Gavan McCormack, *Target North Korea: Punishing North Korea to the Brink of Nuclear Catastrophe*(New York: NAtion Books, 2004), pp.7-8.

250) 안주섭, 『고려 거란전쟁: 압록강 연안에서 전개된 영토확장 전쟁』, 경인문화사, 2003, p.23.

1. 고려, 송, 거란의 외교관계

가. 고려와 송의 국교관계

고려의 중원왕조들과의 외교관계는 태조 기사 16년(933)에 시작되었는데, 당시 後唐왕조는 양소업(楊昭業)을 보내 태조를 책봉하였고, 고려는 자신의 연호인 천수를 대신하여 후당의 연호를 사용하면서 고려와 중원왕조간의 본격적인 외교관계가 수립되었다.²⁵¹⁾ 이러한 오대왕조와 고려와의 관계는 송대에도 지속되어 963년부터 송의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976년에는 경종이 송으로부터 책봉을 받았다.²⁵²⁾

962년부터 999년까지의 고려와 송의 국교의 목적은 조공과 책봉은 형식적인 것이었고 양국이 다 같이 군사적·정치적 지원을 얻어 거란을 견제하려는 정치·군사적 목적이 뚜렷하다.²⁵³⁾ 먼저, 985년 송은 연운 16주를 회복하기 위해 북벌군을 일으키면서 한국화를 고려에 파견하여 군대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고려는 송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지연책을 썼다. 한편 고려도 송에게 여러 차례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였는데, 거란의 1차 침입 다음해 994년에 군대를 요청하였으나, 당시 송은 거란과 평화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 뒤에 999년 고려는 주인소(朱仁紹)를 파견하여 송이 국경지대에 군대를 주둔시켜 거란을 견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송은 고려의 요청을 모두 묵살하였다.²⁵⁴⁾

서-소협정 이후 거란에 대한 정치적 사대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송에 사절을 파견해 경제, 문화교류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었고, 송도 고려와의 관계에 우호적 태도를 보였다.²⁵⁵⁾

나. 고려와 거란의 국교관계

고려와 거란의 관계는 거란 태조 9년(915) 고려 태조가 거란에 사신을 보내 보검(寶劍)을 보냈다는 기사로부터 시작되었다. 고려는 922년 거란에 '來貢' 했으며, 이해에 거란이 낙타와전을 보내온 것은 이에 대한 답방일 것이다. 한편, 고려는 939년 후진으로부터 책봉을 받았는데, 이 사실을 거란에 사신을 파견하여 알려준 것에서

251) 이석현, "고려와 遼金의 외교관계," 방항숙 외, 『한중 외교관계와 조공책봉』, 고구려연구재단, 2005, p.119.

252) 『고려사』 권2, 경종 원년 11월.

253) 고려와 송의 국교관계는 시기적으로 3기로 나누어진다. 제 1기는 962년부터 요의 고려침입으로 국교가 단절되는 999년까지의 약 37년간이다. 제 2기는 1071년부터 북송이 멸망하는 1126년까지 55년간이다. 제 3기는 1127년부터 1164년까지의 37년간이다. 신채식, "고려와 송의 외교관계: 朝貢과 冊封관계를 중심으로," 방항숙 외, 『한중 외교관계와 조공책봉』, 고구려연구재단, 2005, pp.90-91.

254) 위의 논문, pp.92-93.

255) 장철균, 『서희의 외교담판』, 현암사, 2004, p.170.

보듯 당시 거란과 고려는 비교적 평화로운 외교관계를 유지해나갔다.

하지만 942년 거란이 사신과 낙타를 보내오자 태조가 거란이 발해(渤海)를 멸망시켰다는 이유로 사신을 귀양보내고 낙타를 만부교(萬夫橋) 아래에 묶어 굶겨 죽이면서 외교관계가 단절되었다.²⁵⁶⁾ 당시 고려는 표면적으로 발해를 거란이 아무런 통지도 없이 멸망시킨 것이 부당하다고 여겨 국교를 단절하였던 것이다. 고려의 거란에 대한 적대정책은 이후 일정 기간 계속되었는데, 944년 한현규와 김림을 후진(後晉)에 보내 거란을 격파한 것이 축하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후 거란과 고려 사이에는 특별한 외교적 교섭이 보이지 않았는데, 당시 고려는 오대 송 및 송왕조와 책봉관계를 맺으며 밀접한 외교적 관계를 맺고 있었고, 거란은 중원의 완조와 대치하느라 고려에 대해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한동안 소강상태를 유지하던 양국의 관계는 거란이 성종이 즉위하여 고려 침공을 명하면서 다시 외교의 전면에 등장하였다. 성종은 통화 3년(985) 고려를 공격하기 위한 토벌계획을 세우도록 하였지만, 당시 큰 비가 내려 요하(遼河)가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만두었다. 986년 거란이 권철을 특사로 삼아 고려에 파견하여 양국 간의 평화유지를 제안한 것은 고려와의 평화 외에 군대를 中原으로 동원했을 때 있을지도 모르는 고려의 기습이나 여송 동맹군의 동원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즉 바로 전 해에 송의 사신 한국화(韓國華)가 고려에 파견되어 고려에 원군을 요청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거란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권철을 파견하여 고려를 안심시켰던 것으로 보인다.²⁵⁷⁾

하지만 거란은 마침내 성종 통화 10년(992) 당시 동경유수인 소손녕(蕭遜寧)으로 하여금 고려를 침공하도록 했다. 그리하여 이듬해인 993년 거란이 소손녕을 파견하여 고려를 공격하였다. 거란은 송과의 대치국면에서 고려로부터의 위의 화(禍)를 없애고 또한 고려의 북진 정책을 저지할 목적으로 고려를 침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송과 거란의 관계

송의 통일 과정에 거란의 간섭이 없었던 것은 송측의 행운이었다. 거란은 태종이 급사한 이후 농경과와 유목과간에 암투가 심화되어 중국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었고, 세종에 이어 목종도 암살되는 등 혼란에 빠져 송의 통일을 방관할 수 밖에 없었

256) "거란이 사신과 함께 낙타 50필을 보내왔는데, 왕(태조 왕건)이 이르기를 '거란은 일찍이 발해와 화친하다가 갑자기 의심하여 맹약을 어기고 멸망시켰으니 이것은 매우 무도한 행위로 화친을 맺는다 해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하여 마침내 교방을 거절하고 사신 30명을 섬에 유배시키고 낙타는 만부교 아래 매어 모두 굶겨 죽게 했다" 『고려사』 권2, 태조 25년 10월. 이러한 만부교 사건은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거란을 자극하는 행위라 할 수 있었다. 여기에 대해 장철균은 당시 후진의 호송 말라와 왕건의 비밀협상의 군사동맹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이 군사동맹은 실사되지 않은 교섭이었다고 설명했다. 장철균, 위의 책, p.93.

257) 이석현, "고려와遼金の 외교관계," 방항숙 외, 『한중 외교관계와 조공책봉』, 고구려연구재단, 2005, p. 121-122.

던 것이다. 거란은 연운지역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송나라 건국 초기인 태조 조광윤 시대에는 국내문제 해결에 주력하였으므로, 거란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되었으나, 국내 통일이 완성되어가던 송의 태종 시대에 이르러서는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서 긴장 관계가 지속되었다. 송나라는 979년 거란의 유주(幽州)를 점령하였으나 고량하(高梁河) 전투에서 거란 기병에게 포위되어 참패하였다. 그리고 982년 요나라 성종(聖宗)이 어린 나이로 즉위하여 정국이 안정되지 못한 틈을 타서 986년 침공을 단행하였으나 역시 참패하고 말았다.

이와 같이 송나라가 태종 시대에 선제공격을 단행하여 참패한 이후로 요나라와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송나라 서북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요나라의 공세에 더욱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 송 태종을 이어 진종(眞宗)이 즉위한 이후로 요나라의 집요한 공세에 시달리면서 북방민족과의 전투에 자신감을 잃고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²⁵⁸⁾

송과 요의 잦은 전쟁은 그 원인이 필연적인 일이었는데, 5대 시기에 후진의 왕 석경당이 연나라의 16개 주를 거란에 떼어주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 당시에 중원은 할거하는 시대였기에 거란에 대해 상실했던 영토를 수복할 힘이 없었다. 송조가 지방군벌을 평정하고 국내를 통일 시킨 다음에야 연의 16주 문제가 상정되었다. 당시 송은 '오랑캐가 중국의 위협으로 대두하게 되어 하북 일대가 공고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하북일대가 공고하지 못하면 하남도 편히 잠잘 수 없다' 며 16주를 회복하지 못하면 송 수도의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게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연의 16주를 탈환하기 위해 송과 요의 전쟁은 필연적이었던 것이다.²⁵⁹⁾

2. 동아시아 국제체제의 특성과 약소국 외교정책

동아시아 지역 국제체제가 당시 한반도가 직면한 전 세계적 국제체제였음을 감안한다면, 중국 왕조의 전환기는 곧 국제체제의 전환기나 다름없었다. 거란(契丹)이 962년 발해를 멸망시키고 위협적인 존재로 등장한 이후 고려(高麗)가 맞이하게 된 상황이 그 중 하나이다. 거란의 최종 목표는 송(宋)을 정벌하여 중원을 제패하는 것이었으며, 거란의 고려 침입 목적은 송과의 전면전이 발생 할 경우 배후의 고려가 송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당시 고려는 송과 우호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고려, 송, 거란의 외교관계는 송과 거란이라는 강대국과 상대적으로 약소국인 고려와의 관계가 주요 축이었으며, 강대국만큼의 국가의 힘은 없었지만, 고려는 강대국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것은 특히, 송이 거란을 치기 위해서 군사적 지원을 몇 번이나 요청했었고, 거란이 고려와 1차 전쟁을 일으킨 목적도 이러한 송과

25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중군사관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7, pp.191-192.

259) 장페이페이(蔣非非) 외, 김승일 역, 『한중관계사』, 범우출판사, 2005, pp.229-230.

고려의 군사동맹이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고려와 송의 외교단절을 바랐기 때문이었다.

국제체제가 1개의 강대국이 독점지배하고 다른 국가들이 인정하는 상태와 서로 비슷한 이해와 힘을 가진 강대국간에 어떤 형태의 경합을 이루는 상태가 있다면, 약소국 입장에서는 강대국이 서로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 1개의 강대국이 독점적 지위를 확립하고 있는 상태보다 훨씬 유리하다. 왜냐하면, 외세가 경합관계에 놓여야만 그 힘과 영향력이 중화될 가능성이 더 크고, 상대적으로 약소국의 내적 정치력이 강화되어 강대국으로부터 자주성을 갖고 약소국이 외교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외세적 정치력의 영향력을 극소화시키는 것이 약소국의 독립성을 유지하고보다 적극적인 외교를 하는데 필요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약소국의 국내정치에서는 외교 및 국제정치가 단순히 외적 요인, 부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내적이고 전체적인 역할과 기능을 한다.

따라서, 당시의 동아시아 국제체제의 특성은 양극체제로서 양 강대국가들인 송과 거란의 경합으로 인해 고려의 외교가 정책적 가치를 띠고 있었으며, 고려에게 유리한 상황을 주었다. 하지만, 지정학적으로 고려가 화친하고 싶은 송은 바다 건너에 있었고, 거란은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대국인 거란의 목표가 고려의 멸망에 있었다면 고려 홀로 거란에 맞서기는 쉽지 않았다. 그렇지만, 거란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은 고려를 치려면 강대국인 송을 견제해야 했고, 무엇보다 거란의 1차 목표는 송의 복속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국제상황속에서 약소국인 고려의 편승전략은 강대국의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지만, 국가이익의 확보를 위한 것일 수도 있었다.

IV. 서희의 외교전략: 자갈식 편승과 고슴도치

1. 고려와 거란의 1차 전쟁

고려, 거란 제1차 전쟁은 993년 10초 압록강을 도하한 거란군이 10월 말 봉산군 지역에서 고려군을 격파한 후 안음진 방면까지 진출했으나 전투에서 패배하여 더 이상 남진하지 못했고, 곧 이어 서희와의 강화회담이 타결되어 거란군은 철군했다.

당시 고려는 송나라와 친선관계를 유지하면서 신흥 세력인 요나라와도 관계를 약화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요나라는 고려의 등거리(等距離) 외교정책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즉 송나라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려는 요나라의 배후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결국 요나라는 장차 중원을 침공할 때 후환을 없애기 위해 고려에 대한 침공을 단행하였다.

993년 10월 요나라 성종은 총병력 '80만 대군'을 동원하였다고 대내외에 선전

하면서 고려를 침공하였다. 요나라 침공군은 국경 관문인 보주(保州)를 통과하여 별군 1개 부대를 흥화진으로 진출시켜 압록가야 하류 연안지역과 귀주지역 일대의 연락을 차단한 뒤, 주력부대로 귀주 동남방의 봉산성을 점령하고 청천강 이남의 안북부로 남진할 태세를 갖추었다.²⁶⁰⁾

고려군도 대대적인 반격작전에 돌입했다. 요군은 배후의 서북계의 견제한 고려군과 봉산성 정면으로 진출한 주력부대에 의하여 포위될 위기에 처하였고, 이에 고려측에 화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양측의 이해 상충으로 협사리 해결되지 않았다. 군사적 대립관계 속에서도 화의교섭은 결렬되지 않았다. 화의교섭의 결말이 나지 않자 요군을 병력을 양분하여 두 갈래 길로 남진을 하였다. 이때 고려군이 효율적으로 요군을 저지하였으므로 타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요나라는 고려의 강동 6주 영유권을 인정하고, 고려는 요나라 연호를 사용함과 동시에 조공과 사대의 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2. 서희의 외교전략

한편, 고려 내부에서는 거란의 대군이 서경의 인근까지 공격해 봉산군을 점령한 채로 더 이상 진군하지 않고 수차례 항복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성종은 신하들과 대책을 의논하였는데, 대신들의 입장은 두 가지로 나뉘었다. 항복론(降伏論)은 “왕께서는 서울(개경)으로 돌아가시고 충신을 시켜 군사를 이끌고 항복하자”는 것이고, 할지론(割地論)은 “서경 이북의 땅을 떼어주고 황주로부터 절령(岳嶺)에 이르는 선으로써 경계를 삼는 것이 가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성종이 할지론을 최종결정하고 쌀을 강에 버리도록 하자 전선에 있던 서희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²⁶¹⁾

‘거란의 통경에서 우리의 안북부에 이르는 수백 리의 땅은 모두 생여진이 점거하고 있었는데, 지금 거란이 온 것은 그 뜻이 북쪽의 두 성을 취하려는데 지나지 않으며, 소손녕이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우리를 겁주려는 것’이라며 ‘어가를 도성으로 돌리시고 신 등으로 하여금 한번 더붙어 싸우게 한 연후에 의논하여도 늦지 않다’고 주장하였다.²⁶²⁾ 이에 성종은 할지론을 포기하고 거란과의 강화를 모색하였다.

당시 서희와 소손녕 사이의 강화회담의 핵심은 누가 고구려 고토에 대한 주인인가 하는 문제에 있었는데, 이는 분쟁 대상이 되는 압록강 연안 영유권 주장의 주된 논거이기 때문이다. 소손녕은 서희에게 거란의 침공 이유로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하나는 고려가 거란의 영토를 침식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려가 송에 사대학소

26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중군사관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7, p.184.

261) 장철균, 『서희의 외교담판』, 현암사, 2004, p.135.

262) 안주섭, 『고려거란전쟁: 압록강 연안에서 전개된 영토확장 전쟁』, 경인문화사, 2003, pp.105-107.

있다는 것이다.

가. 자칼식 편승: 강동 6주 영토확장과 거란과의 수교 교환

여기에서 서희는 고려가 거란에 조공을 못하는 것은 고려와 거란 사이를 여진이 가로 막고 있기 때문이라며, 문제가 되는 지역이 원래 고려의 땅인데 여진이 차지하고 있어서 조방이 불가능하므로, 여진을 축출하고 고려가 그 지역을 차지하면 거란에 사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거란이 고려의 사대(事大)와 옛 고구려 영토의 반환이라는 두 가지 요구를 하있는 바, 서희는 영토문제를 거란이 양보하면 사대문제는 고려가 양보 할 수 있다는 타협안을 제시하였다. 사대와 영토를 연계해 여진이 가로막고 있는 영토를 고려에 주어야 거란에 복속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서희의 전략은 강대국이 요구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약소국의 형태인 '양'의 모습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가이익을 확대시키려 했던 서희의 자칼식 편승전략이었던 것이다.

슈펠러의 편승은 자기확장(self-extension)을 위해 자발적으로 선택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비록 고려와 거란의 외교관계가 전쟁을 바탕으로 강압적으로 시작되었지만, 당시 서희는 단순한 '위협에 의한 균형'이 아닌 '이익에 의한 균형'의 편승 전략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나. 고슴도치 전략: 안용진 전투의 승리

고려와 거란의 1차 전쟁에서 봉화군에서의 고려의 패배로 더욱 압박을 받았으나, 이후 안용진전투에서의 승리는 거란군에게 고려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주었고, 이는 당시 동아시아 국제상황에서 송과 대립하고 있던 거란이 많은 피해를 입을 경우 송에게 어부지리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끔 하였고, 이에 소손녕은 강화를 통해 해결하려 하였다. 사실, 당시 거란의 고려에 대한 전쟁의 목적이 고려의 멸망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송을 치기에 앞서 고려가 뒤에서 후환이 되지 않게 하고, 송과의 국교를 단절시키려는데 있었다. 만일, 고려와 거란의 1차 전쟁의 목적이 고려를 멸망시키는 것이었으면, 송의 도움없이 자력의 힘으로 고려를 지키는게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용진전투의 승리는 서희의 외교전략에 큰 힘을 실어 주었다. 거부능력(denial capability)은 성격상 방어능력이고, 적의 공격시 이를 격퇴하는 전투능력과 억제능력(deterrence capability)을 포함하는데, 안용진 전투는 고려의 거부능력을 보여주었다. 앞에서 설명한 고슴도치 이론의 주요한 명제로 '첫째, 약소국 일지라도 공격하는 강대국이 기대하는 이득보다 더 큰 손실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고 둘째, 강대국은 이(利)보다 손(損)이 크다고 판단되면 약소국에 대한 공

격을 삼갈 것이고, 따라서 약소국은 거부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 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안용진 전투의 결과는 거란에게 고려의 방어흡수능력을 보여주었고, 더 이상의 압박보다는 강화를 통하자는 인식을 갖게 만들었고, 서희가 고슴도치 외교전략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 거란으로부터 양보를 얻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3. 서희 외교전략의 결과와 국제정치적 함의

가. 강동6주의 질적 의미

서희의 외교전략의 결과로 얻은 강동 6주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 평안북도와 남도는 지형이 상당히 다르다. 일단 청천강을 건너 평남지역으로 들어오면 인구 밀도도 높고, 평야도 상당히 넓어진다. 그러나 청천강 이북에서 압록강에 이르는 지역은 해안 쪽으로 붙은 도로라고 할지라도 산지가 많고 지형이 험해서 방어에 유리하고 이동이 쉽지 않다. 한반도의 서부지역을 방어하는 데에 평안북도 지역은 최고의 방어벽이었다. 옛날 고구려와 당의 전투를 보아도 당군이 일단 압록강 방어선을 뚫으면 평양까지는 별다른 저항 없이 내려오곤 하였고, 조선시대에도 방어망은 평북 지역에 집중되어있었다. 게다가 평북지역은 길이 험하고 산지가 많아 남으로 내려오는 길도 해안길과 내륙길 단 두 길로 제한되어 있다. 이 통로에 자리잡은 요충들이 바로 강동6주였다.²⁶³⁾

성종 13년, 994년부터 거란과 고려는 동시에 여진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다. 이번에도 고려쪽에서는 서희가 출정하여 압록강 유역까지 영토를 넓혔다. 누구보다도 이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잘 알았던 그는 994년과 995년 2년동안 안주, 선주(선천), 좌주(좌산), 귀주, 맹주(철산), 장흥진, 귀화진, 홍화진, 안의진 등 압록강에서 청천강에 이르는 통로상의 요지에 성을 쌓았으며, 그 외 지역에도 무려 29개소에 성을 쌓거나 보강하여 북방방어선을 구축했다.²⁶⁴⁾ 서희가 확보하고 개척한 강동 6주가 여섯 번에 걸친 거란의 침공에서 고려를 구하였는데, 후에 강감찬의 귀주대첩의 승리도 이 방어선이 큰 영향을 미쳤었다.

나. 약소국의 외교전략

약소국 외교정책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내재적 한계성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데 있다.²⁶⁵⁾ 그러나 내재적 한계성의 감소는 한국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파

263) 임용한, 『전쟁과 역사: 거란·여진과의 전쟁』, 해안출판사, 2004, p.106.

264) 안주섭, 『고려거란전쟁: 압록강 연안에서 전개된 영토확장 전쟁』, 경인문화사, 2003, p.111.

265) 이와 같은 약소국 외교정책의 근본목적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약소국 외교정책의 목적에 있어 대권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내재적 한계성의 지속적인 감소는 여러 가

급효과들, 즉 국제 체제적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강대국들간의 세력 관계는 약소국의 편승정책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약소국은 강대국으로부터 직접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편승하는 경우와 강대국 간 갈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의 편승은 차이가 있다. 강대국의 직접적인 위협 속에서 약소국이 편승정책을 취한다면 이는 강대국에 대한 굴복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강대국 간의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비록 약소국이 안보를 위해 한 강대국과 유대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그 강대국에 대한 약소국의 굴복이라고 항상 단정하기 어렵고, 분쟁 승리의 전리품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일반화하기도 쉽지 않다.²⁶⁶⁾

이러한 의미에서 거란의 소손녕과의 강화에서 보여준 서희의 외교전략은 강대국에 굴복한 의미의 편승이 아니라, 고려의 생존과 함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외교전략이었던 것이다.

다. 고려의 편승전략과 송의 인식

양극 체제(bipolar system)를 이루고 있는 강대국의 힘이 비슷할 경우 고려가 전략적으로 편승 행태를 조절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0세기와 11세기를 거쳐 고려는 전략적으로 거란의 연호와 송(宋)의 연호를 번갈아 사용하였다. 송과의 국교 또한 회복과 단절을 거듭하였다. 고려는 송과 요에게 있어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 매우 필요한 존재였다. 고려는 송과 요에 대해 쉽게 굴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자발적 편승을 가장한 전략적 편승을 구사하였다. 기실, 굴종적 의미를 내포한 편승 전략을 자발적으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이 시기 고려인들은 “ ‘편승’ 전략 ” 이 아니라 “ 편승 ‘전략’ ” 의 차원에서 외교정책을 구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2세기에 들어서면서 고려가 송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금의 속국이 되기로 결심한 것도 전략적 요인이 컸다. 즉 겉으로는 해마다 조공을 했지만 안으로는 군사방어 역량을 강화하였다.²⁶⁷⁾ 이는 당시의 국제체제가 송(宋)·요(遼)·금(金)을 중심으로 한 비록 강대국간의 대립으로 인한 경성 양극체제적 상황을 노정하였으나, 일극을 형성하던 강대국이 또 다른 일극을 형성하는 강대국과 대립하는데 대부분의 국력을 소모하게 됨으로 인해 고려는 상대적인 자율성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는데 일부 원인이 있다.

지 다른 유사한 표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외세적 정치력의 쇄소화’, ‘내적정치역량의 확대화’, ‘외세로부터의 오는 영향력의 쇄소화’, ‘국가적 자결권의 극대화’ 등이 그것이다.

266) 장노준, “약소국의 갈등적 편승외교정책 :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 『한국정치학회보』, 33집 1호, 1999, p.382.

267) 장케이페이(蔣非非) 외, 김승일 역, 『한중관계사』, 범우출판사, 2005, p.298.

서희의 외교전략 이후로, 고려에 대한 송대 사대부의 인식은 상당히 높았고, 특히 외교적 수단에 대해 고려의 외교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송대의對外정책의 一人者로서 외교적 역량이 널리 알려져 있던 추밀부사(樞密副使) 부약(富弼)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 거란이 서하, 회골, 고려, 여진 등을 강압적으로 굴복시키려 하고 있으나 홀로 고려만이 이에 굴복하지 않고 있다. 고려는 삼한의 옛 강토로 시시여의지종이 중국에 전혀 뒤흔어지지 않는 나라이다. 거란이 군사를 동원하여 힘으로 고려를 제압하였고, 고려 역시 힘을 이에 대항하였으나 부득이 거란에게 신사하였으나 거란은 고려가 진심으로 그들에게 굴복하였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268)

또한, 남송의 대유학자 주희(朱熹)는 국력은 약하지만 오랫동안 국가를 유지하며 대국의 틈 사이에서 발전을 구가한 고려민족을 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다. “고려가 여진과 접경해 있으면서도 여진에게 멸망되지 않은 것은 외교적 술수 때문이다”고 했다.²⁶⁹⁾ 이러한 고려의 외교적 능력의 뛰어난을 인식하게 만든 계기는 서희의 외교전략으로부터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V. 결론

주지하듯이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서희(徐熙)는 고려와 거란 사이의 교류가 적은 것은 양국 사이에 있는 여진족 때문임을 강조하며, 오히려 강동 6주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서희의 거란에 대한 외교전략은 공격전략으로서 자칼의 편승전략을 방어전략으로서 고슴도치전략을 펼쳤던 것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체제 상황이 양극체제로서 송과 거란의 강대국간의 경합으로 인해 약소국인 고려의 외교전략이 빛을 볼 수 있었던 것이며, 또한 고려와 거란 1차 전쟁때 안음진전투의 승리가 서희의 외교전략을 더욱 강화시켜 주었던 것이다. 즉, 서희의 외교정책의 성공의 요인은 당시 동아시아 국제체제의 특성과 서희의 전략에 바탕을 두고 있다. 10세기의 동아시아 국제체제는 송나라와 요나라의 양극체제의 구조적 특성이 있었고, 서희는 이러한 체제적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여 소손녕과의 담판에서 고려의 생존에 머물지 않고, 나아가서 국가의 이익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서희의 편승외교정책은 요나라로부터 외교적·영토적 양보를 얻어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약소국의 편승외교정책은 현실주의가 강조하는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268) 신재식, “고려와 송의 외교관계: 朝貢과 冊封관계를 중심으로,” 박향숙 외, 『한중 외교관계와 조공책봉』, 고구려연구재단, 2005, p.103.

269) 장페이페이(蔣非非) 외, *op.cit.*, pp.281-283.

데, 외교적 어려움에 처한 상태에서 균형정책을 펼 수 있는 대안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약소국의 편승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서희의 외교정책은 강대국인 요나라의 일정한 양보를 얻어내었다. 한편, 이러한 요나라에 대한 서희의 편승전략은 안보위협을 느끼는 약소국의 편승이 강대국에 대한 굴복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고, 약소국이 강대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과정을 만드니 경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고려는 서희의 활약으로 국난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었다. 비록, 거란에 칭신사대(稱臣事大) 하였으나 강동 6주라는 전략적 요충지를 영토로 획득함으로써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외교적 성과를 거둔 것이다. 서희가 확보하고 개척한 강동 6주가 여섯 번에 걸친 거란의 침공에서 고려를 구하였는데, 후에 강감찬의 귀주대첩의 승리도 이 방어선이 큰 영향을 미쳤었다. 서희의 외교적 승리는 당시 국가의 외교정책이란 것이 부재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더욱 가치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국제관계 속에서 힘의 균형을 이용하여 실리외교를 펼 서희의 답판은 강대국사이에서 고도의 외교술을 요구하는 요즘의 한국의 상황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게 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국제정세는 서희의 고려시대보다도 더욱 복잡한 상황이다. 지정학적 위치를 넘어서서 한반도와 관련 있는 강대국들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이 있다. 이러한 국제정세속에서 서희의 외교전략이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대국과의 외교정책이 반드시 힘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강대국의 수가 많을 경우 약소국이 여러 쪽으로 쪼개어지는 발칸화(Balkanization)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지만, 오히려 어느 한 국가와의 편승이 아닌 다자적 강대국의 편승을 택한다면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셋째, 서희의 외교전략은 '위기속에 기회가 있다' 는 것을 몸소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안보적으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등의 위기속에 있는데, 서희적 외교전략의 마인드로 이러한 위기를 명확한 국제정세의 판단을 통해 위기를 과감히 뚫고 나가면 더욱 내구성 있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강대국들이 21세기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변환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곧 중진국들의 무력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진국이라 하더라도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 될 때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게다가 지식과 문화 등 새로운 권력자원들이 증시되는 무대에서는 중진국이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도 있다. 특히 체제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중진국은 체제의 명운을 걸고 기존질서에 도전할 태세가 되어있기 때문에 객관적 국력의 크기만으로 그 국가의 영향력을 평가할 수는 없다.²⁷⁰⁾ 따라서, 서희의 고려가 그러했듯이 현재의 한국은 강대국들을 상대로 상호 국가이익을 추구하여 '원-원'의 외교전략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70) 하영삼·김병국, "새로 그리는 동아시아 전략지도 : 국가이익·정체성·힘의 국제정치," 하영삼 편, 『21세기 한국외교 대전략 그물망국가 건설』, 나남출판사, 2006, p.23.

참 고 문 헌

- 강봉구, "편승과 균형: 21세기 세계정치와 러-미관계," 『國際政治論叢』, 제 45집 3호, 2005
- 강성학, "한국외교정책의 특성: 편승에서 루오바디스트?," 『IRI 리뷰』, 제 2권2호, 1997
- 강성학, 『새우와 고래싸움: 한민족과 국제정치』, 박영사, 2004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중군사관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7
- 김우상, 『신한국 책략2: 동아시아 국제관계』, 나남출판사, 2007
- 김예경,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대응전략: 편승전략과 동맹, 유화 그리고 현안별 지지정책," 『국제정치논총』, 제 47집 2호, 2007
- 김태현, "세력균형이론," 우철구·박건영 편, 『현대 국제관계이론과 한국』, 사회평론, 2004
- 노계현, 『고려외교사』, 갑인출판사, 1994
- 신채식, "고려와 송의 외교관계: 朝貢과 冊封관계를 중심으로," 방향숙 외, 『한중 외교관계와 조공책봉』, 고구려연구재단, 2005
- 안주섭, 『고려 거란전쟁: 압록강 연안에서 전개된 영토확장 전쟁』, 경인문화사, 2003
- 이상우, 『국제관계이론: 국가간의 갈등원인과 질서유지』, 박영사, 1999
- 이석현, "고려와遼金の 외교관계," 방향숙 외, 『한중 외교관계와 조공책봉』, 고구려연구재단, 2005
- 이원형, 『이명박 정권의 외교전략: 한국의 국가전략』, 박영사, 2008
- 이재석, "고려 전기 국제관계의 특징," 『한국정치외교사론총』, 제29집 2호, 2008
- 임용한, 『전쟁과 역사: 거란·여진과의 전쟁』, 해안출판사, 2004
- 장노순, "약소국의 갈등적 편승외교정책 :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 『한국정치학회보』, 33집 1호, 1999
- 장철균, 『서회의 외교담판』, 현음사, 2004
- 장페이페이(蔣非非) 외, 김승일 역, 『한중관계사』, 범우출판사, 2005
- 최명해, 『중국·북한 동맹관계: 불편한 동거의 역사』, 오름출판사, 2009
- 하영선·김병국, "새로 그리는 동아시아 전략지도 : 국가이익·정체성·협의의 국제정치," 하영선 편, 『21세기 한국외교 대전략 그물망국가 건설』, 나남출판사, 2006

- McCormack, Gavan, *Target North Korea: Punishing North Korea to the Brink of Nuclear Catastrophe*(New York: Nation Books, 2004)
- Mearsheimer, John J.저, 이춘극 역,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나남출판사, 2006
- Rothstein, Robert L., *The Weak in the World of the Strong*(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7)
- Schweller, Randall L., "Bandwagoning for Profit: Bringing the Revisionist State Back In," *International Security*, vol.19, No.1 (Summer 1994)
- Schweller, Randall L., "New Realist Research on Alliance : Refinding, Not Refuting, Waltz's Balancing Proposition,"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1, No.4 (December, 1997)
- Schroeder, Paul W., "Historical Reality vs Neo-realist Theory," *International Security*, Vol.19, No.1 (summer 1994)
- Walt, M. Stephen, *The Origins of Alliances*(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 Waltz, N. Kenneth,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Massachusetts: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79)
- Weitsman, Patricia A., *Dangerous Alliances: Proponents of Peace, Weapons of Wa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서희의 993년 체제—한국 정체성 형성의 결정적 순간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옛 것을 잘 되살려 새로운 것을 알게 되면, 스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논어 위정편 11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 옥창준

<목 차>

I. 머리말

II. 본론

1. 이론과 시각

2. 역사

가. 한반도의 지정학적 정체성

나. 7C까지의 동아시아 국가 간 관계

다. 9C까지의 동아시아 국가 간 관계

라. 10C 초 ‘마(魔)의 삼각구조’의 형성

마. 고려의 건국과 정체성의 대립

바. 서희라는 ‘계기’와 993년 체제

사. 993년 체제 이후 한반도의 정체성

III. 결론

I. 머리말

21세기 한국 국제정치학이 당면한 과제는 탈냉전기 동아시아 질서에서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최소화하는 한국의 구체적 실천 전략을 탐색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를 위한 하나의 시론(試論)으로서 21세기 한국의 외교 대전략을 짜는 데 공헌할 수 있는 일종의 지역인자를 10세기 동아시아 세계질서에 대한 역사적 재독해를 통해 찾아보고자 한다.

이미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역사에 대한 해석과 재해석을 통해 한국과 동아시아의 지역인자를 찾는 시도를 해왔다. 특히 많은 연구들은 한국의 국제관계와 대외인식의 측면의 ‘획기적 전환점’으로 19세기 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사대자소’(事大字

小: 큰 것을 섬기고 작은 것을 품어준다)로 대표되는 전통 동아시아 세계질서가 만국공법(萬國公法, International Law)에 기초를 둔 서구 근대국가질서로 대체되었다는 역사적 사실과 연결되며 하나의 지배적 정설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²⁷¹⁾

한편 서구 문명에 의한 동아시아 문명의 '외부적' 전환보다 동아시아 내부의 전환에 좀 더 천착한 시각으로서는 14세기에 주목한 임형택의 연구가 있다. 그에 따르면, 14세기는 조공책봉질서가 전형적인 형태로 재정비되고, 몽골족의 중국지배와 원명교체의 영향으로 한반도인의 세계인식과 자아의식의 측면에서도 괄목할만한 변화가 나타난 시기였다.²⁷²⁾ 이 연구들은 그 구체적 시기는 각기 다르지만, 이 시기를 지나면서 한반도인의 세계인식(인식론)과 자아의식(존재론)이라는 '정체성(identity)'²⁷³⁾이 크게 바뀌었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와는 시간대를 달리하여 10세기에 주목한다. 지금으로부터 천년도 더 된 시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시기 동아시아 세계질서의 '변환'과 맞물려 한반도인의 정체성이 획기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후술하겠지만 바로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한반도인의 지정학적 정체성은 내륙 아시아 세력(대륙 유목 세력)과 한반도 세력(반도 농경 세력)이라는 이원적 구조를 넘어서 한반도 세력으로 일원화된다.

본 논문은 그러한 '결정적 순간'으로서 장위공 서희(徐熙, 942-998)의 안용진 담판이 벌어진 993년과 그 이후 만들어진 '993년 체제'를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를 시도할 것이다. 현재의 세계질서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차분하게 역사를 복기하면서 현재를 이해할 수 있는 심층동인(forces profondes)을 추적할 필요성을 일깨워준다. 이는 본 논문의 시간적 접근이다.

또한 본 논문은 서희가 외교담판을 통해 국가와 민족을 보존하고, 북방으로의 영토를 확장했다는 기존의 민족국가중심적인 해석을 넘어서, 그의 외교 활동과 그 결과로서 고려, 그리고 한반도의 정체성 확립이 동아시아 전체에 미친 거시적·지역적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한반도를 포함하여 격동했던 만주와 중원의 정치질서의 변화 과정 역시 함께 살핀다. 일반적으로 다른 시대 동아시아 국가들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상호 소원(疏遠)했던 반면²⁷⁴⁾, 10세기 동아시아 국가들은 하나

271) 이러한 시각을 대표하는 연구로는 김용구, 『세계관 충돌과 한말 외교사, 1866-1882』, 문학과지성사, 2001.

272) 임형택, 「문명의식과 실학—한국 지성사를 읽다」, 돌베개, pp.13-40, 2009. 중국사에서도 14세기의 변환에 주목한 연구가 존재한다. Li Bozhong, 「Was There a Fourteenth-Century Turning Point?」, Paul J. Smith and Richard von Glahn eds., 『The Song-Yuan-Ming Transition in Chinese History』,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03. 임형택의 논지를 확장시켜 이를 14-19세기의 장기적 변화의 관점으로 접근한 최희재의 논의도 주목해볼만하다. 최희재,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국: 14-19세기의 변화를 중심으로」, 『史學志』, 39권, 2007.

273) 본 논문에서 정체성은 행위자가 내면화한 규범, 타자와 자신을 구별하는 대타적 인식의 요소, 정치문화, 이 대응로기, 신념체계, 인식의 틀 등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다.

274) 동아시아 국가들의 상호 소원성에 대한 연구로는 고병익, 「동아시아 나라들의 상호 소원과 통합」, 정문길·최원식·백영서·전형준 엮음,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 문학과지성사, 1995.

의 '거대한 그물망'을 이루고 상호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본 논문의 공간적 접근이다.

이상의 논의를 위하여 본 논문은 우선 간단하게 전통 동아시아 국가 간 질서(inter-state system)²⁷⁵⁾를 바라본 기존의 이론과 시각을 살핀다. 그리고 이 이론들의 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보완 요소로서 '정체성'이라는 변수를 새로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정체성', 특히 '지정학적 정체성'이라는 새로운 관점 아래에서 한반도의 역사를 해석한다. 셋째, 한반도의 정체성을 획정하는 중요한 기점이었던 서희의 993년 안용진 답판이 어떠한 한반도적, 동아시아적 의미를 지니는지 알아본다. 그리고 말미에는 분석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현재적 함의를 살펴본다.

II. 본론

1. 이론과 시각

흔히 전통 동아시아 세계에서 근대적 기준에 걸맞은 자율적인 외교 행위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다.²⁷⁶⁾ 전통 동아시아 국가 간 질서를 규율한 것은 평등한 국가 간의 질서가 아니라 상호 위계적인 국가들 간의 '천하질서'(天下秩序; 중국적 세계질서, 중화질서, 화이질서)였기 때문이다. 서유럽의 주권국가들이 국제법에 입각한 조약을 통해 국제관계를 맺었다면, 동아시아 세계에서는 대체로 중국을 중심으로 주변국가와의 사이에 책봉(冊封)과 조공(朝貢)을 주고받는 종주국(宗主國)과 번속국(藩屬國)의 관계로 국가 간 관계가 맺어졌다. 종주국의 황제는 번속국의 군주를 책봉하여 기득권을 인정해주고, 관작(官爵)과 인신(印信)을 수여했다. 한편 칭신(稱臣)한 번속국의 군주는 종주국의 황제에게 조공을 하고, 대신 하사품을 받게 된다. 이는 이념적으로는 화이사상(華夷思想)에 기반을 두고, 주변국에 대한 중원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우월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서구 학계 조공체제 이론의 전반적인 틀을 정립한 존 페어뱅크(John K. Fairbank)는 전근대 동아시아 국가 간 관계를 세 가지 지역 유형으로 정리한다. 우

275) 본고에서는 '국제'라는 용어와 '국가 간'이라는 용어를 구별한다. 전통적으로 한자 문명권에서는 '국제'(international)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국제'라는 용어가 처음 한자문명권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일본에서 1870년대 'international'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면서부터였다. 즉 '국제'라는 용어 자체가 근대 국제질서라는 구미의 새로운 패러다임과의 만남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강상규, 『천하에의지방과 무장국가』, 하형선·김상배 엮음, 『네트워크 지식국가』, 을유문화사, p.67 각주, 2006.

276) 당시 전통 동아시아 세계에서 外交는 대개 부정적인 뉘앙스로 사용되었다. 『예기禮記』 「교복생交特牲」에 보면 “조곤(朝覲)하기 위해 옆의 나라를 방문하는 군주를 수행한 대부가 옆 나라 군주를 사사로이 만나는 것은 예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신하된 사람은 외교를 할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온다. 즉 “사사로이 만나는 것이 곧 외교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신무외교(人臣無外交)의 원칙에 따라 외교는 천하 질서의 기본 규범인 예(禮)를 이루는 하위 규범 중 하나에 불과했다. 김용구, 『만국공법』, 소화, pp.35-36, 2008.

선 그는 중국의 북방 초원에 거주한 유목세력을 '내륙 아시아 지역' (the Inner Asia Zone)으로, 중국과 산발적인 교류를 하면서 진정한 조공체제를 이루지 못했던 동남아시아, 일본, 그리고 서방 국가들을 '외부 지역' (the Outer Zone)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제도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한화' (漢化)가 이루어졌다는 한국과 베트남을 '한족문화지역' (the Sinic Zone)으로 분류하였고 바로 이들 국가들에서 전형적 조공체제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²⁷⁷⁾ 한중관계를 조공관계의 일부로 파악한 것이다.

페어뱅크의 논의를 이어받아 한중관계 연구에 천착한 대표적 학자인 전해중 (Hae-Jong Chun)은 한중관계 전반을 '전형적 조공관계', '준조공관계', '비조공관계' 라고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시대 구분을 하고 있다.²⁷⁸⁾

1. 초기 조공관계 성립 : 삼국시대 후반기의 관계 (AD 317-668)
2. 조공관계의 발전 : 통일신라 및 고려와 당송과의 관계 (AD 669-1279)
3. 조공관계의 변질 : 고려와 요·금·원과의 관계 (AD 918-1368)
4. 전형적인 조공관계의 성립 : 고려, 이조와 명·청과의 관계 (AD 1368-1849)

전해중의 분류에 따르면, 한중 조공관계는 성립, 발전, 변질을 거쳐서 마지막에 이르면 전형적인 형태를 갖춘다. 조공관계의 역사적 진화다. 그러나 그는 천하질서의 다양성을 간과하고 현재의 관점을 기준으로 과거를 해석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물론 조선과 명의 조공관계를 제도적 측면, 이념적 측면으로서 가장 완비되고 제도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²⁷⁹⁾

그러나 과연 그러한 사실만으로 조선 시대의 조공관계를 가장 '전형적'인 한중간 조공모델 혹은 한중관계로 볼 수 있는가? 고려가 송과 요, 그리고 금을 상대로 맺은 탄력적이고 전략적인 조공관계는 왜 표준적인 조공 형태가 될 수 없는가? 역사적으로 볼 때, 조선은 분명 명·청의 입장에서 가장 '모범적'인 조공국이었으나, 조선의 명·청에 대한 조공이 반드시 '전형적'인 한중관계의 모습이라 보기는 힘들었다.²⁸⁰⁾

277) John K. Fairbank, 「A Preliminary Framework」, John K. Fairbank ed. 『The Chinese World Order』, Harvard University Press, p.2, 1968.

278) 전해중, 『한중관계사연구』, 일조각, pp.26-58, 1970.

279) 전해중, 『한중관계사연구』, 일조각, pp.50-53, 1970.

280) 만약 한중관계의 역사적 기원을 BC 108년의 한사군 설치부터 잡을 때, 대한제국이 건국하는 1897년까지의 전통 국가 간 질서는 총 2005년간이 된다. 그리고 전형적인 이념적 사대의 기간을 태종의 즉위 1400년으로부터, 조선이 삼천도의 굴욕을 거치면서 청과의 새로운 사대관계를 청립하는 시기인 1637년까지로 볼 때, 전체 이념적 사대의 기간은 총 237년이다. 이는 한중관계와 관련한 전체 한국사 2005년의 기간 중 11.8%에 해당된다. 전제성, 「전통시대 동아시아 지역 질서와 21세기 동아시아 지역주의」, 손열 엮음, 『배려으로 읽는 동아시아 : 지역성의 창조와 서울 컨셉서스』, 지식마당, p.77, 2007. 만약 사대질서의 유지 기간을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강화도조약이 맺어지는 1876년으로 잡는다면 하더라도 그 기간은 476년이며 비중은 23.7%에 해당한다. 적은 수치는 아니지만, 전형적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수치임에는 확실하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삼국 시대 말기부터 임진왜란 전까지 천 년 동안 한반도 왕조와 중국 왕조 간의 양자관계는, 대개 전략적·실용적 관계였다는 주장이 존재한다.²⁸¹⁾ 피터 윤(Peter Yun)에 따르면, '전략적' 사대관계는 삼국통일 당시 신라의 대당정책부터, 조선 건국 초 대명정책까지 꾸준한 일관성을 지니고 유지되어왔다. 그는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중국이 동아시아 전통질서의 일관된 패자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적 사대가 가능했다고 본다.

이어 그는 동북아시아 국제질서가 패권질서라기보다는 '사실상' 삼극(tripolar)의 다극질서로 존재했던 적이 많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²⁸²⁾ 돌궐, 발해, 거란, 여진, 몽고의 존재는 한반도 왕조들로 하여금 대중국 일방 사대정책이 아닌, 등거리외교 및 균형전략을 추구할 수 있게 해주는 체제적 요인으로 작동하였다는 것이다. 피터 윤은 한반도 왕조들의 대중국 관계가 변화하는 군사, 정치 환경 속에서의 기민한 전략이었다고 보고, 이를 이념적 복속관계로 보는 기존의 시각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설명은 기존의 시각이 포괄하지 못했던 한중관계의 성격을 명쾌하게 설명해내지만, 그것이 과연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인지, 또 전략적 사대관계 간의 미묘한 차이와 그것의 복잡성과 역동성을 잘 포착해내지 못한다. 일례로 피터 윤은 당-발해-신라, 송-거란, 여진, 몽고-고려를 모두 삼극관계로 파악하지만, 역사적으로 발해와 신라의 당에 대한 사대관계는 고려의 사대관계와는 달리 중국을 중심에 둔 가운데, 주변국 상호 간에는 서로를 더욱 주변시하고 야만시하는, 중화주의 또는 동아시아 형식의 오리엔탈리즘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²⁸³⁾

정리하자면 천하질서의 이상은 하나의 '이념형' (ideal type)으로서만 존재했고 각 시대국면마다 그 구체적인 형태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중국 대륙이 한족 혹은 외래 민족에 의해 통일되어 있을 경우, 동아시아는 다양한 성격의 패권체제를 경험한 반면 중국 대륙이 분열되어 있거나, 중국왕조와 주변왕조들의 다극적 경쟁을 벌이고 있었을 때에는 일종의 세력균형체제를 경험했다. 즉,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전통 동아시아 질서가 왕조들 간의 개별이익에 근거한 경쟁과 갈등 체제였다고 보는 현실주의적 관점과, 중국 중심의 중화질서의 이상이 구현된 중화주의적·유교적 평화

281) 피터 윤, 「서구 학계 조공제도 이론의 중국 중심적 문화론 비판」, 『아세아 연구』, 45권 3호, 2002 ; 피터 윤, 「몽골 이전 동아시아의 다원적 국제관계」, 『만주연구』, 3권, 2005.

282) 정복왕조 역사를 정리한 케임브리지 중국사 6권 역시 이 시기 국제관계의 기본 틀을 '조공체제'가 아닌 '다원체제'와 '조약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John K. Fairbank and Denis Twitchett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 vol.6 - Alien Regimes and Border Stat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16-21, 1994.

283) 이우성은 신라와 발해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 "당은 신라의 반도지배를 승인한 동시에 발해의 만주지배를 승인하였다. 모두 책봉형식을 취하였다. 당의 동방정책은 이제 남의 신라, 북의 발해로 남북 세력의 대립에 의한 상호견제 위에 중국의 전통적 대외정책—이적에 대한 이간정책, 기이 정책을 펴기 시작하였다. (중략) 이리하여 남북 양쪽은 서로가 말할 때까지 한 번도 화합할 수 없었다. 그것은 남북 등거리 외교로 일관된 당의 동방정책에 시종 조종되면서 서로 깨닫지 못했던 때문이다. 신라가 당에의 일면도로 당의 힘을 빌려 발해를 누르려고 했던 것이나, 발해가 저자세를 무릅쓰고 밀리 일본에 조방을 다녔던 것은 다 같이 후세의 역사적 비판을 받아 마땅한 것이었다. 이우성, 『남북국시대와 최치원』, 『창작과비평』, 38호, p.247, 1975.

있다고 보는 관점 모두 지나치게 한쪽에 치우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²⁸⁴⁾

즉, 단순히 이념형이나 극성(polarity)으로 동아시아 국가 간 질서를 파악하는 방식보다는 역사적 접근을 통해 당시대의 조건, 인식, 태도를 세밀하게 추적하여 '현실형'을 복원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동아시아의 국가 간 질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서 '정체성'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도입하고자 한다. 구조로서 국가 간 질서는 행위자의 행위 또는 행위자 간의 문화적 관계와 전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웬트(Alexander Wendt)는 국가들의 관계를 규정하는 국제구조는 물질적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그는 국제정치의 현실 속에서 권력과 이익이 중요하다고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그와 같은 물질적 권력과 이익의 의미와 효과는 사회적 구조에서 나온다는 점을 강조한다.²⁸⁵⁾ 예컨대 500개의 영국의 핵무기와 5개의 북한의 핵무기 중에서 미국에게는 북한의 5개의 핵무기가 더 '위협적'으로 느껴질 것이며, 이는 서로에 대한 관념 또는 아이디어가 양자 관계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행위단위에 의해 조절된 정체성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 공유될 때 집합적인 정체성이 형성될 수도 있다. 집합정체성이 형성되면 위협이나 강요와 같은 경성권력이 아니라 문화적 요소가 행위단위의 정체성과 이익을 집단적으로 구성하게 된다. 또 행위단위에 의해 내재적으로 조절되고 집합화한 정체성은 행위단위 간의 협력과정으로 현실화된다.²⁸⁶⁾

본 논문은 이러한 웬트의 개념을 '원용'하여 전통 동아시아 국가 간 평화갈등 관계—한중관계를 중심으로—를 설명해보고자 한다. 이전 연구들은 대개 동아시아에서 집합적 정체성의 근원으로 흔히 관념적 차원의 유교 질서를 꼽아왔다.²⁸⁷⁾ 그러나 유교가 한반도에 전래된 것은 삼국시대의 일이지만, 그것의 하나의 국가적 차원의 제도로 확립되고 한반도인들이 이를 관념적·이데올로기적 차원까지 수용한 것은 고려 후기 신진사대부층이 송의 성리학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주축이 되어 조선을 건국한 이후의 일이었다.²⁸⁸⁾ 오히려 조선 시대 이전 시기까지 한반도인의 정체성으로서 더 중요했던 것은 후술하게 될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지정학적 정체성이었

284) 전제성, 「전통시대 동아시아 지역 질서와 21세기 동아시아 지역주의」, 손열 엮음, 『매력으로 읽는 동아시아 : 지역성의 창조와 서울 컨센서스』, 지식마당, p.49, 2007.

285) 알렉산더 웬트 지음, 박진영 외 옮김, 『국제정치의 사회적 이론 : 구성주의』, 사회평론, 2009.

286) Alexander Wendt, 「The Agent-Structure Proble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vol.41, pp.335-370, 1987.

287) 남궁권, 「동아시아 평화체제에 관한 연구—조선 사행록을 통해 본 18세기 조공체제」, 『한국정치학회보』, 33집 3호, 1999.

288) 또한 전근대 동아시아 역사상 가장 치열하였던 농경문명과 유목문명의 충돌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동일한 문명내의 충돌이 더욱 빈번하고 치열하였으며, 동일한 유교 문화권이라는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의 경우도 그 '동일한 문화'라는 조건이 이들 국가들 간의 정치적 갈등을 완화시켰다고 볼 수는 없다. 피터 윤, 『몽골 이전 동아시아의 다원적 국제관계』, 『만주연구』, 3권, p.43, 2005.

며 이는 크게 내륙 아시아(유목 세력)와 중화·한반도 정체성(농경 세력)으로 나뉘었다.²⁸⁹⁾

2. 역사

가. 한반도의 지정학적 정체성

오랜 기간 동안 전통 시기 한반도인은 중원의 '천하질서'와는 구분되는 독자적인 정체성을 영위해왔다.²⁹⁰⁾ 이 둘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고조선 때부터 대동강 이북에서 압록강 유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세력이다. 다른 하나는 한강 유역 이남의 마한, 변한, 진한을 아우르는 삼한(三韓) 세력이다. 전자는 유목민족(nomad)의 그것과 흡사한 '내륙 아시아' 정체성을 지녔고, 후자는 농업 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한반도 정체성'을 지녔다.²⁹¹⁾ 즉, 이 시기 한반도인의 지역(region) 관념은 지금의 남북한을 포함한 한반도보다 넓었고, 현 만주, 연해주 일부 지역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었다.

나. 7C까지의 동아시아 국가 간 관계

유목, 수렵 생활과 농경 생활을 병행하던 한반도인과 중원 세력이 국가적 차원으로 처음 조우(encounter)하는 것은 통일 왕조 한(漢, BC 206-AD 220) 왕조 성립 이후의 일이었다. 반천년에 가까운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한 것은 시황제의 진(秦)이었으나 진은 통일 이후 15년 만에 단명하고, 중원은 유방의 한에 의해 재통일되었다. 이어 한은 동아시아에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 건설을 시도한다.

하지만 한은 북부 유목 세력인 흉노 세력과의 일전에서 초반부터 고전을 면치 못했다. 결국 한의 제국건설 전략은 무위로 돌아가고, 문제(文帝) 때인 기원전 162년에 이르러 한은 흉노 제국과 평화 조약을 맺는다. 시황제가 건설한 만리장성을 기점으로 북은 흉노 제국과 유목 세력의 영역이고 그 이남은 한의 영역이라는 것을 상호간에 인정·확인한 것이다.

이후 만리장성 이북의 몽골 지역과 만주 지역의 정치동학은 달라진다. 몽골의 칭기즈칸 이전까지 만리장성 이북 유목 부족들은 중원을 직접 지배하는 정복자가 되지

289) 지정학적 정체성 그리고 지리적 구조가 국가/민족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는 연구로는 Pierre Renouvin · Jean-Baptiste Duroselle, 『Introduction à l'histoire des relations internationales』, Librairie Armand Colin, 1970, 1장; 이 책은 하나의 '장기지속'으로서 '지리적 위치', 기후 '등이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의 정체성(identity)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세밀하게 밝히고 있다.

290) 이상성,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한길사, 2009, 4장.

291) 이상성은 한반도 중남부는 중국 중원과 기후조건이 비슷하여 심층농경사회가 빠르게 발전하는데 매우 유리했다고 본다. 이상성,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한길사, p.234, 2009.

않고 중국의 변방정치에서만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그리고 중원의 흥망성쇠와는 상관없이 수많은 국가들이 이 지역에서 명멸해갔다.

하지만 한은 같은 유목 세력의 영역이지만, 요동과 만주를 자신의 전통적인 세력권—전국 7웅 중 하나인 연(燕)의 영역—이라고 여겼고 바로 이 ‘중간 지역’에서 각기 다른 문명적 기반을 지닌 내륙 아시아 세력과 중원 세력은 서로 충돌을 하게 된다.²⁹²⁾ 그리고 10세기 요동과 중원의 힘의 관계가 역전되기 이전까지 중원 세력은 이 지역의 정치 동학에 끊임없이 영향력을 행사한다.

한은 흉노와의 협약 이후, 자신의 ‘세력권’으로 북방 세력에게 인정된 한반도 북부와 베트남으로 팽창하기 시작했다. 한의 침공 위기를 맞은 베트남은 자발적으로 한에 대한 조공을 실시함으로써 직접적인 정벌을 면한다. 그러나 고조선 이후 등장한 위만조선은 중국의 한 왕조와는 대별되는 내륙 아시아 정체성을 대내외적으로 표방²⁹³⁾했고 결국 기원전 108년 한의 군사적 공격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

한은 옛 위만조선의 영역에 이른바 한사군(漢四郡)²⁹⁴⁾을 설치하고 이 지역을 중화 세계의 일부로 포섭하려고 했지만 한사군은 313년에 고구려에 의해 소멸되는 낙랑군을 제외하고는 그 영향력이 오래 가지 못했다.

다시 한반도 북부는 위만조선의 뒤를 이어 내륙 아시아 정체성을 표방하는 여러 국가들—고구려, 부여 등—의 세력 각축장이 되었다. 고구려는 4세기에 이르러 부여와의 지역패권 경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면서 고조선보다 한층 더 강력한 내륙 아시아 정체성을 표방하게 되었다. 고구려는 한편으로는 분열되어 있는 중원 세력과 활발한 외교관계²⁹⁵⁾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고구려 식의 독자적인 ‘천하관’을 내세우면서 동북아 맹주로서의 위상을 구축했다.²⁹⁶⁾

내륙 아시아 정체성을 지닌 한반도 북부세력은 한반도 중남부의 세력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정치적 군사적 힘이 성장했을 때는 요동에서 중국을 비롯한 다른 세력들과 동아시아 패권을 다투었다. 반면에 한반도 중남부 세력은 중원 세력과 해로를 통한 무역과 외교 및 문화적 교류활동에 집중했다. 또한 내륙 아시아 정체성을 지닌 세력과 중화권적인 지향을 지닌 한반도 중남부 세력 모

292) 이 지역의 복합적인 정체성에 주목한 연구로서 김한규, 『요동사』, 문학과지성사, 2004. 김한규는 한중관계에서 요동의 역동적인 역할에 주목하여 한중관계사의 시기를 제1기 : 요동이 한국과 통합되어 미분화된 시기(고조선, 한군현, 고구려, 발해), 제2기 : 요동이 한국과 분리되어 중국과 통합된 시기(송, 요, 금, 원, 명, 청), 제3기 : 요동과 중국이 하나의 역사공동체로 통합된 시기 : 1910년대~1940년대 로 나누고 있기도 하다. 김한규, 『한중관계사 I』, 아르케, pp.18-25, 1999.

293) 위만조선은 한반도 북부를 포함하여 사방 수천 리에 이르는 지역을 지배했다. 아울러 한강 이남의 진(辰)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이 한과 직접 교역하는 것을 금하며 중간무역이익을 독점했다. 중국은 위만조선이 북방의 흉노와 연합할 가능성을 우려하기에 이른다. 이기백, 『한국사신론』, 일조각, p.30, 1999.

294) 한사군은 낙랑군(樂浪郡), 임둔군(臨屯郡), 진번군(眞番郡), 현도군(玄菟郡)을 말한다. 후에 진번군은 그 명칭이 대방군(帶方郡)으로 바뀐다.

295)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장수왕 편을 보면 장수왕 시대의 활발한 조공외교를 볼 수 있다. 김부식 지음, 이강래 옮김, 『삼국사기 I』, 한길사, pp.378-385, 1998.

296) 노태돈, 「5세기 금석문에 보이는 고구려인의 천하관」, 『한국사론』, 19호, 1988.

두 중국과 조공책봉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다만 내륙 아시아권역 정치세력은 중국과의 위계적 질서에 편입된다 하더라도 그 관계는 일시적인 것이었다. 이들은 상황에 따라 중국 세력들과 권력 정치적 경쟁과 패권다툼에 적극적으로 간여했다. 따라서 중국과 조공책봉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곧바로 중화권적 관계에 포섭되는 것은 아니었다.²⁹⁷⁾

고구려는 중국 재통일의 기세를 이어받아 한에 이어 중국 중심의 '천하질서'를 새롭게 확립하고자 했던 수(隋, 581~618)의 공격을 잘 막아냈지만, 결국 수를 이은 당(唐, 618~907)과 한반도적 정체성을 지닌 신라군의 공격에 의해 668년 멸망하게 된다. 그러나 고구려 멸망 이후 다시금 고구려 계승을 내세운 발해(渤海, 698~926)가 698년 세워짐으로써, 당의 이 지역 지배는 30년으로 끝나고 한반도인의 정체성의 이원적 구조는 유지되게 된다.

다. 9C까지의 동아시아 국가 간 관계

발해의 건국 이후 한반도인의 정체성에는 미묘하지만 심대한 변화가 나타난다. 고구려의 경우, 백제, 신라와 오랜 기간 전쟁을 벌이면서 자신의 일부로서 한반도 정체성²⁹⁸⁾을 받아들였던 반면, 발해는 고구려의 계승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옛 고구려의 한반도 내 강역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후에 고려도 발해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다.) 그 결과, 기존의 한반도인이 지니고 있었던 이원적 정체성은 서서히 만주 유목 세력으로서의 발해와 한반도 세력으로서 신라로 지리적 분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리적 분화는 관념적 차원으로 이어진다. 이제 신라인들은 마치 중국인들이 북방 이민족을 바라보듯이, 만주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들을 중국의 그것에 비견하는 화이관념의 틀로 인식하게 된다.

나당 전쟁에서 신라가 승리를 거두고, 측천무후가 제위가 오르는 등 당이 일시적인 정치혼란기를 겪는 동안, 힘의 공백 기간을 이용하여 만주와 한반도 북부 지역에 발해가 건국되고 이후 당과 신라의 관계는 급진전된다. 당의 황제는 신라의 군주를 '신라왕 계림주도독'으로 책봉했다. 또한 요동지방에서 발해와 당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신라는 당을 도와 발해의 남경을 공략한다. 당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대동강을 경계로 그 이남을 신라의 영토로 확실하게 공인하게 된다.²⁹⁹⁾ 신라는 이로써

297) 이상성,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한길사, pp.234-235, 2009. 내륙 아시아 세력과 중원 세력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예로 남북조와 고구려가 맺고 있는 조공-책봉 관계를 들 수 있다. 고구려는 북위에 대해 당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정도로 지속적인 조공 관계를 유지했지만, 조공을 국가 간 친속 관계로 파악하지는 않았다. 북위 역시 이러한 고구려의 태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여러 동북방 국가들 중 고구려에게만 책봉호를 주었다. 이는 북위가 고구려의 세력권을 보장하는 의미를 지녔다. 임기환, 『7세기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전쟁』, 역사학회 엮음,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일조각, pp.57-58, 2006.

298) 고구려와 백제, 신라의 정체성 공유에 대해서는 이도하, 「삼국의 상호인식을 통해 본 고구려 정체성」, 『고구려연구』, 18권, 2004.

299) 김한규, 『한중관계사 I』, 아르케, pp.298-299, 1999.

한반도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며, 735년 이후부터는 대동강 이북에 대해서 영토적 야심을 회복하지는 않았다. 중국과 한반도 사이의 '중화적 평화'의 전통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동전의 양면처럼 발해는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간다. 당과 신라 사이의 중화적 평화는 발해를 공동의 주적으로 삼는 동맹형 중화질서 속에서 가능했다. 신라는 당과의 문화적 교류를 계속하면서 중화질서로의 복속을 강화해나갔고, 반면에 발해는 이러한 신라와 당의 연합에 '위협'을 느끼면서 장차 중원과 소중화를 자처하는 한반도 국가들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체제불만' 세력이자, 후에 중원을 엿보는 정치군사적 역동성의 전원지로서 내륙 아시아의 전통을 잇게 된다.

지리적·심리적 단절이 지속되면서 신라와 발해 사이에는 군사적 긴장이 이어졌으며, 상호 간에는 공동체 의식은커녕 그에 반대되는 현상이 존재했다. 발해와 신라는 서로 천여 리의 긴 국경선을 접하고 있으면서도 20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단 두 차례만 사절을 교환하였다. 이 사절도 신라가 두 차례 모두 일방적으로 발해에 사절을 파견한 것에 불과하였다. 두 국가의 관계는 정상적인 인접국가 사이라고 볼 수 없었다. 이 둘의 갈등은 양자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이것은 신라가 발해를 멸망시키기에 이르는 거란의 군사적 활동에 참여한 것에서도 새삼 확인된다.³⁰⁰⁾

라. 10C 초 '마(魔)의 삼각구조' 301)의 형성

고구려라는 내륙 아시아와 한반도를 잇는 복합 정체성을 지니고, 이를 잘 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 있었던 국가가 소멸된 이후, 동아시아 국가 간 관계는 '마의 삼각구조'로 나아간다.³⁰²⁾ 발해-신라-당 사이의 불안정한 평화를 '마의 삼각구조'로 변화시킨 가장 큰 요인은 동아시아의 패권국 당의 몰락이었다. 고구려를 멸망시킨 이후, 동아시아에 중국 중심의 세계주의적 지배를 확립했던 당이 안사의 난 이후 그 지배력이 약화되고, 907년 멸망하면서 중원에서는 5대와 10국이라는 전쟁과 분열의 시기가 다시 시작되었다.

동아시아 패권국 당나라의 약화는 단순히 당나라 내부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동아시아 세계질서를 전체를 변혁시키기 시작했다. 그 당시 동아시아를 구성하고 있었던 한국과 베트남, 일본 등 거의 모든 곳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당의 동맹

300) 김한규, 『한중관계사 I』, 아르케, pp.283-288, 1999.

301) '마의 삼각구조'라는 표현은 이상성,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한길사, p.327, 2009. 에 등장하는 표현을 빌려왔다.

302) 일찍이 민세 안재홍(1891-1965)은 「신민족주의의 과학성과 통일독립의 과업」이라는 논문에서 당에 의한 고구려의 멸망은 오히려 거란, 몽골, 여진족의 흥기를 야기함으로써 우리는 물론이고 중국에도, 아니 중국에는 결과적으로 더 큰 재난으로 전화되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고구려의 멸망으로 말미암은 조선 민족의 한반도화는 동아시아 안정의 균형추를 와해시킴으로써 중국을 항사적인 북방의 위협에 시달리게 한 '만세의 실책'이었다고 본다. 그의 세계사적 해인이 놀랍다. 안재홍, 「신민족주의의 과학성과 통일독립의 과업」, 최원식·백영서 엮음, 『동아시아인의 '동양' 인식 : 19-20세기』, 문학과지성사, 1997.

국이었던 신라는 10세기 초엽에는 경주 일대를 지배하는 일대 지방 정권으로 약화되고, 한반도에서는 고려³⁰³⁾, 후백제, 신라 간의 후삼국 시대가 전개되었다. 베트남에서는 중원 세력의 약화를 틈타 중국의 식민지적 상황을 벗어나 독립, 독자적 왕조를 수립했다. 이후 중국은 베트남을 식민지로 만들지 못하고, 베트남은 중화질서에는 포함되지만, 내부적으로는 황제를 칭하는 독자적인 노선을 걷게 된다. 동아시아 세계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일본에서도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1185년 가마쿠라 막부라는 새로운 정치질서가 수립된다.³⁰⁴⁾

그러나 가장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곳은 옛 발해의 영역 안에서였다. 10세기 초엽부터 내륙 아시아 세력을 봉쇄해온 신라와 당이 모두, 특히 당의 패권이 유명무실해지고 이후 등장한 송이 예전의 당만큼의 군사력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이제 발해의 뒤를 이은 만주의 유목 세력들은 이제 지리적, 문명적 경계인 만리장성을 넘을 계획에 착수한다.

이런 상황에서 유목 세력을 제어하는 것이 바로 한반도의 존재였다. 한반도의 국가는 통일신라 이후부터 한반도 정체성을 바탕으로 중화질서의 관념과 관행에 따라 중원을 장악한 중화세력과는 평화적 예측관계인 조봉책봉체제 속에서 평화를 유지했다. 아무리 중원의 세력이 약화되었다고 하더라도 한반도와 중원이 연결되고 양면 전쟁으로 전쟁이 진행된다면 상대적으로 장기전에 취약한 유목 세력에게는 큰 전략적 차질이 빚을 수밖에 없었다.³⁰⁵⁾ 때문에 만주의 세력은 한반도를 ‘위협’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북방 국가는 중원의 경략하기 전에 상대적으로 ‘약한 고리’인 한반도에 대한 일종의 예방 전쟁을 준비한다.

이렇게 생성된 ‘마의 삼각구조’ 하에서 한반도의 국가는 북방 세력과 전쟁 상태로 돌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즉, 고구려의 멸망 이후 동아시아에 생성된 당 우위의 단다극 3극 체제는 당의 몰락 이후 무정부적 3극 체제로 변할 위기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가장 큰 전화의 위기에 놓여있던 것은 다름 아닌 한반도였으며 고려의 건국 역시 이러한 위기를 증폭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303) 흔히 궁예가 새로운 국가를 편지상 후고구려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삼국유사』 왕력편 후고(구)려 궁예조를 보면 “901년(신유년)에 궁예가 국호를 고려로 칭했다”는 표현이 등장한다. 일연 지음, 이민수 옮김, 『삼국유사』, 을유문화사, pp.43-44, 2001.

304) 김한규, 『천하국가 : 전통시대 동아시아 세계질서』, 소나무, pp.225-226, 2005.

305) 실제로 유목 세력이었던 거란은 출정과 회군이 시기가 정해져 있었다. 거란군의 원정은 통상 9월에서 12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9월은 방목했던 가축들을 모아 정주하여 사육하는 시기이므로 보다 많은 군사와 군마를 확보할 수 있었다. 12월에 회군하는 것은 다시 방목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이는 농경국가가 농민기가 되면 각종 요역을 중단하는 것과 같은 원리였다. 안주삼, 『고려 거란 전쟁』, 정인문화사, p.76, 2003 ; 니시노 히로요시는 또 다른 이유로서 봄과 여름에는 일음이 녹는때다가, 물이 끓어나기 때문에 말을 이용해 습격을 하기에는 기동성의 측면에서 제약이 많다고 봤다. 또한 봄, 여름에는 중원 측에 비축된 식량이 적어 위험부담에 비해 성과가 크지 않다고 보았다. 니시노 히로요시 지음, 김석희 옮김, 『말과 황하와 장성의 중국사』, 북북서, pp.16-17, 2007.

마. 고려의 건국과 정체성의 대립

10세기 동아시아의 거대한 변환과 맞물려 천년왕국 신라도 마침내 황혼기를 맞았다. 889년 사벌주(지금의 상주)에서 일어난 원종과 애노의 반란을 기점으로 전국 각지에서 반란이 물밀 듯이 일어나며 호족 세력들이 할거하기 시작한다. 옛 백제의 영역에서는 견훤이 등장하여 892년 스스로 백제왕을 칭했다. 또 신라 왕족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 궁예가 송악(지금의 개성)을 근거로 고려를 세운 것은 901년의 일이었다. 이들은 한반도의 주도권을 두고 각축을 벌였으나 결국 궁예의 고려(태봉, 마진)을 계승한 태조 왕건의 고려가 30년에 가까운 통일 전쟁 끝에 한반도를 통일한다.

당시 동아시아 국가 간 질서 속에서 한반도에 고려가 건국된 것은 큰 의미를 지녔다. 당-발해-신라 삼각관계에서 체제만족 세력이었던 한반도 세력이 '체제변경'을 도모하는 세력으로 그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고려의 국가 정체성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고려는 그 국호에서 알 수 있듯 스스로 고구려를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는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200년이 지났음에도 한반도인들에게 아직도 고구려의 기억이 면면하게 이어져 내려 오고 있음을 보여준 일대의 사건이었다.

고려의 태조 왕건은 옛 고구려의 옛 수도인 평양을 중시했고, 역대 왕으로 1년에 백일 이상을 그곳에 거주하게 했다.³⁰⁶⁾ 또한 그는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단순히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로서 고려라는 국호를 부활시킨 것이 아니라, 고구려의 옛 영역을 수복하여 명과 실을 부합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태조 이후의 많은 왕들도 그의 유지를 이어받아 서희가 강동 6주를 얻기 이전에도 고려의 세력은 꾸준히 성장하여 청천강 변에 이르렀다.³⁰⁷⁾

하지만 고려는 발해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다. 발해가 의지는 있었지만, 당-신라의 밀월관계와 제어책으로 체제를 변경할 능력이 부족했다면, 고려 역시 고구려 계승의 의지는 있었지만, 내륙 아시아, 아니 적어도 압록강변까지도 영역을 확장해나갈 현실적인 힘과 여건이 충분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발해를 대체한 거란이 군사적으로 고려를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고려 내의 고구려 계승 지지 세력들은 기존 고구려가 지녔던 내륙 아시아 정체성을 일부 포기하되 고려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국풍파(國風派)로 진화해 나간다. 국풍파는 중원의 세력이 당(唐)대와 비교해 봤을 때 패권적 지위를 상실했으니 고려의 왕이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고 중국의 천자와 같이 '칭제'할 것을 주장한다. 이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없었던 북진 정책에 대한 일종의 정신적·관념적 보상책이었다.³⁰⁸⁾

306) 『高麗史』, 권2, 세조 26년 훈요십조.

307) 김위원, 『고려시대 대외관계사 연구』, 경인문화사, p.16, 2003.

308) 인종 대의 묘청과 정지상 일파 역시 고려 초 국풍파를 계승한 세력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의 주장은 더욱

태조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칭제했고, 광종 대에 이르면 고려는 도읍인 개경을 황도(皇都)라 칭하고 대내적으로 황제국임을 천명한다. 물론 고려 군주는 국내와 자국의 세력이 직접 미치는 범위에서 소천하를 설정하고 그 속에서 천자, 황제를 칭하였고, 외부와의 관계에서는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는 범위에서 왕을 칭하였다. 그러한 면에서 고려의 경우는 비슷한 시기의 월남처럼 중국에 대해서는 왕을 칭하며 내부적으로 황제를 칭하는 외왕내제(外王內帝)의 형태였다고 볼 수 있다.³⁰⁹⁾

하지만 약 200년 간 유지된 신라의 유산 역시 무시할 수는 없었다. 고려는 신라의 문물을 대거 수용했으며, 고려 조정에는 옛 신라 계통의 유학자들이 대거 포진했다. 이들은 당과의 교류를 통해 선진 유교 사상을 받아들였고, 전략적 관계로서 중국에 대한 사대를 하기보다는 이제는 하나의 관념적 이데올로기로서 조공질서에 접근했다. 그들은 그 동안 중원과 한반도의 관계를 중시했고, 발해를 포함한 북방 세력을 '외국'이 아닌 '만적'으로 보는 일종의 중화주의적 '오리엔탈리즘'을 지니고 있었다. 있었다. 이후 고려 조정은 지지부진하게 이들 화종파(華風派)와 국종파의 대립이 시작된다.³¹⁰⁾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에 따른 지도층의 대립에 따라, 고려의 외교 정책 역시 혼란을 빚었다. 하지만 정세적으로 외교 국면은 화종파에게 유리하게 전개된다. 태조가 동류의식을 갖고 있던 926년 발해가 거란의 요에 의해 멸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후 태조는 거란에 대해 강한 적대심을 갖게 된다.³¹¹⁾ 태조는 936-941년 경 후진(後晉)의 고조 석경당에게 거란에 대한 협공을 제안하기까지 한다.³¹²⁾ 하지만 후진은 거란을 군신의 예로 대하여 연운(燕雲) 16주³¹³⁾를 할양하고 비단 30만 필을 조공으로 바치는 형편에 있었으므로 고려 태조의 요청을 거절한다.³¹⁴⁾

태조의 만거란 의식은 942년 만부교 사건으로 이어진다. 거란의 사신이 고려를 찾아와 낙타 50필을 헌상했으나 태조는 거란을 발해를 멸망시킨 무도지국(無道之國)으로 단정하고, 절교를 선언, 거란사신 40인을 섬으로 유배 보내고 낙타 50마리를 만부교(萬夫橋)에 매어두고 굶어죽게 한 것이다.³¹⁵⁾ 이는 전신에서도 외국에서 온 사신을 안전하게 돌려보내는 관습에 비추어볼 때 매우 도발적인 사건이 아닐 수

급진적이었는데, 이들은 기존의 외왕내제(外王內帝)의 상태에서 더 나아가 대외적으로도 황제를 칭하고 금과 정면으로 승부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309) 노명호, 「고려시대의 다원적 천하관과 해동천자」, 『한국사연구』, 105호, pp.14-15, 1999.

310) 일찍이 신채호는 묘청란은 낭가사상과 불교를 토대로 한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국종파와 유교를 토대로 사대적이고 보수적인 화종파의 대립으로 파악한 바 있다. 신채호 지음, 박인호 옮김, 『조선역사상일천년태제일대사건』, 『조선사연구초』, 통제, 2003.

311) 태조는 훈요십조에서도 거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남긴다. 『高麗史』, 권2, 세가 태조 26년 훈요십조.

312) 김위현, 『고려시대 대외관계사 연구』, 경인문화사, p.12, 2003.

313) 연운 16주는 지금의 북경 인근인 연주, 운주를 중심으로 장성의 남쪽으로 이어지는 탁·계·단·순·영·막·울·삭·웅·신·균·유·무·환의 16주를 가리킨다.

314) 이정선, 『고려시대의 정치변동과 대외정책』, 경인문화사, pp.17-19, 2004.

315) 『高麗史』, 권2, 세가 태조 25년 10월.

없었다.³¹⁶⁾

결국 이 사건으로 요와 고려의 관계는 반세기 동안 악화일로를 걷게 된다. 이로써 993년까지 약 50년 동안 고려는 중원의 세력과 동맹을 맺어 북방 세력을 제어하고자 하는 정책을 펴게 된다. 이는 당-발해-신라 삼각 구조를 추구한 신라 외교의 재판이자, 역사적 유산이기도 했다.

고려는 이러한 외교 대전략에 입각하여 중원의 5대 국가들과 긴밀한 접촉을 실시한다. 하지만 이러한 외교정책은 결과적으로도 안정적이었던 당-신라-발해의 삼각 구조와는 심각한 차이가 있었다. 5대 국가들은 동아시아의 패권국 당과 달리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국가들이었으며 후량(907-923), 후진(926-936), 후당(936-947), 후한(947-951), 후주(952-960) 등 5개 왕조의 평균 수명은 10년 남짓에 불과했다. 반면, 옛 발해의 영역뿐만 아니라 일부 내륙 아시아 지역까지 포괄한 요(遼, 916-1125)는 육일승천하는 기세였다. 더구나 후진의 석경당은 후당을 무너뜨리기 위해 거란을 만리장성 너머로 끌어들었고, 거란은 936년 연운 16주라는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게 된다. 즉, 고려와 중원 국가의 외교는 요를 실효적으로 '억제' 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었다. 또한 고려 조정을 이끄는 양대 세력인 국종파나 화종파는 모두 존재와 피리되는 의식을 지니고 있었고, 이는 현실적인 외교정책의 추구를 어렵게 했다.

또한 당시 고려의 외교정책은 주도권을 쥐고 있던 화종파의 이데올로기적 모화사상(慕華思想)과 결합하면서 고려의 외교적 선택지를 더욱 줄이게 된다. 화종파는 거란이 양면전쟁을 수행하기에는 미약한 세력이라고 보고, 중원과의 교류를 통해 평화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파악했다. 이는 신라와 당의 재휴가 가져다 준, 200년 평화의 유산이었고 화종파는 변화하는 새로운 정치 현실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하지 않았다. 결국 이 시기 고려는 거란과 북방의 동향을 세밀하게 파악할 수 없게 된다.

993년, 거란의 소손녕(소항덕)이 대규모 침략을 해왔을 때, 고려는 아무것도 제대로 준비된 것이 없었다.

바. 서희라는 계기와 993년 체제

979년 정월 송 태종은 북한(北漢)을 정벌하려 군사를 일으킨다. 그러나 북한을 도우려는 거란의 원군의 등장으로 송 태종의 원정은 무위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그 해 5월 송은 2차 원정을 통해 북한을 멸망시켰고, 그 기세를 몰아 석경당이 거란에 넘겨준 연운 16주를 회복하기 위한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나 유주로 진격하던 중, 태종의 군대는 고량하(高粱河) 전투에서 거란의 군대에 대패한다. 이후 송 태종은 이 패전을 설욕하기 위해 군사를 재정비하면서 고려, 정안국(定安國, 926~986) 등

316) 구체적인 태조의 대거란 외교 정책과 그에 대한 해석은 서성호, 「고려 태조대 대(對)거란 정책의 추이와 성격」, 『역사와현실』, 34권, 1999.

과 동맹하여 배후에서 거란을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운다.³¹⁷⁾ 송 역시 ‘체제변경’ 세력이 된 것이다.

986년 거란이 여진에 대한 복속과 발해 계승을 주장하는 정안국을 공격하는 등 요동 정락에 나서자, 송나라는 감찰어사 한국화(韓國華)를 고려에 보내 거란을 협공할 것을 요구한다. 고려는 처음에는 들어주기 어려워하며 답변을 지연시켰으나, 결국 한국화의 연이은 독촉에 그의 제안에는 원칙적으로는 동의하게 된다.

송은 고려의 조건부 승낙을 받아낸 이후, 거란이 요동, 여진 정벌에 주력할 시점에 거란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다. 기주, 탁주, 고안, 신성이 되었고, 환주와 삭주가 송에 투항하면서 거란의 변방 방어선이 무너진다. 그러나 7월에 접어들어 전세는 역전되었고, 거란이 환주, 삭주를 재탈환하면서 전쟁은 거란의 승리로 끝난다.³¹⁸⁾ 고려군은 북방의 국경지대에서 송과 거란의 전쟁경과를 지켜보다, 거란이 승리하자 다시 회군하게 된다.³¹⁹⁾

거란은 요동 정락과 송과의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이로써 양면전의 어려움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 즉 송과 고려의 연계는 동아시아 패권국을 지향하는 거란으로서로는 도저히 방과할 수 없는 자극적인 일이었고, 결국 거란이 고려에 대해 느끼는 ‘위협’은 고려에 대한 거란의 침입을 불러오게 된다.

거란은 몇 년 간의 준비 끝에 993년 군사를 일으켜 고려를 침략한다. 북방에 이웃한 여진이 이 해 5월 거란의 청병을 고려에게 보고하였으나 고려 조정은 이를 믿지 않았다. 그래서 고려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같은 해 8월 여진이 다시와 정세의 급박함을 알려왔다. 고려는 그제야 군사를 정돈하기 시작했다.³²⁰⁾

거란과의 최초의 전투였던 봉산전투에서 고려가 패배하면서, 고려 조정은 충격에 휩싸인다. 거란의 침공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이에 대비한 준비가 미흡했기에, 고려 조정 일각에서는 차라리 절령(謁嶺) 이북의 땅을 떼어주고 화친하자는 할지론이 등장한다.³²¹⁾

할지론은 고구려 고토의 연고권이 거란에게 있으며, 고려의 서북방 지역 개척은 거란의 영유권에 대한 침탈이라는 소손녕의 주장에 일정 부분 동의를 표시한 것이었다. 이는 고려 조정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신라 계승 세력의 인식을 대표한다. 그들은 당이 735년 신라에게 대동강 이남의 영역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들며, 대동강 이북을 포함한 옛 발해의 영역에 대해서는 거란의 우위를 인정한 것이었다.³²²⁾

317) 김위현, 『고려시대 대외관계사 연구』, 경인문화사, p.14, 2003

318) 안주섭, 『고려 거란 전쟁』, 경인문화사, pp.44-45, 2003.

319) 김위현, 『고려시대 대외관계사 연구』, 경인문화사, p.15, 2003.

320) 김위현, 『고려시대 대외관계사 연구』, 경인문화사, p.18, 2003.

321) 『高麗史』, 권94, 열전7, 서희. ; 고려 조정에서 성급하게 할지론이나 항복론이 등장하게 된 전술적 배경에 대해서는 임용환, 「서희의 현실외교론의 형성과 1차 여요전쟁」, 서희선생기념사업회, 『명분과 실리, 서희의 외교론』, pp.21-23, 2008. 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도록 한다.

국종과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이들이 택할 수 있는 마땅한 현실적 대안이 존재하지 않았다.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고, 뚜렷하게 한반도 군주로서의 모습을 보이던 성종은 할지론을 선택한다. 존재와 괴리된 의식, 몇 백 년 동안 유지되어온 평화라는 달콤함에 취해있던 고려 외교는 큰 위기를 맞게 된다.

이 상황에서 서희가 외교 전면으로 나선다. 서희는 거란의 침공 의도 자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경 이북을 떼어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할지론자의 논리대로라면, 옛 고구려의 강역은 삼각산(북한산) 이북까지 해당되는 데 거란이 이를 요구해도 다 줄 것인지 반문한다.³²³⁾

이에 대해 국종과의 대부적인 전 민관어사 이지백(李知白)이 동조하면서 서희의 주장에는 힘이 실리게 된다. 이지백이 서희의 주장에 동조하게 된 것은, 성종 전반기 정치 주도층이 유교적 정치 이념을 시행하고 팔관회가 폐지되는 등, 화풍(華風)의 성행과 대송 일변의 외교 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한 일종의 비판이기도 했다.³²⁴⁾

결국 서희가 거란과의 외교 사신으로 자임하면서 고려 조정은 거란과의 답판을 시도하게 되었다. 소손녕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침공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첫째, 거란이 고구려의 옛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고려가 거란의 강토를 점령하였기 때문에 이를 토벌하려고 왔다. 둘째, 거란이 천하를 통일하였는데, 아직까지 귀부하지 않은 나라는 반드시 소탕할 것이니 지체 말고 항복하라는 것이었다.³²⁵⁾ 소손녕의 주장은 거란이 즉, 내륙 아시아 세력이었던 고구려의 진정한 계승자라는 의식을 반영하고 있었다. 고구려의 계승국이었던 발해를 거란이 멸망시키고 이 영역을 모두 차지했다는 자부심의 발로이기도 했다. 이는 역시 명분상 고구려 계승 세력을 자임하고 있던 고려와의 치열한 '정체성의 정치'를 예고했다.

이러한 소손녕의 주장에 대한 서희의 대답은 놀라운 것이었다. 그는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고려 외교의 발목을 잡았던 화풍과와 국종과가 상상할 수 없었던 제 3의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우선, 그는 고려가 신라가 아닌 고구려의 계승국임을 밝힌다. 그리고 그 근거로 국호를 고려로 한 점과, 평양에 도읍을 둔 것을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소손녕의 논리대로 협상을 전개하면 오히려 거란의 동경이 고려의 영토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서희는 우선 소손녕의 논리가 상대방에 의해서 반대로 전용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서희의 반론은 고구려란 국가가 지닌 복합적 정체성, 그리고 이를 상호 공유하고 있는 거란과 고려에게는 모두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

소손녕의 논리를 허물어뜨리며 협상에서의 우위를 점한 서희는 나름의 획기적인

322) 고구려 계승을 명시적으로 표방한 국가의 조정에서 이러한 주장들이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미루어볼 때, 고려 전반기 정체성의 혼란은 계속되어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23) 『高麗史』, 권94, 열전7, 서희.

324) 류주희, 「고려 초기의 정치세력과 서희의 국가관」, 서희선생기념사업회, 『명분과 실리, 서희의 외교론』, p.45, 2008.

325) 『高麗史』, 권94, 열전7, 서희.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거란을 '상국'으로 인정하고 조봉(朝聘)을 약속한 것이다. 한반도 세력이 중원 세력이 아닌 국가와 조공책봉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이전 역사에서 존재하지 않은 전무후무한 외교적 대사건이었다. 서희의 주장은 고려의 국가 정체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전까지 한국인들의 지역인식의 범위는 지금보다 훨씬 넓었다. 고구려의 멸망 이후에도 이러한 인식은 면면히 이어져 왔지만, 통일신라 이후 발해와 신라의 교류가 끊기면서, 한반도인의 내륙 아시아 정체성은 많이 탈각된다. 한국인의 한반도 정체성의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³²⁶⁾ 고려가 등장하면서, 한국의 정체성은 균열을 일으키고 내륙 아시아적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지만, 의지에 비해 고려는 이를 충분히 해낼만한 능력이 없었다. 전술했듯이, 한반도적 존재와 내륙 아시아 지향의 의식이 일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서희는 고려의 정체성적 분열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선다. 그는 명분상 고구려 계승의식을 내세워 거란의 논리를 무마한 대신, 실질적으로 거란을 상국으로, 그리고 거란을 만주에 존재하는 현실 국가로서 '인정'한다. 이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결국 만주나 요동 지역 등 옛 고구려, 발해의 강역에 대해 고려가 팽창정책을 펴지 않겠다는 무언의 암묵적 약속이기도 했다.

덧붙여 서희는 지금까지 거란과 고려의 통교가 험사리 이루어지지 않고 고려가 거란의 '천자'를 알현하지 못한 것은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여진 때문이었다고 밝힌다. 서희는 거란이 만일 여진을 내쫓고, 고려의 구지를 돌려주어 성을 쌓고 도로를 통하게 하면 감히 천자를 알현하는 예의를 치르지 않겠냐고 반문한다.³²⁷⁾

즉 현재 여진이 살고 있는 압록강 지역을 경계로 고려와 거란이 언제든지 논란이 될 수 있는 고구려·발해 강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고려의 보상은 송과의 관계를 끊고 요와의 조공책봉관계를 맺겠다는 것이었다.

서희의 변론은 거란의 입장에서도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었다. 우선 서희의 논변을 통해 우선 거란은 고려가 그 이름과는 달리 '한반도 세력'이 되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사실상' 대부분의 고구려 강역의 주인은 거란임을 고려에게 암묵적으로 승인을 받았다. 이를 직접 확인한 것은 거란의 입장에서 매우 큰 결실이 아닐 수 없었다. 이는 거란이 만주 지역에 대해 갖는 안보 불안감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정보였기 때문이다.

거란은 오랜 경험을 통해 전통적 '한반도 세력'이 군사적인 열세를 무릅쓰고 만주로의 팽창을 해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북방으로 진출하는 것은 중원과의 동맹 관계가 있을 때만 가능했다. 하지만, 지금 고려는 송과의 관계를 끊고

326) 손전태는 '고구려에 의한 민족통일이 실현되지 못하고 신라에 의하여 민족과 영토의 부분적 통일이 수행된 것은 민족적으로 큰 불행'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그러나 그것은 여하간 신라의 통일에 의해 조선 민족이 결정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손전태, 『朝鮮民族史 概論』, 을유문화사, pp.179-180, 1948.

327) 『高麗史』, 권94, 열전7, 서희.

요와의 조공책봉관계를 약속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 경우 이 지역의 안보 불안 요소는 획기적으로 감소될 수 있었다.

오히려 이 경우 고려보다 더 거란의 안보에 위협적인 세력이 될 수 있는 것은 만주와 한반도 북부에 거주하고 있던 여진이었다. 거란의 입장에서, 서희의 제안은 고려와의 조공책봉관계 수립을 통한 거란의 우위 확보, 안보 불안 요소인 '내륙 아시아 세력'인 여진족의 토벌, 이를 통한 고려와의 안보 레짐을 형성하는 1거 3득의 제안이었다.

소손녕은 이러한 서희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한다. 소손녕의 입장에서도 별다른 군사적 충돌 없이 거란 중심의 동북아 질서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³²⁸⁾ 결국 회담은 성사되고, 소손녕은 오히려 994년 2월에 고려가 안북부에서 압록강에 이르기까지 280리에 달하는 지역에 축성할 것을 미리 제안하기도 한다. 고려는 거란의 이러한 배려에 성의를 표시하기 위하여 동년 2월부터 거란의 연호를 채택했다. 고려는 건국 약 100년 만에 처음으로 거란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했고, 발해와 신라 때부터 소급하자면, 이는 약 200년 만에 일어난 대 사건이었다.

고려와 거란은 모두 강화회담의 이행에 착수했다. 고려는 여진이 거주하고 있던 압록강 동쪽 수백 리를 취함에 따라 장흥, 귀화, 광주, 귀주에 성을 쌓았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안의진, 흥화진에, 그 다음 해에는 통주, 맹주에 각각 성을 쌓았다. 이 지역에 강동 6주³²⁹⁾를 설치하여 행정 구역으로 편입시켰다. 강동 6주의 설치로 고려는 개국 처음으로 압록강 이남 지역이자 청천강 이북 지역을 자신의 영역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거란 역시 이득이 있었다. 거란은 압록강 지역의 요충지인 보주(保州)지역을 확보해서 고려와 여진에 동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거란의 보주 지역 확보는 고려의 북방 진출을 막는 역할을 하기도 했으며, 결과적으로 고려의 북진은 더 이상 불가능해지게 된다.

이제 문제가 된 것은 고려와 송과의 외교 관계였다. 고려는 송과의 관계를 단절할 명백한 명분이 없었다. 결국, 994년 고려는 송에 외교 사절을 보내 거란과의 전쟁을 벌일 태니 군사를 보내달라는 무리한 요청을 하게 된다. 송은 당시 이러한 고려의 요청을 들어줄 입장이 아니었고, 이에 대한 불가의 대답을 보낸다. 고려는 이러한 송의 대답을 빌미로 송과 단교하고 최종적으로 거란과 화약을 맺게 된다.³³⁰⁾ 이른바 993년 체제의 시작이었다.

328) 이러한 거란의 외교 전략은 후에 송에게도 반복된다. 거란은 1004년에 송과의 일전을 통해 '천연의 방'을 맺게 된다. 그 내용은 양국이 형제 관계(송이 형, 거란이 동생)를 맺고, 송이 거란의 연운 16주 영유를 인정하고 거란에 비단 20만 필, 은 10만냥의 세폐를 보낸다는 것이었다. 박한남, 「10-12세기 동아시아 정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15권 -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국사편찬위원회, p.233, 1991.

329) 강동 6주는 흥화진, 용주, 통주, 철주, 귀주, 광주이다.

330) 김위헌, 『고려시대 대외관계사 연구』, 경인문화사, p.24, 2003.

사. 993년 체제 이후 한반도의 정체성

서희가 수립한 993년 체제 아래 고려인들은 건국 이후부터 계속되어온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제 고려의 영역은 압록강 이하의 지역으로 압묵적으로 확정—또는 옹고—되었다. 서희와 소손녕의 협상은 고려 영역의 확장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축소**이기도 했다.

고려와의 합의 이후 거란은 명실상부한 동아시아의 군사적 패권국으로 떠오르게 된다. 990년에는 서하를, 993년에는 고려를 자신의 안보 레짐 아래 끌어들이는 거란은 1004년에 드디어 송에 대한 총공격을 실시한다. 송의 수도 개봉 근교 전주에서, 송의 진종과 거란의 성종은 협약을 맺는데, 이를 '천연(澶淵)의 맹'이라고 한다. 송과 거란은 이 맹약에서 양국 사이의 현상 유지를 약속한다. 그 대신 거란은 송으로부터 매년 비단 20만 필과 은 10만의 세폐를 약속받게 된다. 거란은 중원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지는 않았지만, 자국의 우위를 송으로부터 인정받았으며, 막대한 세폐 수입이라는 실리를 취할 수 있었다. 거란 우위 동아시아 질서의 완성이었다.

고려는 993년 서희·소손녕 합의 이후에도 거란과 여러 차례, 오랜 기간에 걸친 후속 전쟁을 거치게 된다. 이는 정체성의 변화 과정에서 벌어진 일종의 이행기적 현상이었다. 이를 통해 역설적으로 고려는 자신의 존재론적인 위치를 고민하게 된다.

지금까지 고려에서는 자신을 송과 더불어 하나의 '소종화'로 여기는 지적 흐름이 존재했다. 또한 동전의 양면처럼 반대로 외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이 자국이 천하의 제왕이라는 일종의 '오지' (奧地)적 사고도 존재했다. 하지만, 거란과의 잇단 전쟁의 경과에서 드러났듯이 이제 송은 실질적으로 고려를 도울 수 있는 세력이 되지 못했다. 이러한 현실적 여건 속에서 고려는 중원에 대한 안보적, 이태올로기적 의존이 아닌 자신 스스로 외교 국방 정책을 펼쳐야 하는 법을 배워나간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고려는 자신의 '반도 정체성'과 전략적 외교의 가치를 터득하기 시작한다.

고려는 거란과의 방어 전쟁을 승리를 이끌면서 동아시아의 주도권이 일방적으로 거란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았다. 이후, 고려와 거란은 다시 993년 체제 아래로 복귀하여 고려는 요와는 정치·군사적인 관계를 송과는 문화·경제적인 관계를 지속해나갔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려는 요의 우위를 인정한 993년 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은 표하지는 않았다. 대신 고려는 송과 거란에 대한 적절한 정치적·군사적 대응을 준비했다. 이것이 천연의 맹 이후 요와의 군사적 충돌은 없었지만, 1004년 체제에 대한 깊은 원한을 품고 있는 송과의 차이점이었다.

당시 고려의 새로운 정체성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1033년부터 축조하기 시작한 천리장성(千里長城, 高麗長城)이었다. 1033년 고려 덕종은 평장사 유소(柳韶)에게 명하여 북경관성, 즉 천리장성의 축조를 명한다.³³¹⁾ 유소는 북계 송령 동쪽에서 장성을 축조하여, 서해안에서 송령 일대에 이르는 구간을 우선 완성했다. 이후 그는 다

331) 『高麗史』, 권5, 덕종 2년 8월.

시 동계 지역의 축성을 진행하여 정변진(1039), 환가현(1041), 장주, 정주, 원흥진(1044), 선덕진, 영흥진에 성을 쌓았다. 이로써 북계와 동계를 연결하는 천리장성이 완성되었다. 천리장성의 축성은 이제 내륙 아시아를 꿈꾸는 세력이 아니라 한반도 세력이 된 고려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보여주었고, 내륙 아시아 세력과 고려의 문명적 경계가 이제 비교적 분명한 지리적·정치적·문명적 경계선으로 등장한 것을 의미했다.³³²⁾

993년 체제에도 위기가 찾아온다. 11세기에 이르러, 200년 동안 유지되었던 동북아 삼각관계는 균열을 일어나기 시작했다. 지역 패권국 요가 내분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요의 강역 내부에서 여진이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송나라 휘종은 재빨리 여진과 동맹을 맺고 고려와의 군사적 동조를 도모한다. 송은 고려를 방기란 군사동맹에 끌어들이기 위해 고려에 주는 하사품을 이전의 배로 늘리고 고려의 학생이 송 수도에서 공부할 수 있을 것을 허락하며, 기존의 요의 사신에게만 적용한 국신사의 지위와 대우를 고려에게도 부여했다. 송은 고려가 조공을 통하여 오랫동안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음을 상기시키면서 문화적 공통점을 강조하면서 고려를 포섭하려고 전심을 다한다.

그러나 고려는 요의 위기가 고려에게 일종의 '위협'이 되지 않고 있음을 인식하고 고려는 방어적 균형자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할 것을 송에게 전한다. 이는 고려가 거란과의 관계에서 수차례의 전란을 통해 얻은 전략적 지혜였다. 또한 고려는 송에게 설령 요가 여진에 의해 무너지더라도 이는 송에게 전혀 득이 될 것이 없다고 충고한다. 고려의 지배층은 요가 송과 평화관계를 맺은 후 북방에서 송을 사실상 외호해왔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세력균형에 입각한 기존 국가 간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송에 표시한 것이다.³³³⁾

12세기 초 결국 요가 여진과 송의 협공으로 무너졌지만, 과연 고려가 예측한 대로 여진의 금(金, 1115-1234)은 다시금 송에게 위협적인 세력이 되었다. 금은 요보다 더 적극적으로 중원 진출을 도모하여 1126년 송의 수도 개봉을 함락시킨다. 그 결과 금나라의 주도권이 더욱 강화된 새로운 세력균형 모델이 성립되게 된다. 송의 외교적 패착으로 북방 정복 국가는 요 때보다 더욱 남진한 상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은 군(君), 송은 신(臣)이 되어, 송이 형(兄), 요가 아우(弟)였던 남북의 형식상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역전되었다.³³⁴⁾

기민한 외교정책으로 금과의 별다른 외교적 마찰을 벌이지 않았던 고려는 다시금

332) 후에 천리장성 이북의 윤관의 9성을 여진에게 돌려준 것 역시 이러한 '천리장성' 적 사고방식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윤관의 9성 반환은 그야말로 고려 조정의 관리들의 인식 속에서 고구려 계승 의식이 사라져간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333) 채웅석, 「11세기 후반-12세기 전반 동북아시아 국제정세와 고려」, 역사학회 엮음,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일조각, p.151, 2006.

334) 송은 이와 같은 실수를 금이 몽골에 의해 멸망할 때 한 번 더 반복하게 된다. 그 결과 송은 몽골에 의해 멸망당한다.

금 주도의 안보레짐에 자연스럽게 편입된다. 고려가 상표청신하자 금은 이전 요의 영역이었던 보주를 고려가 영유하는 것을 허락한다. 993년 서희-소손녕 합의의 재반복이었다. 금은 과거 요와 마찬가지로 고려와의 관계에서 군사적 긴장보다는 금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질서를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고려 내부의 저항이 없던 것은 아니었다. 인종 4년 금이 고려에 신하의 예를 요구해오자 조정에서 격론이 벌어졌고 이에 대하여 이전까지 정치적으로 복속되었고 문화적으로 일세에 있는 주변 오랑캐 국가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을 국가적 수치로 보는 사람들 역시 존재했다. 이러한 흐름은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으로 이어진다. 1135년부터 1136년까지 이어진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은 993년 체제에 대항한 고려 내부의 마지막 저항 운동이었다.

금 주도의 국가 간 질서가 안정되고,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이 진압되면서 다시 동아시아 국가 간 질서에는 백년간의 안정이 찾아온다. 이러한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킨 힘은 만리장성 이북인 몽골에서 일어났다. 몽골은 만주와 중원 북부의 금나라뿐만 아니라, 중원 남부 남송, 서하를 모두 정복하면서 기존의 삼각관계의 한축을 무너뜨렸다. 김한규의 표현을 빌리자면, 만주-중원 통합 시대라는 새로운 국가 간 질서가 탄생한 것이었으며 이로써 삼각질서를 기본 축으로 짜여있던 993년 체제는 역사적 종언을 고한다. 이제는 만주-중원 통합을 기반으로 압도적인 힘을 자랑하는 새로운 중국이 등장한다. 역설적이게도 이상으로만 그치던 중국적 세계질서를 현실화한 것은 한족 왕조가 아니라 몽골족의 원 제국이었던 것이다.

III. 결론

장구한 전통 동아시아 국가 간 관계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우선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중국과 한국은 모두 단일한 실체가 아니었다. 오히려 중국 이전에 현 중국의 영역에는 수많은 '역사공동체'들이 존재했다. 한반도에서도 요동·내륙 아시아 역사공동체와 친화성을 갖는 고구려라는 국가가 7세기까지 존속했으며, 발해까지 포함하면 요동 역사공동체와 한반도의 일체성은 9세기까지 이어진다.

물론 발해와 신라와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한반도의 대륙 정체성은 요동·만주 역사공동체로 흡수되고, 신라는 한반도 지향성을 지니게 된다. 정체성이 아니라 지향성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신라 내부에 고구려 계승을 주장하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반도의 한반도적 정체성이 돌이킬 수 있는 불가역성을 띠게 된 것은 고려 시기 서희의 안용진 담판을 통해서였다. 서희라는 계기를 통해 수립된 993년 체

제는 고려의 영역을 확장하기도 했지만, 긴 안목에서 봤을 때 이제 고려는 내륙 아시아 경영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대신 고려는 한반도 내부의 국방력을 재정비했고, 거란과의 여러 차례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동아시아의 방어적 균형자로 성장한다. 고려는 주변 국가의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을 지향한 외교를 추구하였다. 그 결과, 고려는 11세기 경 국가적 전성기를 누리게 된다.

993년 체제는 원 제국 이후 강력한 중국(요동-중원) 세력의 출현에 따라 한반도의 상대적 자율성이 약화된 조공제도로 변질되어간다. 조선조 중기에 들어서면 명과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반도적 정체성은 동국(東國) 의식으로 고착된다. 대륙 친화적인 반도 정체성으로의 회귀였다. 이후 조선은 바다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나 중세가 육지의 시대였다면, 근대는 바다의 시대였다.³³⁵⁾ 1592년 임진왜란의 발발은 이미 16세기 동아시아에 바다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일종의 신호탄이었다. 하지만 조선의 지배층들은 전쟁을 통해 아무 것도 깨닫지 못했다. 결국 그들의 지적 무능은 약 300년 뒤 조선은 일본에 합병되는 수모로 이어진다. 일본의 식민 통치와 이후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통해 이제 한국은 993년 체제 이후 지니게 된 반도 정체성이 아닌 뚜렷한 해양 지향성(혹은 정체성)을 띠게 되었다.

미국의 패권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동아시아—특히 중국—이 부상하면서 다시금 동아시아에는 세력 변환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격변하는 ‘대변환의 시대’, 그 시대를 슬기롭게 돌파하는 지혜는 1000년 전 바로 이 땅에 있는 지도 모른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993년은 우리의 ‘오래된 미래’ 다.

335) 주경철, 『대항해시대 : 해상팽창과 근대 세계의 형성』,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참 고 문 헌

- 고구려연구회 엮음, 『서희와 고려의 고구려 계승의식』, 학연문화사, 1999.
- 고구려연구회 엮음, 『고구려 정체성』, 학연문화사, 2004.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15권—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국사편찬위원회, 1991.
- 김부식 지음, 이강래 옮김, 『삼국사기』, 한길사, 1998.
- 김용구, 『세계관 충돌과 한말 외교사, 1866-1882』, 문학과지성사, 2001.
- 김용구, 『만국공법』, 소화, 2008.
- 김위현, 『고려시대 대외관계사 연구』, 경인문화사, 2003.
- 김한규, 『한중관계사 I』, 아르케, 1999.
- 김한규, 『요동사』, 문학과지성사, 2004.
- 김한규, 『천하국가 : 전통시대 동아시아 세계질서』, 소나무, 2005.
- 남궁곤, 「동아시아 평화체제에 관한 연구—조선 사행록을 통해 본 18세기 조공체제」, 『한국정치학회보』, 33집 3호, 1999.
- 노계현, 『고려외교사』, 갑인출판사, 1994.
- 노명호, 「고려시대의 다원적 천하관과 해동천자」, 『한국사연구』, 105호, 1999.
- 노태돈, 「5세기 금석문에 보이는 고구려인의 천하관」, 『한국사론』, 19호, 1988.
- 니시노 히로요시 지음, 김석희 옮김, 『말과 황하와 장성의 중국사』, 북북서, 2007.
- 서성호, 「고려 태조대 대(對)거란 정책의 추이와 성격」, 『역사와현실』, 34권, 1999.
- 서희선생기념사업회, 『명분과 실리, 서희의 외교론』, 2008.
- 손열 엮음, 『매력으로 엮는 동아시아 : 지역성의 창조와 서울 컨센서스』, 지식마당, 2007.
- 손진태, 『朝鮮民族史 概論』, 을유문화사, 1948.
- 신재호 지음, 박인호 옮김, 『조선사연구초』, 동재, 2003.
- 안주섭, 『고려 거란 전쟁』, 경인문화사, 2003.
- 알렉산더 웬트 지음, 박건영 외 옮김, 『국제정치의 사회적 이론 : 구성주의』, 사회평론, 2009.
- 역사학회 엮음,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일조각, 2006.
- 이기백, 『한국사신론』, 일조각, 1999.
- 이도하, 「삼국의 상호인식을 통해 본 고구려 정체성」, 『고구려연구』, 18권, 2004.
- 이삼성,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전통시대 동아시아 2000년과 한반도』, 한길사, 2009.
- 이우성, 「남북국시대와 최치원」, 『창작과비평』, 38호, 1975.
- 이정신, 『고려시대의 정치변동과 대외정책』, 경인문화사, 2004.
- 일연 지음, 이민수 옮김, 『삼국유사』, 을유문화사, 2001.

- 임형택, 『문명의식과 실학—한국 지성사를 읽다』, 돌베개, 2009.
- 전해중, 『한중관계사연구』, 일조각, 1970.
- 정문길·최원식·백영서·전형준 엮음,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 문학과지성사, 1995.
- 주경철, 『대항해시대 : 해상팽창과 근대 세계의 형성』,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 최원식·백영서 엮음, 『동아시아인의 '동양' 인식 : 19-20세기』, 문학과지성사, 1997.
- 최희재,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국 : 14-19세기의 변화를 중심으로」, 『史學志』, 39권, 2007.
- 피터 윤, 「서구 학계 조공제도 이론의 중국 중심적 문화론 비판」, 『아세아 연구』, 45권 3호, 2002.
- 피터 윤, 「몽골 이전 동아시아의 다원적 국제관계」, 『만주연구』, 3권, 2005.
- 하영선·김상배 엮음, 『네트워크 지식국가』, 을유문화사, 2006.
- Alexander Wendt, 「The Agent-Structure Proble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41, 1987.
- John K. Fairbank ed. 『*The Chinese World Order*』,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 John K. Fairbank and Denis Twitchett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 vol.6-Alien Regimes and Border Stat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 Paul J. Smith and Richard von Glahn eds. 『*The Song-Yuan-Ming Transition in Chinese History*』,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03.
- Pierre Renouvin · Jean-Baptiste Duroselle, 『*Introduction à l'histoire des relations internationales*』, Librairie Armand Colin, 1970.

위기관리로 보는 사회

-제 1차 고거전쟁 분석-

원광대학교 : 서경수

<목 차>

I. 서론

II. 위기관리에 대한 이론적 고찰

III. 시대상황

IV. 위기관리로 보는 1차 고거전쟁

V. 결론

I. 서론

세계는 탈냉전의 분위기에서 자유와 복지 추구를 위한 세계국가를 지향하며 EU와 같이 주변 문화적·경제적 유대감이 있는 도시들은 지역기구를 만들어 교류를 증진하기 시작했으며, 대한민국에서도 개인주의적인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추구하며 연일 반정부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북한과의 적대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대화를 통한 교류와 화해의 증진을 하고 있는 등 한반도에도 새로운 안보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세계의 국가를 막론하고 국가안보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으며 가장 핵심적인 국가이익으로 간주된다. 항상 전면적인 전쟁발발의 위협이 상존하던 냉전시대나 국제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그 이전에는 국가안보를 위한 국가적 대비태세 확립에 전 국민적 호응을 얻을 수 있었고, 국민 개개인도 이러한 안보정신이 투철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평화와 긴장완화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전체의 안전보다는 개인의 삶의 질과 같은 가치가 더욱 우선시되었다. 이에 새로운 차원의

위기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한편 학교에서도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이 남한과 동북아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대상이 아닌 북한의 안보를 위한 필연적인 것이라는 인식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다. 이에 국가안보를 위한 전쟁억제와 전시대비라는 안보개념은 약화되며 그릇된 가치를 가지게 된 국내의 제5열의 활동에 의해 국가는 더욱 분열되고 있다.

한국은 국내의 문제가 북한이라는 필연적 경쟁자에 의해 국제문제로 확장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 내부 문제가 발생하면 북한은 이것을 악용하여 북한 내부의 체제 단합과 한국에 대한 비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남북관계의 악영향을 미치며 한국에 위기를 다가오게 한다.

위기에 대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서, 각종 테러행위의 증가, 비군사적 행동에 의한 파괴 및 소요사태 발생 등의 현상의 증가와 관련이 깊다. 또한 탈냉전시대에 접어들면서 대규모 전쟁의 가능성은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국지적 분쟁의 가능성은 증대되고 있다. 특히 영토가 작은 한반도에서 북한과의 국지전은 언제든지 전면전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한반도의 분쟁은 반도의 지정학적 특징에 따라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한국전쟁 당시에도 중국과 소련으로 대표되는 대륙세력과 미국을 대표로 하는 해양세력간의 충돌이 있었고, 일제식민지 시대에는 일본의 식민지배가 있었고, 그 이전에는 청나라로 대표하는 대륙세력의 영향에 한반도가 있었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로 인한 약소국의 비극적 운명은 근대에 들어 유럽에서도 나타난다. 러시아와 독일 사이에 있는 폴란드,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독일과 이탈리아 사이에 있는 스위스, 오스트리아 모두 한반도와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역사가 반복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먼저 위기관리에 대해서 이론적인 고찰을 하여 위기관리의 고려 요소를 살펴보겠다. 그리고 시대상황을 분석하여 과거 고거전쟁 당시 고려가 어떠한 상황에 직면했는지에 대하여 위기관리측면에서 분석하겠다. 그리고 위기관리측면에서 1차 고거전쟁을 분석하는 순으로 이 글을 쓰겠다.

II. 위기관리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위기의 정의

‘위기’란 위험한 고비나 시기로 어떤 상태의 안정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세의 급격한 변화 또는 어떤 사상의 결정적이고도 중대한 단계를 나타낸다. 특히 상황의 급작스러운 변화로 개인이나 사회에 강력한 충격이 될 수 있는 사건을 말한다. 즉 위기관 시간적 급박함과 상황적 위태로움을 특징으로 하는 중대한 전환기적 상황을 의미한다.

‘위기’에 대해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자. 위기는 위협과 다르게 한 행위자가 자신이 위협을 받아 위험한 상황에 처했음을 인식하고 즉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상황을 말한다. 즉 당면한 상황에 대한 행위자의 ‘주관적인 인식과 판단’이 개입된 것이라는 점에서 객관적인 상황을 지칭하는 ‘위협’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이는 서양에서 위기(Crisis)라는 말의 어원이 판단, 결단, 선택, 식별 등을 의미하는 희랍어 Krisis에서 유래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다 명확해진다.³³⁶⁾ 또한 위기는 적대행위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증가되고, 반응할 시간이 짧은 가운데, 중대한 목표나 가치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정책결정자들의 마음에 불러일으키는 국제적 혹은 국내적 환경의 변화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³³⁷⁾

흔히 국제정치학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위기상황을 평화와 전쟁의 분기점으로 파악하고, 국가 간의 상충된 이해관계가 표출되어 갈등이 극도로 고조된 전쟁발발 직전의 급박한 상황을 지칭한다. 그래서 국제적 위기상황은 구조적 변화, 불안정성, 전화기, 급박함, 위협의 인지, 노심초사, 폭력발생 가능성, 불확실성 등의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국가위기의 종류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위협에 사용된 폭력성의 정도에 따라 고강도 또는 저강도 위기, 지속 정도에 따라 단기적 또는 장기적 위기, 위협내용의 성격에 따라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 위기, 위협요소의 발생소재에 따라 인위적 또는 자연적 위기, 유발원인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 단일적 또는 복합적 위기, 발생빈도에 따라 1회적 또는 반복적 위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³³⁸⁾

이러한 위기상황이 지니는 근본적인 특징으로는 국가의 상위가치에 대한 위협, 상황 발달의 돌발성 또는 의외성, 대응방안 결정에 필요한 시간의 제한성, 사태진전의 불확실성, 국제체계 구조에 심각한 충격이나 변혁을 초래할만한 사건 등이 대표적인 것들로 지적된다. 이러한 위기가 지닌 근본적 특징 때문에 위기는 행위자를 심각하

336) 이극환, 『정치학』, 법문사, p. 94, 2004.

337) 조영갑, 『한국위기관리론』, 팔복원, p.35, 1995.

338) 육군사관학교, 『국가안보론』, 박영사, p. 203, 2006.

고 긴급하며, 불확실한 여건에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과 선택을 강요함으로써 행위자를 더욱 불안하고 힘들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³³⁹⁾

2. 위기관리의 유형과 절차

‘위기관리’는 위기상황을 관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당면한 위기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사태를 수습하여 원상회복 또는 상황개선을 추구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국가 위기의 성공적 관리에는 잠재적으로 상충되는 두 가지의 목표, 즉 위협을 가하는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자신이 확인한 패배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표와 전쟁발발과 같은 과극으로의 확대상황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기관리의 본질은 전쟁을 회피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이득을 최대화하거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강압과 회유 두 가지 전략을 최적의 비율로 혼합하여 구사하는 데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위기관리를 몇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³⁴⁰⁾

첫째는 교섭적 위기관리이다. 이것은 위협의 근원이 상충된 이해관계에 있는 상대의 고의적이고 직접적인 도발행위로부터 유발된 위기상황을 해결하려는 노력이다. 따라서 이 경우 위기관리업무의 요체는 성공적인 위기협상의 수행이다. 다시 말해 교섭적 위기관리란 이익의 양보, 관철 또는 상호 조정을 위한 흥정이나 협상을 통한 상호 작용적인 위기의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다.

둘째는 수습적 위기관리이다. 이것은 타국의 실수나 오류 또는 무의식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에서 위기가 연유된 경우와 자연적 · 인위적 재난재해 또는 대형사고로 인해 발생한 긴급사태에서 위기가 야기된 경우의 두 가지 경우의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태수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태수습의 최종목표는 때에 따라서 원상회복 차원을 넘어 원래보다 발전되거나 개선된 상태를 지향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는 적응적 위기관리이다. 이것은 위협의 근원이 국제 및 지역주변의 질서나 구조의 갑작스런 변화, 즉 상황적 변화에서 발단된 경우에 대처하는 것이다. 특히 당면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실체파악과 상황분석,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수립을 통해 변화된 새로운 환경과 질서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원만하게 적응하도록 하는 일이다.

이렇게 발생한 위기를 관리하는 과정은 위기의 진행과정을 중심으로 3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³⁴¹⁾

339) 위의 책, p.203.

340) 이 내용은 육군사관학교, 『국가안보론』, 박영사, pp. 206~207, 2006.의 내용을 재구성하였음.

341) 이 내용은 김열수, 『21세기 국가위기관리체제론-한국 및 외국의 사례비교연구』, 오름, pp.45~28, 2005.

첫째는 위기발생전의 위기관리이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발생요인을 미리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활동이다. 또한 예상되는 위기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태세를 구축하는 것이 위기발생 전의 위기관리에 포함된다.

둘째는 위기상황에서의 위기관리이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위기에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로 줄이고, 2차적인 위기발생을 억제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다.

셋째는 위기상황후의 위기관리이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복구이다. 또한 재발방지과 위기에 취약한 구조적 근원적 원인을 제거하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3. 위기관리의 유의사항³⁴²⁾

일반적으로 위기상황에서 정책결정자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상황발생과 사태진전의 불확실성, 미숙한 정보처리방법, 부정확한 정보, 너무나 많은 잡다한 정보, 원만하지 못한 의사소통, 상이한 가치체계, 가변적인 위기관리 목표, 정치적인 외압과 당혹감, 부적절한 실행계획, 상황과 방안에 대한 파악시간 제한 등 많은 어려움이 이러한 난관에 속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제시하려고 한다.

첫째 협상전략의 간과이다. 위기협상의 전략을 선택할 때 유의해야 할 점으로 근본적인 전략의 성격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위기상황에서 전략변화를 시도하기 위한 공세적 전략과 현상유지를 위한 방어적 전략이 있다. 공세적 전략에는 협박, 제한적이고 전환 가능한 시험적 행동, 절제된 압박, 신속하고 결단적 행동을 통한 기정사실화, 게릴라전이나 테러와 같은 소모전 전략 등이 해당된다. 방어적 전략은 강압적인 외교, 제한된 위기의 확산시도, 신중히 계산된 응징, 위기확대를 억제하는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능력을 시험, 상대방에게 자신의 결의를 보여주는 한계선 획정전략, 협상을 통한 해결모색을 위해 시간벌기전략 등이 있다. 구체적인 위기상황에서는 두 종류의 전략을 병행하여 구사하게 되겠지만 성격의 근본적인 차이를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선택하면 보다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정보의 정확한 분석이다. 당면한 위기가 완전히 의외의 돌발 사태이면 위기에방을 위한 감시와 경보체제에 문제가 있고 부족한 정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일단 위기가 발생하면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고민하게 된다. 왜냐하면 정확한 상황파악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정보수집에 대한 독촉이 심해진다. 따라서 물밀듯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상대의 의도와 전략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정

을 진행과정 중심으로 재구성하였음.

342) 이 내용은 육군사관학교, 『국가안보론』, 박영사, pp. 214~215, 2006.의 내용을 재구성하였음.

확히 알려주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셋째는 이미지와 신념의 파악이다. 위기에는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고 그 속에서 즉각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책결정자들은 자신이 평상시 지니고 있던 신념체계나 이미지에 의존하여 상대방과 사태를 평가하는 수가 많다. 그러나 이런 주관적인 기준에 의한 성급한 결정은 자칫 그릇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위기에는 이미지와 신념체계에 대한 검토가 각별히 요구된다. 특히 위기상황에서 상대방의 이미지와 신념체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상황파악과 흥정·협상 등 전략적 선택에 커다란 도움이 되는 것이다.

넷째는 외교와 군사력의 배합이다. 위기상황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위기를 해소하고 안정을 되찾고자 노력하게 된다. 그런데 당연히 가능하다면 무력의 사용은 자제하려고 하겠지만, 문제의 해결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또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때로는 강압적인 군사적 수단이 요구되기도 한다. 요컨대 외교적인 방법과 군사적인 수단을 적절하게 잘 배합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는 스트레스와 피로의 작용이다. 위기관 구조적으로 당연히 긴장과 스트레스를 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스트레스와 일의 능률이나 판단력과의 관계는 종 모양의 곡선으로 표시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긴장감은 오히려 일에 대한 집중력을 높여주고 보다 능률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어떤 일정수준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시 집중력과 분석력을 저하시키고 피로감을 더욱 많이 느끼게 한다. 그렇게 되면 위기상황에서 정책결정자들은 실제보다 더욱 더 강한 시간의 촉박함을 느끼고 대안검토에 소극적이고 빠른 결정에만 집착하는 수가 있다.

III. 시대상황

위에서 위기와 위기관리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위기는 언제든 올 수 있으므로 항상 대비해야 한다. 특히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교차로이므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위협에 상존해있다.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세력으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개국을 들 수 있는데, 이 국가들은 세계적인 강대국이다. 이 국가들의 힘의 균형이 깨지고, 동아시아의 질서가 재편되었을 때에는 한반도에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

위기는 과거에도 있었다. 조선 말기 일본의 성장으로 동아시아 질서가 재편되고 있을 때 한반도의 주도권을 놓고 청나라, 러시아, 일본 3개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였다. 그 이전에 명·청 교체기에 인조의 외교는 청나라의 침공을 유발하여 조선의 위기상황을 조성하였다. 고려시대 초기에도 이러한 세력변화에 따른 위기는 있

었다. 거란과 송의 등장으로 인해 동아시아의 질서가 개편되었다. 이에 고려는 위기 상황을 받게 되었다.

이렇듯 동아시아의 세력균형이 변하면 이에 따라 위기가 역사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번 단락에서는 당시의 위기상황이 조성되는 배경인 동아시아의 세력균형에 대해 살펴보겠다.

1. 거란의 전략

일반적으로 국가의 전략적 목표는 생존과 번영이다. 국가는 외교나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 국가를 이루는 구성원들도 이러한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의 사용에 기여한다.

고려와 거란과의 전쟁 당시 거란의 왕은 성종이었는데 그는 982년 12세의 나이로 즉위했다. 어린 성종이 즉위하자 모후인 승천황태후가 섭정을 하게 되었는데 섭정기간이 약 20년 이상을 지속했으므로 이 시기 거란의 정책은 모후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후는 성격이 강인한 진보파로서 거란의 정책은 다시 군사 강경노선으로 선회했다.

당시 동북아의 강대국은 거란과 송이었다. 거란은 군사 강대국으로 거란은 본래 유목민족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사냥과 수렵이 익숙하고, 따로 군사훈련을 하지 않아도 모든 주민이 동원될 수 있는 훌륭한 전사였다. 반대로 송은 거란이 부족한 식량과 같은 자원이 많은 경제 강국으로 동북아에서 거란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간주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란과 송은 동북아의 패권을 놓고 경쟁을 할 운명에 놓여졌다.

거란이 비록 군사 강대국이기는 하나 송나라와 여진 그리고 고려의 협공을 견딜 정도는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란의 선택은 2가지로 할 수 있다.

첫째는 모든 병력을 집중하여 송나라를 속전속결로 격파한 후 동진을 통해 여진과 고려를 치는 것이다. 당시 송나라는 과거제도를 통해 중앙집권체제를 이뤘고, 거란에게 빼앗긴 연운 16주를 탈환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기 때문에 거란이 송을 확실히 이길 가능성이 낮고, 이긴다고 하더라도 여진과 고려가 거란이 약해진 틈을 타 공격해온다면 결국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둘째는 여진과 고려를 정벌하여 송나라와의 전쟁동안 거란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당시 거란의 동쪽에는 정안국과 여진, 그리고 고려가 있었는데 이곳은 지형이 험하고, 여진과 고려의 군사가 송에 비해 적지 않았다. 또한 최악의 경우 거란에 대해 송과 여진, 그리고 고려가 동맹을 맺어 공격할 경우에는 거란은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된다.

하지만 당시 서하가 송과 거란의 전쟁을 통해 약화된 서쪽 국경을 공격함으로써 송나라는 더 이상 북벌을 할 여력이 없었다. 송의 패색이 짙어지자 서여진은 재빨리

거란에 접근하고 조공사 파견도 잦아졌다.³⁴³⁾ 상황이 거란에 긍정적으로 전환되자 거란은 여진과 정안국 등 압록강을 통해 송과 교류하는 국가들의 교역로를 막고, 고리를 힘으로 누르고 다시 송나라를 압박하여 동북아의 패자를 노리는 전략을 펼 가능성이 높아졌다.

2. 송의 전략

송은 중국을 평정했으나 안정을 찾지는 못했다. 먼저 중국을 평정한 지 얼마되지 않아 지방 군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거란이 연운 16주 지역을 차지하고 또 이 지역이 남진을 위한 기지로 활용되어 언제든지 송나라 침공을 위한 기지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하가 어부지리를 노려 후방을 계속 약탈하고 그 세력을 확대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송은 거란과의 관계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물론 송이 당면한 가장 큰 위협은 서하보다는 거란이었다. 거란은 군사적으로 송을 능가했기 때문에 동북아에서 송을 제압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국가였다. 그러므로 송은 거란을 막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서하를 피하고 정안국과 여진, 고려와의 교류를 통해 거란을 저지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이들 국가는 거란의 성장에 대한 공통적인 경계심이 있었음으로 공통된 이익이 존재했다.

송은 981년 정안국에 사신을 보내 거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비밀리에 제의한 바 있는데 이러한 송의 제의는 수륙 양면에서의 거란 공략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송과의 군사동맹을 갈망해 온 정안국으로서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정안국왕 오현명은 그의 답변에서 조부 때부터 거란의 공격을 받아온 울분을 토로하고 송의 비밀계획에 적극 동의해 조상의 원수를 갚겠다고 굳게 약속했다.³⁴⁴⁾ 또한 송나라는 985년에 고려에 한국화(韓國華)를 특사로 파견해 거란을 공격하기 위한 군사를 고려가 동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³⁴⁵⁾

이로서 송은 거란의 동쪽에 있는 주요 국가인 고려와 정안국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직접 연운 16주로 진격해 거란과 전쟁을 벌이지만 큰 성과가 없이 고려와 거란전쟁 전까지 전선이 교착상태에 이르렀다.

3. 고려의 전략

343) 『요사』 11권 성종기2 통화 4년.

344) 『송사』 481권 정안국전.

345) 『고려사』 세가 3권 성종 4년.

고려는 삼국을 통일한 후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임을 천명하여 국호를 고려라 하였다. 이것은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하는 정통성 있는 국가임을 강력하게 표현한 것이다. 즉 후삼국을 통일한 것은 후백제나 신라를 계승한 것이 아닌 고구려를 계승하여 앞으로 고구려의 옛 영토의 회복을 추구하며 이를 정당화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에 고구려 계승 의식이 있던 발해와의 통일 의지를 내세운 것이다.

태조 왕건은 “옛 도읍 평양이 황폐된 지 오래되어 터는 남아 있으나 가시나무가 우거지고 변인들이 그 사이에서 사냥하고 침략해 피해가 크니 마땅히 백성을 옮겨 살게 해 변방을 튼튼히 하라” 346)고 하며 “삼한을 평정하면 장차 서경에 천도 하겠다” 347)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방의 거란족과의 관계는 부정적이었다. 특히 거란이 925년 발해를 멸망시키면서 942년 10월 고려는 거란사신에게 “거란이 예전부터 발해와 화목하게 지내오다가 문득 다른 생각을 내어 옛날의 맹약을 돌아보지 않고 하루아침에 멸망시켰으니 무도함이 심하다. 그러니 멀리 화친을 맺어 이웃으로 삼을만하지 못하다” 하고는 그 교빙을 끊었으며, 그 사자 30명을 바다에 있는 섬으로 귀양 보내고, 낙타는 만부고 밑에 매어놓아 모두 굶어 죽게 하였다.³⁴⁸⁾ 또한 947년 고려는 거란의 침략에 대비하여 광군사를 설치하고 군사 30만 명을 뽑도록 하였다.³⁴⁹⁾

거란과의 국교 단절뿐만 아니라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이러한 조치는 고려로서도 상당히 강경한 대응이었다. 이후 고려는 꾸준히 북진을 하여 압록강 주변의 여진족을 몰아내었다. 이러한 것은 여진족에게 상당히 반발을 산 것으로 보인다. 984년 고려는 이점의로 하여금 압록강 언덕에 성을 쌓고 관문의 성으로 하게 하였는데 여진이 군사를 이끌고 이점의를 사로잡아 간 사건이 발생했다.³⁵⁰⁾ 이러한 사실들로 볼 때 고려는 북방의 유목민족과 꾸준히 대립하며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송과는 영토적 마찰이 없었고, 공통된 적이 존재함으로 고려는 굳이 송과 적대적인 관계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므로 송과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하였다. 고려의 이러한 정책은 북방민족의 반발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4. 시대상황

송은 거란을 공격했으나 결국 그들의 목적인 연운 16주 달성에 실패하였고, 서하의 공략으로 양방의 위협을 당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거란과의 장

346) 위의 책 1권 태조 원년 9월.

347) 위의 책, 태조 15년 5월.

348) 『고려사절요』 제1권 태조 25년.

349) 위의 책, 제2권 정종 2년.

350) 위의 책, 성종 3년.

기적인 전쟁보다는 서하를 먼저 굴복시킬 필요가 있었다.

반대로 거란은 송을 공격하기 전 동쪽의 여진과 고려를 제압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거란은 여진을 복속시키고 송과의 관계를 풀도록 하기 위해 압록강 인근을 제압할 필요가 있었다. 거란은 991년 2월 압록강 하구의 강구에 위치한 위구(威寇), 진화(振化), 내원(來遠)의 세 곳에 성을 쌓고 군대를 주둔시켰다.³⁵¹⁾ 여진과 송과의 교류를 막은 거란은 이제 고려를 굴복시키고 여진을 더욱 압박할 차례만 남았다.

거란이 3성을 축성하고 있던 상황에서 고려는 압록강 밖의 여진을 백두산 밖으로 내쫓아 그 곳에 살게 하였다.³⁵²⁾ 그리고 993년 5월에 서북계의 여진이 보고하기를 “거란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침노할 것을 모의한다.” 고 하며 여진이 고려에 정보를 넘겼다.³⁵³⁾ 하지만 고려는 여진과 사이가 좋지 못하였으므로 여진의 정보에 대해 고려조정은 믿지 않았다.

고려는 자신의 영토 확장을 위해 북진을 하고 있었으며, 거란은 송과의 결전을 위해 고려와 여진을 압박할 필요가 있고, 송은 서하를 정벌할 때 까지는 거란과의 전쟁은 피해야만 하였고, 여진은 거란과 고려에 의해 동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함경북도 지방에는 동북아의 모든 국가들의 이익이 달려있는 중요한 지역이 되었다.

IV. 위기관리로 보는 1차 고려전쟁

1. 위기발생전의 위기관리

위기발생전의 위기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발생요인을 미리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란은 송을 제압하고 여진을 공략한 후 압록강 하구에 세 곳에 성을 쌓고 군대를 주둔시켰다. 거란의 군사적 압력이 점차 증가하자, 고려도 대응 경계태세를 강화하였다. 그런 후 거란의 수교제개 요청을 거절하는 한편, 동서북면에 진을 설치하고, 병마사에게 국왕이 부원을 주어 방어체제를 확립하도록 했다. 이렇게 압록강에서 서로 마주 보게 된 거란과 고려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에 자신의 의지를 강요해야 하는 상황이 압박했음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고려의 위기는 위협의 근원이 상충된 이해관계에 있는 상대의 고의적이고 직접적인 도발행위로부터 유발된 위기상황을 해결하려는 노력인 교

351) 『요사』 12권 성종기4 통화 9년 2월.

352) 『고려사절요』 제2권 성종 10년.

353) 위의 책, 성종 12년.

쉽적 위기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거란군의 침입이 임박한 가운데 고려는 거란의 침공에 대해 여진으로부터 정보를 얻었다. 993년 5월 여진이 거란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 고려에 보고했지만, 당시 고려는 여진과도 전쟁중이었으므로 여진의 정보를 신뢰하지 않았다.³⁵⁴⁾ 하지만 이것은 거란의 침공로에 대해 고려는 여진을 통하여 상당한 수준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정보의 우위는 고려의 외교·군사적 움직임에 상당히 긍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정보의 우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는 위기발생요인을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활동에는 적극적이지 못했다.

993년 8월 여진이 다시 고려에게 거란의 침략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리자 고려는 비로소 일이 급함을 알고 여러 도의 군마제정사를 나누어 보냈고, 겨울 10월에 시중 박양유를 상군사로, 내사시랑 서희를 중군사로, 분하시랑 최량을 하군사로 삼아 북계에 보내어 거란을 막게 했다.³⁵⁵⁾

이러한 상황에서 거란은 고려를 침략하여 봉산군³⁵⁶⁾을 쳐서 선봉군사인 급사중 윤서안 등을 잡았다.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자 서희는 군사를 이끌고 봉산군을 구원하러 가는 도중 소손녕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글을 받는다.

대조(거란)가 이미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했는데, 이제 너희 나라가 강토의 경계를 침탈하니 이 때문에 죄 있는 무리를 군대로 쳐서 바로 잡도록 한다. 또한 대조가 사방을 통일하는데 귀부하지 않은 자는 기필코 소탕할 것이니 속히 와서 항복하고 지체하지 말라. (遼寧聲言 大朝 既已奄有高句麗舊地 今爾國 侵奪疆界 是用征討 又移書云 大朝 統一四方 其未歸附 期於掃蕩 速致降款 毋涉淹留)³⁵⁷⁾

이미 군사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란의 행동이 특이하다. 거란은 외교보다는 군사적 행동에 익숙한 유목민이며, 전쟁을 하려고 할 때에는 기병의 기동력을 이용하여 속전속결로 자신이 추구한 전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움직였다. 특히 장기적인 전쟁은 거란에게 익숙하지 않으며, 단지 선봉을 쫓은 것으로 고려에게 화친을 요구하고 있다.

서희는 이러한 것을 보고 거란과 화친할 가능성을 생각했다. 특히 거란이 남진하지 않고, 항복만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서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능성을 보았을 것이다.

첫째 거란군은 고려와 접전을 통해 군사력을 상실하는 것을 원하지 않다. 특히 고려는 수성위주의 전략으로 거란의 공격을 막을 것으로 예상되고, 거란은 공성능력이

354) 『고려사절요』 제2권 성종 10년.

355) 위의 책, 제2권 성종 12년.

356) 지금의 평북 귀성.

357) 위의 책.

부족했다. 또한 고려와의 대규모 접전을 통한 군사력 상실은 동북아의 패자로서의 거란의 위상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거란군의 병력이 적고, 전쟁지속의 능력이 부족할 경우이다. 윤서안 부대와 거란의 접전을 통해 거란은 고려의 저항의지가 상당한 수준이며, 저항 능력에 대해서도 평가했을 것이다.

셋째 거란의 발언이 고려에게 협박을 한다는 것이다. 항복하지 않으면 소탕하겠다고 압박함으로써 거란은 최소의 군사 움직임으로 최대의 성과를 얻으려 하였다. 특히 거란은 고려에 대한 침략 의도 보다는 송과의 전쟁기간동안 고려가 군사적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원했다.

서희는 성종에게 상황이 화친할 수 있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몽진을 파견하였는데 소손녕이 다음과 같은 글을 보내어 다시 협박했다.

80만의 군사가 다다르리라. 만약 강에 나와 항복하지 않으면 마땅히 모두 멸할 것이니 군신이 빨리 진영 앞에 와서 항복하라. (八十萬兵 至矣 若不出江而降 當須殄滅 宜君臣 速降軍前)³⁵⁸⁾

이 글을 통해 거란의 의도는 명백해졌다. 거란이 원하는 것은 고려와 전쟁을 통해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의 항복이었다. 고려는 협상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 글을 통해 확인했을 것이다. 하지만 고려는 위기를 미리 막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위기발생전의 위기관리는 비성공적이다.

2. 위기상황에서의 위기관리

위기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줄이고, 2차적인 위기발생을 억제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다. 또한 위기상황에서는 급작스러운 상황발생과 사태진전의 불확실성과 사태해결을 위한 시간의 부족과 같은 난관이 있다. 당시 고려는 최고의 군사 강국인 거란을 군사적으로 제압할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고려가 지향해야 할 위기관리 목표는 확연한 패배자가 되지 않는 것이다.

가. 위기상황적후의 위기관리

고려는 이미 봉산군 지역 전투 이래 거란과의 전쟁에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다. 이미 송과 여진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거란의 군사력에 대해 고려는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거기에 초기 전투에서 패배했고, 소손녕의 위협에 고려 조정은 위축되어 소극

358) 위의 책, 제2권 성종 11년.

적으로 대응했다.

소손녕은 첫 전투 이래 더 이상 남진하지 않고 고려군과 대치한 채 항복만을 요구했다. 고려 조정에서는 이몽전을 파견하여 강화교섭을 시도했으나, 소손녕은 계속 항복만을 요구했다. 이몽전이 조정에 돌아와 화친에 앞서 항복부터 하라는 소손녕의 요구를 전하자 고려는 중신 회의를 소집하여 대책을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대응방법은 2가지로 나타났다.

첫째는 항복론이다. 왕은 서울로 돌아가고 대신 한명을 시켜 군사를 거느리고 항복을 청하는 의견이다. 이러한 경우 고려는 완벽한 거란의 속국이 되며, 많은 양의 공물을 바쳐야 할 것이다.

둘째는 할지론이다. 항복 대신에 서경 이북의 땅을 거란에게 떼어주고 황주에서 절령까지를 경계로 삼자는 것이다. 이것은 항복에 대한 부담을 지기 보다는 고려의 서북방의 땅을 포기함으로써 적군을 물려나게 하는 것이다.

당시 고려국왕인 성종은 할지론을 택하고 서경의 창고를 방출하고 남는 것은 강물에 던져 거란의 식량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때 제3의 주장을 하는 사람이 등장했다. 그가 바로 서희이다. 서희는 “식량이 넉넉하면 성을 가히 지킬 수 있고, 싸움에서 승리할 수 도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병력이 강하고 약한 데만 달린 것이 아니라 만일 적의 약점을 잘 알고 행동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서 갑자기 쌀을 버리려고 합니까? 하물며 양식이란 백성의 생명을 유지하는 물건입니다. 차라리 적에게 이용이 될지언정 어찌 헛되이 강물에 버린단 말입니까? 이것은 또한 하늘의 뜻에도 부합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59)라고 하며 성종을 설득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서희는 “거란의 동경으로부터 우리 안북부에 이르기까지 수백 리의 땅은 모두 여진이 웅거하던 곳이었는데 광종대에 그 일부를 되찾고 가주와 송성 통지에 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번 거란이 침입한 목적은 두 성을 취하는 데에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고구려의 옛 땅을 모두 취하겠다고 한 것은 위협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거란의 군대가 크고 성한 것만 보고 선뜻 서경 이북의 땅을 떼어주는 것은 무모한 일로 좋은 대책이 아닙니다. 또한 삼각산 이북도 고구려의 땅인데 저희들이 터무니없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대로 다 내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영토를 적에게 떼어 주는 것은 만세의 치욕이 될 것입니다. 원컨대 임금께서는 개경으로 돌아가시고 신 등으로 하여금 적과 더불어 한번 싸우게 한 뒤에 다시 논의 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360)고 성종에게 건의했다. 또한 이지백은 축한이 위에 땅을 넘긴 후 결국 패망한 사례를 들어 할지론의 허구성에 대해 비판했다.

성종은 결국 서희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고려조정에서 위기관리를 위한 방향을 거

359) 『고려사』 제94권 열전 서희전.

360) 위의 책.

란과의 전쟁을 벌이기로 결정할 때 거란의 소손녕은 이몽진이 돌아온 뒤에 오래도록 회보가 없자 남진하여 안용진을 공격하는 급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이때 중랑장 대도수와 낭장 유방이 소손녕과 싸워 이겼다.³⁶¹⁾

사태의 전진이 안용진 전투의 승전으로 인해 긍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소손녕 역시 감히 다시 전진하지 못하고 고려에 사람을 보내 항복하기를 재촉할 뿐이었다. 이에 고려에서 장영을 거란의 진영에 보냈는데 결국 그는 큰 성과 없이 되돌아왔다. 이에 본격적인 협상을 위해 서희가 파견되었다.

나. 본격적인 위기상황에서의 위기관리

이제 고려의 운명은 서희의 외교협상에 달려있게 되었다. 서희가 국서를 가지고 소손녕의 군영으로 가서 통역을 시켜 회견하는 절차를 물었다. 이에 소손녕은 “나는 대국의 귀인이니 고려 사신은 마땅히 뜰에서 절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희는 “신하가 임금에게 절할 때에 아래에서 하는 것은 예이지만 지금 양국의 대신들이 대면하는 좌석에서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라며 이를 거절하였다. 또한 소손녕이 이를 고집하자 서희는 숙소로 돌아갔다.³⁶²⁾

거란이 군사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응은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거란은 군사적으로 고려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을 들어 외교적 우위를 찾으려 했고, 또한 외교 협상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군사적 행동으로 고려를 압박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었다. 서희는 비록 적진에서의 협상이지만 거란의 압박에 대해 거부하고 고려의 의지를 표현하여 거란과 고려가 동등한 입장이라는 것을 서희는 회답을 거부하고 숙소로 돌아가는 행동으로 나타냈다. 이러한 것은 급작스럽게 발생한 안용진 전투에서의 승리로 인해 고려가 전쟁에서 일시적인 주도권을 갖게 된 것과 연관이 있다.

서희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소손녕은 서희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등한 예를 갖추고 답판에 들어갔다. 고려사 열전에서는 이를 소손녕이 내심으로 그의 인품이 비범함을 생각하였다고 했지만, 이러한 것 보다는 거란으로서는 송과의 전쟁을 앞두고 고려와 소모성 전쟁을 하기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서희는 이러한 거란의 입장을 잘 파악하여 적진에서도 최대한 유리한 상황에서 답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제 서희와 소손녕과의 답판이 진행되었다. 소손녕은 “당신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데 고려가 고구려 땅을 침식했고 또한 고려는 우리와 접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통교하지 않고 바다 건너 송을 섬기는 이유로 출병하게 된 것이니 만일 고려가 영토를 때어 거란에 바치고 복속하면

361) 『고려사절요』 제2권 성종 12년.

362) 『고려사』 제94권 열전 서희전.

무사할 것이다” 363)고 했다.

이에 대해 서희는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는 바로 고구려의 후계자이다. 그러므로 나라 이름을 고려라 부르고 평양을 국도로 정하였다. 그리고 경계를 가지고 말하면 거란의 동경이 우리 국토 안에 들어와야 하겠는데 당신이 어떻게 침범했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또 압록강의 주변이 모두 우리의 영역인데 지금 여진이 그 중간을 강점하고 있으면서 완악한 행위와 간사스러운 태도로서 교통을 차단했으므로 바다를 건너기보다 왕래하기 곤란한 형편이니 국교가 통하지 못함은 여진의 탓이다. 만일 여진을 몰아내고 우리의 옛 땅을 회복하여 거기에 성들과 보들을 쌓고 길을 통하게 된다면 어찌 국교를 통하지 않겠는가? 장군이 내 말을 귀국의 임금에게 전달하기만 한다면 어찌 받아들이지 않을 리가 있으랴? 364)” 라고 답했다.

이 회답내용을 살펴보면 고구려계승문제로 정당성을 확보하고 현실적인 요구를 양국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소손녕의 말을 잘 살펴보면 거란은 고려보다는 송이 더욱 위협적이지만 송과의 전쟁을 위해서는 고려와 송과의 동맹을 방해해야 했다. 이 요구를 위해 고려에게 동맹을 깨는 확실한 증거인 영토를 바치라고 한 것이다. 하지만 서희는 이러한 적의 의도를 확실하게 알았다. 먼저 고구려의 계승문제에 대해서 가장 의지가 확고한 국호와 국도를 말해 거란의 명분을 꺾었다. 이러한 계승문제에 대해서 이긴 것은 결국 거란에 대해 명분상으로 고구려의 옛 땅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송과의 전쟁에서 거란의 후방을 위협하는 여진에 대해 고려가 여진을 견제하겠다고 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거란과 왕래를 하겠다고 함으로 거란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고려가 제시했다.

소손녕은 고려가 거란의 침략 목표인 고려와 송과의 동맹을 깨트림과 동시에 고려로 하여금 여진까지 견제하도록 하는 성과를 획득하여 이를 왕에게 보고했다. 이에 거란군은 철군하게 된다.

3. 위기상황후의 위기관리

위기상황후의 위기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복구와 재발방지와 위기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려는 위기관리의 목표인 거란의 철군이 이루어져서 매우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했다. 이에 서희가 돌아오자 박양유를 파견하여 거란에게 예물폐백을 전하도록 했다. 이것은 매우 성급한 조치였다. 먼저 거란이 철군하기는 했으나 협상에 의하면 고구려의 옛 영토를 고려에 넘기는 것이 조건으로 되어 있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서희는 “신이 소손녕과 약속하기를 ‘여진을 소탕하여 평정하고 옛 땅을 수복한 뒤에 조방을 통하겠다.’ 하였는데 이제 겨우 압록강 안쪽만 수복하였으니 청컨대 강 바깥

363) 위의 책.

364) 위의 책.

쪽까지 수복하기를 기다렸다가 조빙을 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라며 반대했다. 하지만 고려 내부에서는 이미 전쟁이 끝난 분위기가 흘렀으며, 거란의 위협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고려성종은 “오래도록 조빙을 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까 두렵다”라고 주장하고 마침내 박양유를 거란에 보냈다.³⁶⁵⁾

거란이 철수한지 다음해에 소손녕이 서한을 보냈다.

요사이 황제의 명령을 받들어 보니 ‘고려는 일찍부터 국교를 통하고 국경지역이 서로 맞닿아 있는데, 비록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길 때는 본래 법규와 의식이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려면 모름지기 오래 지속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니 만약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사신의 왕래가 중간에서 방해받을까 염려되니 고려와 의논하여 곧 요충 길목에 성과 못을 쌓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얼마 뒤 이 명령에 준하여 곧 참작하여 압록강 서리에 5개의 성을 쌓기로 하여 3월 초에 성을 쌓을 곳에 이르러 수축에 착수하기로 했으니 삼가 청컨대 대왕께서 미리 먼저 지휘하여 안북부에서 압록강 동쪽에 이르기까지 280리 사이에 적당한 토지를 답사하고 거리를 참작하여 아울러 성을 쌓도록 하여 역부를 보내 같은 시기에 착수하도록 하고 그 쌓아야 할 성의 수를 알려주기 바란다. 중요한 것은 기마의 길을 터서 고려가 거란에 조공하는 길을 열어 거란을 섬김으로서 고려 스스로 평안할 계책을 하기를 바란다.

이에 고려는 거란과 교류하기 시작하면서 압록강 이남의 280리 땅에 성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서희는 군대를 이끌고 이 지역 여진을 축출하는 한편 장흥, 귀화에 진을 설치하고 좌주, 귀주에 성을 쌓고 이듬해 또 다시 군사를 이끌고 안의, 홍화 두진에 성을 쌓았으며 그 다음해에는 전주, 맹주 두 곳에 성을 쌓았다.³⁶⁶⁾

이렇게 거란과 약속한 것을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고려는 동북아의 균형이 거란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송나라에도 사신을 파견했다. 994년 6월 원옥을 송에 보내 군사를 얻어 지난해의 전쟁을 보복하기를 청했더니 송은 북쪽 변방이 겨우 편안해졌는데 경솔하게 움직여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돌려보냈다. 이로부터 고려는 송나라와 국교를 끊었다.³⁶⁷⁾

365) 『고려사절요』 제2권 성종 12년.

366) 『고려사』 94권 열전 서희전.

367) 『고려사절요』 제2권 성종 13년.

V. 결론

1차 고거전쟁에서 서희의 역할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중요하다. 먼저 거란이 침입 해오자 바로 전쟁에 군사를 이끌고 참전하였으며, 고려 내부의 의견을 항복이 아닌 전쟁으로 바꿨다. 또한 상대방의 전략적 목표를 간파하여 상대방의 전략적 목표를 보장해주고, 이에 대해 고려는 거란군의 철수와 강동 6주를 획득하는 등 큰 성과를 얻었다.

사실 서희가 이러한 활동을 한 것에는 큰 배경이 있었다. 그것은 고려가 추진했던 북진정책과 관련이 깊었다. 947년 고려는 거란의 침략에 대비하여 광군사를 설치하고 군사 30만 명을 뽑도록 하였다.³⁶⁸⁾ 또한 고려는 북진정책을 위해 꾸준히 여진을 몰아내며 전투경험을 습득하였고, 북방의 영토를 획득하고 이를 요새화 하였다. 그리고 같은 민족이 새로운 국가인 발해를 거란이 공격하여 멸망시킨 것에 대하여 상당히 큰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대표가 서희다.

서희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소손녕과의 외교를 통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연구가 있었다. 또 다른 연구의 방향은 서희의 선 항전 후 협상전략이 전쟁 승리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전자의 경우 서희의 외교적인 성과를 강조함으로 성공적인 협상의 요체에 대해서만 설명하였고, 후자의 경우에는 거란군의 군사력과 침공로, 그리고 고려의 대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서희의 외교적·군사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한다. 하지만 연구가 미약한 부분이 있다. 당시 고려의 상황을 고려하면 거란이라는 강력한 세력이 새롭게 동북아의 강국으로 떠올라 동북아의 패권을 노리며 세력균형을 무너트렸다. 이러한 새로운 질서는 한국에게 위기를 강요할 수 있다.

새로운 세력의 등장이나 기존 세력의 변동은 주변 세력에게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북쪽의 대륙세력과 남쪽의 해양세력에 영향을 받는 반도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가는 미국을 비롯하여 중국, 러시아, 일본과 같은 강대국임으로 한반도는 위기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국가의 경우에는 위기가 반복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방법에 이러한 구절이 있다. “天下雖安 忘戰必危.” 이 구절을 해석하면 천하가 아무리 태평하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는 것이다. 위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한반도의 경우에는 평시에도 예상되는 위기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태세를 구축하는 태세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위기상황에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위기에 효

368) 위의 책, 제2권 정종 2년.

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로 줄이고, 2차적인 위기발생을 억제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 위기 극복 후에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복구와 재발방지를 하며 다시 위기상황 전에처럼 준비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NSC³⁶⁹⁾ 산하에 위기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 이론적으로 뒷받침 하는 위기관리에 대한 방법론적 연구와 위기해결을 위한 근원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과거의 사례를 연구하여 효과적인 방법에 대하여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369) NSC : National Security Council : 국가 안전 보장 회의.

참 고 문 헌

<논문>

- 정경영, 2007, <동북아 안보와 위기관리> 《전략연구 통권 제41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한용섭, 1999, <한반도 위기사태 유형과 효과적 위기관리> 《전략연구 통권 제17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참고서적>

- 김기홍, 2004 《서희, 협상을 말하다 : 내부협상의 거울을 통해 본 한국, 한국인》, 새로운제안
- 김열수, 2005, 《21세기 국가위기관리체제론-한국 및 외국의 사례비교연구》, 오름
- 김재만, 2005, 《거란,고려 관계사 연구》, 국학자료원
- 김종서, 민족문화추진회 옮김, 2004 《고려사절요》 신서원
- 육군사관학교, 2006, 《국가안보론》 박영사
- 윤태영, 2005, 《한국위기관리론》, 인간사랑
- 이극찬, 2004, 《정치학》, 법문사
- 임용한, 2004, 《전쟁과 역사,2,거란,여진과의 전쟁》, 해안
- 장철균, 2004, 《서희의 외교담판: 고구려 영토수복 어떻게 가능했나》, 현음사
- 장학근, 2004, 《고려의 북진정책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정인지, 《고려사》
- 조영갑, 1995, 《한국위기관리론》, 팔복원
- 탈호탈(脫虎脫), 《요사》
- 토르토(脫脫), 《송사》

